



나와 세계

1.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2. 나를 둘러싼 시각 문화
3. 가상 공간 속으로
4. 미술과 다양한 분야
5. 미술과 직업



단원 개관

이 대단원은 미술을 통하여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한다. 다양한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 이미지와 정보를 찾아 해석할 수 있는 시각적 문해력, 다양한 분야를 미술과 관련짓는 융합 능력을 기른다.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탐색하고, 시각 문화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술을 살펴보고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서 자연의 조형미를 발견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조형미를 활용한 예를 탐색한다. 나아가 인간이 만든 매체와 시각 문화, 지구촌의 시각 문화, 도시의 축제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시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아가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만든 가상 공간에 대하여 체험함으로써 확장되고 있는 시각 문화에 대하여 탐색한다. 미술은 문학이나 음악, 공학 등과 융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융합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융합 방안을 탐색하고 정교화하며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단원 목표

- 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
- 시각 문화 속에서 시각 이미지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
- 시각 매체의 특징에 따른 시각 이미지의 올바른 활용을 계획할 수 있다.
- 미술과 다양한 분야가 영향을 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단원 교수·학습 계획

소단원명	차시	학습 내용	교과서 쪽
1.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2	• 자연 현상과 자연물에서 자연미 탐색하기 • 자연미를 살린 다양한 유형의 조형물 탐색하기	4~5
2. 나를 둘러싼 시각 문화	3	• 시각 이미지가 지닌 사회적 의미 이야기하기 • 생활 속의 시각 문화 탐색하기 • 세계 여러 나라의 시각 문화 이해하기 • 우리 지역의 축제를 찾아보고 의미 이야기하기	6~9
3. 가상 공간 속으로	3	• 가상 공간의 특징과 미술과의 관계 이해하기 •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시각 문화의 사례 탐색하기 • 가상 공간을 형성하는 기술적 특성과 시각적 효과 분석하기	10~13
4. 미술과 다양한 분야	3	• 미술을 다른 분야와 관련짓기 •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이루어진 미술 작품 탐색하기 • 다른 분야와 미술이 융합한 사례에서 분야별 적용과 방법 분석하기	14~17
5. 미술과 직업	3	•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종류 탐색하기 • 미술 관련 직업에 관한 직업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18~19

1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교과서 pp. 4~5

단원 설정 이유	자신과 환경, 현상의 관계를 자연 속에서 찾아보고 체험하며 탐구해 나가기 위해 설정하게 되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현상과 자연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자연미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차시	2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조형미에 대한 탐색 능력 • 자신이 속한 문화와 자연환경의 관계 탐색 능력
평가 방법	관찰법, 발표 및 토론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1-01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 [생각 열기]
-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 경험했던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전개

- [이해 학습]
- 자연이 지닌 조형미에 대한 이해를 피하게 한다.
 - 자연현상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의 원리를 찾아보게 한다.
 - 대지 미술에 대해 안내하고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미의 발현 사례를 찾아보게 한다.
 - 우리 주변 환경에서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를 이룬 사례를 이야기해 본다.
- [탐구 활동]
- 학교 등곳길에 체험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 자연의 조형미를 활용한 일상생활의 사례를 탐색해 보게 한다.

정리

- 자연미를 탐색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일상생활에서 자연미를 활용한 사례가 지닌 시각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지도상의 유의점

- 미술관에서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우리 주변 환경이 모두 조형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의식을 형성시켜 준다.
- 학습자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자연의 형태와 색을 자세히 관찰하여 구조와 규칙, 조형적 특징을 발견하게 한다.
- 자연을 오감을 활용하여 느껴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골즈워드 / 낙엽 미술**
조각가이면서 사진가, 환경 운동가를 겸하며 대지 예술가, 자연주의자로 불리는 골즈워드는 1987년 자연이 지닌 아름다

나의 세계

01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학습 목표 • 자연 현상과 자연물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자연미를 활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생각 열기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느껴 보자.



자연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 보고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라. 아름다운 경관을 볼 때면 우리는 절로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고 오감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자연미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어 천속하고 평온함을 만들어 준다.



오로라,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오션안반호 오로라와 일몰으로 찍힌 별들이 아우라처럼 밝아 아름다운 자연미를 다룬다.



골즈워드(Goldsworthy, Andy/영국/1956~) 낙엽 미술(낙엽인형/1987년 작) 자연의 재료를 사용해 자연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였으며 자연과 미술의 하나임을 추구한다.



왕세종(왕정)의 '죽은 나무' (죽은 나무/2016년 작) 예술사(7x5cm/2016년 작) 등교길에 만난 자연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탐구 활동 1
자연미 탐색하기

등교길에 만난 자연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더 알아보기 대지 미술

1960년대 후반 산업 발달에 따라 세계 각지에서 각종 공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술가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대지 미술은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순환성, 자연의 조형성 등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갖고 그 안에서 자연과 하나되는 것을 꾀한다.

4

움을 낙엽이 흘러 체인을 만들고 다음날 가운데 홀이 만들어져 있는 단풍잎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았다. 그는 사이즈에 의한 배치, 명도에 의한 배치, 그라데이션을 이용하여 재료를 배열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골즈워드(Goldsworthy, Andy/영국/1956~) 깨진 조각돌(조각돌/1985년 작) -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작품이다.

- **도허티 / 원의 행렬**
“커다란 구조물의 가운데 들어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색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나뭇가지를 재료로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그는 자연물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도허티(Dougherty, Patrick/미국/1945~) 덕평 자연 휴게소(2013년 작) - 도자기에서 모티프를 얻어 작업하였다.



창덕궁 후원(한국 서울/조선 시대)

앞줄거리 정원의 두 가지 의미

일반적으로 정원은 구획된 틀 안에 준비되고 정비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원은 테두리로 막혀 있지 않고 개방적이고 야성적인 공간으로 '寬'의 의미를 지니는데 대표적으로 창덕궁 후원(宮後苑)이 있다. 이렇듯 한국의 정원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순응의 원리와 단순함의 미학, 때로는 절박한 소박함이 깃들여 있다.

자연미를 살린 조형물

자연은 사람이 만들어 낸 다양한 매체와 함께 우리의 감성을 자극시키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의미를 만든다. 자연이 지닌 조형미는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친숙하면서 새로운 조형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아티미 훈(伊丹篤/재일 교포/1937~2011) 보도 호텔(한국 제주/2001년 작) 제주의 전통 초가와 오름을 닮은 형태(아티미 훈)에서 나타난 보도 호텔 모양이다.

부울렉 형제(Bouroullec, Ronan & Bouroullec, Erwan/프랑스/1971~ & 1976~) 작은 가지들(2004년 작) 작은 가지의 형태에서 벗어나 나뭇가지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연출하였다.



돌(Oliver/프랑스/1981~) 나뭇가지 벽 산방(branch/합판에 오크 나무나뭇가지/240x220x25cm/2011년 작) 네모난 책장의 형태에서 벗어나 나뭇가지를 연상시키는 벽 산방이다.



게리(Gehry, Frank O./캐나다-미국/1929~) Untitled(London)철사, 폴리머, 알루미늄 나무/56x48x65cm/2013년 작) 물고기의 형상과 움직임을 조형에 담아냈다.

탐구 활동 2

생활 속 자연미 탐색하기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예들을 찾아보자.

점검해 보기

- 자연미를 탐색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일상생활에서 자연미를 활용한 사례가 지난 시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탐구 활동 1 자연미 탐색하기

- ① 등갓길에서 접했던 자연물이나 현상을 이야기하게 한다.
- ② 자연물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찾아보게 한다.
- ③ 자신 혹은 친구가 자연환경의 일부가 되어 사진을 찍어 보게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부울렉 / 알그스크린 시스템

플라스틱 가지 모양의 유닛을 여러 개 이어서 공간을 구분하도록 한다. 순수하게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서정적인 공간을 연출하도록 한다.



부울렉 형제(Bouroullec, Ronan & Bouroullec, Erwan/프랑스/1971~ & 1976~) 작은 가지들(Twigs, PP, ABS, unit/86x25x209cm/2004년작) 참고 동영상: www.vimeo.com/111437252

● 게리 / Untitled London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자연의 형태로, 물고기의 형상과 움직임을 탐색한 게리는 조명, 조형물, 건축물 등을 물고기의 형태에서 찾았다. 날카로운 선과 예각, 기하학적 구성 등이 두드러져 파격적이며 드라마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리(Gehry, Frank O./캐나다-미국/1929~) 물고기 모양 레스토랑 조형물(200cm/1986년작)



게리(Gehry, Frank O./캐나다-미국/1929~)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티타늄/1991~1997년 작)

탐구 활동 2 생활 속 자연미 탐색하기

- ① 자연과 인공물이 어우러진 사례를 찾아본다.
- ② 우리 주변의 건축을 포함한 사물이나 이미지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사례를 찾아본다.

■ 지식 참고

자연에서 찾은 형태

• **바이오모픽(biomorphic):** 생명 형태적 혹은 생물 형상적 미술로서, 특히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에 기초를 둔 불규칙하고 우연한 형태에 근거한 추상 미술을 가리킨다. 기하학적 추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추상 미술의 한 형식으로 손꼽힌다. 루시-스미스(Edward Lucie-Smith)의 정의에 의하면 '바이오모픽'이란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형태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불규칙한 추상 형태들을 포함한다. 주로 꽃이나 식물, 남성과 여성의 성기(性器) 및 생명체 혹은 생명 현상과 연관된 모티브를 사용하는 유기체적인(organic) 양식이다.

• **바이오미메틱스(biomimetics):** 생물, 특히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모방해서 이용하는 기술로 바이오미메틱스케미스트리, 바이오일렉트로닉스, 바이오메커닉스 등이 있다. 인공 효소의 개발, 인공 생체막 연구, 신경 회로망과 같은 생체 정보 처리의 모델화, 생체기능을 공학적으로 연구하여 기술적 문제에 응용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생체 모방, 생체 모사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헤르조그 & 뫼롱(Herzog, Jacques & Meuron, Pierre De/스위스/1950~ & 1950~) 베이징 경기장(2003~2008년 작) - 새의 등지 모양을 모방해 만든 경기장



커코스키(Cutkosky, Mark/미국) 스틱키 보트(Sticky bot)(2006년 작) - 도마뱀의 발바닥 구조를 모방해 벽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만든 로봇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dAifpDbhs

2 나를 둘러싼 시각 문화

교과서 pp. 6~9

단원 설정 이유	시각 환경은 자연 사회와 주변 환경 등 문화를 형성하는 이미지에 대한 탐색하고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 학습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의미를 읽어나가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이야기 할 수 있다.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시각 문화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문화를 이루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 시각 문화를 이루는 이미지의 전달방식에 대한 이해 능력 • 사회 문화적 가치의 판단 능력
평가 방법	서술형 검사법, 발표 및 토론법, 연구 보고서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능력
성취 기준	9미01-01 / 9미01-02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우리 생활 주변이나 매체를 통해 접했던 시각 이미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탐구 활동 1]

- 생활 속의 시각 문화 살펴보기

전개

[매체와 시각 문화]

- 이미지를 형성하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확인시킨다.
- 같은 의미를 담은 시각 이미지를 다른 매체로 전달했을 때 이미지의 전달 효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시킨다.

[지구촌 문화와 상징]

- 세계의 문화를 구분하고 그 차이를 이루는 요소를 살펴본다.
-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국가 상징에 대한 이해를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꾀하게 한다.
- 세계인이 공유하는 문화적 상징과 국가적 상징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도시의 축제와 시각 문화]

- 축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사회 문화적 영향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 축제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각 문화는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한다.

[탐구 활동 2]

- 세계의 주거 문화 알아보기

[탐구 활동 3]

- 우리 지역의 축제 찾아보기

정리

-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 시각 매체에 따른 이미지 전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나의 세계

02 나를 둘러싼 시각 문화

학습 목표

- 이미지가 지닌 사회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시각 문화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생활 속에서 만나는 시각 이미지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각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소통한다.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전통적인 건축이나 축제, 다양한 사물의 형태, 모두가 한 시대의 시각 언어이며 시각 문화를 형성한다.

이영실(한국/1977-) F 브랜드 원형 전사(박스, 마차, 그래픽 출력기)를 설치(2012년 작) 서로 다른 공간이라도 각 공간의 특성을 고려적으로 활용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소통하고 있다.

여군동(한국/1988-) J구 좋은 간판 2015 대상(2015년 작) 가짜의 이름을 새긴 이미지와 독특한 글씨체로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탐구 활동 1 생활 속의 시각 문화 살펴보기

생활 속에서 시각 문화를 형성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6

지도상의 유의점

- 학습자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친숙한 사례를 제시하도록 한다.
- 같은 의미를 담은 이미지를 다양한 매체에 제시된 사례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매체가 지닌 특성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여군동 / J 구 좋은 간판 2015 대상작

여군동 영화감독이 디자인하고 글씨는 캘리그래퍼인 강병인이 담당하였다. 검은색 바탕에 고상하게 자리잡은 새빨간 글씨가 마치 앵두 열매를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으며 S시 좋은 간판 2015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S시는 개성 있는 간판, 아름다운 간판, 조화로운 간판을 대상으로 매해 좋은 간판을 선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간판이 작아도 벽돌 건물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보여준 구름, 업종의 특성을 잘 살린 모자 가게 등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앵두꽃, 남남남 간판 등이 선정되었다.

참고: http://goodsign.seoul.go.kr/seoulgoodsign/n_contents/



매체와 시각 문화

기술의 발달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하는 새로운 매체는 우리에게 색다른 이미지를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각 이미지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듯 우리는 매체를 활용하고 이미지 속의 의미를 읽어가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광복 70주년 플래시몹 (한국 서울/2015년 작)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제로의 플래시몹을 하며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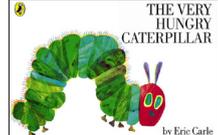
원Mioon(한국/2003년) 올림 'With or Without You'(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15년 작) 각 영역에 소각물을 만화경처럼 미디어 파사드로 표현하였다.



D4(미국) 테마파크 D랜드(미국 올랜도/1995년 작) 만화 영화 속 세상이 재현되어 사람들이 허구인 내용을 실제처럼 체험하고 인식하게 한다.



이제석(한국/1982~) 부산 남부경찰서 옥외 광고(실현치: 간판 철만 500x1000cm/2011년 작) 찾아온 배강원과 풀고 가는 자동차 실물을 직접 배치한 색다른 표현 방법으로 효과적이며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한 옥외 광고 디자인이다.



칼(Eric Carle/미국/1929~) 베르그 에펠레 일러스트/가변 크기/1969년 작) 에펠레의 특징을 단순한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작가만의 독창적 표현은 동화책의 내용을 더욱 강조시킨다.

와유거리 거리 미술, 그래피티

그래피티는 충격적이고 골칫거리인 낙서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거리풍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다. 예술성과 공공성을 지닌 새로운 예술 지표가 된 그래피티는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심한양(한국/1989~) 그래피티(Graffiti/미국 로스앤젤레스 /2016년 작) 미국에 있는 건물 외벽에 한국적인 표현을 했다.



탐구 활동 1 생활 속의 시각 문화 살펴보기

- 도판의 예시 속에서 우리 주변의 시각 문화를 담은 이미지와 매체를 살펴본다.
- 제시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접한 시각 문화를 발표하여 실생활과 연계하여 살펴보게 한다.

이장섭 / 브랜드 런칭 전시

이장섭은 농부와 디자이너가 직접 만나서 브랜드 런칭에서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새로운 브랜딩의 일환으로 이미지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달을 꾀하며 시간적인 측면에서 게릴라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개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를 통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참고: <http://actionseoul.com/home/project/farmers-party-3/>



이장섭(한국/1977~) P 브랜드 전시(자전거 수레, 나무 등/가변 설치/2012년작) - 전시가 브랜드의 런칭이 되는 것이 처음 시도되었다. 전시장의 자전거 수레가 일정한 시각에 도심 지역으로 나와 게릴라 홍보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 문화의 경험을 시도한 것이다.

원 / 'With or Without You'

원은 김민선과 최문선으로 구성된 뉴미디어 듀오로 미디어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도시나 군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주제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With or Without You는 분할된 화면에서 각기 다른 영상을 통해 대도시의 관계와 소통을 묻고 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ciai-hzOd6k>



원(Mioon/2003~), Magic City (디지털 이미지/가변 설치/2012년작) - 서울 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서 선보인 작품으로 현대 도시에 생기 있고 경쾌한 리듬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sqku7ysplmg>

이제석 / 부산 남부경찰서 옥외 광고

천재라 불리는 이제석은 이색적인 광고를 통해 늘 새롭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극시킨다.

참고: http://www.jeski.org/index_n.php?category=main2



이제석(한국/1982~) 전쟁 반대 포스터(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11년 작)

D사 / 테마파크 D랜드

우리 사회 안에 테마 공간을 형성하여 만화 영화 속 여러 캐릭터와 건축물을 문화 산업으로 이끌었다.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 같은 브랜드명으로 테마 공원이 형성되게 하고 있으며 오늘날 소비 사회에 대표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사례로 손꼽힌다.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 산업의 양면성을 확인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 문화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와 유사하게는 미국의 U 테마 공원이 세계 각국에 D사와 경쟁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한국 용인의 E 테마 공원 등이 있다.

지식 창고

시각 문화

‘시각 문화’(Visual Culture-비주얼 컬처)는 ‘시각’과 ‘문화’가 합쳐진 말로 문화적 내용을 담은 시각 이미지라는 뜻이다. 이는 ‘시각’이라는 것은 눈과 손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형태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회 속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함께 공감해 온 생각이나 가치를 담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생각이나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나 사물로 표현한 모든 것과 시간성을 지닌 행동이 시각 문화에 해당된다.

지구촌

지구촌이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가 한마을처럼 가까워졌다는 뜻을 가진 용어로 1988년 마셜 맥루한이 쓴 《지구촌(Global village)》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며 서로 소통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전 세계가 한 마을이라 하지만 세계 각 나라는 그 안에서 자기의 문화를 국가와 같은 특별하게 형성한 국가의 상징과 함께 기후, 지형 등의 자연환경과 전통적으로 이어온 역사적 유물 및 건축, 생활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건축 이외에도 전통 의상, 명절은 같은 의미를 지니지만 다르게 시각 문화를 형성한다.

지구촌 랜드 마크



매체를 통해서나 직접 방문을 하면서 우리는 특정한 건축물이나 환경 조형물을 보면서 그 지역이나 나라로 의미를 받아들인다.

탐구 활동 2 세계의 주거 문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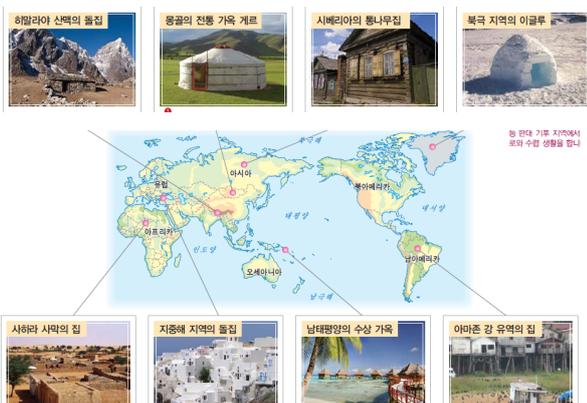
- 기후가 다른 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에 대해서 찾아보게 한다.
- 전통 가옥은 오늘날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발표하게 한다.

참고 학습 자료 |

세계 문화 여행-세계의 전통 가옥과 전통 의상, 스킨라스(주)

탐구 활동 참고 자료 |

기후 환경은 그 나라의 의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지형에 따라 주거 유형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주거는 각 나라의 상징이 되어 세계인이 그 나라의 문화로 소통한다.



세계의 전통 가옥

지구촌 문화와 상징

세계에는 다양한 크기와 자연환경을 지닌 나라들이 있다. 각 나라의 주거 환경이나 역사와 문화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건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켜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보여 준다.



가우디(Gaudi) Comet, Antona (에스파냐) 1852~1926) 생가 즉 성당 스페인, 바르셀로나(1882~) 100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하여 앞으로 100년 더 지어질 건축물로 스페인을 대표한다.



경복궁(경복궁) 행궁(한국, 서울/2016년) 경복궁 전통 건축물인 경복궁과 아우라지 시연 볼 뒀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만리장성(중국 베이징) 인류 최대의 토목 공사로 불린다. 진시황이 이전에 축조된 성벽을 연결시켜 제1차 대륙간 대 건축적 완성을 가진 건축물이 되었다. 성벽의 목적은 적군을 막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다.



베이징 G20 국가 상징 G20 정상 회담 때 참여하는 국가의 국가의 형상으로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하였다.



스핑크스(이집트) 2000m(1900x7300cm)7만년 2500년경 스텑소스는 이집트의 문화와 신화를 총합하는 중대한 공전 제정인 동양문화이다. 불가사위인 고대 문명의 화, 시, 미, 피라미드와 함께 이집트를 대표한다.

탐구 활동 2 세계의 주거 문화 알아보기

세계의 주거 문화를 찾아보고 그 특징을 이야기 해 보자.

위문거리 | 나라의 상징인 국기

국기란 한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표상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역사, 국민성과 이상을 특정한 색과 모양으로 나타낸다.



한국 태극기

프랑스 삼색기

미국 삼조기

중국 오성기

영국 유니언기

이집트 연방기

지식 창고

세계의 명절



중국의 춘추절, 일본의 오봉절, 이스라엘의 속곳,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가을건이 축하 명절이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생활양식과 시각 매체는 명절 문화를 형성하고 전승되어 나라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세계의 전통 의상

기후 환경과 생활 양식은 오래전부터 나라마다 차별화된 의상을 지니게 하였다.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의상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활용된다.



정한경(한국/1977~) 세계의 민족 의상 크리스마스 쉐디지텔 이미지/12중 소형 시트/2004년 작)

도시의 축제와 시각 문화

성스러운 종교적 제의에서 출발했던 축제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는 독특한 색과 매체를 활용하여 그 사회를 대표하며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올의 축제 (올)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봄맞이 축제이다. 색 가루나 물감을 튀김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원과 거리를 행랑색색으로 물들이는 올의 축제(festival of colours)라고 불린다.



삿포로 눈 축제 (일본) 1950년 오토리 공원에서 는 조각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여 지역 외 출고 긴 겨울 동안 축제의 향기를 만끽했다.



베냐마르 가면 축제 (아르헨티나) 전통의 춤과 기예를 기예하기 위해 시작된 가면 축제는 다양한 색과 형태를 가진 가면으로 신과 사물, 사회 계급이나 축제의 향기를 만끽했다.



마루 축제 (브라질)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이 사슴털을 기리는 마루의 노래와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 형성된 축제이다.

더 알아보기 | 전세계인 축제, 올림픽과 시각 문화

세계 평화의 달성이라는 이상 아래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근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되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개최된다. 개최국은 올림픽을 열람할 픽토그램, 캐릭터 등을 제작하여 세계인에게 홍보하고 국가 브랜드를 만든다.



- 8사(브라질) 2016 리우 올림픽 픽토그램(디지털 이미지 지) 2009~2016년
- 김(한국) 1988 서울 올림픽 픽토그램(디지털 이미지) 1988년 1월

탐구 활동 3 | 우리 지역의 축제 찾아보기

우리 지역의 축제를 찾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점검해 보기

-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
- 시각 매체에 따른 이미지 전달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탐구 활동 3 | 우리 지역의 축제 찾아보기

- 우리 지역의 축제 유형을 알아보게 한다.
-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우리 지역의 고유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판단해 보게 한다.
- 지역 축제에서 찾을 수 있는 시각 문화의 매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유의 사항 |

- 지역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 찾게 한 후, 비판적으로 바라봐 할 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 비판을 할 때에는 가능한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게 한다.

탐구 활동 더하기 | 세계의 전통 축제 알아보기

각 나라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축제를 열 경우에 따라 종교적 의식으로, 지역 주민 간의 친목으로 그 모습이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축제는 지구촌 세계의 의식을 가진 오늘날 방문객에게는 그 지역의 고유함을 다양한 이미지와 행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의 전통적인 축제를 확인시킨다.
- 여러 축제 중 선택하여 축제의 기원을 찾고 오늘날 사회 문화적 의미와 축제에서 접할 수 있는 시각 문화를 찾아 보고서 혹은 신문 기사를 작성하게 한다.
-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축제가 갖는 의미와 시각 문화적 영향력을 확인한다.

유의 사항 |

학습자의 기호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기여한 축제를 선택하여 찾아보도록 권장한다. - 비판적 사고를 비교할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같은 축제를 찾아보지 않도록 조정한다.



우리나라 지역 축제 정보/한국관광공사

■ 지식 참고

올림픽 시각 이미지 통합 디자인

전세계인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올림픽은 하계, 동계로 나누어 개최된다. 그리고 보통 대표가 되는 올림픽 경기 이외에 참여 선수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 올림픽, 패럴림픽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4년에 한번 열리는 올림픽은 특정 나라 특정 도시가 선정되어 개최되는데 이는 국가 행사가 되어 그 나라의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를 위한 엠블렘, 로고, 픽토그램, 포스터, 캐릭터 등 시각 이미지는 문화를 반영하며 통합하는데 힘쓴다.



베스 룰라외 12명(Director: Beth Lula)
리우올림픽 브랜딩(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09년~2016년)

3 가상 공간 속으로

교과서 pp. 10~13

단원 설정 이유	현대의 미술 표현 영역은 그 범위가 크게 확장하고 있으며 타 분야와 융합하여 발달하고 있다. 현대 과학은 디지털과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다양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냈고 미술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그 사례를 탐색해 봄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심미안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변의 가상 공간을 찾아보고 미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미술과 가상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인지 능력, 표현 매체의 탐색과 활용 능력
평가 방법	발표 및 토론, 조사법, 연구 보고서, 관찰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창의·융합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 1A-1 / 9미 1A-2

교수·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우리 주변에 미술이 활용된 가상 공간은 무엇이 있을까?

전개

[일상생활 속에 미술이 활용된 가상 공간 알아보기]

- 생활 속에 미술이 활용된 다양한 가상 공간을 탐색해 본다.
- 자신이 체험한 가상 공간을 발표하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자료와 주제 탐색]

- 가상 공간에 쓰인 자료와 주제를 알아본다.
- 미술과 가상 공간의 융합 사례를 통해 생활 속에서의 미술 표현 영역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정리

- 생활 속에서의 미술과 가상 공간의 관계를 안다.

지도상의 유의점

- 일상생활에서 가상 공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 매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푸치니 / 토스카

오스트리아의 브레겐즈 축제(Bregenzer Festspiele)는 “호수 위의 오페라(Opera on the Lake)”라는 극장에서 열린다. 1946년 초연 시 바지선 두 개를 이용하던 무대는 현재는 호수 바닥에 콘크리트 기둥을 박아 무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 수상 무대는 가로 60m, 세로 40m, 크기에 6,767명을

나의 세계

03 가상 공간 속으로

학습 목표

- 우리 주변의 가상 공간을 찾아보고 미술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가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연습 미술 ③-11

생각 열기

가상 공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미술 속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가상 공간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처럼 느끼는 공간으로 그 종류는 다양하다. 생활 주변의 광고, 컴퓨터 그래픽, 다양한 3D의 세계, 미술관 가상 현실 체험 공간, 게임 등 우리 주변에 가상 공간은 여러 곳에 존재한다. 가상 공간은 사이버 공간, 가상 세계, 가상 환경, 인공 환경 등으로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미술 속에서의 가상 공간을 좀 더 알아보자.

◆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드는 가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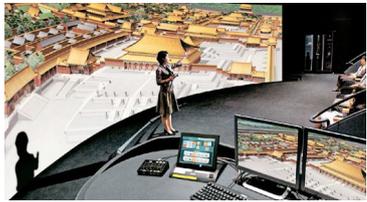
SAH 한국 LED TV 광고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 (원본 2011년 작) 걸리리예 가상 의 목포기 호르는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푸치니(Puccini, Giacomo이달리아(1858-1924) 토스카(Tosca)LED 패널 외 벽면 (폭 40×60m/2008년 작) 브레겐즈 바다 위의 산지 무대에 선보인 오페라 토스카의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컴퓨터 그래픽이다.

현대 미술에서 가상 공간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첨단 디지털 기술이 미술에 접목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상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광고, 무대 미술, 홀로그램 영상, 3D 인정을 이용한 전시 체험 등 여러 장르의 가상 공간이 확장되어 미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Topgan 인쇄 박물관 가상 체험 (일본 도쿄/2011년 작) 실물 크기보다 4배 이상 확대 가능한 스크린을 통해 관람객들은 증인, 회전 이동 시점으로 가상상을 감상하며 가상 현실을 체험한다.



10



10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무대이다. 1985년부터 수상 무대에 오르는 메인 오페라 작품과 무대 디자인을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어 공연하고 있다. 토스카도 이 무대에서 2008년 상영되었는데, 무대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눈동자가 인상적이다. 토스카의 무대는 석양을 배경으로 파란 눈동자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다. 눈동자가 움직이고 열리면 그 뒤편에서 LED 패널이 올라와 장관을 이룬다. 오페라의 일반적인 주제는 사랑과 증오, 삶과 죽음, 시련과 구원 등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러한 주제가 획기적인 연출 및 발상을 통해 무대 미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적이고 시사적인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오페라 토스카에서 무대의 눈동자 회전/SAH/LED TV 광고

● SAH / LED TV 광고

해외에서 촬영된 이 광고는 아름다운 영상미와 컴퓨터 그래픽이 잘 표현되었다. 도시 중심에 절벽과 폭포가 생기고, 창밖에 달과 우주인이 걸고 있으며, 꽃집에서 집어든 꽃은 나비가 되어 날아간다. 자연과 도시 속에서 LED 모니터를 통해 가

◆ 신기한 3D 홀로그램

! 홀로그램 기술 어디까지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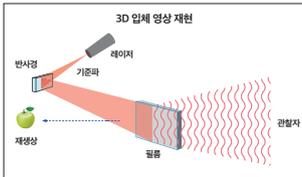
홀로그램의 응용 범위는 매우 넓어 소프트웨어의 복제 방지, 지폐의 위조 방지, 인체와 기계의 정밀 진단, 자연과 문화의 입체 보존,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홀로그램은 실제의 모습처럼 평면적인 영상에 효과를 줄 수 있어 가수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실감 나는 콘서트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머리카락 같은 세부적인 표현도 가능한 홀로그램 기술은 미술 전시 프로그램에서 입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PLAY K POP 3D 홀로그램 콘서트(2015년 작) 실제 가수의 콘서트를 보는 것 같지만 무대 위의 가수는 모두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홀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미술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 홀로그램의 원리



K사(한국) 인체 박물관(2015년 작) 이명민(명준)의 시스템이나 상단 액세서리 한층의 그래픽이 적용되어 사영 영역에 나타난 인체를 주제로 하여 해설사가 서양 미술 속에 숨겨진 과학을 홀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다.

▶ 탐구 활동 1 홀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준비물: 휴대 전화, OHP 필름, 종이, 칼, 접착용 테이프



① 종이에 피라미드 형태를 그린다. ② OHP 필름으로 투명 피라미드를 만든다. ③ 휴대 전화의 홀로그램 영상을 상행하고 피라미드 홀로그램 영상을 감상한다. ④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고 홀로그램 영상을 감상한다.

용어 설명
홀로그램(hologram): 두 개의 레이저광이 서로 만나 일으키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입체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로, 비어에 45° 각도 영상이 반사되어 보이는 원통의 착시 효과이다.

확진어(학생 작품) 3D 홀로그램 프로젝트
(OHP 필름, 투명 테이프(8×8×5cm/2015년 작))

상현실과 접목된 이미지들과 마주치게 된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t9TbKarDSC4>

● Toppan 인쇄 박물관 가상 체험

천장화, 혹은 원거리의 문화유산을 현장에서 자세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육안의 한계 때문인데 일본 도쿄의 토판 인쇄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작품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박물관의 가상 현실(VR)극장 즉, 곡면으로 된 스크린이 바로 그것인데 감상할 미술품을 화면에 펼치고 조절기로 버튼을 누르면 상, 하, 좌, 우, 중앙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한다. 아래쪽 방향 화살표를 누르면 화면이 뒤집히며 바닥의 무늬를 볼 수 있다. 해설사가 그림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고화질로 구성되었는데, 화질은 디지털 4K(4096×2160픽셀) 풀 HD에 비해 4배 이상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

● PLAY K POP 3D 홀로그램 콘서트

콘서트에 가수가 직접 출현하지 않고 홀로그램 영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다. 270도 뷰의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 내부 벽면에 다이내믹 월을 설치하여 공연 도중 벽체가 개방되는 역동감을 주는 홀로그램 콘서트홀 등이 함께 조화되어 실제 가수가 공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 K사 / 인체 박물관

K사가 제공하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예술·과학 교육 콘텐츠이다. 인체 박물관은 역사적인 미술품에 나타난 인체를 주

제로 미술과 과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공연으로, 미술, 과학, 교육이 결합돼 문화적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이 공연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시대별·주제별 6개장으로 이뤄졌으며, 50여명의 서양 미술가와 200여점의 미술품이 등장한다. 퍼포먼스,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 미디어 아트, 특수 효과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 역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270도 뷰의 미디어 파사드와 홀로그램 영상, 14.2 채널의 서라운드 입체 음향 시스템으로 구현된 실감 사운드, 입체 조명 등을 활용해 상상의 미술관을 만들어 냈다.

▶ 탐구 활동 1 홀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

! 준비물

- 휴대폰, OHP 필름, 종이, 칼, 접착용 테이프(투명), 컴퓨터, 빔, 컴퓨터, 프레지 프로그램

! 수업 과정

- ① 참고 자료를 통해 홀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한다.
- ② 종이에 연필로 약 8×8cm(밀변 약 1.5cm) 피라미드 형태를 제도한다.
- ③ 제도한 종이의 규격과 같이 OHP 필름을 잘라 피라미드를 만든다.
- ④ 휴대 전화의 홀로그램 영상을 실행하고 피라미드를 올려놓는다.
- ⑤ 주변 환경을 어둡게 하고 홀로그램 영상을 감상한다.

! 정리 및 평가

- 홀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 홀로그램 프로젝터를 만들어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피라미드를 제도할 때 칼로 손을 베이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피라미드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면 영상이 흐려보이므로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지식 창고

홀로그램(hologram)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영상을 말한다.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홀로그래피(holography)란 그리스어의 전체(whole)라는 뜻 'holos'에 기록하다(to write)라는 의미 'graphien'이 합쳐진 것으로, '전체를 기록하다'라는 개념이다. 홀로그래피는 1948년 영국물리학자인 데니스 가버(Dennis Gaor)에 의해 시도된 전자 현미경 분해 실험 중 그 원리가 발견되었으며, 1960년 레이저 광선의 개발 이후 홀로그램의 기술로 응용 발전하였다.



홀로그램으로 만든 분청 사기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G사 / 틸트 브러시

2차원 평면에 우리가 물감을 그리듯이 틸트 브러시(Tilt Brush)를 사용하여 공간에 드로잉을 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는 가상 현실 헤드기어(VR)을 쓰면 3차원 가상 공간에 디지털 브러시로 패션, 작품 전시회를 기획할 수도 있다. 빛이 나는 화려한 컬러로 꽃, 캐릭터, 사물 등을 그리며 아래서부터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마치 조각처럼 입체를 형성하고 있다.



틸트 브러시로 그린 패션 모형



틸트 브러시로 그린 입체 꽃밭에 작가가 서 있는 모습

●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세계 문화유산인 석굴암을 첨단 기술이 접목된 VR 콘텐츠로 제작하여 HMD 기술과 테버투스 옴니 3D 가상 체험 및 스토리텔링 전시 기법을 통해 실제 석굴암 속을 체험하는 듯한 One-Source-Communication ICT 융복합 체험존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석굴암을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

■ 지식 창고

틸트 브러시

틸트 브러시란 3D 페인팅 소프트웨어인데, 컨트롤러로 펜이나 물감 이외에 불꽃, 무지개, 별 등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2016년 CNN은 G사가 최근 발표한 어플 '틸트 브러쉬'가 예술 세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이 가상 현실 어플리케이션은 '그림을 그리다'는 단어의 정의를 바꾸고 회화의 영역을 혁명적으로 넓힐 전망이다. HTC 사의 가상 현실(VR) 헤드셋 바이브(Vive)에 연결된 디지털 브러시를 사용하면, 실물 크기로 3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G사(미국) 틸트 브러시(Tilt Brush: Painting from a new perspective)VR디지털 이미지(2016년 작) 3D 공간에 브러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3D 안경을 쓰고 그림을 쓰고 그림 선과 색이 그려지면 마치 입체를 쌓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3D 안경으로 보는 세상

3D 안경은 평면 이미지를 입체로 볼 수 있어 게임, 영화 등 오락 분야에 많이 이용된다. 또한 증강된 현실을 체험할 수 있어 미래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3D 안경은 음향, 빛, 이미지가 어우러져 3차원의 가상 공간 체험이 가능하며, 3D 파노라마로 감상자의 상상력과 오감을 자극하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앱을 활용하여 3D 공간에 그림이나 조각을 할 수도 있고 시간, 정각뿐만 아니라 촉각을 활용하여 대상을 만질 수도 있다. 또한 이동 시점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하므로 미술 분야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 관람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뉴미디어 매체로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Card Board-공관지로 만든 3D 안경으로 평면 화면을 볼 수 있어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우주로 날아가는 등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디지털 이미지)은 2016년 작 3D 안경을 쓰면 파노라마 화면이 정제되어 실제와 유사한 입체를 만질 수 있는 체험이 가능하게 해준다.



▶ 탐구 활동 2 3D 안경 체험하기



준비물: 3D 안경, 3D 이미지

과정: 3D 안경 착용 후, 3D 이미지를 보거나, 3D 이미지를 만질 수 있다.

주의: 3D 안경 착용 시, 눈과 얼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표: 3D 안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3D 안경을 사용하여 가상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12

이것을 이용하면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영감을 가상 현실로 구현해 모든 각도로 돌려볼 수 있으며, 전세계의 다른 틸트 브러쉬 사용자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탐구 활동 1 3D 안경 체험하기

| 준비물 |

- 두꺼운 종이, 청색, 적색 셀로판지, 칼, 가위, 접착용 테이프

| 수업 과정 |

- ① 참고 자료를 통해 3D 안경(HMD-Head Mounted Display)의 원리를 이해한다.
- ② 교과서 부록에 있는 3D 안경의 모형을 자른다.
- ③ 자른 안경테에 청색과 적색의 셀로판지를 접착용 테이프로 붙여 완성한다.
- ④ 안경을 쓰고 교과서 12쪽의 작품을 감상한다.

| 정리 및 평가 |

- 3D 안경의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 3D 안경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셀로판지를 붙일 때는 반드시 왼쪽 눈에 적색, 오른쪽 눈에 청색을 붙이도록 지도한다.
- 안경 모형을 자를 때 안전에 유의하고 안경알 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게 지도한다.



●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가상 공간

| 가상 미술관 체험 |



반 고흐의 **아를네의 A시중점** 가상 미술관은 3D 가상 공간을 통해 관람객이 PC로 촬영하면 화면에서 사진이 실제 반 고흐의 작품으로 변환된다.

온라인 가상 미술관은 박물관 전시 자료를 3D로 렌더링하여 넣었고 방문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동환(국/929) & 고희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360° 전시)(2016년) 가상 미술 자료 박물관에 소장된 화가의 작품을 해설사가 설명하고 있다.

| 가상 캠퍼스 |



어도비 디지털 뮤지엄(Adobe Museum of Digital Media)은 2016년 3월 미술관을 방문한 시아버 공간 속으로 들어가 관람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실시간으로 전시되고 있다.



가상 캠퍼스(가상) 이미지(2009년)는 3D 렌더링을 구현한 우리나라 K대의 가상 캠퍼스로 실제 이곳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아바타로 소통한다.

| SNS를 통한 소통 |

우리는 컴퓨터 게임이나 SNS를 통해 자신의 아바타로 소통하고 가상 캠퍼스를 이용하는 정보와 시대에 살고 있다.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가상의 공간 체험이 가능하다. 현재 화상 등에서 온라인 가상 공간을 통한 미술관 견학과 홍보가 점차 늘고 있다.



NBA(미국) FIFA 온라인 게임(디지털 이미지) 2013년 3월 우리나라 선수들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M사(미국) 아바타 기믹트(디지털 이미지) 2011년 3월 아바타를 활용하여 실제 친구와 대화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용어 설명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인맥 관리 서비스 혹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커뮤니티 형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 점검해 보기

- 미술과 가상 공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가?
- 컴퓨터 그래픽의 개념을 알고 가상 공간과의 관계를 이해하였는가?
- 3D 홀로그램의 원리를 알고 가상 공간과 연계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
- 3D 인형의 특성을 알고 가상 공간과 연계하여 미술 속에서의 쓰임을 알 수 있었는가?
- 온라인 가상 공간에 대하여 미술과 연계하여 이해하게 되었는가?

13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박동 / 고희의 정서, 추억 속의 편린

서양화가 박동 화백이 기증한 작품과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인터넷 아카이브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다. 아카이브(archives)란 웹사이트 상에서 백업, 보관 등을 위해 한 곳에 모아둔 파일을 의미한다. 이 전시는 작가의 아카이브 170여 점과 함께 박동 화백의 생애에 걸친 유화 13점이 전시되었다. 1950~60년대 다양한 경향이 담긴 작품과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2단 구조와 모티브가 나타난 작품, 1980년대 이후 3단 구조의 깊은 공간감을 표현한 작품에서 작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어도비 디지털 뮤지엄

어도비(Adobe)사가 설계, 기획 구축한 디지털 뮤지엄이다. 사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면 처음 통과하게 되는 로비 공간 및



어도비 디지털 뮤지엄

프론트 등이 디지털 버전으로 구현되어 있어 사이버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이탈리아의 필리포 이노첸티(Filippo Innocenti)에 의해 디자인되었고 세계 각지의 건축물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플래시로 100% 구현되어 있어 로딩이 느린 곳에서는 쾌적하게 감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가상 캠퍼스

3D 가상 세계 '세컨드 라이프'는 전 세계 1,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3D 가상 세계 플랫폼으로 이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MIT 등 약 200여개의 세계 대학들이 원격 수업과 학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틀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캠퍼스는 실제 수업을 제공하거나 홍보 형식의 가상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대학교가 2009년에 실제 학교의 건물 모습 등을 그대로 세컨드 라이프의 가상 세계에 구현했다. 실제 고려대의 본관을 중심으로 정문, 중앙 광장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을 그대로 복제해 제작, 전 세계의 학생들이 가상 세계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M사 / 아바타 기믹트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사용자의 표정과 목소리의 특징을 인식해 아바타가 똑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키넥트 센서는 실제 TV 스튜디오의 카메라처럼 줌(zooming)과 패닝(panning)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기록한다. 사용자는 최대 7명의 친구를 24가지 가상 무대에 초대해 뉴스를 진행하거나 코미디 쇼를 보여줄 수 있으며 저장된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도 있다. M사는 핑거 트래킹 기술을 활용한 키넥트 스파클러도 공개하였는데, 사용자는 몸과 손가락을 이용해 빛으로 색칠하거나 불꽃을 그려 공간을 캔버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 N사 / FIFA 온라인 게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를 포함한 선수들과 닮은 아바타 캐릭터로 등장하여 경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여 경기를 보는 재미를 높여 주어 SNS에서 널리 알려졌고 사용자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의 규칙을 똑 같이 적용하며 아바타이지만 몸동작 등이 비교적 자연스럽다. 게임의 형식으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있다.



피파 온라인 게임

4 미술과 다양한 분야

교과서 pp. 14~17

단원 설정 이유	현대의 미술은 서로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우리 생활 곳곳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융합은 각 분야의 특성에 미술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더해져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미술과 여러 분야의 융합 사례를 통해 미술의 다양성을 알고 사회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미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이 융합된 사례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대한 인지 능력, 표현매체의 탐색과 활용 능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 평가, 실기 평가
교과 역량	창의 융합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미적 감수성
성취 기준	9미01-03 / 9미01-04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우리 주변에 미술과 융합되어 표현된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

전개

- 일상생활 속의 미술 융합 작품 알아보기
 - 의, 식, 주,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사례를 찾아 본다.
 - 자신이 알고 있는 융합 사례를 발표하고 느낌을 이야기 한다.
- 재료와 주제 탐색
 - 미술 융합 작품에 쓰인 재료와 주제를 알아본다.
 - 미술 융합 사례를 통해 미술 표현 영역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정리

•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고 미술과의 융합을 상기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교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술과 연계 가능성을 살피도록 한다.
- 미술 1의 3단원 미술로 융합하는 세계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안중연 / 시간의 주름 展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전시한 내용으로, 설치 작가 안중연이 소설가 박범신의 《시간의 주름》을 60여 점의 설치 미술로 형상화하였다. 소설 내용은 50대 남자 주인공이 연상의 여자 화가를 좋아해 직장도 버리고 떠도는 절망의 이야기인데, 안중연이 거기에 숨겨진 이상적 열망의 세계를 포착하고 그 틈새에서 보이는 《시간의 주름》을 시각화하였다고 한다.

나의 세계

04 미술과 다양한 분야

학습 목표

-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이 융합된 사례를 알고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 미술 ①-03

생각 열기

우리 주변에 미술과 융합되어 표현된 분야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대 미술의 흐름은 기존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미술이 다른 분야와 접목되어 표현된 것은 종종 발견하게 된다. 문학, 음악, 공학 같은 학문 외에도 테크놀로지와 영상 등 기술적인 측면이 더해져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 미술과 문학




김소형(한국/1987-)은 그림 여행 in Europe(중이, 수채 물감, 100x200cm/2019년 작) 여행지에서 인상 강한 장면을 골라 그림으로 구성함으로써 시각적 효과가 강조되어 내용이 돋보이는 여행기로 표현되었다.

◆ 미술과 음악

미술과 음악의 융합은 백남준, 칸딘스키 같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시대를 앞서갔으며 음악을 접목하여 미술의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백남준(한국/1932-2006) TV 첼로(오른, 인물/가변 크기/1973년 작) 합성수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 3대로 구성된 작품은 1973년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글로벌 그루브에서 TV첼로를 일컬어 “1,600년 이래 첼로의 최초의 진보”라고 말했다. TV 첼로의 수상기는 비디오 테이프, 생중계되는 폐쇄 회로 비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보여 주었고 때로는 첼로현과 연결되어 이미지와 전자음향 사이의 상호 작용을 창출하였다.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구성 화면(버스에 우체/140x20cm/1929년 작) 기하학적 이미지와 색으로 그린 악보와 리듬, 눈으로 듣는 음악의 느낌을 주는 칸딘스키의 추상 작품이다. 그는 음악을 표현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피터 오만(미국/1980-) 춤동의 여신(중, 유채물감/80x150cm/2014년 작) 람 아티스트 피터 오가 가수 마이클 볼튼의 연주 무대에서 공연의 느낌을 죽음으로 드로잉한 작품이다.

● 백남준 / TV 첼로

1971년 백남준의 샬롯 무어만 시리즈 중 하나로 플렉시글라스(Plexiglas) 상자 안에 들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첼로 세대로 구성되었다. 샬롯 무어만은 1973년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 글로벌 그루브에서 TV첼로를 일컬어 “1,600년 이래 첼로의 최초의 진보”라고 말했다. TV 첼로의 수상기는 비디오 테이프, 생중계되는 폐쇄 회로 비디오, 혹은 텔레비전을 보여 주었고 때로는 첼로현과 연결되어 이미지와 전자음향 사이의 상호 작용을 창출하였다.

● 칸딘스키 / 구성 8

이 작품은 1920년대 완전한 순수 추상의 길로 들어선 칸딘스키의 대표 작품이다. 구성 시리즈는 몇 해마다 한 번씩 그려진 것이다. 그는 작품 위에 하나의 선이나 원을 올려놓거나 색채를 결정하는 것은 작곡과 같다고 표현하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반원 네 개는 템포의 강, 약, 중강, 중약을 의미하며 그 밑의 반원들은 음표와 화음의 연관성을 표기한 것이다. 눈여겨 볼 것은 조형적인 방법인데, 전체 구조의 과학적인 시각과 순간적인 직감, 자유로움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뛰어난 조형성을 발휘하고 있다. 칸딘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마음속의 울림을 음악화하여 회화적으로 강조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음악적 영감을 미술로 표현하다

샤갈은 1964년에 파리 오페라 극장의 천장 벽화를 그렸다. '꿈의 꽃다발'로 불리는 이 천장 벽화에는 바그너, 드뷔시, 모차르트, 스트라빈스키, 라벨, 차이콥스키, 베를리오즈 등의 유명한 오페라와 발레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페라 역사상 많은 공헌을 한 위대한 예술가들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다. 천장 벽화를 살펴보면 샤갈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새, 꽃, 연인, 동물, 유대인의 결혼식 장면 외에 에펠탑, 개선문 같은 파리의 명승도 표현되어 있다.



샤갈(Chagall, Marc/러시아-프랑스/1897~1985) 꿈의 꽃다발(1964) 2007/1964년 작. 파리의 오페라 극장 오페라 극장에 세워진 그린 천장 벽화로 14명의 작곡가와 이들이 작곡한 발레와 오페라를 표현하였다.

미술과 공학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스위스-프랑스/1897~1965) 모듈(종이) 1950년. 인체를 기본으로 하는 9:8:5의 황금비율(9:8:5)을 바탕으로 비율과 인체 치수를 기반으로 르코르뷔지에가 만든 비례 체계로 직사각형을 모듈로 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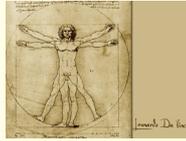
르코르뷔지에, 피에르 잔느레, 샬로트 페리앙(Le Corbusier, Pierre Jeanneret, Charlotte Perriand) 모듈(의자) 1929년. 모듈(의자)은 르코르뷔지에와 피에르 잔느레, 샬로트 페리앙이 공동으로 디자인하였다.



H사(미국) 에이콘 의자(의자, 스틸/110×68.6cm/2016년 작) 당시 소재로 만들어져 인체 공학의 요소가 다 담겨있다.

유물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비트루비안 맨(The Vitruvian Man)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이탈리아/Leonardo da Vinci/1452~1519)가 그린 인체 비례도로 인체의 표준비율도 불리며 인체의 수학적 재발견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빈치는 인체를 직접 관찰하여 이 그림을 그렸는데, 두 팔을 벌린 길이는 키와 같고 두 다리쯤 키의 4분의 1만큼 벌린 후, 팔을 펼쳐 정수리까지 올려 원을 그리면 그 중심은 배꼽이 된다. 또한 배꼽과 두 다리 사이의 공간은 정사각형이 등변 삼각형이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인체 외곽에 정사각형과 원을 그려 넣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이탈리아/1452~1519) 비트루비안 맨(종이, 펜/35×26cm/1485년 작)

● 사갈 / 꿈의 꽃다발

1963년 드골 대통령의 제안에 의한 파리 전역의 건물 세척 작업으로 문화유산들이 하나 둘씩 원래의 밝고 화려한 색깔을 되찾게 되었다. 샤를 가르니에(1825~1898)가 1875년 개관한 파리 오페라 극장은 세척 작업과 함께 오페라 극장의 천장 벽화를 새로 그리게 되었다. 이것이 샤갈(1887~1985)이 그린 유일한 천장 벽화 <꿈의 꽃다발>(1964)이며 천장 벽화의 내용에는 모차르트, 바그너, 드뷔시, 스트라빈스키, 라벨, 베를리오즈, 차이콥스키 등의 유명 오페라와 발레 장면이 등장한다. 오페라 역사를 수놓은 위대한 작곡가들에 대한 존경의 뜻이 담겨진 그림으로, 샤갈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대인의 결혼식 장면, 새, 꽃, 연인, 동물, 에펠탑, 개선문 등 파리의 명물도 등장한다. 밝고 화려한 원색의 향연은 금색과 붉은색으로 뒤덮인 다소 무거운 객석 분위기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8t짜리 샹들리에에 불이 켜지면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 르코르뷔지에 / 모듈러

모듈(module)이란 측정 단위 또는 공작물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직사각형을 모듈로 하여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한다.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는 모듈 본래의 사고방식인 비례의 개념에서 황금비의 중요성을 찾아내고 자신의 모듈에 '모듈러 (Modulor)'라는 새로운 단어를 붙였다. 그의 모듈러는 주로 건축 형태에 관한 것이었으나 모든 디자인에도 응용되었다. 모듈러 디자인 시스템은 아름다움의 근원인 인간 신체의 척도와 비율을 기초로 황금 분할을 찾아 무한한 수학적 비례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는 "훌륭한 비례는 편안함을 주고 나쁜 비례는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며 모듈을 '황금 분할'과 관계시켜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만의 모듈러를 완성했다. 모듈러로 조립식 공법을 위한 특허를 얻거나 공업화 건축의 원리가 되지 못하였으나 르코르뷔지에 자신의 작품들을 분석할 때는 규칙들을 토대로 하였다.

● 풀러 / 바이오스페어 돔

풀러는 76미터 지름과 62미터 높이 크기의 구(球) 구조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지오데식 돔을 1967년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엑스포 박람회의 미국관으로 설계하였다. 구의 4분의 3형태가 지면에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반복적으로 연결된 금속 고리로 만들어졌다. 이 지오데식 돔은 내부는 스틸로 되어 있고 두 겹의 틀 사이는 아크릴 판으로 채워졌는데 1976년 화재로 인해 스틸만 남아있고 그 사이의 아크릴 판은 모두 소실되었다. 지오데식 돔의 구조는 주로 경기장, 극장, 전람회장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탐구 활동 더하기 1 | 연계 학습

백남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불리는 백남준이 높게 평가 받는 이유는 첨단 기술 매체와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 상상하고 이를 예술로 표현했다는 점에 있다. 당시 예술가들이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매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를 배척하거나 파괴하는 작업을 선보이던 반면, 그는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기 위해 전자회로 관련 기술도 직접 공부하고 전문 기술자와 협력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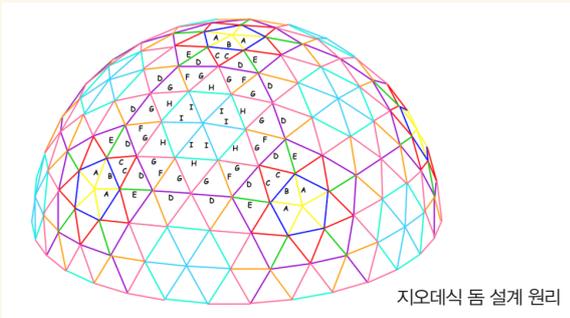
백남준

심지어 작품 <Etude 1>(1967~1968)을 만들기 위해 벨연구소에서 포트란 언어로 코딩까지 시도했다. 그는 "콜라주가 유화 물감을 대신했듯이 TV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하리라."라는 말로 뉴미디어와 접목한 예술의 확장을 선도하였다. 도쿄와 독일에서 유학하며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회를 선보였고, 유럽과 미국에서 전위적이며 실험적인 미술 집단, 플럭서스(Fluxus)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공연과 전시를 가졌다. 1963년 독일 부퍼탈 파르니스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비디오 아트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1969년 미국에서 살롱 무어만과의 공연을 통해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로 편입시킨 선구자라는 평을 들었다. 1977년 위성 TV쇼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발표하였고, 1993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 지식 창고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

측지선을 따라 서로 장력이 작용하는 경량의 직선 구조체를 연결시켜 만든 돔형 구조물로 풀러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돔은 경량의 벽에 의해 지지되며 다른 대형 돔과 달리 일체식으로 지면 위에 세울 수 있다. 돔은 부분적으로 크로마 농인의 돔 형태 움막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지오데식 돔은 건물의 구조적 힘이 불충분해진다든 결점을 극복하고 무한대로 크게 지을 수 있는 실용적인 건물이다. 또한 지오데식 돔은 기하학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것으로 그들의 전체 하중은 크기에 대한 대수비로 증가한다. 지오데식 돔은 크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제안한 것처럼 도시 전체를 덮는 '천막'으로 쓰일 수 있어, 북극이나 남극처럼 혹독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환경 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수천 가지의 지오데식 돔이 세계 곳곳에 세워졌는데, 가장 잘 알려진 지오데식 돔은 몬트리올에서 열린 '엑스포 67'에서의 미국관이다.



지오데식 돔 설계 원리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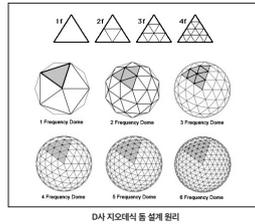
만다라는 원래 힌두교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불교에서도 사용된다. 주로, 힌두교의 밀교인 탄트라즘(Tantrism)과 불교의 밀교인 금강승(Vajrayana)의 종교적 수행 시 수행을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해진 양식 또는 규범에 따라 그려진 도형을 가리킨다. 힌두교와 불교의 전통에서 만다라의 기본 형태는 사각형의 중심에 원이 있으며 사각형의 각 변의 중앙에 한 개의 문이 있는 형태로, 이 때 각 문은 주로 영어의 티(T)자 모양을 한다.

미술 치료에서 만다라가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부터이다. 그는 분석 심리학에서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만다라에 대한 분석 및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만다라는 현대에 와서는 미술 치료, 놀이, 수행 및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술 치료에서 만다라 색깔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면으로의 회귀와 만남, 자아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만다라 문양 색깔하기는 그 효과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풀러(Fuller, Buckminster)(미국/1895-1983) 백이오스헤어 돔(직경 62·76m/1967년 작) 지오데식 돔을 창안해 낸 건축가 풀러가 소치 시리아와 함께 1967년 몬트리올 세계 박람회(World Fair, Expo 67)의 미국관으로 설계하였다.

T사 잡지 표지(미국/1964년 작)



우리 주변에서 미술과 수학, 공학이 융합된 사례를 찾아보자. 융합은 각 분야가 어우러져 종합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므로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된다. 특히 미술과 공학의 융합은 건축 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정20면체

정20면체의 꼭지점을 잘린 과정

잘린 정20면체

황금비

황금비는 주어진 길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둘로 나누는 비율로, 근삿값이 약 1.618인 무리수이다.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는 황금비는 오각형을 이루는 도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황금비는 미술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코르뷔지에, 버크민스터 풀러 등 많은 작가에 의해 작품화되었다.



이주환 외 2명(학생 작품) 가지 월드컵으로(해드보트지) 높이 100cm/2008년 작 색 해드보트지로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 정장각인 정오각형에 이어 정 20면체를 만든 후 오각형의 꼭지점을 잘라 만든 구조물

용어 설명

피보나치 수열: 나뭇잎, 솔방울, 조개, 소리 등에서 볼 수 있는 모양들은 황금비에 의해 생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 발간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은 앞의 두 수의 합이 바로 뒤의 수가 되는 수의 배열을 말한다. (예: 1, 2, 3, 5, 8, 13, 21, 34, 55, 89, ...)

🔍 탐구 활동 더하기 2 | 연계 학습

풀러(Fuller, Buckminster)

- 지오데식 돔을 디자인한 그는 미국의 건축가, 수학자, 작가, 디자이너, 발명가, 시인이었으며 멘사의 두 번째 회장이기도 하였다. 2번씩이나 하버드대학교에서 쫓겨났고 정식 교육을 마치지 못했지만 하나의 완벽한 구조물로서 지면에 직접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형 돔을 개발했다.



우리나라의 지오데식 돔 적용 사례(S 놀이 공원의 구조물)

- <STEAM>Self-directed(자기 주도적), Motivated(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free(풍부한 자료), Technology embedded(정보기술의 활용)의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ics)의 학문간 융합을 뜻하는 말이다.

탐구 활동 1 웹으로 융합 사례 발표 보고서 작성하기

준비물: 컴퓨터,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 융합의 의미를 알고 미술과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실제 우리 주변에 미술과 융합된 사례를 찾아본다.
- 여러 분야가 미술과 융합될 때의 장점을 탐색한다.
- 웹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
- 친구들의 발표보고서와 비교하여 비평, 감상 활동을 한다.



✓ **점검해 보기**
 · 미술과 다양한 분야의 융합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미술과 융합된 사례를 웹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가?

탐구 활동 웹으로 융합 사례 발표 보고서 작성하기

준비물

- 융합 관련 참고 자료, 컴퓨터, 빔, 프레지 프로그램

수업 과정

- ① 생활 속의 융합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 ② 참고 자료를 통해 융합에 의미를 파악한다.
- ③ 웹을 검색하여 융합 관련 자료를 탐색한다.
- ④ 프레젠테이션 도구에 자료를 입력한다.
- ⑤ 입력 자료를 수정, 완성한다.

정리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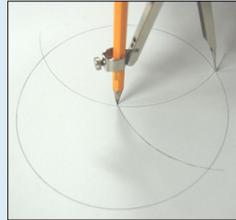
- 융합 자료를 다양하게 조사하였는가?
-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보고서를 잘 작성하는가?

지도상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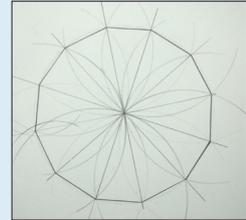
- 컴퓨터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작업할 수 있게 한다.
- 동영상, 링크 등을 효율적으로 편집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탐구 활동 더하기 | 연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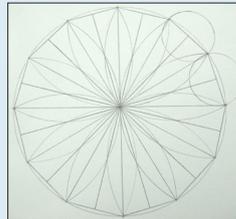
만다라 문양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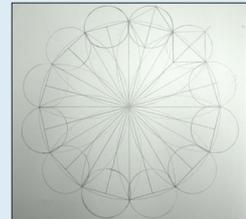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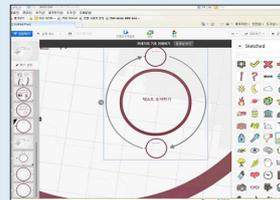


3



4

프레지 사용 방법



1. 패스 설정하기



2. 글씨 넣기



3. 이미지 삽입하기



4. 동영상 삽입하기



5. 시뮬레이션 하기

5 미술과 직업

교과서 pp. 18~19

단원 설정 이유	이 단원은 미술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미술 관련 직업 또는 미술 분야가 결합된 직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미술 관련 분야와 직업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직업과 연결하여 직업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자신과 미술 분야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목표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융합 능력,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이해 능력, 진로 탐색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태도
평가 방법	관찰법, 토론법, 연구 보고서법
교과 역량	창의·융합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1-05

교수·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미술과 관련된 이미지를 보고 어떤 직업인지 추측하여 그 명칭을 발표해 본다.

전개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

-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 분야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본다.
- 미술과 관련된 분야에 속하는 여러 직업을 찾아 분류해 본다.

[탐구 활동]

- 자신의 미래 직업과 연관된 미술 분야를 찾아본다.
- 관심이 있는 미술 관련 직업을 찾아 가상 인터뷰로 직업 탐구 보고서 작성해 본다.

정리

-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특징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본다.
- 직업 탐구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해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 미술과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 미술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탐색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순수 조형 분야

순수 조형 분야는 실용적 목적보다 예술적 동기에 의해 작품을 창조하는 분야로 응용 미술과 구별된다. 최근 그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순수 조형 분야는 주로 감상의 목적으로 작품이 제작된다. 이러한 미술 분야의 직업에는 화가, 조각가,

나의 세계

05

미술과 직업

학습 목표 ·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어떤 직업일까? 직업의 명칭을 생각해 보자.

미술과 관련된 직업은 미술이 여러 분야와 결합되면서 다양해졌다. 아래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명칭을 생각해 보자.





손상된 그림이나 옛 유물 등을 복원해 낸다. 의학·의료용 그림이나 문장을 그리고 재한다. 미술품을 의뢰받아 인터넷 또는 각종 장소에서 입찰 품목을 설명하고 경매를 진행한다.





사진가 조각가 순수 조형 분야 화가, 조각가, 사진 작가, 서예가, 판화가, 행위 예술가, 공예가 등





서예가 행위 예술가 화가 미술 교육 및 연구 분야 미술 교사, 대학 교수, 미학자, 고고 미술학자, 미술 평론가, 미술 사색자 등

사진작가, 서예가, 판화가, 행위 예술가, 공예가 등이 있다.

● 미술 교육 및 연구 분야

미술 교육 및 연구 분야는 직접 미술 작품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미술 교육과 미술 제작 등 미술과 관련된 분야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미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분야의 직업에는 미술 교사, 대학 교수, 미학자, 고고 미술 학자, 미술 평론가, 미술 사학자 등이 있다.

● 디자인 분야

최근 디자인 분야는 매우 발달하였고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이를 활용한 디자인 분야의 신종 직업이 탄생되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는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실내 장식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광고 디자이너, 만화가 및 만화 영화 작가 등이 있다.

• **컬러리스트(Colorist):** 색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로서, 색채의 연출을 통해 이미지의 부가 가치를 높여주는 일을 하며, 컬러 코디네이터라고도 한다. 컬러리스트는 감성과 개성이 드러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색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품에 맞는 색채를 기획·적용함으로써 매출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 미술관·박물관 분야

최근에는 미술 표현 활동보다 문화 소비자의 관점에서 미

▶ 탐구 활동 직업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최근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자인이나 미술의 특정 분야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술이 다른 분야와 결합하면서 미술 관련 직업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술과 관련된 직업들 중에 미래의 자신의 직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직업을 골라 직업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 직업 탐구 보고서 작성 과정

- 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는다.
- ②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인과의 가상 인터뷰를 작성해 본다. 가상 인터뷰의 내용은 하는 일, 요구되는 능력,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 과정과 보람, 힘든 점 등이 드러나도록 작업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한다.
- ③ 정보를 찾아 가상 인터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적는다.



✓ 점검해 보기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종류와 특징을 탐구할 수 있는가?

그 외 여러 분야
건축가, 미술 치료사, 미술 심리 상담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술 감독 등

술 감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의 역할이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수집과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과 경매 등의 역할을 하는 미술 관련 직업도 탄생하였다. 그 예로 학예사(큐레이터), 도슨트, 갤러리스트, 미술품 경매사, 복원가, 전시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 **도슨트(docent):**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도슨트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일반 관람객들을 상대로 전시물과 작가 등을 두루 안내하는 일을 하며 전시물을 비롯해 작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 **큐레이터(curator, conservateur):** 미술관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통 학예사라고 한다. 원래 큐레이터는 '관리자'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의 관리자 다시 말해서 '미술관 자료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큐레이터는 그 기능에 따라서 연구를 담당하는 직종,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직종, 전시 관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등으로 세분된다. 연구, 교육 실무 외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도 있다. 작품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전시 기술과 더불어 작품의 실물 및 현상에 관련된 도서나 문헌 등에서부터 녹음, 녹화에 이르는 모든 자료에 관한 조사를 토대로 이를 수집, 구입, 교환, 제작, 수여, 기탁과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시, 보존, 복원,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 그 외 여러 분야

치료나 상담 등에서도 미술이 활용되는 등 미술 분야가 폭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미술의 활용이 여러 직업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미술 치료사, 미술 심리 상담사 등이 이러한 분야에 속하며 건축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술 감독 등도 미술과 관련된 직업에 속한다.

▶ 탐구 활동 직업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 준비물 |

- 활동지 및 검색 도구

| 수업 과정 |

- ① 검색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조성된 교실에서 자료를 찾는다.
- ② 대화 형식의 가상 인터뷰를 구성하여 활동지를 완성한다.
- ③ 작성한 활동지 내용을 발표하거나 경청하며 활동 과정에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가상 인터뷰 작성을 위한 활동지 예시 |

안녕하세요? 00씨는 _____ 직업인으로 _____ 년 간 일하셨는데요. 원래 어릴 적 꿈도 이 직업과 관련이 있었나요?

아, 네. 그럼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 그러셨군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런 어려움도 있군요. 하지만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때에 가장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나요?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 정리 및 평가 |

- 미술과 관련된 직업의 특징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담겨 있는가?

■ 지식 참고

직업 탐구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 커리어넷 www.career.go.kr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www.work.go.kr/jobMain.do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ku/index.jsp>



생각과 표현

6. 아름다움의 원리
7. 세상을 물들이는 색
8. 개성 있는 인물 표현
9. 우리와 함께하는 정물과 풍경
10. 상상과 추상의 세계



단원 개관

이 대단원은 의도에 적합한 주제 탐색 및 표현 과정 계획 능력, 표현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탐색하고, 표현 과정을 계획·점검하며,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 등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작품 속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구한다. 색의 속성, 색상환과 색입체, 색의 혼합, 색의 대비, 색의 상징 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색의 다양한 활용들을 탐구하면서 색과 관련된 기초 개념과 원리를 깨닫는다. 이를 바탕으로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상상화, 추상화와 같은 회화의 전통적인 장르들과 관련된 조형의 세계에 대하여 이해를 확장토록 한다.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 절차, 표현 효과 등의 탐색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원 목표

-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와 적합한 표현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계획할 수 있다.
-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할 수 있다.

단원 교수·학습 계획

소단원명	차시	학습 내용	교과서 쪽
6. 아름다움의 원리	2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시각적 효과, 특징 이해하기 •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시각적 효과 분석하기	20~23
7. 세상을 물들이는 색	3	• 색의 속성, 혼합, 대비, 상징에 대해서 탐색하여 설명하기 • 일상 속에 적용된 색의 혼합, 대비, 상징 발견하고 분석하기	24~27
8. 개성 있는 인물 표현	3	• 인물을 주제로 하여 다양한 표현 재료 및 기법에 의한 표현 탐색하기 • 시점에 따른 인물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기 • 동서양의 인물 표현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28~31
9. 우리와 함께하는 정물과 풍경	3	• 기명절지화와 정물화의 시점과 기본 형태 이해하기 • 작품 속의 정물들의 상징적인 의미 탐구하기 • 산수화와 풍경화의 원근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 산수화와 풍경화에 담긴 일상의 내용 탐구하기	32~37
10. 상상과 추상의 세계	3	• 상상화와 추상화의 개념 이해하기 • 상상화와 추상화의 표현 방법 탐색하기	38~43

6 아름다움의 원리

교과서 pp. 20~23

단원 설정 이유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작품의 주제와 표현 의도,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한 이해는 미술을 이해하는 기초라 할 수 있다. 본 단원에서는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와 그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탐구해 봄으로써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의 기초를 다지도록 한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주제 및 표현 의도와 조형 요소와 원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주변 환경 속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다.
차시	2
평가 요소	• 주제 탐색 능력, 창의성, 조형 요소와 원리의 효과적 활용 능력
평가 방법	• 실기 평가, 연구 보고서법, 토론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창의·융합 능력, 자기 주도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2-03 / 9미02-05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엔리케 올리베이라의 작품을 보고 재료, 만든 방법, 시각적 느낌을 탐색해 본다.
- 교사가 제시하는 단어(조형 요소와 원리)의 뜻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고 작품과 관계되는 것을 골라 본다.
- 시야를 확장하여 교과서 속 작품과 단어를 연결지어 보고 작품과 단어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
 - 관련 조형 요소와 원리: 면, 양감, 질감, 반복, 대비, 강조, 동세

전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

- 작품 사진과 동영상을 토대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 및 특징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다.
-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본다.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효과 이해]

- 작품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시각적 느낌 및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 작품과 조형 요소와 원리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본다.

[탐구 활동]

- 활동 1, 활동 2 중에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성취 수준을 고려한 다음 선택하여 진행한다.

정리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 작품 속에 조형 요소와 원리로 인한 시각적 효과에 대해 서술해 본다.

생각과 표현

06 아름다움의 원리

학습 목표

- 작품의 주제 및 표현 의도와 조형 요소 및 원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주변 환경 속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다.

교과서 미술 ①-05

생각 열기

미술 작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는 작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든 것인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 번 관찰해 보자.

미술의 시작, 조형 요소와 원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가 우선 필요하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다루는 요리법도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미술 작품의 재료는 조형 요소, 미술 작품의 요리법은 조형 원리라 할 수 있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결합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 형태, 심리적인 효과, 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해 보기

아래 단어 중에서 작품과 관련된 단어를 골라 보자.

경 신 면 세 질감 양감 반복 대비 공간 움직임 리듬 강조



리얼리(Reily, Bridget/영국/1931-) **주사위다(Hesitate)**
브라운 유채/76.2x76.2x1.9cm/1964년 7월 16일 1차 전시
반복과 이동으로 공간이 마치 불꽃 튀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콘스(Koons, Jeff/미국/1955-) **홍선 토끼(스테인리스 스틸)**
24x26x27.18x205.1cm/2005-2011년 1차 신장한 완성
의 특징과 질감 반사율 변화하는 여러 표면 질감의 특징
적이고 홍선 같은 불특정특린 양감이 모여 유쾌한 작품을 만들었다.



올리베이라(Oliveira, Henrique/브라질/1929-) **자연(Desnaturacao)**합판, 설치 미술/3.1x3.8x3.6m/2011년 1차 합판의 표현 특성을 활용하여 올라가는 듯한 기운이 느껴지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말라스(Malaco, Morgana/영국/1986-) **타임머신(The Time Machine)**종이, 물감, 주사위/2016년 1차 종이로 조각 만든 여러 모양의 면재를 겹쳐 붙여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20

지도상의 유의점

- 새로운 미술 용어들이 다수 등장함으로 설명에 주의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올리베이라 / 자연

공사장에 버려진 합판들을 모아 만든 작품이다. 거친 표면과 가장자리, 얇은 두께,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진 합판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붓자국, 타일로 보인다. 합판이 모여 완성된 나무의 줄기와 뿌리 같은 그의 작품은 멀리서 보면 육중한 역동감을 느끼게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색이 바랜 조각 하나하나가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다. 탄생과 소멸이 하나의 작품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다.



합판을 모아놓고 채색 작업 중이다. 공사장의 폐기물이 미적 대상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조형 요소

조형 요소에는 점, 선, 면, 형, 색, 빛, 질감, 양감 등이 있다. 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조형 요소이고, 선은 얇고 긴 형태로 사물의 윤곽, 형태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면은 점과 선의 집합과 확장으로 만들어지는 평평한 모양의 조형 요소를 말한다.



인크스투디오(영국)에(2006년) 그레픽 축제(종이 30x35x20cm/2013년 작) 이의 모양의 색종이를 구부리거나 잘라서 형태와 단계를 표현했다.



다웨이(Dawe, Gabriel)에(1973~) 플렉서스 24번(Plexus no.24/성, 나우) 70x10x40cm/2013년 작) 무지개색 색의 실을 반복적으로 꿰어 공간감과 리듬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형은 점, 선, 면의 관계선에 의해 알 수 있는 외형적 모양이고, 색은 주체와 감정, 형태,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빛은 사물과 색채를 알아보는 데 근원이 되는 요소이다. 질감은 손으로 만지거나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작품 표현의 촉각적 느낌을 말하고, 양감은 물체의 부피, 무게감, 당어리감을, 공간은 삼차원적 깊이감과 넓이감을 가리킨다.



사바스(Savaš, Nike)오스트레일리아(1964~) 원자: 사랑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연등, 설치 미술(77번 크기/2009년 작) 색채의 명암분을 공중에 반복 배치하여 무수한 장소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냈다.



할란(Harlan, Dev)미국(1978~) 파르메네데스(Parmenides/탈로 코루, 석고, 나무, 알루미늄) 2x2.5x2.5m/2011년 작) 이의 색상과 패턴의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이 작품 표현에서 계속 움직이며 변화하는 작품이다.

탐구 활동 1 조형 요소와 원리 찾아보기

- ① 학교 공간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 사진을 찍는다.
- ② 조형 요소와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사진 한 장을 골라 제목과 소개글을 작성한다.



강제현(학생 작품) 무제(사진 32x49.5cm/2016년 작) 영등 대리가 강렬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문현세(학생 작품) 홍식, 청운을 굽기(사진 32x49.5cm/2016년 작) 인디의 담장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학교 공간 속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 사진 찍기

● 라일리 / 주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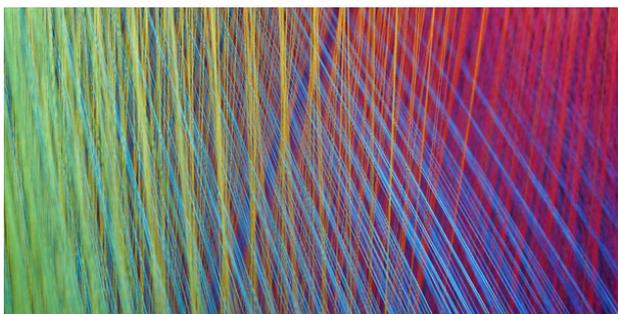
깔끔한 외곽 라인과 섬세한 색상 배열이 돋보이는 기하학적 작품으로 착시로 인해 작품이 물결치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 사바스 / 원자: 사랑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전시 공간 전체에 실로 공을 공중에 빼곡히 설치함으로써 공간에 들어선 관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작품은 저마다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환상적인 공간 속에서 작품과 관객이 서로 상호 소통하는 작품이다.

● 다웨이 / 플렉서스 24번

멕시코 문화의 강렬함과 색채를 작품에 담아낸 작품으로 남성에게 금지되었던 섬유 및 자수를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과 남성주의의 가치관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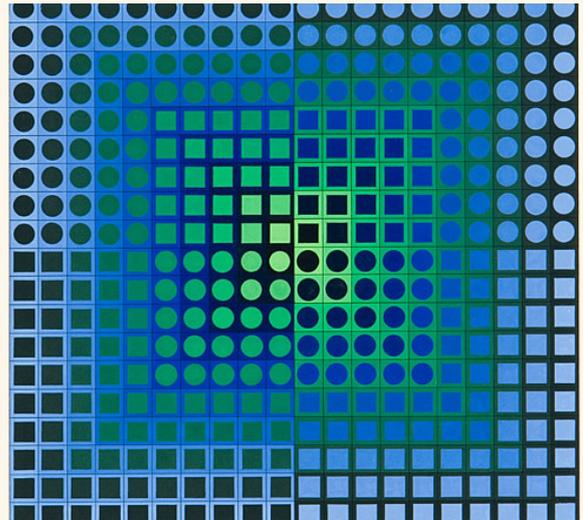


플렉서스 24번 세부 확대

■ 지식 참고

움타트

옵티컬 아트(Optical art)의 줄임말로 기하학적 형태와 미묘한 색 변화, 원근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눈에 착시를 일으켜 환상을 보이게 하는 과학적 예술의 한 종류이다. 평면적으로 그렸으나 입체적으로 보이고, 정지되어 있거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당시 디자인과 패션계에 영향을 많이 끼쳤으나 사고와 정서를 배제한 계산된 예술로 일반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바자렐리(Vasarely, Victor/헝가리→프랑스/1906~1997) 줄드 5(종이에 템페라/ 25x25cm/1967) - 모양과 면적이 똑같지만 색상 간의 대비로 인해 서로 크기가 달라 보인다.

탐구 활동 1 조형 요소와 원리 찾아보기

| 준비물 |

사진기

| 수업 과정 |

- ① 학교 공간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 사진을 찍는다.
- ② 조형 요소와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사진 한 장을 골라 제목과 소개글을 작성한다.

| 정리 및 평가 |

- 조형 요소와 원리가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는 요소를 학교 공간에서 탐색할 수 있는가?
- 조형 요소와 원리의 개념과 특징을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탐구 활동 더하기 1 | 우리 학교 속 숨은 조형 요소와 원리 사진전

- ① 학교 공간에서 찾아낸 조형 요소와 원리가 담긴 사진을 모아 놓고 의견을 나눈다.
- ②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조형 요소와 원리가 드러난 작품을 투표로 뽑는다.
- ③ 종이 액자에 넣은 다음 복도 벽에 게시하여 사진전을 열어 학교 공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죽녹원 대나무 숲길

대나무의 역사가 깊은 담양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2003년 조성한 16만여㎡의 울창한 대나무 숲길이다. 하늘에 닿을 듯 길게 뻗어 있는 대나무 가지와 잎 사이로 부는 바람과 스삭스삭대는 댓잎 소리가 멋스러운 곳이다. 머리를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죽림욕이 유명해지면서 연간 120만명이 이곳을 찾고 있다.

● 클레 / 황금 물고기

질은 푸른 빛의 배경 한가운데 있는 황금색의 물고기가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다. 마치 빛이 나는 듯한 색채 대비와 구불구불한 선이 자아내는 음악적 운율이 시각적 재미를 더한다.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색채와 단순한 선로 메시지나 감정 등을 표현하였다.

탐구 활동 더하기 2 | 소인국 연출 사진 제작하기

| 준비물 |

카메라, 종이, 코팅지, 가위, 테이프, 조별 소품

| 제작 과정 |

- 1 조별로 소인국을 주제로 연출할 상황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상한다.
- 2 제작에 필요한 포즈, 소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 3 개인별로 동작을 촬영한 다음, 원하는 크기로 인쇄한다.
- 4 사람이 있는 부분만 잘라낸 다음 코팅한다.
- 5 준비한 소품과 함께 상황을 세부적으로 연출한 다음 전체를 촬영한다.

| 정리 및 평가 |

- 인물과 소품(대상)의 크기 및 비율의 대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 연출 상황이 창의적이고 주제에 적합한 동작과 소품을 적용하였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개인별 동작 촬영 시, 대기하는 학생 수가 많으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품 제작과 같은 과제를 제공한다.



최준수 외 3명(학생 작품) 어이! 거기!(사진/가변 크기/2016년 작)



죽녹원 대나무 숲길(전년 담양) 쪽쪽 뻗은 초록 대나무의 선이 무수히 겹쳐져 견고함과 영롱한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조형 원리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의 결합과 배치에 관련된 것으로 반복, 대비, 강조, 동세, 리듬 등이 있다. 반복은 동일한 실질이나 규칙성을 가지고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대비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고, 강조는 형태, 색채, 크기, 위치 등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동세는 대상이나 화면에서 느껴지는 운동감, 속도감을 말하고, 리듬은 비슷한 요소들의 연속 구성에서 느껴지는 동적, 정적, 음악적인 운동감을 말한다. 균형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평형의 상태를, 비례는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 비율을 뜻한다.



클레(Klee, Paul/스위스/1879~1940) 황금 물고기(엔비스채 유채/49.6x69.2cm/1925년) 짙은 푸른 빛의 배경이 대비를 이루며 마치 물고기가 반짝반짝 빛을 내는 듯하다.



레베르거(Rehberger, Tobias/독일/1966-) 나비, 뒤를 그리고 아외(색연필, 페인트/가변 크기/2016년 작) 검은색과 흰색의 동우체를 다양한 공간과 방향으로 교차 배치하여 양면적인 리듬감과 동세를 느끼게 하고 선명한 원색으로 유감의 특징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조형 원리가 모여 변화, 통일, 조화의 조형 원리를 만들어 낸다. 변화는 서로 다른 요소가 만나 생기는 시각적 재미, 동일은 서로 다른 요소가 하나로 완성되어 보이는 것, 조화는 서로 다른 혹은 비슷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느껴지는 시각적 안정감을 말한다.



서해원 외 3명(학생 작품) 화장품 나라(사진/가변 크기/2016년 작) 상서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의 크기에 변화를 주어 화장품 크기와 신기한 대비를 이루는 작품이다.

22



김혜인 외 3명(학생 작품) 공사 현장(사진/가변 크기/2016년 작)

! 생각해 보기 해설 | 조형 요소와 원리의 구분



작품 속 조형 요소와 원리 이야기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작품의 주제나 작가의 표현 의도 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제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사용은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고,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며, 많은 관람자의 공감을 끌어낸다.



구엘 공원 야외(바르셀로나/일본/1929-) 꽃 위의 반딧불(Installation) 크기(2013년 작) 자신의 정신적 장면을 미술로 승화시킨 환상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빛과 어둠의 대비, 그리고 빛나는 작은 조형의 반복, 거울을 통한 공간의 확장이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가우디(Gaudi, Cornet, Antoni)에스파냐/1852-1926) 구엘 공원을 설계한 바르셀로나/1914년 작 건축 속에 자연을 담아내기 위해 부드러운 곡선에 의한 물동미와 따뜻한 느낌을 담아내는 정감,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색채의 조화와 대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탐구 활동 2 작품 속 조형 요소와 원리 분석하기



JSA(독일) Ambi pur Bathroom/Ambient Ads/180x90cm/2010년 작 화장실의 설치된 벽의 광고로 문을 열면 꽃대형 형태가 펼쳐지는 독특한 광고이다.

- 광고가 설치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 무엇을 광고하고 있을까요?

- 주제와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를 두드러지게 사용했나요?

조형 요소: _____

조형 원리: _____
- 조형 요소와 원리가 주는 광고의 시각적인 느낌은 어떤가요?

- 광고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 점검해 보기
 ·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를 알고 구별할 수 있는가?
 · 작품 속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발견하여 그 시각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가우디 / 구엘 공원

가우디는 건조한 기하학적 건축 양식에서 벗어나 나무, 하늘, 구름, 바람, 식물 등 자연의 사물에 대한 관찰과 고민을 하였다. 그 결과 그의 작품에 곡선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내부와 색, 빛이 한데 조화로운 건축물을 지었다. 구엘 공원은 자연미와 조형미의 절묘한 조화를 색감을 통해 보여주는 곳이다. 소나무, 떡갈나무, 종려나무, 백리향 등의 나무와 재스민, 등나무 같은 덩굴 식물, 건축 자재로 사용된 타라코나 지방의 마른 돌맹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각의 고유한 색과 불규칙한 배열이 자연의 풍경에 녹아들어 있다. 친환경적 공법으로 지어졌으며 1984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



구엘 공원의 세부 전경



● JSA / Ambi pur Bathroom

화장실용 방향제 제품 광고의 일환으로 실제 화장실에 광고물을 설치했다. 사진을 촬영한 다음 디지털 기기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공간에 실물을 설치한 것이다. 장소 특이적 광고로 소비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말을 거는 형태이다. 문을 열고 닫을 때, 꽃 향기를 형상화한 팝업 형태의 광고물이 펼쳐졌다가 접혔다 하면서 소비자의 시선을 끈다. 확실한 메시지 전달력과 함께 독창성, 심미성을 모두 충족하는 광고이다.

탐구 활동 2 작품 속 조형 요소와 원리 분석하기

| 준비물 |

필기도구

| 수업 과정 |

- ① 광고를 세부적으로 관찰하여 설치된 위치, 광고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표현 재료 등을 분석한다.
- ②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본다.
- ③ 광고 속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가 주는 시각적 효과를 분석해 본다.
- ④ 광고 표현의 특징과 그 표현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 정리 및 평가 |

- 광고의 재료, 장소,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찾아낼 수 있는가?
- 광고에 적용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종류와 그 시각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 광고 표현의 특징과 그 표현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광고 부분 확대

<탐구 활동의 예시>

- 광고가 설치된 장소: 화장실
- 광고물: 화장실용 방향제
- 효과적인 주제 전달을 위해 두드러지게 사용한 조형 요소와 원리 : 색, 형, 양감, 공간, 강조
- 조형 요소와 원리가 주는 광고의 시각적인 느낌은 어떤가요? : 화려하다. 눈에 띈다. 입체적이다. 꽃이 피어나는 것 같다.
- 광고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 방향제의 꽃 향기가 화장실로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팝업북의 형태로 형상화하였다. 관객이 문을 열고 닫는 행위와 맞물려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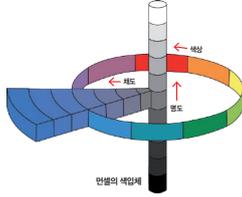
색상환과 색입체

색의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로 색상환과 색입체가 있다. 색상환은 색상의 변화, 중간색, 유사색, 보색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원형의 색상표이다. 색입체는 색의 3속성의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색상은 원, 명도는 수직선, 채도는 방사선을 기준으로 입체적으로 배열한 것이다.



색의 혼합

빛을 이용해 색을 혼합하는 것을 가산 혼합이라고 한다. 혼합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밝아지는 것이 특징이며, 컴퓨터나 TV 화면, 조명, 휴대 전화 화면 등에 사용되는 색 혼합을 말한다. 색을 혼합할 때, 혼합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지는 혼합은 감산 혼합이라 하며, 포스터 물감, 수채화 물감 등을 이용한 색 혼합을 말한다. 중간 혼합은 빛이나 물감을 직접 섞는 것이 아니라, 색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움직임을 가해졌을 때 섞여 보이는 착시 현상에 의한 색 혼합이다. 중간 혼합에는 병치 혼합과 회전 혼합이 있다.



▶ 탐구 활동 1 생활 속 색 혼합 찾아보기

가산·감산·중간 혼합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찾아보고,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해 보자.

병치 혼합



시냐크(Signac, Paul/프랑스/1863-1935) 분홍빛 구름(원본: 73x92cm/1909년 작) 정묘법으로 그려진 신인상주의 작품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 색상이 하나로 어우러져 보이는 병치 혼합이 적용되었다.



팽이를 돌리면 회전하면서 색상이 하나로 섞여 보이게 된다.

! 생각해 보기 해설

색의 명칭과 가장 관계가 깊은 색의 3속성은 색상이다.

● 월크스 / 파리 투르넬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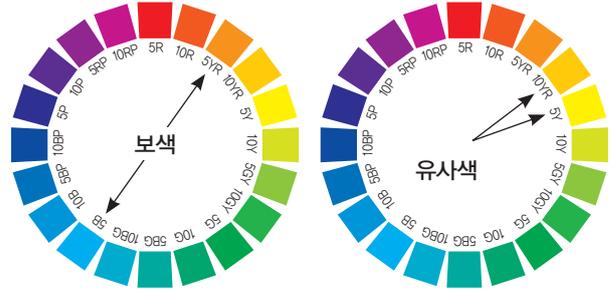
포토 콜라주에서 보다 발전한 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작품이다. 명소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풍경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최소 10시간 이상 일정한 가격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촬영한 수천 장 사진을 컴퓨터로 편집하여 낮과 밤이 공존하는 하나의 사진으로 만든다. 시간의 흐름, 날씨의 변화,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변화 등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모두 담겨 있다.



그랜드캐니언(사진/77.47x135.89cm/2015년 작)

● 색상환과 색의 관계

색상환에서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색을 보색, 서로 인접해 있는 색을 유사색이라고 부른다. 파랑, 초록과 같은 차가운 느낌의 한색과 빨강, 노랑과 같은 따뜻한 느낌의 난색,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성색이 있다.



● 시냐크 / 분홍빛 구름

물감을 섞어 그린 것이 아니라 원색의 색점을 인접하게 찍어 완성한 작품이다. 멀리서 보면 연한 보라와 분홍빛 하늘을 가까이에서 보면 서로 다른 색깔의 점이 무수히 많이 찍혀 있다.



《분홍빛 구름》 작품의 하늘 부분 확대

▶ 탐구 활동 1 생활 속 색 혼합 찾아보기

| 준비물 |

카메라, 필기도구

| 수업 과정 |

- ①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가산 혼합, 감산 혼합, 중간 혼합이 적용된 사례를 탐색한다.
- ② 실제 사례를 찍은 사진을 인쇄하여 보고서에 붙이고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찾아 작성한다.

| 정리 및 평가 |

가산 혼합, 감산 혼합, 중간 혼합에 적합한 일상 속 실제 사례를 찾아 그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색의 혼합 실제 사례

가산 혼합의 실제 사례	핸드폰 & TV 화면, 무대 조명 등
감산 혼합의 실제 사례	포스터 물감, 수채화 물감, 프린터기
중간 혼합의 실제 사례	카페트, 직물, 팽이, 원판 등

■ 지식 참고

잔상과 착시

정지된 이미지를 빠르게 움직였을 때, 눈의 망막에 이미지의 흔적이 잠시 남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개 이미지가 움직일 경우, 서로 영향을 받아 색이 섞여 보이거나 움직임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주로 애니메이션에서 활용된다.



조트로프(1834년경)-연속적인 동적이 그려진 종이띠를 회전시키고 바깥쪽에 세로로 된 구멍으로 보면 눈의 잔상과 착시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 색의 대비

- 색상 대비: 색상이 다른 색을 함께 배치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 색상의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
- 명도 대비: 명도가 다른 색을 배치했을 때, 명도가 높은 색은 더 밝게, 명도가 낮은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
- 채도 대비: 채도가 다른 색을 배치했을 때, 채도가 높은 색은 더 선명하게, 채도가 낮은 색은 더 탁하게 보이는 현상
- 보색 대비: 보색 관계인 두 색을 배치했을 때, 색이 더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
- 면적 대비: 색의 면적이 크면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이고, 면적이 작으면 명도와 채도가 낮아 보이는 현상

🔍 탐구 활동 더하기 | 실생활 속 색 대비 관련 사례 찾기

<p>인터넷으로 회색 니트를 샀는데 실제로 보니 색이 좀 어둡다. 어떤 색 하의를 입어야 색이 더 밝아 보일까?</p>	<p>며칠 밤을 샀더니 얼굴이 칙칙해졌다. 검정색과 핑크색 목도리 중 어떤 것을 해야 얼굴빛이 좀 더 선명해 보일까?</p>	<p>축제 공연 때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노란 티셔츠에 하얀 바지가 나올까 청바지가 나올까?</p>
<p>〈명도 대비〉 회색보다 어두운 색인 검정 바지나 진한 남색 바지를 입으면 원래 색보다 밝아 보인다.</p>	<p>〈채도 대비〉 칙칙한 피부빛에 생기를 더하려면 피부색보다 채도가 낮은 검정색 목도리를 하는 것이 좋다.</p>	<p>〈채도 대비〉 노란 티셔츠를 입었을 때, 멀리서도 선명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하려면 보색 관계에 있는 청바지를 입는 게 낫다.</p>

■ 지식 창고

한난 대비와 연변 대비

- [한난 대비] 차가운 느낌의 한색과 따뜻한 느낌의 난색을 대비시켰을 때, 상대되는 서로의 속성이 더 상승하는 대비 효과를 말한다.



맥커리(McCurry, Steve/미국/1950~) 인도 블루 시티(사진/가변 크기/2016년 작) - 파랑과 빨강의 강한 대비로 파란색은 더 차갑게 빨간색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색의 대비

맑은 한낮의 노란 우산보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날의 노란 우산이 더 눈에 잘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색이라도 주변 색이 어마어마에 따라 명도, 채도, 색상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색채 대비라 한다. 색채 대비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색상 대비 | 색상이 다른 색을 함께 배치했을 때, 서로 영향을 받아 색상의 차이가 커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색의 포도라도 바탕 접시의 포도는 좀 더 밝은 빛이 들고, 빨간 접시의 포도는 좀 더 어두운 빛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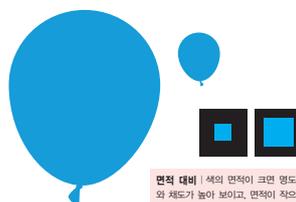


명도 대비 | 명도가 다른 색을 배치했을 때 명도가 높은 색은 더 밝게, 명도가 낮은 색은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화색의 차라도 어두운 배경에서 더 밝아 보인다.

한술 한술

지나술(박성 작) 행복(원주대 그래픽/가변 크기/2016년 작)

채도 대비 | 채도가 다른 색을 배치했을 때 채도가 높은 색은 더 선명하게, 낮은 색은 더 탁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분홍색이라도 채도 차가 큰 화색과 분홍을 때 더 선명해 보인다.



면적 대비 | 색의 면적이 크면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이고, 면적이 작으면 명도와 채도가 낮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같은 색의 풍선이라도 면적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인다.



보색 대비 | 보색 관계인 두 색을 배치했을 때, 색이 더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단청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초록과 빨강이 대비를 이뤄 색감이 더 선명해 보인다.

- [연변 대비] 서로 색이 인접해 있는 경계면이 다른 부분보다 색상, 명도, 채도 대비가 더 강한 것을 말한다.



켈리(kelly, Ellsworth/미국/1923~2015) 스펙트럼 2(캔버스에 유채/203.2x 693.4cm/1966-67) - 색면이 서로 인접해 있는 부분의 명도, 채도, 색상대비가 강해 선을 그어놓은 듯이 튀어나와 보인다.

● 색의 상징

- 하양: 희망, 생명, 빛, 긍정, 순결함, 가벼움
- 검정: 절망, 죽음, 어둠, 부정, 불결함, 무거움
- 빨강: 생명, 열정, 사랑, 권력, 탐욕, 흥분
- 노랑: 부유함, 성스러움, 고귀함, 욕망, 관능
- 초록: 자연, 생명, 평화, 신선함
- 파랑: 이성, 청결, 쓸쓸함, 우울함
- 보라: 우아함, 고귀함, 불안

● 피카소 / 늙은 장님 기타리스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푸른 색의 그림 속에 담겨 있다. 작품에 사용된 파랑은 그에게 절망의 색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그는 늙은 뚜쟁이, 알코올 중독자, 장님 등을 그렸는데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시기를 이른바 청색 시대라고 부른다.

색의 상징

색은 우리의 성별, 연령, 성격, 경험, 기억,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무수히 많은 감정을 불러 일으키고, 어떤 대상이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되면 색은 사회적인 언어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빨간색의 경우 불·위험·분노 등을 상징하여 주의할 필요로 하는 장소나 상황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색의 상징을 찾아보자.



올림픽 오륜기 올림피 마르크의 오륜은 5대륙을 상징한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붉은 장님 기타리스트**(나무 패널에 채색/122.9×82.6cm/1931년 작) 강푸른색을 사용하여 그림 속에 인물함과 슬픔을 담아냈다.

탐구 활동 2 색의 상징 찾기

- 올림픽 오륜의 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오륜기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색의 상징을 이용한 사례를 탐색하고 그 의미와 특징,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



한국의 색, 오방색

오방색은 한국의 전통 색상으로, 음양오행 사상을 담아낸 백(白), 적(赤), 황(黃), 청(靑), 흑(黑)의 5가지 색을 말한다. 중앙과 동서남북의 사방, 계절 등을 상징한다. 오방색은 고분 벽화, 민화, 불화, 색동옷, 노래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정해조(한국/1945-) **Five color Luster 0831**(도자공예, 분필/2013년 작) 오방색과 전통 꽃살 기법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강서대묘 고분벽화(고구려) 최숙부터 **황룡도**, 백호도, 현무도, 주작도 사신도는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점검해 보기

- 색의 속성, 혼합, 대비 상징 등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일상생활 속에서 색의 다양한 활용 예를 탐색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탐구 활동 2 색의 상징 찾기

| 준비물 |

필기도구

| 수업 과정 |

- ① 컴퓨터, 휴대 전화,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오륜기에 사용된 색의 상징성에 대해 탐색한다.
- ②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고, 오륜기에 그 색들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본다.
- ③ 오륜기와 같이 우리 생활 속에서 색의 상징을 사용한 사례를 찾아 본다.

| 정리 및 평가 |

- 오륜기 색에 담긴 상징성을 정확하게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주변 환경 속에서 색의 상징을 사용한 사례를 찾아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올림픽 오륜기

올림픽 대회기로서 오륜기 또는 올림픽기라고도 한다. 1914년에 쿠베르탱의 고안으로 만들어졌는데 올림픽기로서 정식으로 계양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 앤트워프 대회 때 부터이다. 오륜기는 백색 바탕의 중앙에 올림픽 마크가 그려져 있다. 왼쪽으로부터 청색·황색·흑색·녹색·적색의 순서로 다섯 개의 둥근 고리가 'W'자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유럽·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아메리카 등의 5대륙을 상징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당시 각 나라

의 국기들이 거의 이 다섯 가지 색깔로 구성된 데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 오방색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의 5가지 색을 말한다.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아 황(黃)은 중앙, 청(靑)은 동, 백(白)은 서, 적(赤)은 남, 흑(黑)은 북을 뜻한다. 황(黃)은 오행 가운데 토(土)에 해당하며 우주의 중심이라 하여 가장 고귀한 색으로 취급되어 임금의 옷을 만들었다. 청(靑)은 오행 가운데 목(木)에 해당하며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쓰였다. 백(白)은 오행 가운데 금(金)에 해당하며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한다. 적(赤)은 오행 가운데 화(火)에 해당하며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여 벽사의 빛깔로 쓰였다. 흑(黑)은 오행 가운데 수(水)에 해당하며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음양오행사상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었는데, 색동저고리, 간장 향아리에 두른 붉은 고추를 단 금줄, 국수에 올리는 오색 고명, 단청, 조각보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색동저고리와 다홍치마



잔치 국수와 오색 고명

● 강서대묘 고분 벽화 / 사신도

사신도는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상징적인 동물로 사방을 수호하는 청룡(동쪽), 백호(서쪽), 주작(남쪽), 현무(북쪽)를 그린 그림이다. 도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무덤 벽화로 그려져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 정해조 / Five color Luster 0831

한국의 전통 공예 기법인 옷칠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미감을 가진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물결치는 듯한 형태와 은은한 광택이 한국의 미를 느끼게 한다.

8 개성 있는 인물 표현

교과서 pp. 28-31

단원 설정 이유	인물화는 회화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였으며 현재에도 꾸준히 그려진다. 개성 있는 인물화를 표현하는 재료, 기법 등의 이해를 꾀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	인물을 표현한 예술 작품을 보고 현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새로운 표현 방법의 작품을 감상하고 재료에 따른 표현 효과를 말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토론법,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구술 시험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창의·융합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2-03 / 9미02-04 / 9미02-06

교수·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개성 있게 표현한 인물화 작품을 예시로 보여 주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연스러운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
- 수업을 시작할 때 인물화와 관련된 작품을 제시하여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흥미를 유도한다.

전개

[개성 있는 인물 표현]

- 척 클로스의 인물화 감상: 척클로스에 관한 개인사를 얘기하여, 창의력 향상과 사고의 확장을 유도한다.
- 조선 시대 초상화의 전신 사조의 의미와 배재법에 대해 설명한다.
- 페르메이르 인물화에서 보이는 빛과 색채의 송고함에 대해 설명한다.
- 자화상, 초상화, 군상화, 역사화 등 인물화의 종류와 다양한 작품들을 예시를 통해 보여 주고, 그 특징과 역사적 의의 등을 설명한다.

[인물의 표현 요소]

- 표정
 - 인물의 성격과 내면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다.
- 비례
 - 얼굴과 몸, 눈, 코, 입 등의 크기의 비율을 말한다.
- 균형
 -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상하좌우의 어울림을 말한다.
- 동세
 - 작품에 활력과 생동감을 주는 요소이다.

정리

- 과제 내용: 작가 작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찾는 창의적인 내용의 느낀점을 간단하게 10줄 글로 표현한다.
- 평가 방법: 개별 리포트 평가.
- 평가 기준: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하여 성실한 리포트를 제시했는가?

08

개성 있는 인물 표현

학습 목표 · 인물을 표현한 예술 작품을 보고 현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술 ① - 04. 0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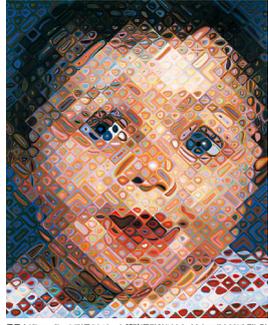
생각 열기

개성 있는 인물화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

인물은 오래전부터 미술의 중요한 소재가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전통적인 인물화에서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미술가들은 인물을 소재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다. 인물화를 표현할 때는 인물의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인체의 비례와 균형, 동세의 특징을 관찰하여 인물의 표정과 개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루소(Roussau, Henri/프랑스/1844-1910) 자화상(캔버스에 유화/146x113cm/1890년 작)



클로스(Close, Chuck/미국/1940-) 엠마(아크릴/109.2x88.9cm/2002년 작) 격자무늬 유리를 통해 바라본 것 같은 개성 있는 표현으로 그린 인물화이다.



장경삼(한국/1975-) 한국 배럴릭 스타일(장지에 혼합 재료/130x162cm/2009년 작)



베르메이르(Vermeer, Jan/네덜란드/1632-1675) 비자널 앞에 있는 귀부인(캔버스에 유채/51.7x45.2cm/1670-1672년 작) 고요한 자세와 빛의 온유함 이를 표현한 상징적인 그림이다.



정해원(학생 작품) 삼촌 얼굴(종이에 수채/36x27cm/2016년 작)

지도상의 유의점

- 개성 있는 인물을 표현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의 표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친구의 모습에서 특징을 찾아보고 인체 비례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클로스 / 엠마

이 작품은 격자무늬 유리를 한 겹 걸치고 바라본 것 같은 작품으로, 일본식 목판화 기법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클로스는 주변 인물의 얼굴을 세밀하게 그린 대형 초상화를 그렸다. 클로스의 판화 작업은 대부분 이미 그려진 페인팅 인물화를 다시 모델 삼아 프린트로 찍어낸 것이다. 현재 롱 아일랜드와 뉴욕시에서 살며 활동 중이다. 인물 사진을 찍어 격자무늬의 구획으로 나눈 뒤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 점을 찍어 핑거 페인팅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다. 1972년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초상화를 다시 판화로 찍는 작품을 선보였는데, 실험을 통해 기법의 다양한 장르를 보인다. 메조틴트, 에칭, 실크 스크린, 펄프 페이퍼 등 다양한 기법이 응용되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일본 우키요에 목판화에 매료되어 제작한 목판화 <엠마(Emma)>가 유명하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 테이트 갤러리,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8년에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나 작품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다양하게 표현된 인물

인물은 전통적으로 회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로 이어져 왔다. 특히 종교화, 역사화, 풍속화 등에서도 인물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화가들이 그린 인물화를 보면 형태를 단순화하거나 변형하여 내면의 세계가 드러나도록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물화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을 자화상이라 말하며, 수많은 화가가 자신의 자아를 담은 자화상을 많이 남겼다.

인물은 그림 때는 표정과 동세, 균형, 비례 등을 관찰해야 한다. 특히 비례는 인체 표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등사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양한 표현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개성 있는 인물을 표현한 작품을 보고 비례, 균형, 동세 등의 요소를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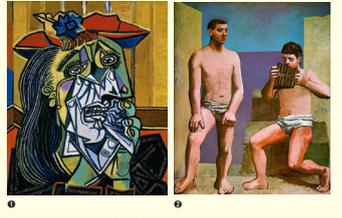
살레르(Salvador Dalí) 1904~1989 **자화상**(비율에 유채33.2x39.8cm/1972년 작) 볼 안에 사인 화가의 내면을 강렬한 선과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살로(Kahlo, Frida) 1907~1955 **자화상** (유채73x53cm/1933년 작)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으로 승화한 자화상이다.
앙그레(Ingres, Jean-Auguste-Dominique) 프랑스 1780~1867 **오송향 벽화 부인**(비율에 유채130x92cm/1845년 작)
몽크(Munch, Edvard) 노르웨이 1863~1944 **울음**(비율에 유채89x66cm/1910년 작) 실과 죽은 불명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극적이고 내면적인 인물화이다.
모딜리아니(Modigliani, Amedeo) 이탈리아 1884~1920 **흰색의 후살**(비율에 유채66x47cm/1919년 작) 긴 목을 가진 단순화된 여인이 미묘한 색조를 표현되어 있다.

다 알아보기 **일시결과 다시점**

이 그림은 압채파 화가인 피카소의 작품이다. 두 그림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그림 ①은 인물을 여러 방향에서 보고 그린 다시점에 의한 그림이다. 이 때문에 그림은 조각의 파편처럼 표현되고 있다. 반면에 그림 ②는 인물을 한 방향에서 보고 그린 일시점에 의한 그림이다.



① **피카소(Picasso, Pablo)** 에스파냐 1881~1973 **우는 여인**(비율에 유채60x40cm/1937년 작) 전경의 비극을 우는 얼굴을 통해 나타난 작품이다.
 ② **피카소(Picasso, Pablo)** 에스파냐 1881~1973 **pipes of pain**(비율에 유채205x174cm/1923년 작)

그림으로 맑은 색채가 작품의 주제와 어울려 명랑한 느낌을 전달한다.

● **칼로**

멕시코 민중 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으로 유명해졌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우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두 명의 프리다>(1939), <내 마음 속의 디에고 자화상>(1943) 등이 있다. 칼로는 1907년 멕시코시티 교외 코요아칸에서 출생하였다. 헝가리계 독일인인 아버지는 평범한 사진사였으며 딸에게 '프리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독일어로 평화를 의미했다. 프리다는 6세 때 소아마비에 걸려 오른 쪽 다리가 쇠약해지는 장애가 생겼고, 이 때문에 내성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이 되었다. 18세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평생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삶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녀의 작품 세계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칼로의 작품 세계는 멕시코적인 것에 뿌리를 둔 것이다. 프리다의 삶은 매우 연극적이었고 남성에게 의해 여성이 억압되는 전통적인 관습을 거부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에게는 20세기 여성의 우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작품으로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남편 리베라 때문에 겪게 된 사랑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자화상이 많다.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시선은 매우 투명하고 강한 빛을 발하는데 이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예술로 승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이후 칼로는 회저병으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골수이식 수술 중 세균에 감염되어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극심한 고통속에서도 1953년 프리다 기념전이 열렸으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마지막 일기에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대두되면서 그녀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했고, 1984년 멕시코 정부는 그녀의 작품을 국보로 분류하였다.

■ **지식 창고**

몽크

몽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누나, 남동생을 폐렴으로 잃고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작품의 창작열을 불태웠다. 81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외로운 삶을 살았다.

● **루소 / 자화상**

사실과 환상을 교차시킨 이국적인 정서를 주제로 다룬 풍경화와 인물화를 그렸으며, 순진무구한 소박한 영상이 참신한 조형을 이룬다. 루소는 “자연보다 나은 스승이나 교육은 없다.”고 평소 말했다. 정글의 야생 동물과 울창한 수풀의 이국적 자연 장면은 상상으로 그린 것이다. 루소는 태어나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주제들을 묘사하기 위해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과 식물원, 동물원을 찾아 인쇄물과 사진집 등을 참고했다.

● **페르메이르 / 버지널 앞에 있는 귀부인**

고요한 색채와 빛의 운유함을 표현하는 페르메이르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나는 그림이다. 화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였다. 그의 그림 실내 정경은 북구의 새벽 대기를 생각나게 한다. 부드러운 빛과 색깔의 조화로 조용한 정취가 넘친다. 초기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뚜렷한 대비는 만년이 될수록 완화되었다. 그 밖에 <편지를 읽는 여성>(드레스덴 미술관), <우유 따르는 하녀>(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티번을 쓴 소녀>(헤이그국립미술관), <레이스를 뜨는 여인>(루브르미술관) 등이 있다.

● **정경심 / 한국 패밀리스프**

가족의 모습을 밥그릇 속에 담아 익살스럽게 표현한 작품이다. 한국화 재료인 장지 위에 채색 물감을 덧칠하여 올린

일상생활 속의 인물

일상생활 속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관찰하여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풍속화라 한다. 풍속 화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소박하고 익살스러운 일상의 모습이며, 시대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시대에 많이 그려졌는데,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조영석 등이 대표적인 화가이며, 인 물들의 생김새와 표정을 해학적이면서도 정감 어린 분위기로 표현하였다.

풍속화 속 사람들의 의복과 행동 속에서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동서양의 풍속화를 감상하고 그 특징을 생각해 보자.



김홍도(조선 1745~1806) **논밭머슴**(종이에 담채/27×22.7cm)



브뤼겔(Bruegel, Pieter) 1525~1569(네덜란드) **농가의 결혼식**(파넬에 유채/114×164cm/1568년 작)



김홍도(한국/1745~1806) **우연을 가장한 만남**(종이에 수묵 담채/29×15.3cm/2014년 작) 한복을 입은 두 인물을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배치한 신선한 발상이 돋보이는 그림이다.



이중섭(한국/1916~1956) **길 떠나는 가족**(종이에 유채/31×50.8cm/1950년 1월 20일) 이 근대 화단의 대표적인 화가인 이중섭은 일제 강점기(1910.8.25 전쟁을 겪으며) 자신의 세월을 살았던 화가이다. 소달구지(탈)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에 대한 정과 슬픔이 느껴진다.



르누아르(Renoir, Pierre-Auguste) 프랑스/1841~1919 **발레 드 라 갈레트**(캔버스에 유채/131×175cm/1876년 작) 파리 무도회장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 속 인물들의 동작과 표정이 아름다운 작품이다.

▶ 점검해 보기
· 인물을 표현한 예술 작품을 보고 한때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아한 빛을 가진다. 선명도 높은 원색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절제된 중간 색조를 보이는 것은 비단 위에 칠한 석채가 우아한 빛을 발(發)하기 때문이며, 복채법(伏彩法, 화면 뒤에서 칠을 하여 안료가 앞으로 배어나 오도록 하는 기법)과 더불어 원색 사이에 중간색을 삽입한 것이다.

김홍도

조선 후기의 화가이다. 호는 단원(檀園)이다. 정조 재임 때 문예 부흥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여겨진다. 그는 산수화, 풍속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가였지만 고사 인물화 및 신선도, 화조화, 불화에서 독창적인 회화를 구축한 화가이기도 하다.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풍속 화가이며, 시도 써서 아들 김양기가 출판한 《단원유묵》이라는 문집도 있다.

이중섭

이중섭은 일본 분카학원 미술과에서 공부하였고, 원산 사범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2남을 두었으며, 친구인 시인 구상의 시집의 표지화를 그리기도 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원산을 탈출, 제주도를 거쳐 부산에 도착할 무렵 부인과 두 아들은 일본 동경으로 건너 갔으며, 이중섭은 홀로 남아 부산·통영으로 전

전하였다. 1953년 일본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으나 며칠 만에 다시 귀국하였다. 이후 줄곧 가족과의 재회를 염원하다 1956년 정신 이상과 영양실조로 40세에 적십자병원에서 사망했다. 인간적인 에피소드와 개성적 작품으로 1970년대에 이르러 재평가 작업이 일어났다. 작품의 소재는 소·닭·어린이·가족 등이 많으며, 불상·풍경 등도 있다. 향토성을 띠는 요소와 동화적이며 자전적인 요소이다. <싸우는 소>, <흰소>, <소와 어린이>, <황소>, <닭과 가족>, <길 떠나는 가족>과 은지화(담뱃갑 속의 은지에다 송곳으로 눌러 그린 선각화)들은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신윤복 / 주사거배

조선 후기의 화가로서 산수화와 풍속화를 잘 그렸다. 양반 관료들의 이중성과 위선을 풍자한 그림,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을 그렸다.



신윤복(조선/1758~?) **주사거배**(종이에 수묵 담채/28.2×35.6cm/18세기 작)

탐구 활동 1 동서양의 인물 비교해 보기

| 준비물 |

사진기

| 수업 과정 |

- ① 성민우의 작품과 아르침볼도의 작품을 감상한다.
- ② 작품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의 이름을 말해 보도록 한다.
- ③ 작가가 의도한 것을 추측하여 간단하게 말해 보도록 유도한다.

| 정리 및 평가 |

- 인물화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 인물화 작품을 보고 화가의 개성과 표현 의도를 이해하였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동서양의 인물화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회화(한국/1958-) Still Life Presses(앤버스에 유채/50×65cm/2009년 작) 정물에 담긴 사과와 포도 등을 물결에 일렁이는 듯 액곽하여 표현하였다.



유지현(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단청과 수채/27×39cm/2019년 작) 일상 속의 정물들을 점묘법으로 표현하였다.

정물 바라보기

정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 크고 자세히 보이고,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작고 전체적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점과 방향에서 관찰하면 정물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을 구, 원기둥, 육면체 등의 단순한 기하 형태로 바라보면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탐구 활동 1 화가의 눈으로 정물 바라보기: 정물을 바라본 시점과 기하 형태를 찾아보자.



세잔(Casimir Pissarro) 바구니가 있는 정물(앤버스에 유채/65×81cm/1888-1890년 작)

더 알아보기 정물화의 구조

구도는 작가의 의도에 맞게 모양, 색감, 위치 등을 화면에 구성하는 것이다. 구도의 3요소는 변화, 균형, 통일이다.	삼각형 구도	마름모 구도	원형 구도	역삼각형 구도	사선 구도
신재현(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발칸의 스텔프/29×42cm/2016년 작)	김현정(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발칸의 스텔프/29×42cm/2016년 작)	김현정(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발칸의 스텔프/29×42cm/2016년 작)	김현정(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발칸의 스텔프/29×42cm/2016년 작)	김현정(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발칸의 스텔프/29×42cm/2016년 작)	김현정(학생 작품) 정물(중이에 발칸의 스텔프/29×42cm/2016년 작)

33

하기 힘든 극사실주의 그림을 그린다. 그는 사물을 극사실로 그림으로써 사물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다. 그는 관람자에게 익숙한 대상을 확대하여 보여줌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탐구 활동 1 화가의 눈으로 정물 바라보기

- ① 대상을 바라보는 거리, 시점,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②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에서 정물들을 그린 시점을 찾아 본다.
- ③ 세잔의 〈바구니가 있는 정물〉에서 정물들을 기하 형태로 파악해 본다.
- ④ 정물화의 구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세잔 / 바구니가 있는 정물

세잔은 보고 그린다는 것을 대상을 복사하여 그려 내는 것이 아닌 화가의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한 사고와 함께 고정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 표현하는 정물화가 아닌 정물을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여 다방면의 시점으로 한 화면에 표현했다. 또한 자연물을 원기둥과 구, 원뿔, 육면체 등의 가장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축소하려 노력했다. 〈바구니가 있는 정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물들이 다시점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하 형태를 기초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물에 담긴 의미

정물화나 기명절지화는 일상의 정물들을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관찰을 통해 정물을 이해하고 상징적인 형태를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물에 생각이나 감정을 담아 표현하게 된다. 정물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정물화가 되듯이 정물이 갖는 상징들이 모여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가 된다.



반데어아스트(Van der Aat, Bahasan) 바구니(리면에 유채/40×63.5cm/1936년 작) 이 작품 속의 정물은 자연의 풍성한 수확물로 인생의 단계를 보여 준다.

이도영(한국/1884-1933) 기명절지(중이에 단청/34×168.5cm/1923년 작) 신비의 사색에 깃추고 싶은 것들을 수평적인 화면 안에 늘어놓았다. 특히 소환이나 소망과 관련된 내용을 정물에 담아 자세히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탐구 활동 2 두 작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자.

- 정물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자.
익은 정도가 다른 과일들: 인생의 성숙 정도
모래: 노년의 지혜
나비, 장지리와 벌레들: 욕망과 사회적 도마뱀 죄
소리와 고동: 수집 취미
-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여 정리해 보자.
- 기명절지화의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보자.
고동(제사에 쓰던 제기)과 주전자: 길상
모란: 부귀
국화: 수석 장수
복숭아: 불로장생
문구와 책: 학문과 벼슬
-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여 정리해 보자.

더 알아보기 바니타스



바니타스(Vanitas)는 라틴어로 덧없음을 뜻한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대상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주제는 과잉이나 음식, 꽃 등이 희고 시드는 것을 통하여 인생무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금이나 은, 음악 악기도 모두 유행 기쁨을 상징한다. 시간과 영원, 이 두 가지면이 진정한 소유됨을 표현한다.

헤다(Heda, Willem Claeszoon) 바니타스(1594-1680) 여석기 사가는 정물(리면에 유채/54×63.5cm/1631년 작)

34

■ 지식 참고

역원근법

소실점이 앞에 있어서 뒤로갈수록 오히려 커지게 그리는 원근법, 멀리 있는 것을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작자 미상(19세기) 책거리(중이에 채색/61×32cm/19세기)

탐구 활동 2 두 작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자

- ① 기명절지화의 소재들을 통하여 정물과 상징에 대해 알아본다.
- ② 기명절지화와 정물화에 소재로 사용된 정물이 상징하는 바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아본다.
- ③ 정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정리한다.
- ④ 바니타스 정물화에 대하여 더 알아본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이도영 / 기명절지

기명절지도는 말 그대로 제기나 식기 등 그릇(기명器皿)과 꺾인 꽃이나 나뭇가지(절지折枝)를 그린 그림이다. 조선 후기

문밖에서 만나는 풍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산, 들, 강, 바다와 같은 자연환경과 빌딩, 아파트, 집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 낸 환경과도 만나게 된다. 오래전부터 화가들은 주위의 환경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콘스터블(J.M.W. Turner) 1825년 작 **큰교와 안개**(캔버스에 유채 / 130.5x185.5cm / 1820~1821년 작) 시골의 낯익은 풍경을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선(조선) 1676~1759) **금강현도**(소화본/종이에 담채 / 130.7x94.1cm / 1734년 작) 정선은 평생 여러 차례 금강산을 유람하고 100여 폭에 이르는 금강산을 그렸다.



왕망달(원국) 1368~1423) **신무릉도원 동행**(한지, 먹, 아크릴 / 248x66.6cm / 2016년 작) 전통적인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하였다.

산수화와 풍경화

동양에서는 산수화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작가의 감정과 생각을 담고자 하였으며, 산수화를 그리거나 감상하면서 인성을 도야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였다. 서양의 풍경화는 15세기 사실주의 회화가 등장하여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하였다. 이후 사실적인 풍경, 화가의 개인적인 감정을 반영한 낭만적인 풍경, 인상적인 풍경 등이 다양하게 그려졌다.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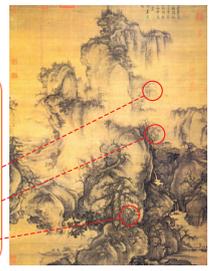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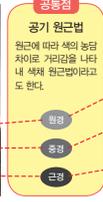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근법이라 한다.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해 서양에서는 고정 시점을 이용한 선 원근법을, 동양에서는 이동 시점을 이용한 삼원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동서양 모두 가까운 곳은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흐려지는 공기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탐구 활동 3 두 작품에 사용된 원근법에 대하여 탐구해 보자.

두 작품에 공기 원근법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호베마의 작품에는 선 원근법이 사용되었고, 권희의 작품에는 삼원법이 사용된 자적이 있다.



호베마(Hobbeema, Meindert) 네덜란드 / 1638~1709) **미델하르스트의 기차수길**(캔버스에 유채 / 103.5x141cm / 1689년 작)



권희(權熙/權壽) / 1020?~1090? **조운도**(비단에 담채 / 158x108cm / 1072년 작)

선 원근법
크레타스 시대 브루넬레스키가 건축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알베르티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화되었다. 이후 다빈치에 의해 과학적으로 정립되었다. 투시도법을 활용하여 투시 원근법이라고도 한다.

삼원법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올려보는 것을 고원, 산 앞에서 산 뒤를 넘게 보는 것을 삼원, 기암이 솟아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고 한다. 고원의 색은 맑고 밝으며, 삼원의 색은 무겁고 어두우며, 평원의 색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다.

차이점

1점 투시법	2점 투시법	3점 투시법	고원법	삼원법	평원법
--------	--------	--------	-----	-----	-----

더 알아보기 / 풍경화의 구도

화면에서 형태 색의 배치와 짜임새를 구도라고 한다. 풍경화의 구도는 정적인 수평 구도, 삼각형 구도, 수직 구도, 대각선 구도 등이 있고 동적인 사선 구도, 호선 구도, 방사형 구도 등이 있다.

수평 구도	수직 구도	대각선 구도	호선 구도
-------	-------	--------	-------

권나현(박성 작품) **동행**(종이에 유채 / 27x39cm / 2016년 작)
김민형(박성 작품) **절**(종이에 수채 / 22x32cm / 2016년 작)
박효환(박성 작품) **고요한 산길**(종이에 수채 / 32x22cm / 2016년 작)
강현정(박성 작품) **사물길**(종이에 수채 / 32x22cm / 2016년 작)

와 근대의 양식이 조화를 이루며 그려진 이도영의 기명절지도에 그려진 정물들은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곶동기는 값지고 보배로움을 뜻하여 길상을 나타내고, 국화는 선비의 인품과 장수,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모란은 부귀, 석류와 포도는 다산, 책은 출세를 의미하는 등 여러 특징적 의미를 나타낸다.

● 판데어아스트 / 과일 바구니

일반적으로 검은 배경의 정물화가 그려졌지만 이 작품은 밝은 분위기의 배경으로 그려졌다. 이 작품의 사실적 묘사 뒤에는 심오한 교육적 의미가 감춰져 있다. 그 의미는 모든 아름다움도 언젠가 시들고 사그라지듯이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내용이다.

● 헤다 / 아침 식사가 있는 정물

생애 동안 화가와 그림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날 17세기 바니타스 정물화의 대표적 명수로 꼽힌다. 주로 질서를 갖추어 구성한 식탁을 많이 그렸다.

● 콘스터블 / 건초 마차

콘스터블이 활동한 19세기의 서양 미술에서 풍경화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콘스터블의 <건초 마차>는 서양 회단에서 풍경화를 한 장르로 인정받는 공식적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조용하고 한가로운 영국의 소박한 시골 풍경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실감나게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전원의

풍경을 도시의 전시장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많은 화가들에게 감동이 전해졌다.

● 왕형열 / 신무릉도원 동행

작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무릉도원을 표현하였다. 무릉도원은 속세를 떠난 이상적인 세상을 말한다. 즉, <신무릉도원-동행>은 이상향을 향한 현대 삶의 의지를 반영하여 재창조하였다. 작품 속 '새'와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여 홀로 또는 함께 이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표현이다.

● 정선 / 금강전도

정선은 평생 여러 차례 금강산을 유람하고 100여폭에 이르는 금강산을 그린다. 그는 그림을 통해 인성을 도야하고 자연과 삶의 이치를 깨닫고자 하였다. 토산이 암산을 감싸안은 모습은 동양의 음양오행의 원리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된다.

탐구 활동 3 두 작품에 사용된 원근법에 대해서 탐구해 보자.

- ① 2차원의 평면에 3차원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원근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② 공기 원근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 ③ 선원근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 ④ 삼원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일상을 담은 풍경

우리는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그 공간은 자연이 되기도 하고 인공적인 도시가 되기도 한다. 공간에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녹아 있다. 그리고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산수화와 풍경화를 살펴보면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윤세열(한국/1976-) 《산수 이상한 회귀》수채화 151.2x65.0cm/2016년 작 | 일상이 이루어지는 서울 명동의 모습을 가로로 긴 화면에 수직화로 표현하였다. 관찰을 통하여 명동의 풍경이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탐구 활동 4 산수화와 풍경화를 살펴보자.

- 위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알아보자.
- 오른쪽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알아보자.

- 재료와 기법: 손치에 먹
- 시점: 이동 시점
- 소재: 한국, 서울의 명동
- 작품 속에 담긴 일상의 내용:

- 재료의 기법: 캔버스에 아크릴
- 시점: 이동 시점
- 소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니콜스 계곡
- 작품 속에 담긴 일상의 내용:



호크니(Hodney, David/영국/1937-) 《니콜스 계곡》(캔버스에 아크릴) 152.4x133.0cm/1980년 작

읽어보기 시간과 계절을 담은 풍경화

기억 속의 풍경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이미지이다. 그러나 실제 풍경은 날씨, 계절, 시간대에 따라 변화한다. 특히 색채는 온도, 습도, 빛의 굴절에 따라 달라진다. 항상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기억 속 풍경일 뿐이고, 실제의 풍경은 때 순간 다른 모습이다.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 《모노노카미 산》(1760~1849) 후지산 36경 중 일련의 산신 한 배를 또는 붉은 후지산(나카에 판화) 25.5x37.9cm/1830~1832년 작 | 후지산 정상 아래 뇌우(나카에 판화) 25.5x38.1cm/1830~1832년 작 | 일본의 명산인 후지산을 소재로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달라지는 모습을 우기요에로 표현하였다.



모네(Monet, Claude) 《프랑스(1840~1926) 루앙대성당-아침》(캔버스에 유채) 100x65cm/1893년 작 | 루앙대성당-중점(캔버스에 유채) 100x65cm/1894년 작 | 루앙대성당-저녁(캔버스에 유채) 100x65cm/1892년 작 | 루앙대성당을 소재로 아침, 정오, 저녁 때 빛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점검해 보기

- 정물을 관찰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작품의 상징적인 내용을 이해하였는가?
- 동양과 서양의 원근법을 알고 작품의 일상을 이해하였는가?

으로 표현한다. 현대인이 살아가는 도시의 풍경을 담음으로써 작가는 이를 '도시 산수화(都市山水畵)'라고 칭한다. 이 작품은 명동을 소재로 한 도시 산수화이다. 명동의 풍경을 통하여 명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추릴 수 있다. 더불어 자연을 배경으로 한 명동이 아니라, 명동이라는 도심 속에 스며든 산수를 보여준다.

● 호크니 / 니콜스 계곡

팝아트 화가 호크니는 낱장의 스냅 사진을 합쳐 놓은 것 같은 경치를 그렸다. <니콜스 계곡>은 풀과 나무, 건물들은 수평적 시각에서 바라본 모습이지만 전체적 구도인 땅은 위에서 내려 본 모습처럼 보인다. 관람자의 시선은 작품 중앙에 위치한 굽이굽이 도로를 따라가 마치 그 길을 걸어가듯 작품 속을 산책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 경험을 반영하는 이동 시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호쿠사이 / 후지산 36경 중 맑은 아침의 신선한 바람 또는 붉은 후지산, 후지산 정상 아래 뇌우

일찍이 유럽국과 교역이 있었던 일본은 미술 작품에서도 유럽의 영향이 잘 나타난다. 특히 호쿠사이가 후지산의 정경을 표현한 판화 작품도 네덜란드 풍경화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을 상징할 정도로 유명한 후지산은 작품에 주된 소재가 되었다. 이런 후지산의 모습을 다른 색, 또는 다른 배경으로 표현함으로써 날씨의 변화에 따른 후지산을 보여주고 있다.

● 모네 / 루앙대성당-아침, 루앙대성당-정오, 루앙대성당-저녁

“빛이 없이는 색도 없다.”고 말한 모네는 그림에 있어서 빛과 색을 중요시 여긴 인상주의 대표 화가이다. 그리는 대상을 실제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는데, 이는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상의 색채를 그대로 옮기는데 의미를 둔다. 같은 대상물이라 할지라도 빛의 강도와 온도, 습도 등 계절이나 날씨, 시간에 의해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르다. 모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려 하였다. <루앙대성당>의 연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개가 낀 아침의 모습과 해가 내리 쬐는 정오, 저녁의 모습은 형태의 변화가 아닌 빛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호베마 /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길

17세기 유럽의 한적한 시골 마을 풍경을 주로 그린 호베마는 능력 있는 요리사와 결혼하면서 포도주 계량관으로 일하게 된다. 그렇게 그림에서 잠시 손을 놓았다 20년 만에 다시 그린 작품이 그의 마지막 풍경화가 된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다. 이 작품에서 가로수길을 따라 하나의 점, 즉 소실점으로 모이고 거리에 따라 물체의 크기를 달리하여 가깝고 먼 것에 대해 설명하는 선원근법이 적절히 표현된 작품이다.

● 광희 / 조춘도

광희는 북송 때의 화가로 북방계 산수화를 통일시켰다. 그의 대표작인 <조춘도>에는 삼원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산을 아래에서 높게 올려 보는 고원(高遠), 산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보는 평원(平遠), 앞산에서 뒷산을 넘겨보듯 깊게 보는 심원(深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삼원법은 다원적인 시점으로 마치 산에 오르며 직접 산의 정세를 보고 있는 듯 역동적인 변화를 준다.

탐구 활동 4 산수화와 풍경화를 살펴보자.

- ① 산수화나 풍경화의 재료와 기법에 대하여 탐구한다.
- ② 제시된 작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이동시점에 대하여 탐구한다.
- ③ 제시된 작품의 소재에 대하여 탐구한다.
- ④ 제시된 작품에 담긴 일상의 내용을 적으며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본다.

● 윤세열 / 산수 이상한 회귀

작가는 주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묵선(墨線)

■ 지식 창고

조감도법

새가 공중에 떠서 지상을 비스듬히 내려다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표현된 그림은 공간의 깊이가 없고 주관적인 시선이 사라져서 관객의 시선 앞에 동일하게 다가온다. 조감도법에 의해 그려진 작품은 약도를 펼쳐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화성원행도병 (비단에 채색/151.2x65.7cm/1795년 작)

10 상상과 추상의 세계

교과서 pp. 38~43

단원 설정 이유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 절차, 표현 효과 등을 탐색하고 상상화와 추상화에 대하여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상화와 추상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내면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보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 표현의 의미와 종류 이해 상상 표현의 의미와 종류 이해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법, 상상화, 추상화 작품 분석
교과 역량	창의·융합 능력, 시각적 소통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2-01 / 9미02-02 / 9미02-06

교수·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교사의 기억과 꿈 상상을 담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어 상상화와 추상화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전개

-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의 재료와 기법을 설명한다.
- 내면의 생각과 상상의 세계도 미술 표현의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한 개성 있는 작품들을 감상한다.
 - 상상화는 현실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에 대해 설명한다.
- 상상과 추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주제와 표현 기법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 화가들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요소들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차시를 예고한다.
- 마음속의 생각과 꿈의 세계를 창의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대해 조사하여 말해 본다.
- 내면세계가 표현된 작품을 보고 그 느낌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작품마다 표현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어떤 기법을 사용하였는지 토론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 있게 추상을 표현한 작품에 관심을 갖도록 설명한다.
-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표현한 작품을 찾아보고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0 상상과 추상의 세계

학습 목표 • 상상화와 추상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내면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보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이수 ①-04.06.08

생각 열기

상상과 추상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발상을 위해서는 사물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생각이 바뀌면 항상 보던 것들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상상화의 세계

상상화는 마음속 꿈과 상상을 표현의 주제로 하는 것이다. 상상 표현은 감정을 드러내고 현실에서 알아볼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한다. 많은 화가가 자유로운 발상과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표현했다. 이상에서 벗어나 무의식적인 이미지나 환상, 꿈의 세계를 그리는 초현실적인 작품은 고정 관념을 벗어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마음속의 세계를 표현할 때 고정 관념의 틀을 깨고 변형과 강조 생략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화가의 작품 속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왜곡하기, 낯선 사물들과 결합하기 등을 통해 상상력을 키운 작품을 찾아보자.



키시(Kishin, Vladimir)라시(1965~) **황구를 떠나는 날개 달린 배**(캔버스에 유채437×550cm/2006년 작) 제피의 위트가 담긴 상상력이 총명한 그림이다.



달리(Dalí, Salvador)에스파냐-미국(1904-1989) **바키니 성의 세 시곷크로스**(캔버스에 유채/369×480cm/1947년 작) 바키니 성에서 행해던 복싱 경기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이 그림은 인간의 머리와 나무를 핵비섯 모양으로 표현했다.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갑상적 발명**(캔버스에 유채/72.5×49.5cm/1934년 작)



에른스트(Ernst, Max)독일-프랑스(1891-1976) **최초의 연어**(캔버스에 석고와 유채/232×167cm/1923년 작)

38

■ 지식 참고

상상화와 추상화

- 상상화: 꿈이나 공상, 환상 등의 세계를 표현함.
- 추상화: 자연 대상을 떠나 순수한 조형 요소인 선, 면, 형, 색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

주관적 표현

표현주의적이란 말은 표현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 등 주관에 중시하므로 형태를 과장하거나 생략, 변형 등을 자유롭게 한다.

표현주의

사물이나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사조로 20세기 초의 독일을 중심으로 인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다. 뭉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인 불안, 공포, 애정, 증오를 왜곡된 표현으로 표현한 대표 작가이다.

초현실주의

1919년부터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예술 운동이다. 20세기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초현실주의가 경험의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을 결합하는 수단이며 초현실 속에서는 꿈과 환상의 세계가 일상적인 이성의 세계와 결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 알아보기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제1, 2차 세계 대전 사이에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 운동으로 주로 꿈, 환상의 세계를 다루며 이상에서 배방된 현실을 초월한 세계를 표현한다.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자유로운 상상과 표현 방법으로 무의식의 정신세계를 표현했으며, 대표적 화가로 사강, 달리, 마그리트, 에른스트 등이 있다.



사강(Chagall, Marc)러시아-프랑스/1887~1985) **마르티네스크 위예르**(캔버스에 유채/70.8×90.2cm/1914년 작) 하늘을 날아가는 인물과 동화 같은 풍경이 융합적으로 표현된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루소(Rousseau, Henri)프랑스/1844~1910) **사자의 식**(캔버스에 유채/113.7×160.2cm/1907년 작) 신비한 동식물로 가득 찬 환상적인 모습을 독특하게 표현했다.



미로(Miró, Joan)에스파냐/1893~1983) **농장**(캔버스에 유채/132×170cm/1922년 작) 단순화된 형태와 색채를 조화시켜 유머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보물섬**(종이에 색채/33×48.7cm/1942년 작)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상상력을 보여 준다.



코넬(Cornell, Joseph)미국/1903~1972) **에덴 호텔**(나무 상자, 혼합 재료/38.4×40×12cm/1945년 작) 폐품을 이용해 초현실적 공간을 만든 작품이다.

작품 감상의 유의점

- 주제나 알맞은 재료의 표현법 찾기
- 변형, 강조, 생략, 과장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대담하게 표현하기

달리

살바도르 달리는 20세기 미술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합리적 사고에 좌우되기 쉬운 개념이나 이미지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영감을 찾았다. 이미지에 대해 무의식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각 상태로 자기 자신을 유도했다. 그의 그림들은 모두 꿈속 세계를 묘사한 것이다. 그 속에서 모든 사물들은 메마른 풍경을 배경으로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변형된다. <기억의 고집>(1931)에서는 녹아 흐물거리는 시계들이 사막 풍경에 널려 있다. 늘어진 시계 모티프는 카망베르 치즈에 대한 꿈에서 비롯된 것이다. 달리는 뉴욕에서 영화, 연극, 패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달리(Dalí, Salvador)에스파냐-미국/1904~1989) **기억의 고집**(캔버스에 유채/24×33cm/1931년 작)

상상화의 표현 방법

상상을 통하여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물의 용도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형태의 크기나 모양, 또는 색깔 등을 변형시키는 방법, 대상의 특정 부분을 없애는 방법 등이 있다.



윌렘 데 쿠닝(1964~1968) **시멘트 구멍이 뚫린 시멘트 벽**(1964/30cm/2009년 작) 사물에 특이적으로 색채를 후 사정을 찍어 초현실적 세계를 표현했다.



레돈(Redon, Odilon)프랑스/1840~1916) **이상한 풍경과 검은 눈**(석판화/26×22cm/1882년 작) 신비로운 공상의 세계를 신비한 색채로 그리고 있다.



김원형(작품) **백대**(나무종이에 수채/23.7×21cm/2016년 작) 인물 얼굴을 그린 후 바다의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으로 수채화의 풍부한 색감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돋보인다.

영어 설명

- 자동 기술법(自動記法: Automatism):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에 투영하려는 초현실주의의 원리 기법 중 하나이다. 의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손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무의한 효과를 작품화하였다. 자유 연상 상태에서 그린 낙서 같은 그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등의 방법으로 만든 형태를 이용하여 작가의 직관적 반응에 따라 완성한다.
- 데페이즈망(Dépaysement: 전치, 전위법): 사물을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지우고 '낯선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초현실적인 환경을 창조해 내는 기법이다. 즉, 익숙해지는 요소들을 한 화면에 결합하거나 사물을 엉뚱한 환경에 놓아 시각적 신비감을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합은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무의식을 해방시킨다.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1898~1967) **황금색 캔버스**(에 유채/45×54.2cm/1952년 작) 할 안에 있는 시계는 있는 장소와 크기에서 대량 고정 관념을 깨다.

탐구 활동 더하기 1

- 달리의 그림에서 사용된 소재는 무엇일까?
 - 시계, 물병, 나무, 사막, 바다, 하늘 등
- 달리의 그림에서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현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무엇일까?
 - 벽에 붙어있어야 할 시계가 나무에 천조각처럼 걸려 있다.
- 달리의 의도는 무엇인가?
 - 일상의 사물을 전혀 다른 공간에 배치하여 논리를 뒤집고 이미지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 달리의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
 - 이색적임, 왜곡, 모순, 축소, 확대, 유머 등
- 달리는 현대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문맥 속에 놓음으로써 생긴 충돌과 부조화 때문에 달리의 작품은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발상이란 무엇인가?

발상은 새로운 느낌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거치는 최초의 단계이다. 이러한 발상의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고민하는 첫단추와 같은 역할을 한다. 착시 현상은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선과 형태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평면상에 요철이 느껴져 보이는 것 등을 말한다. 착시 현상은 시각적인 경험을 조형활동에 응용하면 새로운 시각과 독특한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착시 현상은 사물의 객관적인 크기나 형태 빛깔 등의 성질과 눈으로 본 성질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기하학적 착시는 도형의 기하학적 관계가 실재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크기가 같은 나무를 같은 간격으로 세워두었을 때 느껴지는 원근에 의한 착시 현상도 있다.

옵아트(Optical Art)

시각적 착상에 의한 눈의 아른거림이나 눈속임을 활용한 순수한 시각상의 효과를 추구한다. 순수한 조형 요소인 선, 면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함으로써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추상 미술의 한 종류이다.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장력(張力)을 이용하여 시각적 착각을 다룬 추상 미술로, 팝 아트의 상업주의와 지나친 상징성에 대한 반동으로 탄생되었으며, 옵아트의 발전을 이룬 사람은 빅토르 바자렐리(Vasarely, Victor)이다. 빛·색·형태를 통하여 3차원적인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마그리트의 사과

우리에게 마그리트의 그림과 그 이미지들은 친숙하다. 광고를 통해서 파란 하늘에 떠있는 흰 구름과, 중절모를 쓴 남자들, 파이프 그림과 방을 꽉 채우는 거대한 사과와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있다. 마그리트는 유사의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확인들의 현란한 배치를 한다. 마그리트의 유명한 파이프 그림을 통해 '시선'에 대해 분석하게 만든다. 그 속에 담긴 욕망을 다루고, 그림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욕망을 채우려 하는지, 그 시선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마그리트(Magritte, René/벨기에 /1898~1967) 사랑의 노래(종이에 과슈/26.7×35.5cm/1962년 작)

탐구 활동 더하기 2 | 상상력을 높여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 대체하기(Substitute)
 - 사물의 소재, 형태, 용도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 결합하기(Combine)
 - 사물의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
- 적용하기(Adapt)
 - 형태의 일부를 변형해 다른 대상물에 응용하는 것
- 변형(Modify), 확대(Magnify), 축소하기(Minify)
 - 크기, 모양, 색깔, 등을 변형시키는 것
- 다르게 활용하기(Put to other user)
 - 사물,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제거하기(Eliminate)
 - 대상의 성분, 기능 등의 특정 부분을 없애는 것
- 재배열하기(Rearrange), 뒤집기(Reverse)
 - 순서를 거꾸로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것

추상화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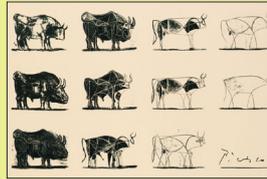
추상화는 대상을 보고 느낀 감정을 형태와 색채, 질감 등 순수 조형 요소로만 표현한 그림으로, 화가의 개성과 생각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 등 조형 요소의 어울림으로 감정을 표현한 미국의 추상 화가인 폴록과 드루닝은 1950년대 액션 페인팅, 즉 몸의 표현을 중시하는 추상화를 그렸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몬드리안은 선과 면에 의한 비례의 기하학적인 구성과 수평 수직의 비율, 균형의 이성적 느낌을 추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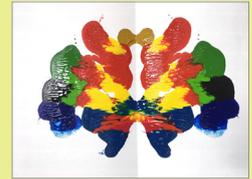
피터몽드리안/1940~1985) untitled(반비네 아르딜/128×185cm/1985년 작)

용어 설명

- 데포르마시옹(Deformation): 어떤 물체를 원래 모습에서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
-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종이에 물감을 묻혀 문지르면 얇은 종이로 대량적인 무리를 만드는 표현 기법이다.



피카소(Picasso, Pablo)데스카르(1988~1973)탈선(석판화/20×30cm /1945~1946년 작) 소의 형상을 점차 단순화시키는 추상화 과정을 보여 준다.



정주홍(홍성 작) 나비(종이에 수채/24×29.7cm/2016년 작)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유현미 / 시리즈 구성의 듣기

유현미는 사진과 회화의 중간을 아슬아슬하게 걷는 듯한 이미지의 작품을 해오고 있다. 즉 사물이나 인물 등에 물감을 칠하여 회화처럼 보이게 한 후 사진을 찍는 방식인데, 이러한 작품은 사실적이면서도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현대 한국 화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 르동 / 이상한 풍선과 같은 눈

이상한 풍선과 같은 눈, 신화적인 공상의 세계를 신비한 색채로 그리고 있다. 르동은 상징주의 화가이며, 독특한 양식을 가진 조각과 에칭, 석판화 분야의 대가였다. 마티스는 르동의 꽃 그림에 열광했으며, 초현실주의자들은 꿈을 그림으로 그린 르동을 선구자로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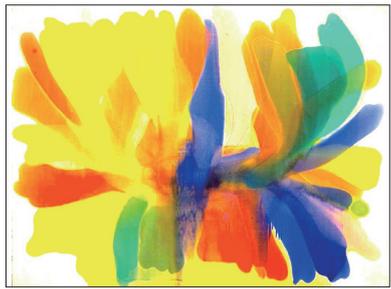
르동(Redon, Odilon/프랑스/1840~1916) 터키옥색 꽃병(캔버스에 유채/50×65cm/1911년 작)

■ 지식 창고

허스트와 그의 예술 세계

허스트는 설치 작품, 회화, 조각을 통해 미술과 과학, 대중문화의 경계에 도전했다. 프랜시스 베이컨에서 영감을 받은 허스트는 유리 상자 안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절여진 동물을 전시하는 개념 미술을 했다.

추상 미술은 감정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추상과 감정을 배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한 추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칸딘스키는 현대 추상 회화의 선구자로서 선명한 색채로 동적인 추상화를 그렸으며, 대상의 구체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화려한 색감과 형태를 이용하여 감각적인 추상 세계를 그렸다.



푸이스(Louis, Moma/미국/1912~1962) **환혼의 지평**(캔버스에 아크릴/258.2×344.9cm/1960년 작) 붓을 쓰지 않고 캔버스에 물감을 뿌어 얼룩지게 하는 스테인 페인팅(scan painting) 기법으로 그렸으며, 원색의 선들이 반지반서 환상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로스코(Rothko, Mark/미국/1903~1970) **화이트 스텔**(캔버스에 유채/205.8×141cm/1950년 작)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여 단순화된 형태를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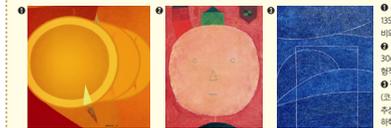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구성물 유태 스케치**(캔버스에 유채/78×100cm/1939년 작)



● 정다은(한국생 작화) **환상**(종이에 수채/67×30cm/2016년 작)
● 엘리(Kelly, Elsworth /미국/1923~) **Blue Green Red**(캔버스에 유채/73×127cm/1956년 작)
●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Blue 1943**(판넬에 과슈와 잉크/47.6×60.5cm/1943년 작)
● 상국미술관 **개단 환상** 문도리안 작품을 통해 색채 직감한 사재이다.

더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추상 미술

우리나라의 추상 미술은 김환기, 유영국, 장욱진 등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으며, 1950년대 후반 추상 미술이 우리나라 화단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 유영국(한국/1916~2002) **환(환)**(캔버스에 유채/135×135cm/1968년 작) 한국 추상 회화의 선구자로 일관된 색채의 대변인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으로 차이를 표현하였다.
● 장욱진(한국/1917~1990) **얼굴**(캔버스에 유채/40×30cm/1957년 작) 이동화 학교 동화책의 그림 같은 표현의 조형적 구성의 재발상으로 독특한 재능을 보였다.
● 김환기(한국/1913~1974) **10월 겨울 절** 04-11-73-318 (나뭇잎에 유채, 26.3×20.5cm/1973년 작) 우리나라의 대표적 추상 화가로 한국적 분위기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달, 눈, 새는 기하학적인 세면 구획을 주제로 한 추상 작품을 그렸다.



나비(종이에 아크릴/54X68.6cm) - 이를 답지만 수명이 짧은 나비의 이미지를 통해 나약한 인간의 삶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허스트의 회화 작품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우선 '스핀(Spin)' 페인팅 시리즈의 경우, 원형의 캔버스 위에 물감을 엮질러 붓고, 그것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제작한 것이다. '스팟(Spot)' 페인팅 시리즈는 질서정연한 격자 형태로 배치된, 역동적인 색깔의 단일 규모의 점들을 표현함으로써 보는 이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남관의 추상 회화

남관의 작품 세계는 인간의 희로애락, 생명의 영원성을 상형 문자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1937년 도쿄 다이헤이요미술학교를 졸업, 1955년 프랑스 파리의 아카데미 드라그랑드쇼미에르에서 추상 미술에 몰입하였다. 파리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했고, 1990년 도쿄 아트 엑스포에 출품하였다. '동서양 문화를 융합시킬 수 있는 예술가'라는 평을 받았다.

그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은 거의 미니멀리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제작 기법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추상 표현주의의 '액션 페인팅'에 가깝다.

추상화의 표현 방법

일상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시각화할 때, 사물들의 형태와 색채 등을 점차 단순화해서 추상화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빈지거나 물감 붓기, 뿌리기, 태깅코머니 등의 기법으로 우연히 만들어지는 효과를 이용하면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다.

추상 화가의 작품을 보고 그림에 사용된 조형 요소를 생각해 보자. 또한,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추상화를 감상한 후 느낌을 글로 표현해 보자.



남관(한국/1911~1990) **청과 대화**(캔버스에 유채/73×116cm/1978년 작) 풀리주기법을 응용하여 우연으로 만들어진 형상은 마치 상형 문자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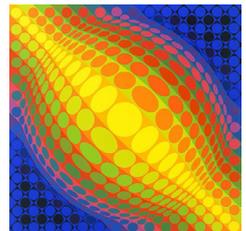
박재환(한국/1920~1976) **작품 20**(한지에 채색/169×135cm/1961년 작)



허스트(Hirst, Damien Steven/영국/1965~) **나비**(종이에 아크릴/54×68.6cm/2009년 작)



로버트(Rauschenberg, Robert/미국/1925~1997) **비밀**(캔버스에 유채/1940년 작) 선명한 색의 환율 여러 겹으로 그려 리듬감 있는 화면 구성을 보여 준다.



바사렐리(Vasarely, Victor/헝가리-프랑스/1906~1997) **레티지션 3**(캔버스에 유채/65×65cm/1993년 작)

탐구 활동 1 추상화의 조형 요소 찾아보기

- 추상 화가의 작품을 보고 그림에 사용된 조형 요소를 생각해 보자.
-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 보자.

점검해 보기

- 상상화와 추상화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 내면의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보고 작가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가?

작품은 파리 퐁피두센터, 파리 시립미술관, 룩셈부르크 국립박물관, 토리노 국제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작품에 <고향의 노인들>, <대화>, <태양에 비친 허물어진 고적>, <푸른 반영>이 있다.



남관(한국/1911~1990) **푸른환상**(캔버스에 유채/72.7×.6cm/1972년 작)

탐구 활동 1 추상화의 조형 요소 찾아보기

| 준비물 |

다양한 추상화 작품 자료 등

| 수업 과정 |

- 1 추상 표현의 특성과 의미를 알게 한다.
- 2 조형 요소와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응용한 작품을 감상하게 한다.
- 3 추상화 작품에서 조형 요소를 찾아보도록 한다.
- 4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추상적인 조형 요소들을 찾아보게 한다.

| 정리 및 평가 |

- 추상화의 개념을 이해하였는가?
-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이해하였는가?
- 추상화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추상화의 소재에 제약을 두지 않도록 지도한다.



매체와 표현

11. 판화의 다양한 얼굴
12. 공간 속의 입체 표현
13. 새로운 매체와 미술의 변화
14. 전통 미술의 향기
15. 아름다운 문자 예술
16. 전통 공예의 미를 찾아서
17. 인간을 위한 디자인



단원 개관

이 대단원은 의도에 적합한 주제 탐색 및 표현 과정 계획 능력, 표현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위해 표현 의도에 적합한 주제를 탐색하고, 표현 과정을 계획·점검하며,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매체 등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제에 적합한 재료와 용구, 방법, 표현 절차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간다. 판화, 조소, 뉴 미디어, 한국화, 서예와 전각, 전통 공예, 디자인 등의 전통적인 미술의 장르들을 두루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주제, 재료와 용구, 표현 방법, 표현 절차, 표현 효과 등을 탐색하고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원 목표

-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와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단원 교수·학습 계획

소단원명	차시	학습 내용	교과서 쪽
11. 판화의 다양한 얼굴	2	• 판화의 유형별 특징, 용구, 제작 방법 탐색하기	44~45
12. 공간 속의 입체 표현	3	• 입체 표현과 평면 표현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 다양한 재료와 매체에 따른 입체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의 효과를 탐색하기 •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확장된 입체 표현의 특징 이해하기	46~49
13. 새로운 매체와 미술의 변화	3	• 새로운 매체와 미술의 변화에 대한 관계 탐색하기 • 새로운 매체에 의해 형성된 미술 작품의 특성 이해하기	50~57
14. 전통 미술의 향기	3	• 전통 회화에 담긴 정신 이해하기 • 전통 미술의 표현 재료와 용구에 따른 표현 특징 점검하기 • 작가의 신분 따라 전통 미술을 분류하고 표현 기법과 특징 점검하기 • 전통 미술 작품의 소재가 지닌 의미와 표현 특징 점검하기	58~61
15. 아름다운 문자 예술	2	• 한글과 한문 서체의 특징 탐구하기 • 전각의 기법, 내용, 용도 탐구하기	62~63
16. 전통 공예의 미를 찾아서	3	• 전통 공예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 전통 공예에 담긴 아름다움과 기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발견하기	64~67
17. 인간을 위한 디자인	6	• 디자인의 정의와 범주 이해하기 • 분야 및 사례에 따른 디자인의 조건 탐색하기 • 시대와 사회가 추구하는 디자인 점검하기 • 기술이 디자인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의 디자인 상상해 보기	68~75

11

판화의 다양한 얼굴

교과서 pp. 44~45

단원 설정 이유	포스터, 지폐, 도장, 티셔츠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판화는 그 종류와 용구, 기법, 제작 방식이 다양하다. 따라서 본 단원에서는 판화의 다양한 종류와 그 특성을 탐색하고 작품과 관련지어 분석해 봄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또한 판화 종류별 원리와 용구, 제작 방법,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스스로 판화 표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다지도록 한다.
학습 목표	판화의 종류와 원리, 표현 기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차시	2
평가 요소	표현 매체의 선택 및 활용 능력, 표현 과정 계획 및 점검 능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법, 토론법
교과 역량	창의 융합 능력, 자기 주도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2-03 / 9미02-05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휴대용 실크 스크린 인쇄 기계를 보고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서로 의견을 말해 본다.
- 판화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임을 이해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전개

[판화의 종류와 원리, 표현 기법, 특징]

- 작품 및 제작 과정 사진, 동영상을 바탕으로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를 비교 분석해 본다.
- 원리, 기법, 특징에 대한 항목을 스스로 작성해 보고 발표한다.
- 의견 및 내용을 수렴하고 수정 · 보완하여 판화의 유형별 특징을 정리한다.

정리

- 판화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반복성을 기준으로 설명해 본다.
- 판화의 종류, 원리, 기법, 특징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를 만든 다음 함께 풀며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새로운 미술 용어들이 다수 등장함으로 단어 정의와 설명에 주의한다.
- 판화 판형별로 내용의 난이도 차이가 크므로 오목 판화, 평판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연이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언어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 교수 자료를 준비한다.

11 판화의 다양한 얼굴

학습 목표 · 판화의 종류와 원리, 표현 기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사진 속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지,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일상용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 집에서 간편하게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이다.

판화는 나무, 금속, 돌 등의 판에 그림을 새긴 뒤 찍어서 표현하는 미술 분야이다. 같은 이미지를 여러 장 반복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손으로 그린 그림과는 다른 독특한 질감 표현이나 단순한 형태, 선명한 색감이 특징적이다. 판화에는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등이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김미로(한국/1975~) **그들을 위한 공간**(에칭, 석판화 20x30/53x75cm/2015년) 작/ 에칭과 석판화로 만든 판을 얇은 한지에 찍은 뒤, 감칠 붙여 만든 작품으로 이미지의 투명감이 느껴진다.



최유혜(한국/1980~) **공주시리즈 중 '백'** (드라이프인트/10x10cm/2016년 작)



히로 야마가타(Hiro Yamagata/일본/1948~) **An american in paris**(실크 스크린/28x22.25cm/1965년 작) 선명한 색상을 사용한 팝 아트 계열의 실크 스크린 작품이다.

탐구 활동 1 판화 작품 분석하기

-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특징적이었는지 말해 보자.
- 어떤 재료와 기법을 썼는지 말해 보자.
-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해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던 시대 상황과 주로 다루던 주제 등을 알아보고 정리해 보자.
- 작가가 해당 표현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시대상 및 작품 상황과 관련하여 설득력 있게 적어 보자.



오윤(1946~1986/한국) **바람부는 곳**(광목에 채색 목판/29x36cm/1985년 작) 강한 색 대비와 단순한 형태, 감성적인 표현이 특징적인 목판화 작품이다.

44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김미로 / 그들을 위한 공간

에칭, 석판화로 만든 그림을 오려서 한데 모아 붙이고 드로잉까지 가미하여 이미지가 중첩되어 보이는 작품이다. 판화 자체가 가진 특성 중 하나인 반복성으로 인한 유일성의 부재를 판화, 콜라주, 드로잉을 결합하여 극복하고 있다.

탐구 활동 1 판화 작품 분석하기

| 준비물 |

필기도구

| 수업 과정 |

- ① 오윤의 작품을 본 첫 느낌과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본다.
- ②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여 표현에 사용된 재료와 용구를 예상해 본다.
- ③ 작품에 그려진 인물과 문장을 토대로 주제를 유추해 본다.
- ④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찾은 다음 작품과 연결시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 ⑤ 시대상, 주제, 표현 재료와 기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작가가 목판화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토론해 본 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 정리 및 평가 |

오윤의 판화 작품을 재료와 기법, 주제, 시대상, 의도, 시각적 효과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가?

판화의 유형별 특징

구분	볼록 판화	오목 판화	평판화	공판화
작품				
원리	판의 볼록한 면에 잉크를 묻혀 찍는 방법	판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잉크를 채워 프레스기의 압력을 이용해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	판에 새기는 과정 없이 판 면에 직접 그림을 그린 뒤, 종이에 찍어내는 방법	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으로 잉크를 넣어 눌러 찍는 방법
표현 기법	목판화, 고무 판화, 직판화, 지도판화, 리놀륨 판화	직접법: 인그레이팅, 메조틴트, 간접법: 에칭, 애쿼틴트	석판화, 모노타이프	스텐실, 실크 스크린
특징	① 행차가 단순 ② 조각질에 의한 질자극의 맛과 흔적이 나타난다 ③ 흑백 (대각) 선명 ④ 다양하고 생생한 색채 표현과 세밀하고 정교한 표현이 어렵다.	① 세밀하고 날카로운 선과 생생한 표현, 영감 표현이 가능 ② 제작 과정이 복잡 ③ 재료 사용의 숙련도가 필요 ④ 비용이 많이 들고 수량이 어렵다.	① 농담 효과 및 터치 표현이 가능 ② 직접 그려서 가장 느낌이 비슷 ③ 물과 기름이 반발하는 원리 이용	① 제판 이미지와 인쇄 이미지의 차이가 바뀔 수 있음 ② 제작이 간편해 실생활에 많이 사용 ③ 다양한 재료에 인쇄 가능 ④ 단순한 형태와 명확한 윤곽선 ⑤ 제한적인 색채 표현

더 알아보기 판화의 용구

스퀴즈 그림이나 글씨가 찍히도록 잉크를 눌러서 밀어내는 도구	리스크레용 기름기를 가진 드로잉 재료
니들 날카롭고 예리한 선을 새기는 도구	롤러 판면에 잉크를 바르는 도구
조각도 나무나 고무판을 새기는 도구	프레스기 압력을 주어 홈에 채워진 잉크를 종이에 옮기는 도구

탐구 활동 2 용구 알아보기

왼쪽에 있는 용구들은 각각 어떤 판화를 만들 때 쓰이는 것인지 구분해 볼까요?

볼록 판화: _____

오목 판화: _____

평판화: _____

공판화: _____

점검해 보기

- 판화의 종류와 원리, 표현 기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 모든 판화 종류의 종류와 기법,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하고 예시 작품을 찾아서 판화 사용 설명서 만들어 보자.

● 오윤 / 바람부는 곳

오윤은 민중 예술가로서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이를 민족성에 의거한 작품으로 표현했던 1980년대 화가이다. 그는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통적, 민중적 도상을 차용하여 판화 속에 담았다. 그의 목판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강한 흑백 대비와 조각감의 날카로우면서도 예리한 멋은 거친 시대적 상황 표현과 현실 고발, 비판의 목소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했다. 민중의 삶과 해학, 한, 신명이 응집되어 있는 그의 작품은 민중 미술 운동의 큰 줄기 중 하나였다.

■ 지식 창고

에칭과 애쿼틴트의 제작 과정

• 에칭

- ① 동판이나 아연판 앞면에는 에칭 그라운드(방식액)를, 뒷면과 옆면에는 바니시를 바른다.
- ② 니들로 형태를 새긴 뒤에 질산액에 담근다.(니들로 새긴 부분만 부식된다.)
- ③ 흐르는 물에 판을 세척한다.
- ④ 판 면에 잉크를 바른 뒤, 면 망사로 닦아 낸다.
- ⑤ 물에 적신 종이를 판 위에 올린 다음 프레스기에 넣어 찍는다.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네덜란드/1606~1669) 베레모를 쓰고 눈을 크게 뜬 자화상(에칭, 드라이포인트/51x46cm/1630년 작) - 드라이포인트와 에칭 기법을 사용하여 선의 겹침과 세밀함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 애쿼틴트

에칭과 동일하게 판을 부식시켜 완성하는 제작 과정을 거친다. 에칭과는 달리 판에 설탕 가루나 송진 가루를 뿌린 뒤 열로 고착시켜 작업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판면에 분포된 가루와 가루 사이의 생긴 미세한 홈이 나중에 질산에 의해 부식되면서 미세한 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에칭에 비해 완성된 이미지가 부드럽다.



몽크(Munch, Edvard/노르웨이/1863~1944) 해변 위의 젊은 여인(애쿼틴트/28.2x21.7cm/1896년 작) - 애쿼틴트 기법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면에서 동화적인 느낌이 난다.

탐구 활동 2 판화 용구 알아보기

| 준비물 |

필기도구

| 수업 과정 |

- ① 여러 판화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한다.
- ② 용구가 그려진 활동지를 바탕으로 판화 유형별 용구를 찾아 구분해 본다.
- ③ 다양한 판화 용구의 종류와 쓰임을 정리한다.

| 정리 및 평가 |

판화 유형별로 필요한 용구를 구분하고 그 쓰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탐구 활동의 예시>

- ① 볼록 판화: 조각도, 롤러
- ② 오목 판화: 니들, 스퀴즈, 프레스기
- ③ 평판화: 리스 크레용, 프레스기
- ④ 공판화: 스퀴즈

12 공간 속의 입체 표현

교과서 pp. 46~49

<p>단원 설정 이유</p>	<p>평면에 표현하는 2차원의 회화와 달리 실제의 공간 속에 표현하는 입체 표현은 구체적인 물질을 통해 3차원, 4차원적 공간의 경험을 제공하여 시각, 촉각, 공감각 등 다양한 감각의 체험을 이끌어 주는 미술이다. 최근의 입체 표현은 기존의 표현 방법에서 나아가 일상의 재료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전시 공간을 무한히 확장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보이며 미술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단원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입체 표현과 평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각각의 재료가 갖는 조형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방법과 작품의 느낌과 특징을 체감할 수 있으며, 현대에 점점 확장되고 있는 입체 표현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p>
<p>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입체로 표현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 새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확장된 입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p>차시</p>	<p>3</p>
<p>평가 요소</p>	<p>표현 매체 탐색, 조형 요소와 원리의 이해, 미술 용어의 사용 능력</p>
<p>평가 방법</p>	<p>연구 보고서법, 토론법</p>
<p>교과 역량</p>	<p>창의·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p>
<p>성취 기준</p>	<p>9미02-04 / 9미02-05 / 9미03-03</p>

교수·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입체 표현과 평면 표현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 평면 표현: 평면적, 시각적 특징
 - 입체 표현: 시각적인 특징과 함께 평면 표현에 비해 입체적, 공간적, 촉각적 특징이 보다 두드러짐.

전개

- 입체 표현에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표현 방법과 특징을 이해한다.
 - 자연의 재료: 돌, 나무, 흙
 - 인공의 재료: 금속, 폴리에틸렌 수지, 강화 유리, 천 등
 - 탐구 활동 1: 전통의 탑과 현대적 재료로 재해석한 탑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기
- 입체 표현의 경계를 넘어
 - 평면과 입체를 뛰어넘어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는 현대의 입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한다.
 - 오브제, 아상블라주, 정크 아트, 퍼포먼스 등 입체 표현의 새로운 미술 용어를 이해한다.
- 장소를 생각한 미술
 - 전시 공간 및 작품 공간이 확장된 설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탐구 활동 2: 공공장소를 위한 입체 작품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해 보기



정리

- 평면 표현과 입체 표현의 차이점을 이해하였는가?
- 재료의 특성에 따른 입체 작품의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입체 작품을 찾아 감상해 보자.

지도상의 유의점

- 입체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감상 자료를 준비한다.
- 다양한 재료와 매체의 물성적 특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 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구성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카푸어 / 나의 붉은 모국

영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의 미술가로 안료, 유리 섬유, 돌, PVC, 스테인리스 스틸, 왁스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대규모 야외 작업과 설치 작업을 함. 조각과 건축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체험 공간을 구현하며 '건축적 조각', '확장된 조



하늘 거울(스테인리스 스틸/가로 100cm/2006년 작)

입체 표현의 재료

미술은 작품에 사용하는 각각의 재료들이 가진 딱딱함, 촉촉함, 거칠 거칠함, 부드러운 등 고유의 성질에 따라 표현의 방법과 형태가 달라진다. 흙, 나무, 돌 등 순수한 자연의 재료와 더불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재료와 기법은 미술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제호(한국/1965-) 0121-1110-1150/7575/나무/550x360x360cm/2019년 작



카로(Caro, Anthony/영국/1924-2013) **대형의 속개** (1975-48.5x28.5cm/1969-1970년 작) 불림을 치르고 용광로에 굽기에 드로잉하듯이 표현하고 노랑을 재해하여 본래 칠이 가진 두 거문 느낌보다는 산뜻함을 준다.



올덴버그(Oldenburger, Claes/벨기에-미국/1929-) **부드러운 비올라**(1965년 작) 레인 콘 금속에 라렉스 레인 투(25x2x2x2.4x5.5cm/2002년 작) 조각은 딱딱할 것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부드럽고 유느리라는 불림을 사용하였다.



로댕(Rodin, Auguste/프랑스/1840-1917) **신의 손, 연인** (1881년/95.5x75x56cm/1896-1916년 작)

탐구 활동 1 새로운 재료로 재해석한 우리의 탑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전통 석탑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두 탑을 비교하여 감상해 보자.

-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 촉각적 느낌은 어떻게 다를까?
- 주변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 전통 조각을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국사 3층 석탑 (15.7m/이 8.2m/돌탑 신안)



도솔폭 (한국/1996-2016) **오리엔탈 모뉴먼트**(스테인리스 스틸/150x150x400cm/2014년 작)

각의 형태로 관객을 압도하는 스펙터클과 지각적 생경함을 통해 '승고'의 미적 체험을 야기한다. 단일한 원색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조각은 인도 문화의 종교적 특성과 동시에 절대주의, 색면 추상, 미니멀리즘 같은 서구 미술의 전통과도 연결되며 명상적인 감상을 유도하여 동서양의 정체성이 융화되는 지점을 가리킨다. 건축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대규모 설치 조각으로 무한성, 초월성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내고 주체와 사물, 공간에 대한 통념에 도전함으로써 물질과 비물질, 존재와 부재 등 보다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개념들을 탐구하고 있다.

● 로댕 / 신의 손, 연인

강인한 손에 한 쌍의 남녀가 얽혀있는 모습으로 마치 거대한 손이 거친 돌덩이에서 이들을 창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확실하게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두 남녀의 형상과, 사실적으로 묘사된 거대한 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며 돌 속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듯하다. 여기에 표현된 손의 형상은 로댕의 또 다른 작품인 <칼레의 시인> 중 피에르 드 비쌍(Pierre de Wissant)의 오른손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로댕은 특정한 신체 부분적인 형상을 만들고 이를 여러 작품에서 적절하게 대입하여 구성하곤 하였다.



신의 손, 연인 - 다른 방향에서 본 모습

● 올덴버그 / 부드러운 비올라

올덴버그는 추상 표현주의를 거부하고 진부한 일상의 물건들을 고급문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상업주의, 대량 생산, 패스트푸드 문화, 평범한 대상의 신격화라는 이슈들을 탐구했다. 1962년에 캔버스나 비닐로 형태를 만들고, 스펀지 고무로 속을 채운 작품인 <부드러운 조각품 (soft sculpture)>을 제작하여 바이올린, 샌드위치 등의 일상의 음식이나 실용적인 물건을 대형 천으로 만들어 상식에서 벗어난 전혀 새로운 재료를 조각에 사용하였다. 또 일상의 사물을 확대하여 환경 속에 배치한 거대한 공공 조형물을 제작하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탐구 활동 1 새로운 재료로 재해석한 우리의 탑 알아보기

| 준비물 |

참고 자료, 필기도구, 보고서 양식

| 수업 과정 |

- 동양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진 입체 조형물인 탑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한다.
 - 탑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 탑은 어떤 기능을 하는 조형물일까?
- 한국의 전형적인 탑인 석가탑과 현대적인 재료와 기법으로 만들어진 탑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 각각의 탑의 재료, 제작 방법, 형태, 질감, 빛, 주위 환경과의 조화 등을 비교한다.
- 전통 미술을 새롭게 재해석한 미술 작품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탐구 활동의 예시>

구분	불국사 3층 석탑	오리엔탈 모뉴먼트
재료 및 표현 방법	우리 조각에서 널리 사용된 재료인 화강암을 깎아서 제작함.	산업화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금속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용접하여 제작
촉각적 느낌	거칠거칠하고 단단한 돌의 느낌	광택이 있어 매끄럽고 차가우며 매우 단단한 느낌이 든다.
주변 환경과의 관계	불국사의 안마당에 자리잡은 석탑은 불교적 이상과 종교적 상징물이 갖는 경건함을 갖고 있다.	주위 환경을 반사하여 마치 거울과 같은 효과를 낸다. 빛의 양과 효과에 따라 반짝 거리는 느낌이 새롭게 느껴진다.
전통을 재해석한 미술 작품의 의미	전통의 탑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석가 탑과 유사한 형태를 통해 원래의 탑이 갖는 종교적, 기념비적인 느낌을 든다. 현대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전통 미술이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으며 전통 미술에 관심을 높일 수 있다.	

■ 지식 창고

입체 표현의 재료

자연의 재료	점토, 나무, 흙, 돌, 동물의 뼈 등
금속 재료	과거는 청동(동+주석)이 주요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산업 혁명 이후 기술 발달로 철, 스테인리스 스틸 등 다양한 금속을 절단, 용접 등의 방법으로 현대 조각에 많이 사용
합성수지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 표면이 섬세하고 광택이 있으며, 접착이 용이하고 다양한 형태로 성형 가능, 경제적인 가격으로 현대 조각에서 많이 사용함.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권오상 / 무제

‘사진 조각’이라는 장르를 개척. (탈취제를 뜻하는 ‘데오도란트(deodorant)’에 ‘type’을 붙여 데오도란트 타입으로 명명) 대상을 360도 돌아가며 촬영한 뒤 아이소 핑크로 제작된 조각에 인화된 사진을 오려 붙여 입체 형상을 만들었다. 다시점을 확보하는 입체 형상은 원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리얼리티를 제공하여 상상과 현실의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사진과 조각, 평면과 입체, 시각과 환영, 실재와 이미지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을 시도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 길버트와 조지 / 노래하는 조각

얼굴을 청동색으로 칠하고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탁자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과장된 몸짓으로 춤을 추는 퍼포먼스 작업. 미국 대중문화가 들어오기 전 향수를 자극하는 영국의 옛날 노래를 도시적인 차림의 모습으로 재연함으로써 부조화와 간극을 드러냈다. 영국의 2인조 미술가 그룹인 길버트와 조지는 형식적인 조각에 반발하여 작가 스스로를 “살아 있는 조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레디메이드를 예술품으로 제시했던 마르셀 뒤샹의 방식을 더욱 심화시켰다.

■ 지식 창고

• 오브제(objet, object)

미술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재료 이외에 현실에서 직접 취한 실제 사물이나 이를 활용한 표현 방식. 일상적 문맥에서 벗어나 예술적 문맥으로 옮겨간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색다른 시각적 효과나 심리적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오브제의 활용은 현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동시대 미술의 일반적인 특징이며 20세기 초 입체주의의 분석적 큐비즘에서 약화된 재현성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 사물을 표현의 소재로 등장시킨 최초의 오브제 작업 이후 뒤샹의 샘과 같은 레디메이드에서 독립적으로 실현되었다.

입체 표현의 경계를 넘어

오늘날의 입체 표현은 회화나 조각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표현하거나 현대 사회에서 소비되는 다양한 일상용품 등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작품에 활용한다. 기존 조소의 한계를 넘어 독창적이고 실험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입체 표현이 주는 상상력과 즐거움을 발견해 보자.



저울호안국(1978-) **리온** 70x70x100cm, 스테인리스 스틸/500x150x200cm(2012년 작) 버러지는 페타이어로 제작하였다.



아르망팡(André Pierre Fernandez/프랑스-미국/1928-2005) **황치 주차** 콘크리트, 자동차(60x60x195cm/1982년 작) 60x60의 자동차를 1,600점의 콘크리트 속에 박아 만든 아상블라주로 현대 조각사의 미학을 가려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권오상(한국/1974-) **무제** 혼합 재료, 230x85x80cm(2013년 작) 입체로 만든 사람의 모형에 시장에서 찍은 인물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여 표현하였다.



앤디(Hanson, Duane/미국/1925-1990) **역행객들** 2여의 상유, 혼합 재료 인물의 피부와 표정 등을 실제 인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이 만들고 옷, 신발, 가방 등 갖가지 소지품까지 재-기계 하여 물질적 풍요와 대중 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더 알아보기 | 사람의 신체가 미술이 될 수 있을까?

피프먼스는 행위 예술이라고도 하며 신체를 표현의 도구로 삼는 미술을 말한다. 대개 관객 앞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미리 계획된 각본을 따르거나 즉흥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길버트와 조지(Gilbert Proesch, George Passmore/영국/1942-) **노래하는 조각** 페타이어(1969년 작)

영어 설명

• 오브제: 일상 용품이 미술 작품이 되면서 원래 가진 목적과 용도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
• 정크 아트: 일상생활에서 생긴 폐품이나 잡동사리를 소재로 제작하는 미술
• 아상블라주: 조립되어 볼 수 있는 기성품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여러 개 모으고 붙여서 만든 작품

48

또한 폐품이 된 일상의 파편들을 작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한 슈비티스의 메르츠 연작, 인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가시화하는 도구로서 활용한 초현실주의의 오브제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누보 레알리즘, 펑크아트, 네오다다, 팝아트, 설치 미술 등은 모두 일상적 오브제를 활용한 동시대 미술의 사례이다.

• 레디메이드(ready-made)

공장에서 생산된 일용품을 원래의 기능으로부터 떼어내 예술 작품으로 활용한 것. 기성품은 미술관이라는 새로운 장소에 놓이게 되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게 된다. 최초의 레디메이드는 마르셀 뒤샹의 <샘>(1917)이 대표적이지만 예술 작품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인 예술가의 손을 통한 작품의 제작, 작품의 원본성과 유일성에 대한 시각을 전복하며 예술가의 손재주가 표현되는 제작 행위보다 아이디어가 우선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 아상블라주(assemblage)

1935년에 미술가 장 뒤뷔페가 만든 용어로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인공물 즉, 발견된 오브제의 파편을 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방식. 아상블라주는 입체주의 콜라주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주로 입체 작품에 적용한다. 196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아상블라주 예술” 전시에서 대중적으로 소개되었다.

13

새로운 매체와 미술의 변화

교과서 pp. 50~57

단원 설정 이유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은 미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진과 영상의 등장으로 미술은 전통적인 표현 양식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뉴 미디어로 인지되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그 양상이 변화하였다. 현대의 미술은 상호 소통과 미적 체험, 미술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술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미술의 변화를 이해한다. •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매체로서의 의미를 찾아본다.
차시	3
평가 요소	창의적 표현 능력, 표현 매체의 탐색과 활용 능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법, 토론법, 관찰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창의 융합 능력
성취 기준	9미02-03 / 9미02-05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미술의 영역에 새로운 매체가 적용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전개

[새로운 매체를 적용한 미술 작품 탐색하기]

- 생활 속에서 접하는 미술 작품 속에서 새로운 매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본다.
-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미술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전통 미술과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미술의 차이를 알아본다.
- 새로운 매체를 적용한 미술 작품과 소통하는 법을 탐색한다.

[자료와 주제 탐색]

- 미술 작품에 쓰인 새로운 매체와 주제를 알아본다.
- 새로운 매체를 적용한 미술 작품 사례를 통해 미술 표현 영역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정리

-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미술의 변화를 알게 되었는가?
- 뉴 미디어 아트 개념과 특성을 알고 말할 수 있는가?

지도상의 유의점

-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일상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 매체의 특성을 면밀히 탐색하도록 한다.

13

새로운 매체와 미술의 변화

학습 목표
•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사진과 영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새로운 매체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1 미술 ①-11

생각 열기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1960년대의 비디오 매체를 바탕으로 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기존의 미술 개념과 소통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컴퓨터 그래픽, 사진, 영상 등 디지털 매체들은 전통적인 미술 표현에서 불가능했던 새로운 미술 양식을 제공해 주었고, 이러한 흐름은 현대에 이르러 뉴 미디어를 통해 그 영역이 더 확장되었다.

빛의 예술! 사진! 짧은 순간을 정지시켜 이미지를 표현



브레송(Bresson, Henri cartier) 프랑스/1908-2004 생 라자르 역 뒤에서(사진/가판 크기/1932년 작) 고인 물 위를 도약하는 남자를 표현하였다. 순간을 포착한 이 작품은 <결정적 순간The Decisive Moment>이라는 사진 예술의 미학을 탄생시켰다.

단 한 장의 이미지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는 사진은 단순한 기록성을 뛰어넘어 독립성을 가지고 작가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술포서의 사진



이영호(한국/1975-) Tree, Ink on Paper(천/620x520cm/2011년 작) 나무를 촬영한 캔버스를 자원으로 이용하여 최화준은 분필(가판)을 이용하여 사진이 갖는 기록성을 뛰어넘었다.



웨스턴(Weston, Edward) 미국/1886-1958) 피망(사진/가판 크기/1930년 작) 피망을 찍었지만 신체 일부로 느껴지도록 근접 촬영하여 다른 의미로 상상했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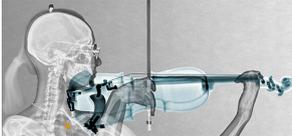
● 브레송 / 생 라자르 역 뒤에서

한 남자가 사다리를 밟고 물이 고인 웅덩이 위를 뛰는 순간을 포착한 이 사진은 사진계의 거장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작품이다. 생 라자르 역 뒤쪽 울타리의 틈을 통해 촬영한 이 사진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순간 포착된 물웅덩이를 건너뛰려는 남자의 동작과 물에 비친 그림자, 뒤쪽 벽면의 포스터 속 무용수의 동작은 유사하다. 또한 그 밖의 모든 사진적인 요소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역동적인 균형, 도형적인 완벽성, 놀라운 리듬감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통합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현재는 스마트기기가 발전을 하여 이와 같은 사진을 찍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으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그 시절에는 획기적이었다.

● 웨스턴 / 피망 No.30

사진 속의 피망은 먹는 음식이지만 에드워드 웨스턴의 사진 안에서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파악된다. 사진 속 피망은 화면의 중앙에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배치되었다. 또한 대형 카메라의 조리개를 최대한 조여 놓고 근접 촬영한 사진으로 세밀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듯 묘사되었다. 이는 옹크리고 앉아 있는 사람같이 여겨지기도 하며 인간의 누드로 보이기도 한다. 사진기 앞에서 모든 피사체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는 하찮은 피망에 의미를 부여해 마치 에로틱한 감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초현실주의적 대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은유적 대상을 재구성하여 완성한 사진 미학의 산물이다.

◆ 색다른 표현의 사진



정태섭(한국/1954-) 바이올린 위의 선율(디그먼트 프린트, 엑스레이(X-ray)/72x150cm/2010년) 작 안젤름 엑스레이(X-ray)나 CT 등 영상 장비로 촬영하고 컴퓨터 그래픽 처리하여 작품 소재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박승훈(한국/1978-) TEXTUS 201-1 Wall Street I(Digital C-print/120x150cm/2014년) 작 다양한 바이블 가진 대상을 영화와 필름으로 조각나게 촬영한 후 재조합하고 다시 필름을 읽어 재구성하는 프로 워크를 형식을 사용하여 원래의 이미지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 이야기가 있는 사진



리드(Ried, 태국/1946-) 노랑진(사진/디지털 이미지/2015년) 작 매그넘 사진의 비밀전, 브릴리언트 코리아(Brilliant Korea)에 소개된 작품이다. 새벽에 육교를 오르는 수험생의 뒷모습을 작품의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검은 실루엣으로 부각시켰다. 육교의 정상에 다다른 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성공에 대한 집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었다.



앙투안 마그넘 포토스(Magnum Photos)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이념을 가진 20세기 포토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 그룹이다. 1947년에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Bresson), 로버트 카파(Robert Capa), 데이비드 사부어(David Seymour), 조지 로제(George Rodger) 등의 사진가들이 설립하였다. 이 그룹은 특정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립하고 사진가의 시각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자신의 입장과 방향을 추구하고 있어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이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들로름(Delorme, Alain/프랑스/1979-) Totem # 1(사진/디지털 이미지/2010년) 작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꾼 가족을 통해 소외 계층의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웨스턴, 피망



웨스턴, 양배추

● 이명호 / Tree, Ink on Paper

나무 뒤에 하얀색 캔버스를 세워 나무라는 대상을 원래의 자연적 맥락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캔버스 위에 나무가 그려져 있는 듯한 사진을 만들었다. 거대한 자연의 일부에 불과했던 나무 한 그루가 캔버스 안에 삽입된 이차원적 이미지로 평면화됨으로써, 예술의 아름다운 대상물이자 주목할 만한 존재로써 전환되었다.

● 정태섭 / 바이올린 위의 선율

‘엑스레이 아트(X-ray Art)’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킨 정태섭 작가의 작품이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인 그는 엑스레이 기계로 피사체를 수십 장을 촬영한 후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사진들을 겹치고 색을 입히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머리를 묶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인의 모습을 엑스레이의 특별한 성질을 활용해 아름다운 사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 박승훈 / TEXTUS 201-1 Wall Street 1

대상을 조각나게 촬영하여 16mm 얇은 영화용 필름을 직

물을 찌듯 엮어 작업한 것이다. 작업 시리즈는 TEXT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TEXTUS(직물)에서 비롯됐다. 직물의 씨줄과 날줄이 합쳐져 옷감이 되듯, 영화 필름으로 만든 조각들을 마치 모자이크처럼 연결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로 재탄생시켰다. 거대화된 대도시의 특성이 드러나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풍경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아냈다.

● 리드 / 노랑진

매그넘 사진의 비밀전, 브릴리언트 코리아(Brilliant Korea)에 소개된 작품이다. 새벽에 육교를 오르는 수험생의 뒷모습을 작품의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검은 실루엣으로 부각시켰다. 육교의 정상에 다다른 모습을 통해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성공에 대한 집념,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었다.

● 들로름 / Totem # 11

프랑스 예술가 알랭 들로름은 상해에서 거주하며 많은 사진을 찍어 중국 사회의 단면을 나타내었다. 그는 ‘Made in China’를 위한 중국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비평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는데, 무거운 짐을 리어카에 위태롭게 쌓아 어렵게 끌고 가는 듯한 인물들을 일종의 노예처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샵으로 물품의 양을 늘렸다. 이 시리즈는 18장의 이미지로 구성되며 그는 이를 위해 6,000장의 사진을 찍었다.

■ 지식 참고

웨스턴

1866년 미국 일리노이주 하일랜드 파크에서 출생한 에드워드 웨스턴은 20세기 미국 사진 작가 중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이다. 그는 40년 동안 풍경, 누드 사진, 초상화, 패러디, 세트 촬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신만의 사진 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는 상업적인 사진도 찍었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곧 예술 사진으로 돌아왔다. 그는 ‘즉물사진’ 즉 주관 요소를 배제하고 대상 그 자체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기록하는 스타일에 심취하였는데 사진계의 피카소라 불릴 만큼 근대 사진 예술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렌즈는 인간의 눈보다 많은 것을 본다.”는 예술관을 지닌 사진 작가로 정확하고 날카로운 세부 묘사에 의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을, 아무런 조작 없는 본연의 상태 그대로 두면서 사물 자체를 보여주는 사진을 찍는데 몰두하였다. 또한 ‘F-64’그룹을 조직하여 회화적인 사진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한 사진 표현을 실천하였으며, 현대 사진 예술 발전에 공헌한 점, 근대 사진의 현실주의에 의의 있는 역할을 다한 점 등에서 으뜸가는 위치에 속하는 사진가이다. 그를 두고 미국에서는 ‘20세기의 미국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예술가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웨스턴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D사 / 토이 스토리

1995년 월트 디즈니가 배급하고 픽사가 제작한, 장난감을 다룬 3D 애니메이션. 픽사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최초의 풀 3D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장편 영화 작품으로서 첫 풀 CG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3억 62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렸다. 감독은 픽사의 존 래시터인데, 장편 풀 CG 작품을 제작한 실적으로 인해 아카데미 특별 실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속편 <토이 스토리 2>가 개봉하였고 개봉한 지 10년 만인 2010년 <토이 스토리 3>가 개봉되었다.

● 최정문 / In. visible – Fold

자외선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색의 실을 설치함으로써 공간을 포용하고 재정의하고 있다. 끝없는 양의 미세한 실을 사용하여 공간에서 입체 선을 추적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원근감의 환상을 연출한다. 작품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특별한 시각적 비주얼을 나타내고 있다.



최정문, In. visible – Fold

● 크리스토퍼 놀런 / 인터스텔라

2014년에 개봉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SF 영화이다. 윌 홀을 통해서 새로운 생존 가능한 행성을 찾는 우주 탐사 팀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무대가 현실의 우주이고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 사, O사 / 뽀로로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오콘, SK브로드밴드, 삼천리총회사, EBS가 공동 제작한 풀 3D 애니메이션이다. EBS 방송 당시 평균 시청률을 웃도는 5%를 기록했으며 ‘뽀통령’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뽀군을 주연 캐릭터로 하고 공룡과 여우 등이 조연으로 나온다.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수출되었으며, 출판 및 완구, DVD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2003년 11월 EBS에서 처음으로 방송되었고, 2016년부터 제 6기가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다. 우정사업 본부는 2011년 첫 우표로 뽀로로 우표를 발행하였다.

● K사 / 시양양

중국의 뽀로로로 불릴 정도로 중화권에선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이다. 흰 양의 캐릭터로 제작되었고 중국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시양양(喜洋洋)은 2005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끌면서 ‘국민 캐릭터’로 사랑을 받고 있다.

영상 디자인 | 움직이는 이미지를 표현

영상 디자인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모션 그래픽, 라이트 아트 등 시간에 따른 움직임의 변화를 빛, 소리, 시각 매체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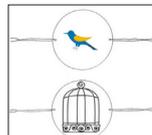
놀란 Nolan, Christopher(감독/1970-) 인터스텔라(2014년 작)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블랙홀을 묘사하는 우주인을 표현하였다.

● 애니메이션의 원리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사물을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으로, 소마트로프, 조트로프, 플립 북 등의 방식이 있다.

용어 설명

만화: 만화는 간결한 그림과 글로 대상의 특징이나 성격, 시간의 전개 등을 과장, 변형, 생략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과 함께 내용이 전개되므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보는 즐거움을 준다. 만화는 형식에 따라 한 컷으로 만드는 컷본, 신문 등에서 볼 수 있는 네 컷짜리 만화, 긴 줄거리에 어울리는 여러 컷의 만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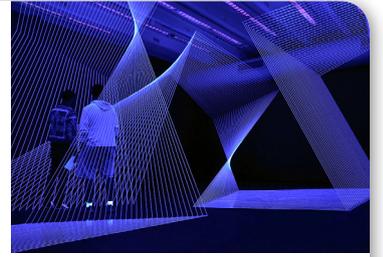
소마트로프(Thaumatrope) 양면의 그림이 서로 다른 원판을 회전시키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조트로프(Zoetrope) 움직임을 세분화하여 그려진 회전판을 둘러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플립 북(Flip book) 일정한 규칙의 종이 위에 움직이는 장면을 조금씩 변화를 주어 그림을 그린 후 연속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최정문(한국/1967-) In. visible - Fold(빛/7면 크기/2015년 작) 푸른 빛내 공간을 빛이 굴절된 라이트 아트로 표현하였다.



DA(미국) 토이 스토리(애니메이션/2001년 작) 장난감을 의인화한 애니메이션이다.



사, O사(한국) 뽀로로(디지털 이미지/2003년 작) 행권을 소재로 한 캐릭터이다.

52

● 소마트로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그림을 여러 개 만든 다음 그림들을 빨리 넘겨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원리로, 1826년 의사 존 에어튼 파리스(John Ayrton Paris)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원형판 위에 새장을 그리고 그 뒷면에는 새를 그려 매어 돌려 마치 새가 새장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원리를 발견하고, 양면의 그림을 빠른 속도로 번갈아 봄으로써 잔상으로 시각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소마트로프(Thaumatrope)를 만들어 원리를 입증하였다.

● 조트로프

회전하는 원형통의 틈새로 보이는 연속 그림의 스트립을 사용하는 초기 애니메이션 장치이다. 그림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뇌에 잔상이 남는 '잔상 효과'를 이용한 장치로 1초에 18~24장의 그림이 넘어가면 앞 그림과 뒷 그림이 겹치게 되고 이것이 여러 장이 되면 우리 뇌는 마치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 플립북

움직임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연속적으로 공통된 규격의 종이에 그리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넘겼을 때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구. 책이나 공책의 한 귀퉁이에 조금씩 변해가는 그림을 한 장씩 그려 놓고 그것을 빠르게 넘기면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플립 북의 원리이다. 애니메이션 기법 중 셀 애니메이션 기법과 가장 유사하다.

● 애니메이션의 종류와 기법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표현 방식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뉘는데 그림 애니메이션(그래서 표현하는 셀, 클레이, 모래 등), 모델 애니메이션(소품이나 모델을 움직이는 클레이, 컷아웃, 오브젝트, 픽셀레이션 등), 컴퓨터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 적성 애니메이션이 있다.



송윤지 외 2명(학생 작품) 그림 애니메이션



김주희 외 2명(학생 작품) 모델 애니메이션



신원우(학생 작품) 컴퓨터 애니메이션(2016년 작)

- 셀(animation): 종이나 필름에 그림을 그린 후 움직임을 여러 셀로 연결
- 클레이(clay animation): 점토로 만든 대상을 한 프레임씩 움직이며 표현
- 종이(紙)(paper animation): 종이에 움직이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 한 프레임씩 표현
- 컴퓨터(animation): 컴퓨터 이미지와 움직임을 조작하여 표현
- 컷아웃(cut-out animation): 종이를 잘라 표현한 주제를 한 프레임씩 움직이며 표현
- 오브젝트(object animation): 생략 주위의 소품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표현
- 픽셀레이션(pixelation): 피사체를 사물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포착하여 한 프레임씩 표현
- 모래(sand animation): 모래에 그림을 그려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표현
- 그림자(silhouette animation): 두꺼운 검은 종이를 잘거나 조명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표현



OH, 애니메이션 연구! 사귀는 데만 7분! 오라 나는 거사! 요괴를 이양한다! 개작하는 거사!



KM(중기)2004년 사랑방디 제일 이미지(2009년) 작 방 울소레 한 캐릭터이다.

더 알아보기 스톱 모션

스톱 모션(Stop-motion animation)은 애니메이션에 많이 쓰이는 기법이다. 인형이나 소품 등을 이용해 조금씩 동작에 움직임을 주어 이미지를 한 프레임씩 촬영한 후, 이미지를 연속해서 영상하여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연속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1초에 24 프레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 영화나 TV에서는 이 방식을 쓰고 있다.



김지현(학생 작품) 맛있는 간식(2011) 과일 장시 속의 사과 감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표현한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이다. 연속 동작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5초 동안의 사과 감질 벗기는 장면이 실제로는 약 200장에 가까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중 1초당 15 프레임이 되도록 사진을 선택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 모래 애니메이션

인류가 오랫동안 미술 표현의 재료로 써온 모래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기법의 하나로 유리 위에 모래로 형상을 만들고 유리 아래에서 빛을 비추면서 한 장씩 촬영한다. 유리판 위에 아주 고운 모래의 입자를 뿌리거나 그리면 유리판 밑에서 투과되는 빛 때문에 입자들은 두께에 따라 다양한 톤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의도한 대로 꼭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소재 자체에 접착력이 없어서 모래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가 특징이다. 모래 대신 금가루나 은가루, 콩, 씨, 밀가루 등의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분말 형태의 재료를 고르게 펼쳐 놓은 뒤 손가락 또는 붓과 같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고 지워가면서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인 파우더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것이 모래 애니메이션이다.



모래 애니메이션

● 그림자 애니메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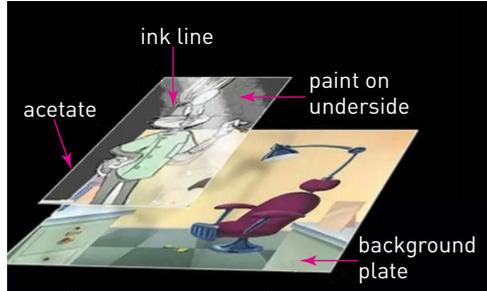
실루엣 애니메이션은 그림자극에서 발전된 경우이다. 조명이 설치된 유리판 위에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여러 모양의 종이 등을 올려놨다 스톱 모션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영화 촬영가 찰스 암스트롱이 1909년 'The Sporting Mice'란 단편 영상을 제작한 이후로 몇 개의 작품을 더 제작했지만 일부 소실되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1926년 독일의 로테 라이니거의 <아흐메드 왕자 이야기(Die Geschichte des Prinzen Achmed)>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실루엣 애니메이션의 시초로 본다.



그림자 애니메이션

● 셀 애니메이션

셀 위에 그린 여러 장의 그림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움직임을 만드는 애니메이션의 한 형태이다. 셀이라는 말은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된 투명판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지를 의미할 뿐 재료에 대한 명칭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셀 애니메이션은 작가가 셀 위에 그린 연속적인 그림을 한 프레임씩 끊어서 촬영한 후 정상 속도로 재생함으로써 연속적인 움직임을 창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애니메이션 원리는 필름 카메라의 기본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필름 카메라가 포착하는 영상은 사실 정지된 이미지일 뿐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필름 카메라는 1초에 24장의 연속적인 정지 영상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재생될 때 사람들은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한다.



셀 애니메이션 원리



클레이 애니메이션

탐구 활동 1 유쾌한 상상으로 연출 사진 찍어 보기

| 준비물 | 휴대폰 또는 카메라

| 수업 과정 |

- ① 연출 사진의 의미를 이해한다.
- ② 참고 자료를 통해 원근을 이용한 촬영 기법을 이해한다.
- ③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출 사진을 촬영한다.
- ④ 자신이 찍은 사진을 친구들의 사진과 비교 감상한다.



원근을 이용한 사진

| 정리 및 평가 |

- 원근을 이용한 착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가?
- 창의적 발상으로 연출사진을 촬영하였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참고 자료를 모방하여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탐구 활동 2 가까운 거리에서 주제를 돋보이게 찍어 보기

| 준비물 | 휴대폰 또는 카메라

| 수업 과정 |

- ① 참고 자료를 통해 근접 촬영 기법을 이해한다.
- ② 아웃 포커스의 원리와 방법을 안다.
- ③ 피사체와 심도에 대해 안다.
- ④ 근접 촬영 기법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 ⑤ 자신이 찍은 사진을 친구들의 사진과 비교 감상한다.

| 정리 및 평가 |

- 근접 촬영 기법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가?
- 피사체와 심도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지면과 너무 가까운 피사체는 아웃 포커스가 어려움을 주시킨다.
- 휴대폰 카메라의 경우 렌즈가 피사체에 너무 가까우면 초점이 안 맞음을 주시킨다.

탐구 활동 3 눈 높이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보기

| 준비물 | 휴대폰 또는 카메라

| 수업 과정 |

- ① 참고 자료를 통해 눈높이에 따른 구도의 변화를 찾아본다.
- ② 다양한 눈높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구도를 비교해 본다.
- ③ 자신이 찍은 사진을 친구들과 비교하여 감상한다.

| 정리 및 평가 |

- 눈높이를 이용한 새로운 구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가?
- 눈높이에 따른 구도의 변화를 이해하였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 야외 촬영의 경우, 로우 앵글(아래-위)로 촬영할 때는 역광이 뒀을 주시킨다.

탐구 활동 1 유쾌한 상상으로 연출 사진 찍어 보기

준비물: 카메라



김민세(학생 작품) 미술사(사진/2016년 작) 원근을 이용한 작품으로 손바닥의 위치가 멀리 있는 학생들에게 맞춰서 촬영하였다.



최서연의 3인(학생 작품) 장중(사진/2016년 작) 날아가는 동자에 맞춰 자세를 잡고 손 간을 포착하였다.

탐구 활동 2 가까운 거리에서 주제를 돋보이게 찍어 보기



이선별(학생 작품) 선명함(사진/2016년 작) 물체를 가깝게 찍어 주제는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고 배경은 흐릿하게 표현하였다.



탐구 활동 3 눈높이를 달리해서 찍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보기



조영우(학생 작품) 선명함(사진/2016년 작) 동나무 하단부(사진/2016년 작) 아래-위로 찍음(로우 앵글)



박진하(학생 작품) 그림자(사진/2016년 작) 위-아래를 보고 찍음(하이 앵글)



이현(학생 작품) 키보드(사진/2016년 작) 눈높이와 수평이 되게 찍음(아이 레벨)

■ 지식 창고

아웃 포커스(Out of Focus)

아웃 포커스는 사진이나 화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점이 맞지 않게 촬영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피사체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초점을 흐리게 하여 상대적인 강조 효과를 얻는데 흔히 사용한다. 촬영시의 아웃 포커스는 렌즈 초점의 심도 특성을 이용한다. 구경이 큰 렌즈의 조리개를 다 열면 특정 거리의 피사체에만 초점이 정확히 맞게 된다. 특정 피사체만 강조되도록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이를 선택티브 포커스(selective focus)라고 한다.



아웃 포커스에서 강조된 피사체의 위치



아웃 포커스(피사체와 심도)

뉴 미디어 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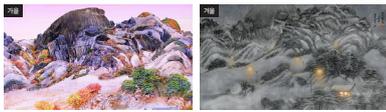
현대 미술의 흐름은 전통적인 재료와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고 있다. 컴퓨터,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들은 미술과 융합하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넓혀 주었고, 현대 과학은 뉴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켰다. 감상자들은 이제 단순히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읽는 미술로 사이를 넓히고 있으며, 작품과의 상호 소통으로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박천신(한국/1959~) 소나기 Shower/컴퓨터디지털 이미지/2012년 작 한국 전통 우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디지털 페인팅으로 표현하였다.



홍성철(한국/1969~) String hands, 48x40cm (print on elastic string in a steel frame/100x100x14cm, 2015년 작) 신체 일부나 전체를 사선으로 묶고 이것을 줄(string) 위에 조르듯 대를 여러 번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다. 사선의 밀집 방향을 일체화시킨 것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이인남(한국/1969~) 인왕제색LED 비디오 설치(2008년 작) LED 화면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산수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산수를 보고 있지만 사사시절 변화하는 산의 풍경과 물소리, 산 속에 위치한 가옥의 조명이 커지는 장면 등이 그래픽으로 재현된다. 18세기의 산수에 21세기의 감각을 덧붙여 재해석한 이 작품은 빛을 통해 고전을 재해석한 뉴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사례이다.



용어 설명 미디어 아트: 사진, 전화, 영화 등의 발명 이후 이런 신기술을 활용하는 예술들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용어로 쓰인다. 이 중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탐구하는 예술을 뉴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주용(한국/1958~) 사물과 기억을 기록하다(홀로그래피 기술로 제작된 미디어 아트, 71번 크기/2013년 작) 역사 안에 홀로그래피 각각의 주제와 형상으로 재현되었다. 전통적인 미술 재료와 표현 기법에서 벗어나 달라진 현대 미술의 양상을 내세우고 있다.

안에는 디지털과 미술,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모두 자유롭게 뒤섞여 있다. 디지털 세계 속에 한국적인 미와 자연을 그려내는 작가의 인간 중심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지식 창고

컴퓨터라는 붓

이제 컴퓨터는 더 이상 사무적인 기계에 머물지 않고 미술 분야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계인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도 회화적인 느낌을 뽐어낸다. 디지털 이미지의 발달과 표현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단순히 붓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줄리아 로버츠(디지털 이미지 /782×785cm/2010년 작)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이인남 / 인왕제색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LED 화면 속에서 재해석한 이인남의 작품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화면 속의 그림은 시각적, 청각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감각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줌과 동시에 감상의 깊이까지 더해 준다. 18세기 서울 풍경 위에 21세기의 서울 풍경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공간 예술인 미술이 디지털의 힘을 얻어 시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화면은 디지털 시대의 예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 이주용 / 사물과 기억을 기록하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2013년에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전시실에서 차세대 입체 영상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홀로그래피를 활용한 전시이다. 동의보감, 대동여지도, 석보상절 등 소장 고서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사물과 사람의 얼굴 등을 디지털 홀로그래피 기술로 재현한 이주용의 입체 영상 작품 총 85점을 선보인다. 사각의 원목 프레임 안에 마치 실물이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3차원 입체 영상을 3D 특수 안경이나 장비 없이 감상할 수 있다.

● 박천신 / 소나기

디지털 페인팅으로 그려진 박천신의 작품이다. 그의 그림

탐구 활동 더하기 | 디지털 시대의 미술

미술이 변화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초현실주의라는 말조차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가들은 작업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면서 선배 작가들이 누리지 못했던 창작의 나라를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소재나 기법도 자연스레 파격적이다. 전시 공간도 미술관 안팎을 넘나든다. '너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당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흐름임이 분명하다. 화폭과 화법이 풍성해지면서 메시지도 깊고 다양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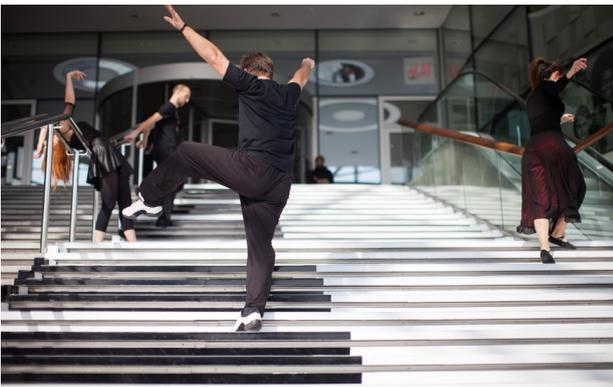
홍성철(한국/1969~) String column 0254(실, 철제 프레임/270×120×120cm/2008년 작)(좌-앞면, 우-뒷면)

● 한국콘텐츠진흥원 / 향유, 나누어 누리다

2016년 경복궁 경희루를 무대로 펼쳐진 미디어 파사드이다. 궁궐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였다. 조선 시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세종대왕의 꿈을 소재로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었던 꿈과 애민 사상, 그리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미디어 파사드와 전통 무용을 결합한 융·복합 공연으로 펼쳤다.

● P사 / 피아노 계단

이 계단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오펜플란 지하철역 출구에 설치되었다. 평소 대부분의 통행자들은 계단보다는 그 옆의 비좁은 에스컬레이터 이용률이 높았다. 그런데 이곳에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시도된 후,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는 건반 형태로 개조해 사람들의 이용도 변화를 보는 작업이었다. 설치를 마치고 CCTV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피아노 계단을 재미있어한 사람들이 스텝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노인이나 아이, 심지어는 몸이 불편한 사람까지 계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즉 ‘편리’보다 ‘재미’를 택한 것으로, 이 실험 과정은 그대로 독일 자동차 폭스바겐의 캠페인 광고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회사의 환경 친화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 광고는 유수의 국제 광고상을 받기도 했다. 이 작업은 미국의 게임 디자이너 라프 코스터의 ‘재미 이론’을 이용한 것이다.



피아노 계단

● 달 향아리

달 향아리를 형상화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작품 ‘오(Ou)’이며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설치됐다. 이 작품은 미디어 아티스트 전병삼의 작품으로 앞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술을 통한 상호 소통에 의미를 둔 작품으로 앞으로 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의 얼굴을 담아내게 된다. 이 작품은 과학과 예술의 시너지로 탄생한 작품이다. 작가는 동전 크기의 작은 디스크 20만 개를 활용해 그래픽을 구현했다.

◆ 체험하고 상호 소통하는 미술 위기

현대의 미술이 뉴 미디어를 바탕으로 대중들의 상호 소통에 비중을 두게 되면서 작가들의 표현 방식이 다양해졌다. 작가들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재료와 기법에 변화를 주게 되었고, 캔버스 외의 개념은 거리의 설치 조형, 미디어 파사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 공간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감상자가 미술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 주었고, 아티스트는 전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 향유, 나누어 누리다) 미디어 파사드(가면 크기) 2016년 3월 경복궁의 경희루를 이용한 미디어 파사드 중 한 장면으로 궁궐 문화유산이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경복궁의 600년 역사를 나타내었으며,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세상을 묘사하였다.



P사(한국) 피아노 계단(스웨덴) 2009년 3월 계단을 밟으면 피아노가 연주되도록 설치 후 계단 이용률이 높았다고 한다. 시각 장애인 시각, 친환경적인 의도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전병삼(한국/1977-) 달향아리(디스크, 디지털 신호/10×10.4m/2016년 3월) 불에 위에서 회전하는 달 향아리 형상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설치된 작품이다. 앞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누구나 자신의 얼굴 이미지를 이 작품에 투사할 수 있다.



백남준(한국-미국/1920-2006) 다다익선(비디오 모니터/1,003개의 브라콘관 TV/1986년 3월) 1,003개의 비디오 모니터를 층을 쌓아 만들었고 모니터에는 작家的 미디어 아트 작품이 상영된다.

요약 설명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을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물로 사용한다.

입력되는 디지털 신호에 따라 디스크가 앞뒤로 회전하면서 단색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디스크를 제어하기 위해 10미터 크기의 달 향아리 안쪽에는 1,076개의 제어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와 연결된 케이블 길이만 176km에 달한다.



달 향아리 앞의 카메라

● 백남준 / 다다익선

과천 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백남준의 작품이다. 개천절을 상징하는 1,003개의 TV수상기가 설치된 비디오 타워로,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TV 수상기에는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이 형형색색으로 상영된다.



비슬리(Besley, Philip/제1/1956-) **착생 식물원**(일가신수지, LED, 디지털 센서의 복합 매체/가변 크기/2013년 작) 관람객이 만지면 조명이 켜지고 50여개의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향기를 분출하는 설치 작품이다.



체르니(Cerny, David/체코/1967-) **Metalmorphosis**(스테인리스 스틸/무게 14톤, 높이 7.6m/2014년 작) 연속하여 움직이는 얼굴 모양이 바뀌는 분수로 컴퓨터에 의해 두상의 각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회전한다.



최우람(한국/1970-) **달의 감춰진 그림자**(금속/가변 크기/2008년 작) 금속 생명체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이다.

현대 과학과 미술의 만남

현대 과학 + 미술

어떻게 볼까?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느낄까?

상호 소통하여

빛과 영상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움직이는 미술

뉴 미디어 아트는 현대 과학을 기반으로 컴퓨터와 테크놀로지, 빛, 사진과 영상 등 디지털 매체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을 보는 재미를 더해 준다. 감상자들은 과거 눈으로만 감상하던 감상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오감을 활용하거나 설치 미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상호 소통하며 작품에 반응하게 되었다. 자, 이제 어떻게 미술을 보고 읽을까?



쇼쇼, Jeffrey (호주/1965-2002) **Web of Life**(디지털 이미지/가변 크기/2002년 작) 컴퓨터 시스템과 관람객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스캐너에 손을 대면 관람객 고유의 손바닥 패턴을 인식하여 화면이 설계되고, 컴퓨터 그래픽, 비디오 이미지, 70.1 채널 서라운드를 경험하며 각자 생명의 웹 주인공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읽을거리 제프리 쇼의 작품 세계

미디어 예술의 개척자로 불리는 제프리 쇼는 1960년대부터 뉴 미디어 및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 실험적 시도를 이뤘었다. 그는 작품과 감상자 간의 생명양 소통을 중요시 여겼고, 실재와 가상을 결합시킨 360° 파노라마 영상 등을 많이 만들었다. 3D로 펼쳐지는 그의 작업 중 대표적인 것은 (읽을 수 있는 도시, 1988)인데 이 작품은 스크린 앞에 선 관람객이 자전거를 타고 15km에 달하는 암스테르담 사뮈를 실시간으로 질주하며 대상을 만드는 가상 체험까지 할 수 있다. 관객이 보는 패턴의 환상에 따라 자전거의 속도가 결정되는 패턴이 회전도 된다. 2012년에는 중국의 불교 문화인 '동향 석공'을 실제의 느낌처럼 체험할 수 있는 설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 **점검해 보기**
- 좋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가?
 - 에, 제프리 쇼의 원리와 기법을 알고 스토리로 제작할 수 있는가?
 -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미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가?
 - 뉴 미디어 아트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말할 수 있는가?



착생 식물원(부분-신호 센서)

● **체르니 / Metalmorphosis**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Charlotte) 지방의 Whitehall Technology Park에 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여러 층으로 구성된 거대한 두상이 360도 회전하면서 입에서 물을 뿜어낸다. 무게가 14톤이고 높이 7.6m에 이르는 조형물로, 체코 조각가 체르니(David Černý)의 작품이다. 사무실 건물 앞에 설치된 이 두상은 구성하는 각 레이어가 독립적으로 회전하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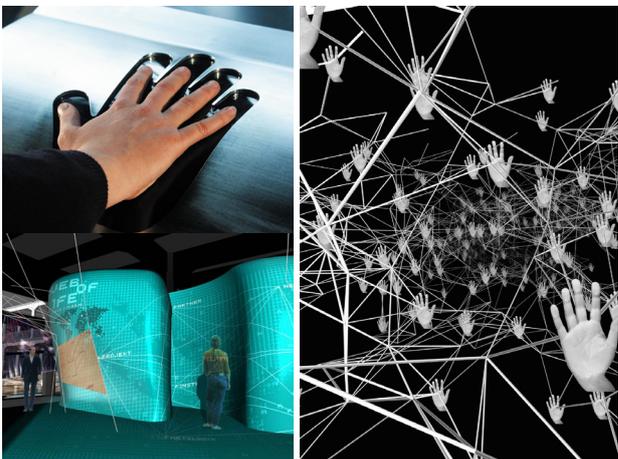
● **최우람 / 달의 감춰진 그림자**
최우람의 키네틱 아트이다. 높은 천정에 매달려 스스로 빛을 뿜으며 서서히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의 이름은 달의 감춰진 그림자이다. 초승달을 닮은 에벨레에는 좌, 우 대칭 형태의 수십 쌍의 거대한 날개들인데 부드럽게 움직인다. 작품에 대해 작가는 “태양 광선이 달에 반사될 때 발생하는 빛 에너지가 인간의 환상을 증폭시키는 에너지로 다량 방출되고 이러한 달빛의 에너지가 물, 바람, 인간의 환상과 섞이면서 항구도시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는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쇼 / Web of Life**
이 작품은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과 관람객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스캐너에 손을 대면 관람객 고유의 손바닥 패턴을 인식하여 화면이 설계되고, 컴퓨터 그래픽, 비디오 이미지, 70.1 채널 서라운드를 경험하며 각자 생명의 웹 주인공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백남준(한국/1932~2006) 거북Turtle(TV 모니터/600×1000×1,500cm/1993년 작)

● **비슬리 / 착생 식물원**
우리 몸에서 느끼는 감각들을 연출한 작품이다. 예를 들어 공연을 보면서 반응하는 신체의 느낌들을 디지털로 표현한 것이다. 십만 개의 섬세한 디지털 요소들로 이루어진 설치 조각으로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의 생물체와도 같다. 각각의 단위로 구성된 작은 신경 줄기 같은 신호 체계들은 서로 신호를 교환하며 공기와 수분을 흡수하고 미리 저장된 화학 물질은 신진대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품은 움직이고 사운드를 내면서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이 활동을 시작한다. 건축가, 엔지니어, 디자이너의 협업으로 탄생한 ‘착생 식물원’은 외부의 영향에 스스로 반응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건축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eb of Life 부분

14 전통 미술의 향기

교과서 pp. 58-61

단원 설정 이유	전통 회화는 선과 먹의 농담, 여백의 미를 이용한 수묵화와 수묵 담채화, 채색화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전통 회화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익히고자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전통 회화의 종류에 대한 이해, 우리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평가 방법	연구 보고서, 구술 시험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2-03 / 9미02-05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학습 목표를 이해하고 그동안 보았던 전통 미술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한다.

전개

- 전통 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설명한다.
 - 수묵화(배림의 작품, 조속의 화조도)와 운보 김기창의 청록산수화, 천경자와 이일종의 채색화에 대해 설명한다.
- 사군자란 무엇인가?
-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 담묵, 중묵, 농묵의 삼묵법을 이해한다.
- 한지 위에 먹물의 농담 효과와 필선의 변화를 이해한다.
- 전통 회화의 재료와 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아본다.

평가

[전통 회화의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 전통 회화 재료의 특성과 사용 방법을 이해하였는가
 - 전통 회화 예시 작품을 감상하고 재료에 따른 표현 효과를 이야기 한다.

정리

- 차시를 예고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전통 회화의 다양한 채색 재료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한다.
- 전통 회화와 서양화의 특징을 찾아본다.
- 전통적인 그림에서 재료의 특징을 알고 그 활용법을 이해한다.
-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 학생들에게 전통 회화의 감상법을 설명한다.

14

전통 미술의 향기

학습 목표 ·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

미술 ③-12

생각 열기

전통 미술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을까?



배림(한국/1911-1968) 비 온 후(중도에 수묵/176x92.5cm/1960년 작)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비 온 후 산의 정감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정서와 미의식을 간직한 전통 회화의 종류는 재료에 따라 수묵화, 수묵 담채화, 채색화로 분류되며, 작가의 신분에 따라 문인화, 민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소재에 따라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여백화, 영모화, 기명절지화, 풍속화, 초충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 회화는 일반적으로 한지와 붓, 먹을 기초로 표현하는데, 내면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전통 회화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 표현 방법의 특징을 탐색해 보자.

수묵화

수묵화는 한지 위에 먹물의 짙고 얇은 농담을 살려 그린 그림으로, 그러는 의미와 선,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묵화에서 선의 짙고 얇은 강약은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여백은 여유를 남기며 무한한 깊이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묵화는 한지에 먹물이 스며들며 생기는 먹색의 짙고 얇음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짙은 먹인 농묵과 중간 먹인 중묵, 그리고 얇은 담묵은 맑고 가까운 원근을 나타내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모필을 이용하여 한지 위에 다양한 기법으로 간결하며 기운생동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수묵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른 표현 재료와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조속(조선/1595-1668) 고매사학(중도에 수묵/1100x55.5cm/조선 중기 작)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배림 / 비 온 후

먹의 농담을 이용하여 비 온 후 산의 정감 있는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배림은 조선 말기 한국의 화가이다. 호는 제당이며, 전통화를 이상범에게 사사했다. 남종화의 전통화에 유현한 화격을 중시하였으며 대표작으로 <산수도>(1960), <설악 영봉> 등이 있다.

● 김기창 / 청록산수

김기창(金基昶)은 7세 때 장티푸스를 앓고 후유증으로 청력을 잃었다. 1930년 17세 때 김은호 문하에 들어가 그림 수업을 받았다. 김기창이 그림에 입문한 초기 학습 시기와 성장기의 화풍은 스승인 김은호의 영향으로 일본 화풍의 사실성에 충실한 채색화가 주류였고 인물의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며 절제된 구성 속에 색채의 조화를 꾀했다.

김기창은 아내인 박래현의 영향을 받아 수묵 담채화의 반추상적 경향을 선보였다. <예수의 일생> 연작 30점은 예수를 우리나라 사람의 얼굴에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렸다.

김기창의 '바보산수'는 꾸밈없는 인간 본성을 표현한 것으로, 소박하고 솔직하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말한다. 과감한 생략과 강조, 파격적인 배치, 형태와 공간의 왜곡 등을 통해 형상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움과 일탈의 세계를 새롭게

수묵 담채화

수묵 담채화는 먹물로 그린 후 채색한 그림을 말하며, 먹선과 색의 조화로 맑고 담백한 표현이 가능하다. 수묵 담채화의 표현 방법에는, 먼저 먹선으로 그린 후 색을 입히는 것과 색을 먼저 칠한 후에 선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 장우생(한국/1912~2005) 배상(중)에 수묵 담채(42×69cm/1976년 작) 기러기 두 마리가 달빛을 배경으로 노니는 모습을 담채하여 표현한 작품의 일부를 확대한 그림이다.
● 박노수(한국/1927~2013) 달과 소(중)에 수묵 담채(166×135cm/1987년 작) 전통 수묵화에 현대 감각을 더하여 개성 있는 화풍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 박태현(한국/1920~1976) 노점(중)에 채색(266×212cm/1956년 작) 길거리의 필자로 생생하게 표현한 노점 여인들의 모습에서 담백한 수묵 담채화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채색화

우리나라 전통 회화에서 채색화란 비단이나 두꺼운 한지 위에 아교 물과 먹물 여러 번 바르고 채색 물감을 여러 번 칠하여 작업하는 그림을 말한다. 전통 채색화는 장식적 효과가 있어 삼국 시대 고구려 고분 벽화로부터 시작되어 고려 시대의 불화, 조선 시대의 초상화, 민화 등에 사용되었다.



● 천경자(한국/1924~2015) 고 툴(중)에 분채(38.5×25.3cm/1974년 작) 대담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개성 있는 화풍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 손동환(한국/1978~) 영웅 수려한 신생상(중)에 수묵 채색(190×130cm/2007년 작) 동양화의 전통적인 구도와 기법에 현대 대중문화의 소재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그림이다.
● 이원중(한국/1945~) 제주 생물의 중도(중)에 분채(205×291cm/2008년 작) 밝고 경쾌한 색감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방의 흥취를 절묘하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다.
● 김태현(한국/1979~) 제철화(중)에 채색(108×84cm/2006년 작) 이미지를 더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검은 색 바탕에 선명한 향으로 그려내서 크게 표현하고 있다.



열어 보았다. 우리 고유의 전통화인 민화를 바탕으로 해학과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주요 작품으로 <가을>(1934), <소와 여인>(1965), <아악의 리듬>(1967), <태양을 먹은 새>(1968), <군마도>(1970), <새벽 종소리>(1975), <바보화조>(1976), <청산도>(1976), <바보산수>(1987), <시집가는 날>(1988) 등이 있다.

● **조속 / 고매서작**

고매서작은 늙은 매화에 앉은 까치라는 뜻이다. 품격과 기량이 조선 중기에 문인 화가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화조화 중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까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선비의 모습으로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에 우아하게 앉아 있다.

● **박래현 / 노점**

우향 박래현은 근대기 여성화가 첫 세대 작가로 동·서 미학을 결합한 독창적 세계를 선보였다. 초기의 작품들은 일본 화풍의 채색화였으나, 해방 후 김기창과 함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시작하였다. <노점>, <이른 아침> 등의 작품은 인물을 사선과 곡선을 사용한 면으로 단면화시키는 서양의 입체주의를 적용한다. 1956년 작 <노점>은 동양화의 평면성과 반추상성을 결합시키는 박래현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동양화의 평면성과 반추상성을 결합하는 독자적인 시도를 하였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완전한 추상화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또한 60년대 말부터 1974년까지 뉴욕에 머물며 판화와 타피스

트리 작업에 몰두하였다.

● **천경자 / 고 툴**

이 작품은 대담하고 밝은 색채를 사용하여 개성 있는 화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였다. 두꺼운 한지 위에 전통 기법으로 채색한 진채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채색화를 구사하는 몇 안되는 화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치밀하면서도 아름다운 채색 물감의 발현을 이룬 천경자는 1924년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출생했다.

1944년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아카데미에서 공부한 뒤 1955년 미술협회전에 작품을 출품해 화단에 존재를 알리게 되었다. 수필집 <여인 소묘>와 남태평양 여행 후 데생 삽화와 함께 <천경자 남태평양에 가다>를 출판하기도 했다. 천경자의 화풍은 밝은 색채를 사용했는데 꽃과 여성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꽃과 나비

■ **지식 창고**

화론육법(畫六法)

세기경 남제(南齊)의 사혁(謝赫)이 지은 <고화품록 古畫品錄>에 회화에서 중요시되는 여섯 가지 점을 제시한 것이다. 화론육법은 중국 회화사에서 최초의 화론 서이며, 동양 회화 발달에 영향을 끼쳤는데 다음과 같다.

이 육법은 사혁이 그 당시까지의 회화 이론을 체계화한 것이다.

- ① **기운생동(氣韻生動)**: 대상의 기(氣), 정신이 보는 사람에게 공감되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뜻이다. 그림에서 대상의 기를 보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골법용필(骨法用筆)**: 그림의 필선에 관한 법이다. 9세기 중엽의 저술인 <역대명화기>에서 글씨와 그림은 그 원류가 같다(書畫同源論)는 설을 내세워 서예와 회화에서 필선을 굿는 데 용필법을 중요시했다.
- ③ **응물상형(應物象形)**: 대상의 형체를 묘사하는 것이나 물체의 외형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다.
- ④ **수류부채(隨類賦彩)**: 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채색을 가하는 것으로 간단히 설명될 수도 있다.
- ⑤ **경영위치(經營位置)**: 그림의 구도를 말한다.
- ⑥ **전이모사(傳移模寫)**: 모사에 의해서 대가의 좋은 그림을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옛사람의 그림을 정신 및 형태를 따라서 그린다.

● 사군자(四君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네 가지를 일컫는 사군자는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식물들로서, 문인화의 소재로 자주 쓰였다. 매난국죽의 순서는 춘하추동의 순서를 맞춘 것이다. 사군자는 서예의 기법을 적용시켜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 선비들에게는 매력적인 소재였다. 사군자는 필획이 선비의 인품을 반영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성을 닦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동양화의 정신과 기법을 표현하는 화목(畫目)으로 그려지고 있다.

● 책거리 그림(冊架圖) 책가도 가리개 병풍

조선 후기 18, 19세기는 수집에 빠져 산 사람이 많았다. 한양에 더 잡고 살아온 양반 가문 선비들에서 시작된 수집 열풍은 교양 있는 중언층으로 확산되었다. 서책, 그림, 청동기, 글씨 탁본, 수석, 괴석은 물론이고 그 외에 새, 나무 등 희한한 것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선호했던 수집 대상은 책과 서화 골동품, 즉 고동 서화(古董書畫)였다. 19세기에 유행했던 <책가도(冊架圖)>도 마찬가지다. 고동기와 자기, 옥기, 칠보화병, 선추, 중국 도자기와 향로, 자명종, 필통, 책궐, 서화 두루마리 등 조선 후기에 수집과 감상의 대상이 되었던 고동 서화류가 서가에 가득하다. 이 책가도에는 특히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이 많이 보인다.

● 까치와 호랑이

이 그림에서 소나무는 신년을 뜻하고, 호랑이는 알리는 역할을, 까치는 기쁜 소식을 뜻한다. 즉 이 까치와 호랑이 그림은 신년 보희(新年報喜) 즉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이 오는 것을 뜻한다. 민화(民畵)의 주요한 소재인 이 주제가 민간에 유행한 이유는 이것이 특정한 때에 따라 거는 그림(歲畵)이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새해를 맞아 정월에 붙이는 그림이다. 이렇게 대중에게 수요도 많고 자주 그려지다 보니 어느덧 일정한 양식으로 정형화되었다. 그래서 무명 화가들이 눈썰미로 그린 대중의 그림, 곧 민화(民畵)가 된 것이다. 정월에 왜



책가도 10폭 병풍(작자 미상/비단에 채색/각 198.8x39.3cm부분/19세기 작)

문인화

문인화는 조선 시대 선비들이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 그린 그림으로, 수묵화나 수묵 담채화로 시, 서, 화를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였다. 문인 화가들은 주로 사계절을 상징하는 사군자를 즐겨 그렸다. 사군자란 봄을 알리는 매화, 여름의 난초, 가을의 국화,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진 대나무를 그린 그림으로, 식물을 덕망이 높은 군자에 비유하여 그 기품을 담으려 했던 마음이 담겨 있다.

사군자 (四君子)

- 김충도(조선/1745-1806) 매화(종이에 수묵/80x50cm/조선 후기)
- 김경해(조선/1786-1856) 난초(종이에 수묵/27x22.9cm/개화(민간))
- 9장 세월(조선/1713-1791) 국화(종이에 수묵/68.9x48.3cm/847)
- 이형(조선/1554-1626) 대나무(종족, 종이에 수묵/71.5x127.5cm/161년 작)



민화

민화는 무병장수나 다산 등을 기원하며 약한 기운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그림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동감 넘치는 신과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성이 있으며, 진문 화가부터 무명 화가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그렸다. 민화의 종류에는 모란도, 책가도, 문자도 등이 있다.



까치와 호랑이(종이에 수묵 담채/72x59.4cm/조선 시대) 해학적이고 흥미적이며 다양한 채색으로 조선 후기 가문의 상상을 잘 표현하였다. 소나무와 같이 등장하는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는 길조이며, 길흉화복을 좌우하는 서낭신이 까치를 시켜 호랑이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탐구 활동 1 책가도 소재와 상징 찾기	
책가도의 소재	분재, 소나무, 연꽃, 복숭아, 수박, 참외, 일벌, 장미, 국화, 감, 대추, 모란, 가지, 고추, 죽순, 석류, 배, 포도
상징	충절을 지키는 선비, 절개와 지조, 청춘을 오래 간직함, 부귀, 군자, 은일자(隱逸者), 남성, 여성, 장수(長壽), 백복(百福), 일가친척의 단결, 모성애, 건강할 자손, 자손의 번창

책거리 그림(冊架圖) 책가도 가리개 병풍(비단에 채색/211.5x128cm/19세기 작) 책거리 그림은 민간에서 무명 화가가 책과 기물들을 함께 그려서 가정에 걸어 두었던 민화의 한 종류로, 서양의 정물화와 비슷하다. 과거에 즐겨하는 것만이 유행의 길이었단 조선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이 담긴 그림이다.

까치와 호랑이 그림을 그려 붙이게 되었을까? 사나운 호랑이를 붙여서 액막이를 하려 했다.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그림이 민간에서 역시 세화로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작호도(鵲虎圖: 까치와 호랑이를 그린 그림)와 다른 점은,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이라는 것이다. 구도도 같고 자세와 표정도 같은데 털의 무늬가 표범 무늬를 나타내고 있다.

탐구 활동 1 책가도의 소재와 상징 찾기

준비물 |

책가도 작품 자료

수업 과정 |

- ① 책가도의 개념 이해: 책가도의 개념을 이해한다.
- ② 책가도의 종류 이해: 책가도의 종류를 이해한다.
- ③ 책가도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찾아본다.

정리 및 평가 |

- 책가도의 개념 및 종류를 이해하였는가?
- 책가도의 소재가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 지식 참고

채색화의 재료

1. 붓(筆) - 붓은 만드는 털의 종류에 따라 양호필(양의 털), 황모필(죽제비 털), 장액필(노루 겨드랑이 털), 청모필(다람쥐 털), 삼마필(말 털), 서수필(쥐수염), 계호필(닭 털), 죽필(대를 잘게 쪼갠 것), 태모필(갓난아이

전통 미술의 소재에 따른 분류

전통 미술은 작품의 소재에 따라 인물화, 산수화, 화조화, 화훼화, 어해화, 기명절 지화, 풍속화, 초충도, 영모화 등으로 분류한다. 산수화는 자연을 그대로 옮겨 그린 실경 산수화,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 관념 산수화, 자연의 진면목을 그린 진경 산수화로 나눌 수 있다. 진경 산수화는 조선 후기 유행한 우리나라 산천을 직접 관찰하고 그에 어울리는 필법을 이용하여 그린 산수화이며 한국적인 화풍을 보여 준다.



● 화훼화 ● 어해화 ● 풍속화 ● 화조화



● 초충도 ● 영모화 ● 기명절지화



● 산수화



● 인물화

- **산행전**(조선/1808 - 1886) 백담(비단에 채색/30.5x19cm/제작 연도)
- **조석원**(한국/1853 - 1920) 어해화(비단에 채색/141x56cm/1939년 작)
- **조양석**(조선/1686 - 1761) 달 장막기(종이에 수묵 담채/36.7x25.5cm/1847기 작) 밑면에 장물 비고 있는 장면으로 밀과 인물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조경석은 조선 후기 문인 화가이며 조선 시대 풍속화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 **정선**(조선/1676 - 1759) 백묘도첩-갈매기 수련과 식벽로(묵본 돌인 종이에 수묵 담채/65.2x46cm/1729년 작)
- **김홍도**(한국/1935 - 2011) 배달대떡(종이에 수묵 담채/79.5x64cm/1999년 작)
- **신채경**(조선/1504 - 1551) 초충도(종이에 수묵 담채/34x28.3cm/16세기 작)
- **김두황**(조선/1696 - 1763) 흑건도(종이에 수묵/23.1x26.5cm/제작 연도 미상)
- **이도형**(한국/1884 - 1933) 기명절지화(종이에 채색/33x46cm/1926년 작)
- **신윤복**(조선/1758 - ?) 미연도(비단에 채색, 11x45.5cm/18세기 초) 조선 시대 미연도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더 알아보기 남종화와 북종화

남종화(南宗)는 학문이 깊은 사대부가 수묵과 담채를 사용하여 그린 운화화 그림이며, 조선 시대 선비 화가들은 물론 화원들도 남종화를 그렸다. 대표적인 남종 문인 화가로는 중국의 왕유, 한국의 이인상, 강세황, 심사정 등이 있다. 북종화는 채색 위주의 그림으로 전문 화가 중심으로 신묘를 사용하여 그린 장식적인 그림을 말한다. 중국의 이사홍이 대표적인 화가이다.

▶ 점진해 보기

- 전통 회화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전통 회화의 속에 담긴 정신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의 머리털) 등으로 구분하거나, 붓은 털의 탄력에 따라 강호(강한 것), 유훈(부드러운 것), 겸호(두 가지가 섞인 것)으로 구분한다. 또 털의 길이에 따라 장봉, 중봉, 단봉, 굵기에 따라서 특대, 대필, 중필, 소필로 나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채색화를 그릴 때 붓은 필선을 굵기 위해서 탄력이 좋은 황모필과 채색과 선염을 하기 위해 함수력이 높은 양호필을 사용한다.

2. 먹(墨)과 벼루(硯) - 먹은 그을음을 모아 아교를 섞어서 고체화시킨 것이 바로 먹이다. 먹의 원료로는 유연, 송연, 카본 블랙 등이 있고 이를 아교와 섞어서 향료를 첨가한 것인데, 어떤 원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종류를 구분한다. 요즘에는 양연(羊煙)이라는 카본 블랙이나 경유나 주유, 그을음에다 아교와 향료를 섞어 제조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3. 물감 - 채색화용 물감은 정제된 가루 원료인 분채나 석채, 아교를 섞어 반죽해서 봉모양으로 그대로 굳힌 봉채와 접시에 굳힌 접시채, 튜브에 넣은 이채(泥彩) 등이 있다. 보통 채색을 두텁게 올리는 채색화는 분채를 많이 사용하고, 수묵 담채처럼 맑고 얇게 채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튜브 물감이나 접시채가 많이 쓰인다. 모두 안료에 아교와 그밖에 첨가제를 배합한 것으로서 약간의 물로 풀어쓴다.

일반적으로 밑색을 칠하고 그 위에 채색을 중첩해서 올리는 방식의 채색화는 밑색을 어느 정도 덮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입자가 큰 분채나 석채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 채색화는 바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껍게 올리지 않아도 선명한 색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불화나 민화 등에서 보이는 강하고 두텁게 올리는 채색화 방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접시채나 봉채, 편채 등을 사용하여 그리면 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화려하거나 강한 색감을 얻기 위하여 석채나, 분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튜브 물감은 짜서 바로 써도 되며, 아니면 접시에 굳혀놓고 붓으로 발라 써도 된다. 편채나 접시채는 붓으로 발라 쓰며, 봉채는 접시에 갈아서 쓰면 된다. 분채나 석채는 손으로 입자감이 없을 정도로 곱게 갈아서 아교를 혼합해 쓴다.

4. 종이(紙) - 채색화용 종이는 전통적으로 도침지나 아교포수를 한 교반 수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도침이라 함은 종이를 다듬어질하여 종이 단면의 섬유질 사이의 공기 구멍을 막아 먹의 번짐을 없애주는 우리 전통 특유의 제작 공정이다. 이 공정을 거친 종이는 표면이 매끄럽고, 먹의 번짐이 적어 채색화나 수묵화를 하는데 모두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이런 공정을 거치는 종이는 거의 없으며 실제로 도침 과정을 거친 종이라도 먹의 번짐이 많이 일어나 채색화용 종이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보통 한지에 아교와 백반을 적당량 섞은 용액을 만들어 이를 종이에 바르고 마른 후 이를 사용한다. 이 종이는 아교와 백반이 섞인 용액이 종이 위에 피막을 씌우게 되어 먹의 번짐이 없고 여러 번 덧칠이 가능한 종이가 된다.

먹과 종이 벼루 먹의 사용법

- **종이** - 표면이 매끄러우며 앞면과 뒷면의 구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발색이 잘되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보존성이 중요하다. 종이는 습기가 있는 곳에 두면 안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붓** - 붓은 동물의 털로 만든다. 주로 양털이 많이 쓰이나 토끼털이나 족제비 털을 이용하기도 한다. 보통 길이에 따라서 장봉과 중봉, 단봉 등으로 나눈다. 붓은 종지와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보관해야 오래 보존할 수 있다.
- **먹** - 먹은 윤기가 나는 것이 좋으며 갈아서 찌꺼기가 생기지 않으며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 먹의 종류에는 송연먹, 유연먹 등이 있다.
- **벼루** - 벼루를 사용한 다음은 꼭 깨끗이 닦아서 말려 놓아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15 아름다운 문자 예술

교과서 pp. 62-63

단원 설정 이유	서예와 전각은 전통적인 문자 조형으로 오랜 시간 동안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이 단원에서는 한글과 한문의 서체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문자 조형미를 느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전각과 낙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그림과 글씨 그리고 전각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다양한 전각의 기법과 내용, 용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전통적인 문자 조형의 아름다움을 느껴 볼 수 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예의 변천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서체의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 다양한 전각의 종류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차시	2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의 변천 이해 능력 • 미술 용어와 지식의 활용 능력
평가 방법	발표 및 토론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성취 기준	9미02-05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얼마나 다양한 서체와 전각이 있을까?
 - 문자가 발명된 후, 주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문자가 지니고 있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주안점을 둔 예술로 발전하였다. 다양한 서체와 전각을 통하여 문자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알아보자.

전개

- 한글 서체 이해하기
 -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참고 작품과 자료를 보며 한글 서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이해한다.
 - 활동 1: 판본체의 종류와 궁체의 종류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본다.
- 한문 서체 이해하기
 -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참고 작품과 자료를 보며 한문 서체의 발생 순서와 특징에 대하여 이해한다.
 - 더 알아보기: 광개토태왕호우의 예를 통하여 한문 서체의 특징을 이해하였는지 점검해 본다.
- 시·서·화 삼절에 대하여 이해하기
 - 더 알아보기: 소식의 <고목괴석도>를 통하여 시와 글씨와 그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 서예의 수련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기
 - 더 알아보기: '영자팔법'을 통하여 글씨를 잘 쓰기 위한 수련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낙관과 전각 이해하기
 - 작품에 찍혀있는 도장인 낙관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각의 표현 기법과 내용, 용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 활동 2: 김정희의 <부작난도>에 찍혀 있는 낙관의 분석을 통하여 전각에 대한 이해를 점검한다.

배재와 표현

15 아름다운 문자 예술

학습 목표

- 서예의 변천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서체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다양한 전각의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교과서 미술 ⑤-13

생각 열기

얼마나 다양한 서체가 있을까?

한글 서체

한글은 하(하), 땅(-), 사람(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음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으로 이루어진 독자적인 글자이다. 한글 서체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생성된 판본체와 궁중에서 체계화되고 여성 사회에서 발전시킨 궁체가 대표적이다.

탐구 활동 1 한글 서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판본체

원필체



방필체



홍인왕을 해역본(국립본) 29.5 x 20.3cm 부분(1446년 작)

필한왕지국(국속활자) 한 글자 31 x 20.7cm 부분(조선 1448년 작)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 만들었을 때 훈민정음이나 음이찬기 등에 쓴 글씨체로, 판에 새긴 글씨와 비슷하게 생겨서 판본체라 한다. 판본체에는 원필체와 방필체가 있다.

궁체

정자체



반음림체



진음림체



남계연담(필사본) 27.8 x 20.3cm 부분(조선 후기)

낙성비룡(조선 시대)

김정희(조선 1786-1856) 예안 이씨에게 쓴 편지

왕비를 보좌하는 상궁 공주나 문신·관료를 진달하는 서사 상궁이 있었다. 궁체는 주로 궁궐의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어 온 서체로 정자체, 반음림체, 진음림체가 있다.

더 알아보기

시·서·화 삼절(三絶)

삼절의 '절(絶)'은 뛰어나다는 뜻으로, 서(문장·서급체·화(그림)) 세 부분에 능하거나 그런 사람을 일컬어 삼절 또는 시·서·화 삼절이라 한다. 표현하고 싶은 바를 문장으로 옮기면 시가 되고, 글씨로 쓰면 시가 되고, 그림으로 그리면 화가 된다. 시·서·화 삼절은 서로 다른 표현 방법이 한 화면에 조화롭게 구성된 독특한 표현 양식이다.



소식(조선) 1036-1101, <고목괴석도> 중(이재 수묵서화) 23.4cm(전 상)

영자팔법



영자팔법은 서예를 수련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진(眞)'자에는 해서체를 쓰는 데 필요한 8가지 방법이 모두 담겨 있다 하여 수련의 기본으로 삼았다.

정리

- 한글과 한문 서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 전각의 표현 기법과 내용, 용도에 따른 전각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지도상의 유의점

- 다양한 서체의 서예 작품 자료를 제시하여 서체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 이론 설명에 치우쳐 지루해지지 않게 한다.

탐구 활동 1 한글 서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자.

- ①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② 한글 창제 당시의 글씨체인 판본체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③ 궁체의 생성 배경과 발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④ 한글 서체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본다.

탐구 활동 2 전각의 기법과 내용, 용도에 적합한 명칭 알아보기

- ① 전각의 표현 기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② 전각을 새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③ 전각의 용도에 따른 전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④ 괄호 안에 명칭을 적어본다.

102 각론

●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대왕의 명령을 받아 정인지를 비롯한 집현전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편찬한 해설서이다. 보급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목판에 적합한 서체로 제작하여 인쇄하였다. 인쇄에 적합한 서체이기 때문에 판본체라는 이름이 붙었다. 판본체는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일정하며, 글자 간의 간격도 일정하다. 획의 끝부분이 모두 동그란 원필체이다.

● 월인천강지곡

석가모니의 공덕을 찬양하여 지은 노래로 500여 수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용비어천가와(龍飛御天歌)와 함께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가사로 한자가 아닌 우리의 한글을 사용한 주체성을 볼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은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하게 인쇄를 위한 판본체이다. 그러나 획의 끝부분을 각 지게 쓰는 방필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남계연담

한문 소설을 한글로 번역하여 궁체의 정자체로 쓴 책이다. 궁체는 궁궐의 여인들에 의해 주로 쓰여져 내간체(內簡體)라고도 한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여, 필획이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간의 중심을 맞추는 판본체와 달리, 자음의 “丨”에 맞추어 쓰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있다.

● 낙성비룡

작가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한글로 쓰여진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로 추정한다. 내용은 고야로 자란 주인공이 정승이 되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영웅담을 담고 있으며 총 두 권으로 되었는데, 1권은 반흘림체, 2권은 흘림체로 쓰였다. 흘림체는 점과 획이 자유롭게 연결되어 궁체 정자보다 빠르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점과 획을 생략하여 글자를 연결해 빠르게 쓴 글자체가 ‘진흘림체’이고, 진흘림체에 비해 차분하지만 궁체 정자에 비해 빠름을 보여주는 글자체가 ‘반흘림체’이다.

● 김정희 / 예안 이씨에게 쓴 편지

학문뿐 아니라 예술에도 뛰어났던 추사 김정희는 첫 번째 부인을 일찍 여의고 예안 이씨와 재혼했다. 추사의 예안 이씨에 대한 사랑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것은 예안 이씨에게 보낸 한글 편지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에도 뛰어난 감각을 보였던 추사의 솜씨는 편지글에서도 낭만이 묻어나듯 느껴진다. 진흘림체로 쓰여진 글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역동감까지 느껴진다.

■ 지식 창고

한글 서체의 특징

● 판본체 - 판본체는 한글 최초의 서체로 목판 인쇄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서체이다.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가 일정하다. 글자의 중심을 맞추어 써서 글자 모양이 사각

형이고, 획간의 간격, 자간의 간격이 일정하다. 꾸밈이 없이 강건한 느낌이 난다. 기필과 수필의 용필법에 따라 획의 끝부분이 동그란 원필체와 네모난 방필체가 있다.

● 궁체 - 궁체는 궁궐에서 궁녀들이나 여인들이 주로 쓰던 글씨체로 부녀자들 사이의 편지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내간체(內簡體)’라고도 한다. 궁체는 획의 변화가 있으며 획간의 간격도 변화가 있다. 한글을 세로로 쓸 때 세로획이 중첩되기 때문에 오른쪽의 세로획을 맞추어 쓴다. 궁체 중에서도 바르고 단정하게 쓴 것을 정자체라 하고, 정자체를 빨리 쓰기 위해 점과 획의 연결을 자유롭게 하고 일부를 생략하기도 하는 것을 흘림체라 한다. 흘림체 중에서 완전히 흘려 쓴 것을 진흘림체, 정자체와 진흘림의 중간을 반흘림체라 한다.

● 시서화 삼절 - 그림에 작가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한 글로, 이를 화제(畫題) 또는 화찬(畫讚), 화기(畫記), 제시(題詩)라고 한다. 이것은 서양화에서는 볼 수 없는 동양화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작가가 직접 쓰는 것이 일반적이나 때로는 친지나 후원자들이 그림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 등을 써 넣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이 쓰는 경우를 ‘발문(跋文)’이라고 하는데(그러나 일반적으로 본인이 쓴 경우도 발문이라고 함) 화제와 발문을 합하여 ‘제발(題跋)’이라고 한다. 오늘날 삼절이라고 했을 때, 시서화가 한 화면에서 조화롭게 구성된 양식을 떠올린다. 이는 북송(北宋)의 휘종이 이룩한 업적이다.



휘종(북송/1082~1135)
남매산금도(비단에
먹/83.3×53.3cm)

● 영자발법 - 서예를 수련하는 방법에는 모사법, 구궁격, 골서법, 농서법 등이 있다. 특히 ‘길영(永)’자에는 해서체를 쓰는데 필요한 8가지 필법이 모두 담겨있다 하여 수련의 기본으로 삼고 많이 썼다.

- ① 측(側, 점): 점획을 가르키는 것, 점이 옆으로 기울었다는 데서 유래
- ② 늑(勒, 가로획): 말안장으로 말을 누르는 느낌과 같다고 하여 지닌 이름
- ③ 노(弩, 세로획): 활을 힘껏 당길 때의 모양을 닮은 데서 유래
- ④ 적(趯, 갈고리): 공이 튀는 것 같은 모양
- ⑤ 책(策, 오른빼침): 늑의 획과 비슷하지만 수필이 다름.
- ⑥ 략(掠, 왼빼침): 두발을 빗어내리는 모양을 생각해 하는 데서 유래
- ⑦ 탁(啄, 짧은왼빼침): 새가 모이를 쪼을 때의 주둥이를 닮은 데서 유래
- ⑧ 책(磔, 파임): 칼로 고기를 자르는 기본으로 붓을 이끈다는 뜻

● **남야대각석**

갑골문에서부터 시작된 문자가 정리되면서 전서체가 생겨났는데, 전서는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기 이전의 '대전'과 문자 통일 이후의 '소전'으로 나뉜다. 진시황제는 전국을 순행하며 자신의 공을 기리는 7석의 송덕비를 세웠다. 남야대각석은 그 중 하나로 산둥성을 순행하고, 남야산에 올라 세운 비석으로 소전의 전형이다.

● **조전비**

나라의 소란을 수습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힘써 공을 세운 조전(曹全)의 공덕을 찬양한 비인 조전비의 탁본이다. 조전비는 예기비와 더불어 예서체의 대표 작품으로 꼽힌다. 예서는 전서를 보다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자획을 간략하게 정리한 서체이다. 방형에 파책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우아하고 수려하다.

● **김정희 / 묵소거사자찬**

황산(黃山) 김유근(1785~1840)의 호를 뜻하는 '묵소거사(默笑居士)'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고 웃어야 할 때 웃는다."는 뜻을 갖는다. 김유근의 호에 대한 글을 짓고 추사 김정희가 쓴 것이 <묵소거사자찬>이다. 붉은색의 종이에 행간과 자간을 맞추어 해서체로 가지런히 쓰여졌다. 또한 붉은 종이에 검은 먹으로 짙은 인장도 조화를 이룬다.

● **왕희지 / 난정서 풍승소본**

난정서는 중국 동진시대 왕희지가 쓴 행서첩이다. 동진의 다섯 번째 임금 목제가 즉위한 지 9년이 되던 해에 명사들을 초청해 난정에서 큰 연회를 열었다. 이 연회에서 술잔이 물에 떠내려가는 동안 시를 짓는 내기를 했다. 이때 왕희지를 포함한 26명이 시를 지었고, 그 시를 모은 시집의 서문을 왕희지가 썼다. 그 서문이 바로 난정서인데, 글씨가 서로 이어지는 필세와 호흡을 잘 느낄 수 있다.

● **손과정 / 서보**

왕희지를 중심으로 한나라에서 육조 시대 이후의 전통적인 글씨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것이 《서보》이다. 손과정은 왕희지를 중요, 장지, 왕헌지와 비교하며 그들을 서예 비평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서보》에 나타난 서예 이론과 미학은 왕희지의 서예를 이상으로 삼은 데에 있다. 특히 중화(中和)를 심미적 표준으로 인식했다.

● **김정희 / 묵란도**

작품의 오른쪽 윗 부분의 첫 구절은 "부작난(不作蘭)"으로 시작하여 "불이선(不二禪)"으로 끝이 난다. 여기서 작품의 제목을 따와 <부작난도> 혹은 <불이선란도>라 한다. 이 작품에서 김정희는 서예의 필법으로 난초그림을 그렸다고 밝히고 있다(참고 자료 참조).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주문인과 백문인이 활기를 더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성명인, 아

한문 서체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켰다. 한문의 서체는 전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전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예서, 예서를 변화시켜 읽고 쓰기에 편리한 서체로 만든 것이 해서서이다. 해서를 읽고 빠르게 쓰기 위해서 행서가 발달하였다. 초서는 어떤 글씨체를 간략하게 흘려서 쓴 모두를 가리킨다.



더 알아보기 광개토태왕우의 서체

광개토태왕우의 일각에는 '음묘년국강상광개토지태왕우왕' (陰卯年國江上廣開土大王行于)이라는 명문이 쓰여 있다. 이 명문은 광개토태왕비와 같은 예서체로 웅장한 고구려 특유의 서체를 잘 보여 준다.



광개토태왕우(廣開土大王行)의 탁본(중이23.3cm)과 구의 장우(중이45.9cm)의 탁본

낙관과 전각

낙관은 '낙성관제(落成款記)'의 준말이다. 낙성은 어떤 작품을 제작한 일시와 장소 및 작가의 설명 등을 기입하는 것을 말하고, 관제는 글씨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찍는 인장을 말한다. 낙관은 단순한 서명의 의미를 넘어 장식 효과와 구도의 중요한 일부로서 인장의 크기, 서체, 찍히는 위치 등이 화면에 어울려야 한다.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작품에 찍혀 있는 전각을 모두 낙관이라 부르고 있다. 전각의 종류는 기법에 따라 백문인과 주문인, 내용에 따라 성명인, 아호인, 사구인, 초학인, 용도에 따라 관인, 두인, 수장인, 장서인, 봉나인, 감상인 등으로 나뉜다.

탐구 활동 2 전각의 기법과 내용, 용도에 적합한 명칭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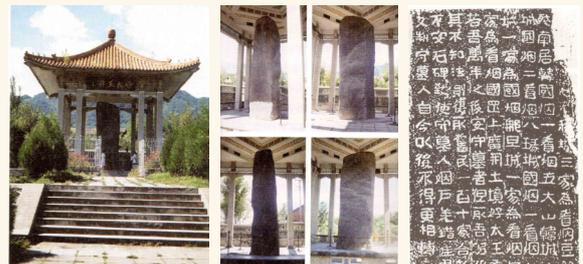
- ✓ **정답해 보기**
 - 사례의 변천과 조형성을 이해하고, 사례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전각의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호인, 두인, 감상인, 소장인 등 다양한 전각이 찍혀 있어 전각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다.

■ **지식 창고**

광개토태왕비

광개토태왕비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지금은 중국 지안현 통거우)의 동쪽인 국강상에 있는 광개토태왕릉 동쪽편에 세워졌다. 문자는 비의 4면에 모두 새겨 총 44행 1,755자로, 이 중 마멸되어 판독할 수 없는 것이 약 140여 자에 이른다. 문자의 크기와 간격을 고르게 하기 위해 비면에 세로 선을 긋고 문자를 새겼다. 서체는 한국적인 고예체로 간결하게 썼으며 장중하고도 위엄이 있어 고구려인의 당당한 기상이 잘 드러나 있다. 크기는 균등하지 않으나 대략 가로 세로가 14~15cm 안팎으로 이체자(異體字)가 많다. 광개토태왕비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판본체와 많이 닮았다.



한문과 한자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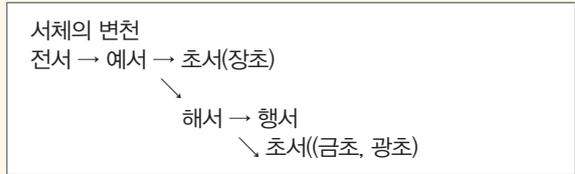
한문은 특정 지역의 특징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동아시아 문화와 더불어 발생하여 발전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은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고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켰다. 한문의 서체는 전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전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예서를 변화시켜 읽고 쓰기에 편리한 방정한 서체로 만든 것이 해서이다. 해서를 쉽고 빠르게 쓰기 위해서 행서가 발달하였다. 초서는 어떤 글씨체를 간략하게 흘려서 쓴 모두를 가리킨다. 대체로 장초, 금초, 광초 세 가지로 나눈다. 장초는 예서를 흘려 쓴 것인데, 해서보다 먼저 생겨났다. 금초는 해서를 짐작게 흘려 쓴 것이며, 광초는 해서를 광적으로 휘둘러 쓴 것이다.

한문 서체의 특징

- **전서** - 전서는 대전과 소전으로 나뉘는데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기 이전의 전서를 대전이라 하고, 문자 통일 이후의 전서를 소전이라 한다. 대전에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짐승의 어깨뼈에 새겨진 갑골문,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 북모양의 돌에 새겨진 석고문이 있다. 소전은 대전을 단순하고 규격화하여 만들었는데, 진시황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써서 압벽에 새긴 <태산각석>, <역산각석>, <낭야대각석>이 대표적이다.
- **예서** - 진나라 때 소전체로 문자를 통일하였다면, 한나라 때에는 예서체로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예서는 고예와 팔분으로 나뉘는데, 고예는 전서를 간략화한 것으로 정사각형에 가깝다. <광개토태왕비>가 대표적이다. 팔분은 가로획에 누에의 머리모양으로 시작하여 기러기의 꼬리 모양으로 빠져서 끝을 내는 필세가 가장 큰 특징이다 (잠두안미). 가로로 긴 직사각형이며 우아하고 단정하고 힘찬 느낌을 준다. <조전비>, <을영비>가 대표적이다.
- **해서** - 해서는 정서 또는 진서라고도 하는데, 바른 글씨라는 뜻이다. 읽고 쓰기가 편리하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인다. 자형이 전서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이고, 예서는 가로로 긴 직사각형인데, 해서는 정사각형이다. 가로와 세로획이 전서와 예서는 수직과 수평인데, 해서는 오른쪽이 약간 올라간다. 한국은 김생의 <낭공대사비>가 대표적이며, 중국은 구양순의 <구성공예천명>, 안진경의 <안근례비>가 대표적이다.
- **행서** - 해서가 정자체, 초서를 흘림체라 한다면 행서는 반흘림체라 할 수 있다. 해서의 점과 획을 이어서 쓰거나 생략하여 간략하고 빠르게 쓴 것이다. 글씨에 실제로 존재하는 획인 실획과 글씨의 획이 아니라 흘려 쓰면서 스쳐지나간 허획을 구분하여 읽고 써야 한다. 한글자 한글자 보다는 글씨가 이어지는 필세와 호흡이 중요하다.

왕희지가 해서와 초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완성하였다고 하며, 조선 시대의 서예가 이광사가 유명하다.

- **초서** - 빠르게 생략하고 흘려서 쓰기 때문에 독해가 어렵다. 각이 없고 유연하며 경쾌하고 울동적이다. 초서는 어떤 글씨체를 간략하게 흘려서 쓴 모두를 가리킨다. 대체로 장초, 금초, 광초 세 가지로 나눈다. 장초는 예서를 흘려 쓴 것인데, 해서보다 먼저 생겨났다. 금초는 해서를 짐작게 흘려 쓴 것이며, 광초는 해서를 광적으로 휘둘러 쓴 것이다. 장초는 사유의 <급취장>, 금초는 왕희지의 <십칠첩>, 광초는 장욱의 <두통첩>과 회소의 <자서첩>이 전한다.



<낙관과 전각의 종류>

기법	용도
· 백문안: 글씨가 하얗게 나타나는 음각 기법	· 관안: 공적인 용도로 찍는 도장
· 주문안: 글씨가 붉게 나타나는 양각 기법	· 두안: 그림의 첫 부분에 찍는 도장
· 성명안: 이름을 새긴 도장	· 수장안: 서화 작품의 주인임을 알리는 도장
· 아호안: 호를 새긴 도장	· 장서안: 책에 찍어 주인임을 알리는 도장
· 사구안: 좋은 문구를 새긴 도장	· 봉니안: 비밀을 지키기 위해 찍는 도장
· 초형안: 그림을 새긴 도장	· 감상안: 감상자가 찍는 도장

<부작란도의 제발>

- 1 不作蘭花二十年 偶然寫出性中天 閉門覓覓尋尋處 此是維摩不二禪 난을 치지 않은 지 이십 년, 우연히 본성의 참모습을 그려냈구나, 문 닫고 찾고 또 찾는 곳, 이 경지가 바로 유마불이선일세
- 2 若有人強要爲口實 又當以毘耶無言謝之 曼香 (秋史) 어떤 사람이 강요하면 구실을 삼아 마땅히 비야리성에 살던 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사절하겠다. 만향 (추사)
- 3 始爲達俊放筆 只可有一 不可有二 仙客老人 (樂文天下士) (金正喜印) 처음에는 달준에게 주려고 그린 것이다. 다만 하나만 그릴 수 있을 뿐이지 둘은 있을 수 없다. 선로노인. (낙문천하사) (김정희인)
- 4 以草隸奇字法爲之 世人那得知 那得好之也 謳竟 又題 (古硯齋) 초서와 예서, 기이한 글자를 쓰는 법으로써 그렸으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으며, 어찌 좋아할 수 있으랴. 구경이 또 쓰다. (고연재)
- 5 吳小山見而豪奪 可笑 소산 오규일이 보고 억지로 빼앗으니 우습다.

16

전통 공예의 미를 찾아서

교과서 pp. 64~67

단원 설정 이유	이 단원은 전통 공예의 의미와 종류, 기법 등을 이해 함으로써 전통 공예에 담긴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고 전통 공예의 종류와 특징, 재료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전통 공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차시	3
평가 요소	조형 요소와 원리의 효과적 활용 능력, 표현 매체의 활용 능력
평가 방법	보고서법, 관찰법,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창의·융합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2-03 / 9미02-04 / 9미02-05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다양한 전통 공예품의 종류를 찾아보고 재료에 따라 분류해 본다.

전개

[목공예]

- 나무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다른 재료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본다.
- 목공예의 특징과 제작 기법을 알아본다.

[염색 공예]

- 염색의 다양한 방법과 효과, 만들어지는 무늬 등을 알아본다.
- 천연 염색의 재료와 색깔을 알아본다.
- 천연 염색 과정을 탐구해 본다.

[금속 공예]

- 금속 공예품을 감상하며 재료의 특징과 기법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 금속 공예품에 나타난 뛰어난 세공 기술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해 본다.

[도자 공예]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유물들을 찾아본다.
- 도자기에 이름을 붙여 보는 탐구 활동을 통해 도자기의 장식 기법과 재료, 종류 등을 알아본다.
- 시대에 따른 도자기의 특징과 그 속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특징을 찾아본다.

정리

- 전통 공예의 종류와 기법, 재료의 특징 등을 발표해 본다.
- 전통 공예품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조상들의 심미관과 지혜 등을 발표해 본다.

16 전통 공예의 미를 찾아서

1교시 ①~14

학습 목표

-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 전통 공예품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전통 공예품의 형태를 만들거나 장식에 사용된 재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공예는 주로 일상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으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함께 고려하여 제작된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수공예품은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가 담겨 있어 더 큰 가치가 있다. 공예의 종류에는 재료에 따라 목공예, 금속 공예, 도자 공예, 섬유 공예, 한지 공예 등이 있으며, 각각의 재료와 기법에 따라 공예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목공 화관함 나무에 쇠못(22.2×31.4cm) 소의 뿔을 얹어 무늬 채색과 그림을 그려 목기 위에 붙여 장식한 것으로, 삼장생, 풍속도, 신선도 등의 무늬를 넣는다.



나전 화문 동경 나전/지름 18cm 두께 0.6cm(중알 신라) 전체 면에기름 이용한 치공으로 오랜 전통을 가진 재료임을 알 수 있다.



조각보 (단위: 15×65cm/7950년대) 직 접견을 싸고 다닐 수 있도록 손바느질로 만든 보자기로, 쓰고 남은 조각천을 버리지 않고 이를 이용해 아름답고 실용적인 생활용품을 제작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종이의 다양한 변신, 한지 공예

한지 공예는 종이를 이용하여 기물을 만들거나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한지 공예에는 종이를 꼬아 엮어 만드는 지승 공예, 뼈대를 만들어 안팎으로 한지를 여러 겹 발라 만드는 지장 공예, 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후 틀에 붓거나 덧붙여 만드는 지호 공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은제 칠보 귀걸이 (합보/길이 8cm/조선 시대 작)



지장 공예 상형 (한지/조선 시대 작)



지승 공예 향아리 (한지/높이 15cm, 길이 14cm, 바닥 지름 10cm/조선 시대)



지호 공예 각시탈 (한지/32×29.7cm/광복 이후 작)

지도상의 유의점

- 전통 공예 작품을 감상할 때 제작 기법을 통해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심미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 전통 공예품의 현대적 계승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내가 만드는 전통 공예 단원과 연계하여 전통 공예 기법으로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접이식 임금 의자

화려한 조각 장식에 붉은 옷칠을 하고 금가루로 그림을 그려 호화스럽다. 조선 시대의 의자는 앉는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낸다. (출처: 우리 목가구의 멋, 보림출판사, 2015)

● 주칠 궁궐반

소반은 작은 사이라는 뜻으로, 움직이는 식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칠 궁궐반은 다른 소반보다 상판과 다리가 높다. 또한 화려한 장식과 문양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지호 공예 각시탈

잘게 찢어 물에 불린 종이를 붙여 만든 기법으로 찰흙과 같이 붙여서 형태를 제작한다. 마른 후 견고해지며 채색이 가능하다.

● 지승 공예 향아리

종이를 실과 같이 꼬아서 길게 만들어 연결하여 만든다.

나무의 결과 향이 담긴 목공예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지는 목공예는 색과 무늬가 아름답고, 금속이나 돌보다 다루기가 쉬워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에 많이 사용되었다.



경이식 일곱 바퀴 나무에 호철(91~96.7cm) 조선 시대 왕실의 생활문물을 가진 조선 시대 사 회에서 임금이 권위를 상징하는 의자이다.



주철 공결(백스나무, 아미, 자제, 상아, 대모, 호철) 65~41cm/79세기 차 황궁에의 무늬가 화려하게 장식된 나무로 만든 소반이다.



사명(백나무) 41~43~43~43~43~43cm(전체 미상) 물건을 물려 주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동물 사용되지 않은 귀중한 기 법으로 이름세를 제작하였다.

나전 칠기

옷칠은 옷나무의 액을 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특산품인 조개껍데기(가재)를 옷칠과 함께 붙여 장식한 나전 칠기는 예로부터 해와 많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생각해 보기

옛날에는 옷을 박지 않고 나무를 어떻게 이어 붙였을까?

천을 아름답게, 염색 공예

천연 염색 공예는 천에 염료로 다양한 무늬나 색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천연 염색은 화학 염료를 쓰지 않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염료를 만들어 물들이는 것으로 다양한 색과 친환경적인 재료로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양한 염색 방법

- 침염-총치기염, 반염
- 날염
- 남방염-파리안염
- 전사염

천연 염색에 사용되는 재료

- 파랑, 쪽, 누리장나무 열매
- 분홍, 빨강, 소목, 홍화, 저초, 쪽두서니
- 노랑, 주황, 목서로 강황, 황근, 치자
- 갈색, 황토, 풋감
- 회색, 경장, 오색지, 호두껍질, 먹물



김기원(학생 작품) 염색지로 만든 예뻐(백)가방, 염색 색종이(30~54cm/2016년 작) 다림질로 녹여 무늬를 만드는 염색지를 사용하여 함께 가방의 무늬를 제작하였다.



김기원(학생 작품) 총치기염(천, 염료:48~46cm/2016년 작) 삼로 묶인 부분 이 양면에서 다른 총치기염 가방을 사용한 보자기로, 염료의 다양한 색을 볼 수 있다.

65

■ 지식 창고

못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 목공예 기법

· 짜임 기법 - 한서(寒暑)의 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과 팽창을 극복하려면 너른 판재를 사용하기보다는 단단하고 가느다란 골재로 면을 분할하고, 골재에 홈을 파서 판재를 끼워 넣어 목재가 늘거나 줄어 들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때 불가피한 부위에만 접착제와 대나무 못을 사용했으므로 기능적이고 견실한 짜임과 이음이 필수적이다.



맞짜임



사개물림



연귀짜임

(출처: 《한국미의 재발견-목칠 공예》)

짜임에는 외형적으로 서로 짜여진 부위가 직선인 맞짜임, 45도 각도로 만나는 연귀짜임, 턱을 지어 얹어놓는 턱짜임, 손가락처럼 물린 사개물림, 속으로 숨겨져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짜임 등이 있다.

🔍 탐구 활동 더하기 | 염색 색종이로 꾸미기

| 준비물 |

- 참고할 문양 자료, 가방이나 주머니, 염색 색종이, 다리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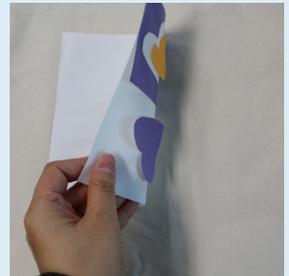
| 수업 과정 |

- ① 예시 문양들을 참고하여 아이디어 스케치한다.
- ② 제작 과정에 따라 작품을 제작한다.

| 정리 및 평가 |

- 작품 발표 및 친구 작품 감상
-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 제작 과정 |



- ① 염색 색종이를 잘라 무늬를 만들어 흰종이에 붙인다.
- ② 염색할 천에 뒤집어서 엮는다.



- ③ 10초 정도 꼭 눌러 다림질한다.
- ④ 종이를 떼내어 완성한다.



송민아(학생 작품) 염색 색종이로 만든 가방(면가방/염색 색종이/50x25x5cm/2016년 작)

| 지도상의 유의점 |

- 다리미질과 같이 화상 위험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한다.

● 청동은 입사포류수금문 정병

굽과 어깨에 1줄씩의 도식화된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가 돌려져 있고, 몸통에는 늑가에 서 있는 수양버들 2그루와 갈대밭을 배경으로 한 3인물, 그리고 수면에 3쌍의 편주가 떠 있고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 92호로 지정되었다. 불구(佛具)에 속하며, 고려 시대 대표적인 금속 공예품의 하나로 보통의 병 형식이면서 견부(肩部)에 마개가 달린 짧은 병구(瓶口)가 붙고, 주구(注口)는 가늘고 긴 원통형을 둥근 중간 마디 위에 올려 얹혀, 직립주구(直立注口)를 형성한 특이한 형식이다.

기신(器身)의 굽드리와 어깨에는 한 줄씩의 도식화된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가 돌려 있다. 몸체에는 늑가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수양버들과 갈대밭을 배경으로 한 3인의 인물, 그리고 수면에 뜬 3척의 편주(片舟)와 헤엄치는 오리들이 있는데, 모두 청동 바탕에 은입사(銀入絲)를 해서 묘사한 은상감 무늬이다. 이 은입사의 풍경 표현은 근경(近景)에 그치지 않고 먼 육지와 하늘을 날오는 오리와 기러기 떼를 회화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이 무늬의 상감 기법은 매우 세련되고 정교하다.

● 은 칠보 노리개 장식

칠보는 금속 등의 재료에 유리질을 녹여 붙이는 과정을 거쳐 아름답고 귀한 색상의 보배로운 물건을 만드는 공예 기법이다. 부식을 방지하고 강도를 높여주며 마치 일곱 가지 보물, 금(金), 은(銀), 파리(玻璃), 자거(砵磔), 마노(瑪瑙), 매괴(玫瑰), 유리(琉璃), 진주(珍珠)와 같이 빛이 난다 하여 '칠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장식 효과 때문에 여인들의 장신구로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란이라고도 하였다.

●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

짧고 좁은 목과 반구(盤口)형의 구연부, 당당하게 벌어진 어깨에서 굽까지 내려오는 유려한 S자 곡선을 지닌 고려식 매병이다. 굽은 얇고 낮게 깎았으며 바닥에는 태토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다. 굽바닥을 제외하고 짙은 회청색의 유약을 씌웠는데 빙렬이 세세히 남아 있다. 문양 구성은 주문양대에는 운학문을 가득 시문하였다. 연판 안쪽에는 백색의 원 안에 흑색의 점을 찍은 연주문(連珠文: 구슬을 꿰 듯이 작은 원을 동그랗게 연결한 문양)을 베껴올 화려함을 더하고 있다.

이 매병의 주문양인 운학문은 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의 신선 사상과 관련이 있다 송대(宋代)에 들어서 벽화나 금속기 및 도자기에도 운학문이 등장하였다. 고려청자에서 운학문은 12세기 상감청자 초기부터 꾸준히 등장하였다. 흑백의 이중 원 안에 학과 구름을 시문하는 형태는 주로 13~14세기에 나타난다. 이 매병은 질로 보아 고려 시대 최고급 청자를 제작하였던 강진이나 부안 지역의 요장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준 높은 우리나라의 금속 공예

금속으로 만들어진 공예품은 강도가 세고 광택이 아름다워 금과 같은 것은 장식용으로 많이 제작되었고, 구리나 철 등은 다양한 일상용품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신라의 금속 공예품들은 매우 섬세하여 뛰어난 금속 세공 기술을 보여준다.



왕실대중 복본 금관(높이 27.2cm, 지름 10cm) 신라 권력에 속출(속자와 사슴)을 도양 장식을 세우고, 아래로 굽은 고려에 6개의 드리개 장식을 대담히 내려뜨린 뒤 부은 곡옥과 달개를 매달아 화려하게 장식한 금관이다.



청동 은입사대중복수금문 정병(병통 높이가 37.5cm) 고려 시대 청자에서 새틴의 레플로로 청동 바탕에 은 입사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용어 설명

입사 기법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6호 최교준 입사장 금속 공예의 인종으로 금속 표면에 흠은 파고 금선(金線) 또는 은선(銀線)을 홈에 끼워 장식하는 기법이다. 아랍에는 '실드라'라고 하였으며, 기원전 1, 2세기경의 낙랑 유물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신라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로 보아 신라 시대에는 매우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 칠보 공예

유리질을 녹여 금속 등의 재료에 붙여 무늬를 만드는 공예



은 칠보 노리개 장제(26cm) 조선 시대 작

더 알아보기

국가 무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는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등 형태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 문화재는 형태가 없으므로 대부분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가 무형 문화재는 전승 단절 우려가 있는 경우,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의 안정적인 전승과 전승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천연 염색의 전통을 잇고 있는 염색장, 전통 목재에 옷감을 하는 칠장 전통 목조 기술을 가진 대목장, 전통김매기를 이용하여 무늬를 제작하는 나란장, 최홍로 가구의 무늬를 만드는 화각장, 섬유에 금박 무늬를 만드는 금박장 등이 중요 무형 문화재에 속한다. 그 외에도 유기장, 말간장, 단청장, 불화장, 자수장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들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금속 공예 기법에는 띠금, 주금, 단금, 조금, 용감 등이 있으며

국가 무형 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관재현(국/1959)

● 분청사기 박지모란당초문 편병

성형 후 동체의 양면을 약간만 두들겨 편평하면서도 각 면에 둥근 맛이 약간씩 남아 있다. 구연은 외반하였으며 일부 결실되었다. 동체 전면에는 모란과 당초문이 혼합되어 시문되었으며 곳곳에 백토 분장한 표면이 박락되어 있다. 굽은 약간씩 찌그러져 부정형의 원을 그리고 있으며, 굽받침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서 변조하였다. 작품의 완성도 및 표현 기법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조선 말기의 분청사기이다.

● 백자 청화 국화문 병

청화 백자는 중국의 경우에는 14세기 초엽경에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으나, 우리 나라에는 14세기 말엽에 전래되어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은 15세기 중엽경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5세기 중엽경의 초기 청화 백자는 기형(器形)과 문양이 명나라 청화 백자의 영향을 짙게 보이지만, 15세기 후반경에는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 지식 창고

칠보[七寶]

금속의 산화물을 착색제로 사용하여 투명 또는 불투명한 유리 질의 유약(油藥)을 구리, 청동, 금, 은, 도자기, 유리 등의 바탕에 구워 붙인 장식물. '칠보'라는 말은 불전(아미타경 등)에 나타나는데 일곱 가지의 금속 보석류, 즉 금,

흙으로 빚은 아름다움, 도자 공예

도자 공예는 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불에 구워 유약을 발라 다시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흙의 종류와 무늬 제작 방법, 굽는 방법, 유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도자기는 고려청자를 비롯해서 뛰어난 기술과 특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고려 시대의 청자,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 등은 우리나라 도자기 제작 기술의 우수함과 우리 조상들의 심미관을 보여 준다.

1. 생각해 보기

1. 청자와 백자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자.
2. 청자와 백자의 색깔은 왜 다른지 재료를 알아보자.
3. 두 작품의 장식 기법을 비교해 보자.
4. 각각 만들어진 시대와 사회적 배경을 비교해 보자.
5. 청자와 백자에 담긴 조상들의 심미관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 상감 기법

④ 준비하기

- ① 준비하기
- ② 무늬 피기
- ③ 다른 색상의 흙 칠하기
- ④ 표면에 흙 굽이기
- ⑤ 무늬 완성



상감 유광면 명암이 상감 기법 중 무늬를 파고 있는 모습이다.



청자 상감 문탁은 백제(높이 42cm, 입지름 6.1cm, 밑지름 16.5cm(고려 시대 작))

백자 청화 국화문 병(높이 27.2cm, 입지름 5.2cm, 밑지름 12.3cm(1947년 작))



백소회(약성 작품) 물결무늬 도자기(백자 등, 유광재유/12×12×5.5cm(2016년 작))

▶ 탐구 활동 도자기 이름 붙이기

도자기 이름 붙이는 방법			
대분류(청자, 백자, 분청)	문양 제작 기법	문양 이름	온도나 형태
① 분청사기	백지	모란당초문	반병



도자기의 종류, 기법, 무늬, 그릇 형태 등을 조사해 보고 왼쪽 그림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도자기 이름을 완성해 보자.

- 도자기 종류 청자 □ 백자 □ 분청사기 □
 문양 제작 기법 규방 □ 담청 □ 철화 □ 상감 □
 무늬 모양 구름 □ 당초 □ 모란 □ 포도 □
 그릇의 형태 배병 □ 반병 □ 항아리 □ 장구 □



분청사기 백지당초문 반병(높이 21cm, 입지름 6cm, 바닥 지름 7.5cm(1947년 작))

2. 점검해 보기

- 전통 공예의 종류와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 전통 공예품 속에 담긴 선조의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은, 마노(瑪瑙), 유리, 거저, 진주, 매괴(瑪瑙)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이들 재료를 사용한 다채로운 장식의 형용어로 사용하였으나, 후에는 전기(前記)한 기법(技法)에 따른 작품을 가리키게 되었다. 칠보의 역사는 오래되어 BC 13세기경의 에게해 세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감. 서양 중세에盛行했으나 아시아에서는 7세기 이전에 중동을 거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는 고구려 시대 말기나 신라 시대의 유품이 그 기법의 전승이라 하겠다.

• 현대 도자기의 활용 - 세라믹 팔레스 홀



세라믹팔레스홀은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장애 청소년 교육 시설인 [밀알학교] 내 복합 문화 공간인 '밀알 콤플렉스' 지하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전문 연주자와 음악애호가 그리고 지역 사회를 향해 활짝 열린 고품격 연주홀이다. 여느 콘서트홀과 달리 이 곳은 실내 음향에 영향을주는 내부 확산체를 세라믹 도자기로 장식했다. 세라믹 팔레스 홀에 들어서면 파스텔조 도자기로 장식한 벽체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다. 도자기라고 해서 무슨

그릇이나 주발로 벽을 장식한게 아닌, 도자기의 재료인 세라믹 소재로 구워낸 입체 타일을 촘촘히 박았다. 연주자가 오르는 무대 뒷벽도 마찬가지인데 이 곳은 소리를 다루는 사람과 공간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흙을 다루는 사람이 만나 완성된 국내 전무후무한 음향 공간이다.

소성 온도에 따른 도자기의 종류

• **토기[土器]** - 토기는 유약을 입히지 않고 700~1,000도에서 구워낸 선사 시대의 그릇이다. 점토를 소재로 모양을 만들어 가마에서 구운 다공질(多孔質)의 용기(容器)이며, 인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물의 하나로, 그 용도는 매우 광범위하여 식품과 물의 저장, 그것의 운반 용구, 취사, 식사의 기구, 제기, 매장용품으로 사용됐다. 제품의 소성 온도(燒成溫度)도 비교적 낮아(600~800°C), 제작이 쉽고 힘이 들지 않아 세계 각처에서 행해졌다. 성형(成形)에는 가장 간단한 손으로 만드는 것부터 회전대를 돌리는 것, 녹로를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 **도기[陶器]** - 도기는 토기보다 단단하며 대개 유약을 입혀서 1,000~1,100도에서 구워낸 것으로 대개 물의 흡수율이 15% 이하이다. 도자기 중 바탕의 굽기가 약간 흡수성 있을 정도로 유약을 바른 것으로 특히 자기에 가깝게 구운 것을 경질 도기라고 한다. 자기에 비해 바탕의 굽기가 충분하지 않아 투광성이 없다. 그러나 표면의 아름다움은 유약의 효과에 의해 자기와 다르없다. 바탕이나 유약의 충격이나 마찰에 대한 강도도 자기에 비해 소성 온도가 낮으므로 약간 작다. 그러나 소성 온도가 낮은 것은 밀유약과 색유약에 의한 자유로운 채색이 가능한 점에 특징이 있다. 위생 도기, 타일, 식기, 장식품, 미술품, 장난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석기[石器]** - 석기 점토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도자기의 일종으로, 1,200도 전후의 고온에서 구워내어 태토 속의 장식(長石)이 녹아서 유리질화되어 단단한 기벽을 만든 것이다. 그 굽는 정도는 도기와 자기의 중간 정도이다. 유약을 바르기 전의 도자기가 유색(有色)을 나타내는 것을 조(粗)석기라고 하고, 정선된 원료로 담색 내지 백색이 되는 것을 정(精)석기라고 한다. 흡수성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데 다소 흡수성이 남은 것도 있다. 그러나 흡수성이 없는 것이라도 자기와 같은 투명성은 없다. 기계적 강도는 상당히 크며 두드리면 금속음을 낸다.

• **자기[磁器]** - 1,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내어 태토가 유리질화 된 반투명체의 그릇 (세계 미술 용어사전, 1999., 월간미술)

17 인간을 위한 디자인

교과서 pp. 68~75

단원 설정 이유	인간 생활에서 도구나 공간, 기호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로 존재하며 문화를 이끄는 디자인영역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가 실생활과 연결지며 미적 소양을 키우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꾀한다. 이에 디자인의 정의, 범주, 디자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아봄에 생활에서 소통되는 표현 의도, 과정의 설계, 매체의 탐색 및 활용을 위해 설정하게 되었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정의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다. •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6
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대상, 환경과 자신의 관계 탐색 능력 • 시각 이미지의 이해와 활용 능력
평가 방법	실기 평가법, 연구 보고서법, 발표 및 토론법
교과 역량	시각적 소통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창의·융합 능력
성취 기준	9미01-01 / 9미01-02 / 9미02-02 / 9미02-04 / 9미02-05 / 9미02-06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미래 디자인의 방향 생각해 보기
 - 미래의 디자인은 사람과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전개

[디자인의 정의와 조건]

- 디자인의 정의를 확인하고 디자인이 추구하는 바를 이해하게 한다.
- 우리 시대의 좋은 디자인에 대한 조건을 확인하게 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 의사소통에 있어 디자인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탐색하게 한다.
- 포스터 디자인, 인포그래피,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의 광고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탐색하고 생각이나 말을 전달하는 방법을 점검하게 한다.
- 탐구 활동 1: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디자인 알아보기
 - 시각 이미지에서 제품, 공간, 서비스까지 적용되는 CIP에 대해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하게 한다.

[인간 중심 디자인]

- 사람들의 편의성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 감성적이거나 소외된 사람들까지 품는 디자인에 대해서 점검하게 한다.
- 감성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디자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게 한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 지속 가능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지닌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게 한다.
-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에코 디자인, 공공이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점검하게 한다.
- 탐구 활동 2: 지속 가능한 디자인 탐색하기

17

인간을 위한 디자인

학습 목표

- 디자인의 정의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다.
-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15

생각 열기

미래 사회의 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오늘날 디자인은 시대적 의미를 담고 새로운 형태와 쓰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한다. 사람들은 디자인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아름다움과 기능을 함께 받아들인다.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우리 시대의 문화를 만들고 미래 사회가 추구할 가치를 찾는다.

히토시 아베(히토시 아베(1962~) 메이크 잇 라이트 프로젝트(Make it Right) 중대 건축(미국 뉴올리언스, 2006년) 및 2009년에 대용 카르타르 리체를 그린 뉴올리언스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메이크 잇 라이트 프로젝트는 높은 천장과 주택 단지가 형성되면서 다시 홍수나 태풍이 와도 피해를 덜 받는 주택들이 아름답고 환경적으로 설계되었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이루는 창의적 조정 활동이며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고 실체이다.

- 좋은 디자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알아보자.
- ① 목적에 적합한 디자인
- ② 기능에 맞는 조형미를 갖춘 디자인
- ③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디자인
- ④ 독창적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

더 알아보기 디자인의 의미 변천

장식으로서의 디자인	기능주의 디자인	상업주의 디자인	경쟁으로서의 디자인	문화로서의 디자인
				
드리스콜(Driscol, Clara) / 국(1881-1946) T41 장미리 조명유리 / 브르노 / 1900년 작	바겐펠드(Wagenfeld, Wilhelm) / 독일(1900-1990) 바우 하우스 램프 / 나일 도금 금속, 유 / 리(1924년 작)	클린트(Klint, Kaare) / 덴마크(1888-1954) 클린트 종이 조명 (플라스틱 중 이) / 1930cm/1942-1944년 작	세퍼(Saffer, Richard) / 독일-이탈리아(1932-2019) 타자 조명 / 플라스틱, 알루미늄 / 10.8 x 76.2 x 76.2 cm / 1971년 작	딕슨(Dickson, Tom) / 미국(1909-1999) EA 램프 조명 / Jack Light / 플라스틱 / 52cm x 58cm x 58cm / 1991년 작

-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사례를 찾아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보고 그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

-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한다.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자인의 변화로 달라진 인간의 생활과 사회 모습을 점검하게 한다.
-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의 디자인을 상상해 보게 한다.
- 프로젝트 활동: 미래의 학교 디자인해 보기
 - 미래 기술의 발달, 문화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학교와 관련하여 디자인을 다양하게 영역에 국한두지 않고 제안해 보게 한다.

정리

- 우리 시대의 좋은 디자인이 갖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흐름을 이해하였는가?
- 미래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가?

지도상의 유의점

- 탐구 활동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는 활동으로 전개한다.
-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사고를 통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히토시 아베 / 메이크 잇 라이트 프로젝트
 - 메이크 잇 라이트는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건물 등을 지어주는 비영리 프로

젝트이다. 이는 브래드피트 재단에서 2005년에 태풍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즈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2009년 여러 건축가와 함께 기후 변화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 이루어진 건축 프로젝트로 재난 지역의 재건 과정과 구호 활동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비용이 덜 들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주택 단지가 형성되었으며 다시 홍수나 태풍과 와도 피해를 덜 받는 주택들이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Make it project, 2009. 7 프로젝트 시작 Pink Project



Make it project, 2012. 8 프로젝트 완료



코디아(CONCORDIA Architects, 미국), 주택, 2009년작



게리(Frank Gehry and partners, 미국), 주택, 2012년 작



그라프트(Graft architects, 독일), 주택, 2009년 작



시게루 반(Shigeru Ban Architects, 일본), 주택, 2012년 작



컨스트럭츠(Constructs Architects, 가나), 주택, 2010년 작

■ 지식 창고

산업 혁명 이후, 디자인 분야가 형성되고 전문 디자인이 나타나오기까지는 50년이 넘는 시간이다. 초기는 공예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비록 장식적이고 일상 생활용품을

공예적으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나가듯 제작되었으나 예술 민주화 사상적인 기반이 형성되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탐색하는 자세가 형성된다. 그 후, 1914년 독일 공작 연맹에서의 표준 형태를 추구하기로 방향 설정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생산을 위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점차 기술의 발달과 2차 세계 대전, 사회 의식의 변화와 시장의 확대는 디자인을 경영적 접근, 경영 전략으로서 디자인을 추구하게 하였으며 산업화의 반발로 나타난 개인의 감정과 기호의 만족 추구는 다양성의 시대를 가져오고 오늘날 문화로서 디자인으로 개념이 변천되게 하였다.

장식으로서 디자인

미술 공예 운동	아르누보	비엔나 분리파
----------	------	---------



기능주의 디자인

독일공작 연맹	바우 하우스	모더니즘
---------	--------	------



상업주의 디자인

아르데코	유기적 모더니즘
------	----------



반 모던 디자인, 뿔피스 디자인, 포스트모더니즘 디자인

반모더니즘	뿔피스 디자인
-------	---------



경영으로서 디자인

하이테크 디자인	디자인 매니지먼트
----------	-----------



문화로서 디자인

감성주의	다양성의 공존
------	---------

드리스콜(Driscoll, Clara, 미국, 1861~1944), T사 잠자리 조명(유리, 브론즈/1900년작) - 정적인 T사이 램프에 선으로 표현되어 그림자의 효과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빛을 연출하였다.

바젠펠드(Wagenfeld, Wilhelm, 독일, 1900~1990), 바우하우스 램프(니켈 도금 금속, 유리/1924년 작) -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를 보여주는 간략하며 경제성을 추구한 바우하우스의 대표적 디자인이다.

클린트(Klint, Kaare, 덴마크, 1888~1954), 클린트 종이 조명(le klint paper lantern, 플라스틱 종이, 35cm, 1942~1944년 작) - 한장의 플라스틱 종이를 접어서 조명갓을 만들어 새로운 미를 찾았다.

크라벤(Craven, Edward, 싱가포르→영국, 1918~2000), 라바 조명(Mathmos Lava lamp, 유리, 오일, 왁스/1963년 작) - 사 이키델릭한 표현을 취하고 있는 라바조명은 드라마틱하며 부유하는 느낌이 특징이다.

새퍼(Sapper, Richard, 독일→이태리, 1932~2015), 티지오 책상 조명(Tizie desk lamp, ABS플라스틱, 알루미늄, 10.8×76.2×76.2cm, 1971년 작) - 구조적이며 간결한 형태와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는 광원은 최첨단적인 기쁨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다.

딕슨(Dickson, Tom, 튀니지→영국, 1959~), E사 책 조명(Jack Light, 플라스틱, 52cm×58cm×58cm, 1997년 작) - 1998년 The Millennium Mark for Great British Design을 수상한 디자인으로 조명 기구이나 감성적 오브제로도 구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의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O사 / 에너지 절약 버스 정거장 광고 디자인

에너지 절약 버스 정거장 광고 캠페인으로 시행된 디자인이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버스 정거장의 불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함께 버스를 탈 사람이 있다는 표시도 함께 나타나게 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때와 사람이 있을 때의 비교

● 조영제 / 환경오염 포스터

공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스터 디자인이다. 강한 색의 대비로 주목성과 함께 경각심을 더욱 상기시키고 있으며 새의 형상을 손의 형상에서 가져와 이중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조영제는 우리나라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로 다양한 포스터의 표현 기법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88올림픽 포스터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기업CI와 BI 디자인에서도 그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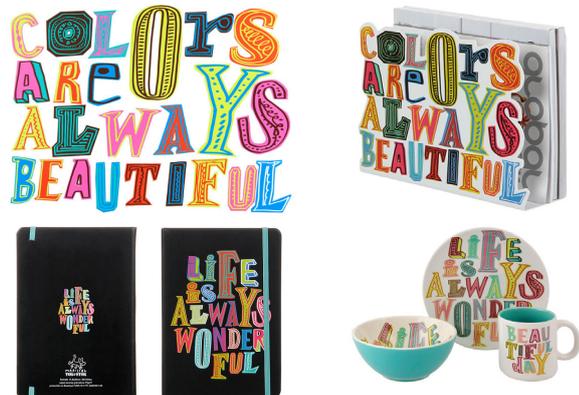


◀ 환경 오염 포스터
(옵셋 인쇄, 59.4x84.1cm / 1978년 작)

▶ 88올림픽 공식 포스터 (옵셋 인쇄, 59.4x84.1cm/1985년작)

● 마리스칼 / 잡지 뉴욕거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뉴욕거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간결한 선과 색을 사용하여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유분방하게 그려내는 스케치 속에 삶을 녹여내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만든다. 그의 스케치와 캐릭터는 일러스트레이션뿐 아니라 가구, 생활 소품, 영화 등의 기반이 되어 다양한 매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브라질의 T셔(도자기, 철제, 종이 등/가변 크기/2013년 작) - 기본 일러스트는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어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 광고 디자인

기업이나 개인·단체가 상품·서비스 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O사(미국) 에너지 절약 버스 정거장 광고 디자인(디자인 크기/2008년 작)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광고판에 불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신의 제동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자인이다.

◆ 포스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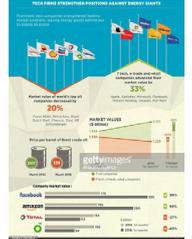
시각적 요소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보나 행사를 알리거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다.



조영제(한국/1935-) 환경 오염 포스터(옵셋 인쇄/72.8x103cm/1978년 작) 공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스터 디자인이다.

◆ 인포그래픽(Infographic)

정보, 데이터, 지식을 빠르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A사(미국) 테크 기술 회사와 주주 회사의 시장 가치에 관한 인포그래픽(디자인 크기/2006년 작) 시장 가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도록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달한다.

◆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영화·컴퓨터 게임 등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외형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공공 행사, 광고, 애니메이션, 동화책에 활용되고 있다.



DA(미국) 만화책 아이즈에 애니메이션(가변 크기/2006년 작) 기쁨을 위한 귀염, 수줍음, 감정에 대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었다.

DA(한국) 선물 공룡(대형 애니메이션/가변 크기/2005년 작) 장상의 공룡 디즈니와 그의 친구들을 인형으로 모티브로 한 캐릭터로 만들어 애니메이션, 아동극, 키오스 기계에 적용되고 있다.

◆ 일러스트레이션

제3자에게 무엇인가의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 암시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그림으로 간략하게 일러스트라고 한다.



마리스칼(Mariscal, Javier)의 '1950-90년 잡지 뉴욕거 표지 일러스트레이션(가변 크기)'은 간결한 선과 색을 사용하여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 탐구 활동 1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디자인 알아보기

기업이나 공공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또는 단일화하여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키는 디자인 활동을 알아보자.



▶ 탐구 활동 1 CIP 디자인 알아보기

- CIP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한다.
- CIP 사례를 찾아서 어떤 부분에 적용하였는지를 탐색하도록 한다.

▶ 탐구 활동의 예시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란 기업이나 공공단체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단결화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키면서, 기업의 모든 디자인 활동을 조절하고 조직화하여 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경영 전략이다. 1950년대 미국의 코카콜라나 IBM 등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는 1970년대에 도입되었다.

기업이나 단체를 위한 로고 디자인과 색채 계획은 다양한 매체에서 적용되어 전체의 일관적인 의미를 부가해 준다.



Be the mom for a moment



Unicef 백팩 플러스



Unicef safety pin

■ 지식 창고

광고 디자인

• 정의 - 광고는 글·그림·음성 등 시청각 매체가 동원되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광고의 정의는 미국 마케팅 협회는 1963년에 “광고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주가 하는 일체의 유료 형태에 의한 아이디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비대개인적(非對個人的: nonpersonal) 정보 제공 또는 관측 활동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고 1969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S.W.던 교수는 《Advertising, It's Role In Modern Marketing》에서 “광고란 광고 메시지 속에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또는 개인이 여러 매체에 유료로 내는 비대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도 정의하였다.

• 유형

기준	분류
영리성	영리 광고(일반 상업 광고), 비영리 광고(비상업 광고, 공익 광고)
목적	제품 광고, 비제품 광고
대상	소비자 광고, 비즈니스 광고
지역	국제 광고, 전국 광고, 지역 광고, 지방 광고
전달 매체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교통 광고, 우송 광고, 옥외 광고, 전단 광고, 영화 광고, 모바일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기타	시간성-게릴라 광고, 광고 효과-티저 광고, 간접 광고(P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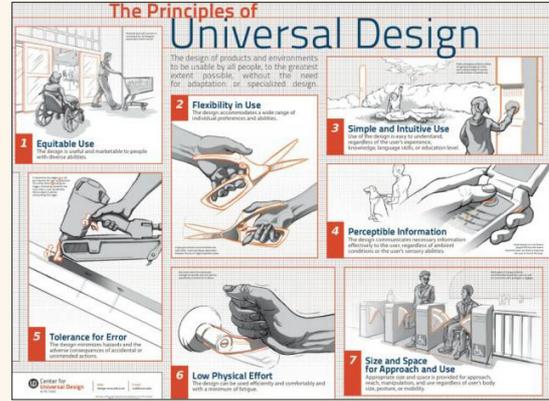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에 주로 적용되었으나 친숙하고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다른 매체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차세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견되는 산업인 캐릭터는 만화나 동영상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문구나 장난감 등에 응용하여 판매하거나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만화와 미술을 표현 수단으로 하여 고도의 창작 능력과 기획력을 통하여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비디오 게임과 테마파크·출판·영상 산업과 결합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산업적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례로는 미국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미키, 미니, 도널드 등을 시작해서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화남이 등까지 다수의 신생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산업화시켰으며 일본의 경우도 아톰, 밀림의 왕자 레오 등이 히트하고 세일러 문, 토토로 등의 산업화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산업화된 것은 1983년 김수정의 만화 아기공룡 둘리가 1995년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용되어 캐릭터 산업을 활성화하였으며 현재 세계적인 캐릭터로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①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② 사용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④ 쉬운 정보의 이용 Perceptible Information, ⑤ 사고의 포용 Tolerance for Error, ⑥ 신체적 부담의 경감 Low Physical Effort, ⑦ 사용을 위한 적당한 공간 확보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서비스 디자인

• 정의 -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실제화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체계적 디자인을 이르는 것이다.

• 서비스 디자인의 사례



1사(미국), 엠트랙 아셀라 프로젝트(열차/2015년 작)- IDEO사는 미국 철도회사 엠트랙(Amtrak)에서 1999년 미국 북동부를 운행하게 될 새로운 고속 열차 ‘아셀라’의 객실 디자인을 고객과 함께 열차 여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열차를 타는 고객이 10단계의 경험을 거치는 것으로 발견하였으며 그 중 열차 좌석에 앉게 되는 것은 8단계에서나 이뤄지는 행위이며 예매 과정, 역으로 가는 단계, 역사 내에서의 지루함 등 이미 열차를 타기 전 과정이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이에 IDEO는 단순히 객실 내 디자인뿐만 아니라 예매 시스템, 안내소, 대합실, 직원 근무 공간 등 고객이 여행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는 열차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디자인한다는 접근을 하였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F사 / Deep Tea Diver Infuser

이성보다 감성 공감을 꾀하는 디자인. 감성에 친밀하게 반응시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가 되도록 한다.

차를 우려내는 키트로 물속에 잠긴다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며 보다 해학적이고 감성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감성 디자인 추가 사례



스타(Starck Philippe/1949~/프랑스), 주시 살리프(Juicy Salif, 알루미늄)
- 스타크는 레몬짜는 기기로 조형적 형태를 취함으로 유머와 세련됨으로 대화하는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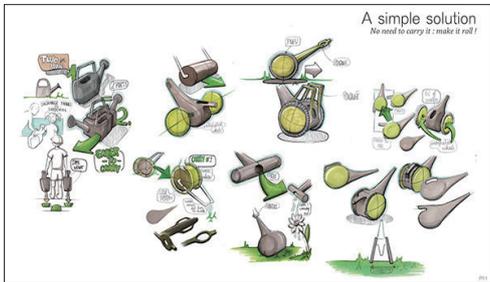


카스틸리오니(Castiglioni, Achille)의 레코드(Record), 멘디니(Mendini, Alessadro)의 루나(Luna)
- '꿈의 공장'이란 별명까지 얻은 알레시(Alessi)의 시계 제품이다. 알레시는 대표적인 감성 디자인을 이끈 회사로 기능적인 생활용품에 색과 유쾌한 상상력을 불어 넣어 제작하였다.

● 두파이어 / 엘리칸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 뜨고, 이동하고 주는 모든 과정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남녀노소 모두가 편리하게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코끼리를 연상시켜 친근함을 더하였다.



두파이어(Dupire, Diane)
엘리칸(elycan/2012년작)

유니버설 디자인 추가 사례



승효상(한국) J대 해화문화관 중정(돌/2003년 작) - 큰 레벨차를 연결하는 긴 계단을 통한 전망과 하늘과 만나는 기막힌 경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디자인 요소로 지그재그로 경사로를 가로질러 공간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어린이나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T사(일본), U-wing Pen(ABS 수지, 스테인리스 스틸, 구리, 열가소성 고무/13×2.2×2.2cm/2002년 작)-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펜 디자인이다. 오른손과 왼손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며 발 혹은 입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펜을 잡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을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인간 중심 디자인

"디자인은 지적 또는 물질적 유희가 아니라, 문명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삶의 일부를 의미한다." - 빌트 크르티우스

디자인은 사람들의 요구와 꿈, 행동을 파악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제품, 서비스, 환경, 상호 작용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된다.

● 감성 디자인

디자인 대상의 효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감동까지 불러 일으키는 디자인이다. 심미적으로 즐거움을 주면서 사용성도 좋게 하여 눈리와 이성을 넘어 본능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 원칙 >

① 공평한 사용 ② 사용의 용동성 ③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 쉬운 정보의 이용 ⑤ 사교의 포용 ⑥ 신체적 부담의 경감 ⑦ 사용을 위한 적당한 공간 확보



F사(미국) 브래들리 타임 피스티타는 /4x4x1.15cm/ 2012년작)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이끈 디자인으로 2016년 red dot상과 수상하였다. 시과 공예인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서 시작했으나 디자인 결과는 일반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추었다.

두파이어(Dupire, Diane) 미국/990-1엘리칸(elycan/2012년작) 물뿌리개에 대한 디자인으로 코끼리나 돌을 붙는 것에 영감을 고안하여 바퀴를 장착함으로써 이동에 편리한 디자인으로 2012 red dot를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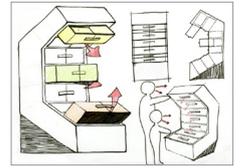
● 서비스 디자인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시각화하고 실제화하여 사용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체계적 디자인을 이루는 것이다. 맥락을 중시하는 집중적 디자인 리서치, 다양한 이해와 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 개발, 특화된 가치와 방법, 빠른 반복 실행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함으로써 고객이 경험하는 제품이 지닌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70



F사(미국) Deep Tea Diver Infuser(삼리온 고무/5x13x5.6cm/ 2012년 작) 맛깔을 싹새로 바꾸고 구운 장수부가 차를 우려는 소원을 다하는 상황을 민중하게 함으로써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이다. 감성 디자인은 기능도 충족하며 그 이상의 효과를 보여 준다.



김태훈, 김성환(학생 작품) 유니버설 서랍장(종이에 색연필, 사진 펜/29.7x42cm/2016년 작) 다리를 구부려 앉는 신체적 피로를 줄이는 디자인의 대안 아이디어로 소개되었다. 카가 큰 성인과 카가 작은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M사(미국) PillPack중의 약통 등 패키지를 2014년 작) 남성과 시간을 개인 약봉투에 가져와서 투약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시켜 약 처방의 방법을 변화시켰다.

● 사 / PillPack

약이 만들어지고 먹는 전체의 과정을 고려하여 불편함을 개선을 꾀하는 약차방 패키지 디자인이다. 약봉투는 날짜와 시간이 날봉투에 기재되어 환자가 투약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지시킨다. 더불어 약을 투약하는 행동을 고려하여 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박스에서 하나씩 붙어 나오는 것으로 생활의 편의를 추구한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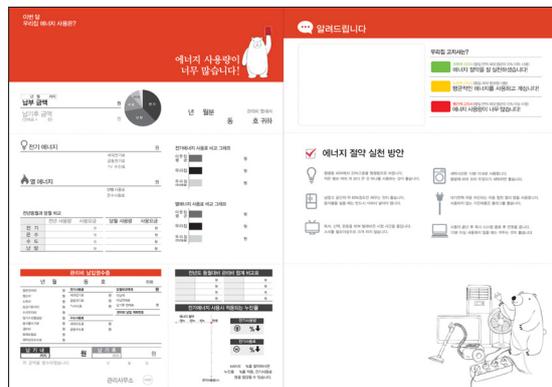
참고 자료

<https://www.pillpack.com/>

<https://www.ideo.com/>

사 / PillPack

서비스 디자인 추가 사례



지식경제부 / 아파트 고지서 디자인
주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서비스 디자인 기법으로 디자인함으로써 획기적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였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산업 기술의 발달은 사람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지만 자연환경도 파괴하였다. 인간의 편의를 꾀하는 노력이 오히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PA(스웨덴) 피루벡(자기 분해 바이오 플라스틱/26x24cm/2006년 작) 제국 및 제1년 환경과 같은 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이러한 환경에서 인센트 사용 가능한 1회용 휴대용 변기 디자인이다.

예코 디자인

생태 환경의 피해를 줄이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기능과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환경 친화 디자인이다. 생산되고 폐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다. 환경친화적 사용을 피하고, 폐기하기 쉽거나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디자인이다.



사(말레이시아) 말레티움 대나무 학교 프로젝트 (교육 건물, 필리핀/2009년 작) 필리핀의 환경을 고려하여 대나무를 주요 목재로 활용하여 해풍과 통풍이 잘되고,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A급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학교면서 긴급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공공 디자인

공공성을 지닌 공간과 시설을 보다 합리적이고 심미적으로 형성하는 디자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원과 같은 공공 공간과 가로 환경 시설물, 안내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을 물리적 기능뿐 아니라 시각적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생활 공간의 질서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주시청(한국) 전주시 아트홀(스튜디오) 디자인(광안동, 전주/2011년 작) 무질서한 노점상과 난잡한 주차로 불만을 주던 공간이 녹색 전차와 조경, 공간정리로 변신하였다.

탐구 활동 2 지속 가능한 디자인 탐색하기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자.

● J사 / 밀레니엄 대나무 학교 프로젝트

필리핀에서 구하기 쉬운 대나무를 주요 목재로 활용하여 채광과 통풍, 비용이 저렴하면서 A급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학교이며 재해 때 긴급 피난처를 건축하였다.

탐구 활동 2 지속 가능한 디자인 탐색하기

-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한다.
-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속하는 여러 디자인 사례를 찾아본다.

<탐구 활동의 예시>

1950년대 물류 혁명을 일으키고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일컬어지는 컨테이너는 20년의 사용 연한을 지니고 있다. 20년이 지난 폐 컨테이너는 산업 폐기물이 되어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컨테이너는 자투리 공간의 효율적 활용, 주거 문제의 해결, 건축비의 절감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도 활용되었고 더 나아가 랜드마크적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C사(한국) 커먼 그라운드(컨테이너 건축물/서울/2015년 작)-수십 년 동안 택시 차고지로 사용되던 공간에 200개의 컨테이너를 쌓아 올려 만든 쇼핑몰로 거리에 감성을 부여하고 젊은이들의 새로운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컨테이너 쇼핑몰로는 런던의 '박스 파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의 '리스타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컨테이너 파크' 등이 있다.

디자인 추가 사례



LSA(미국) 버릴 것이 없는(Never wasted/ 재활용재료/36x26x10cm/2011년작)
-LSA가 인도에 론칭하면서 만든 쇼핑백 디자인이다. 쇼핑백을 자르고 오리고 붙이면 필통으로, 보드게임으로, 카드지갑으로 변신하게 하였다.



■ 지식 참고

공공 디자인 영역 및 대상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 환경의 미관과 기능을 고려하여 공공 영역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매개체이며 삶의 질적 수준을 고려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이는 단순 색채와 형태, 기능 등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간의 질서를 추구하며 서로 조율되고 통합된 모습을 이루고자 한다.

- **공공 공간 디자인:** 도시 경관, 공공건물, 도로, 개방 공간, 역사 공간, 특별 지역, 도시 색채 계획, 야간 조명 계획
- **공공시설 디자인:** 가로 시설물, 기타 공공 시설물
- **공공 정보와 사인 디자인:** 국가 기구 상징물, 국가 행사 상징물, 국가 인증물, 국가 정보 시스템, 정부 간행물과 포스터, 지자체 상징물, 교통 안내 시스템, 관광 정보 시스템, 옥외 광고물
- **공공용품 디자인:** 공공 기관 용품, 공공 서식류, 국가 조직 통합물, 공공 관리용품

생태주의 건축

생태계 파괴로 직결되는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된 대안적 건축의 한 형태이다.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으로 최대한 효율을 갖추며 건강한 생활환경 또는 업무 환경을 형성하는 건축을 일컫는다.



햐자와 양(T. R. Hamzah & Yeang,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EDITT 타워(2010년 작)
- 태양 전지, 자연 환기, 바이오 가스 발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식재 공간이 건물 표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26층 건물이다. 빗물과 중수도 용수를 재활용해서 건물 전체의 필요량 55%를 공급하며 오수는 비료나 바이오 가스 발전으로 처리된다.

■ 지식 창고

• 대량 생산과 디자인의 발전

19세기 과학과 산업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수공예 제작 방식에서 기계를 통한 본격적인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생산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델 T 포드(1908/USA)
미국 공장 생산 라인에서 벨트가 움직이며 정밀한 기술로 제품을 조립하는 대량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이러한 방식 덕분에 생산성이 높고 가격은 낮아져 값비싼 수공예품이었던 자동차를 일반 노동자나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토네프(Thonet, Michael/오스트리아/1796~1871) - 토네프의 자(1841) 나무에 증기를 가해 구부리는 곡목 기법으로 제작. 다섯 개의 나무 부품을 볼트로 고정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게 제작된 의자

•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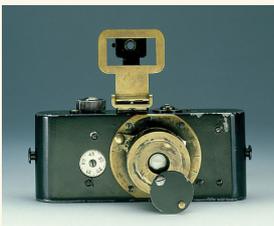
가볍고 저렴하며 다채로운 색상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시츨 성형은 일체형 디자인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시켰다.



팬톤(Panton, Verner/덴마크1926~1998) 팬톤 의자(1960) - 등받이, 좌판, 다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의자. 가볍고 튼튼하며 다양한 형태와 색상이 가능한 플라스틱 성형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 기술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소형 카메라

무겁고 거대한 유리판을 사용하던 기존의 카메라에 영화 필름을 사용하여 가로 13cm, 높이 7cm의 크기가 작고 가벼운 카메라가 탄생하였다. 이는 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또 다른 분야의 제품에 응용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형 라이카(독일/1913) - 영화 필름을 사용하여 만든 소형 카메라. 한 손에 들고 다니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촬영이 가능하며 현대 사진기의 시초가 되었다.

기술의 발전과 디자인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자인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산업 사회의 대량 생산과 새로운 소재 및 가공 기술의 개발, 현대의 디지털 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전해 온 디자인과 그로 인한 우리의 생활 모습의 변화를 살펴보자.



BSA(영국) 모노스피어(1959/영국) 대량 생산된 자동차를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시켰다.



아라드(Israel, Ron) 아라드(1959~) 북텔(출판사) 2004년 책 보관용 플라스틱 소재를 일괄을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조립하여 나만의 책꽂이를 만들 수 있다.



DAE(미국) 날개 없는 선풍기(2011년) 플라스틱/높이 50cm, 회전 원형 14cm, 상단 원형 25.4cm(2009년) 책 심미성과 안전성을 갖춘 디자인이다.



AA(미국) 아이맥(1998년) 차 단조로운 색상과 상자 모양인 기존의 컴퓨터와 달리 일체형인 반투명외의 재질로 만들어 개성적인 감각과 감성을 담아냈다.

더 알아보기 미래의 디자인

미래에는 첨단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푸벨마키(핀란드) 핀란드(2019년) 차 공간 중 조명 빛이 콘크리트 벽에 흡수되어 무제한 영류로 바뀔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도시의 공기 정화를 책임지는 미래 시대의 건축이다.

72

• 혁신적인 디자인이란?

- 기술의 혁신: 공정 과정, 제작 기술, 첨단 기술(유비쿼터스, 반도체, 바이오, 우주 공학, 재료 처리)을 적용한 디자인
- 재료와 소재의 혁신: 신소재를 적용한 디자인
- 생각의 혁신: 편견에서 벗어난 완전히 다른 형태, 색다른 기능을 하는 디자인
- 도덕의 혁신, 윤리의 혁신: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며, 사용자들에게 죄책감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혁신 디자인
- 사회적 변화와 발을 맞춘 디자인: 고령화 시대, 생태계 문제 등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현명하게 적응하며 공존의 방향을 찾는 디자인

• 미래의 디자인

알카비데시 복지 주거 단지(포르투갈) 게스트 크루스 아키텍츠 반투명한 지붕이 불을 밝혀 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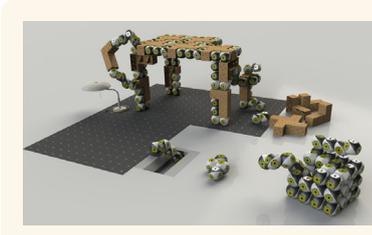


이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응급 상황에서 경보기가 작동하면 빛이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뀐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주거 디자인의 예시를 보여준다. 출처: 건축가 마크 쿠시너<미래의 건축 100> 테드(TED)

위클리리 정보 통신 디자인의 발전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장난감 보기
 - 디자인의 정의와 범주를 설명할 수 있는가?
 - 디자인이 고려해야 할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미래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가?



로봇(스위스 EPFL 연구소 (2014) - 상황에 맞는 기구로 스스로 변신하는 자가 조립 기구 로봇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D사 / 날개 없는 선풍기

이 선풍기의 구조는 날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날개(팬)가 모터와 함께 원기둥 모양의 스탠드에 숨어 있다. 스탠드 안을 들여다보면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제트 엔진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제트 엔진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기를 팬을 회전시켜 흡입하듯이 날개 없는 선풍기도 스탠드에 내장된 팬과 전기 모터를 작동하여 아래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이렇게 빨아 올린 공기를 위쪽 둥근 고리 내부로 밀어 올려 바람을 발생시킨다. 날개 없는 선풍기 디자인의 장점은 크기가 작고 구조가 매우 간단하며 고리와 모터 부분이 분리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먼지가 쌓일 날개가 없기 때문에 위생적이며 청소도 간편하다. 또한 걸으로 드러나는 회전 날개가 없어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아라드 / 북월

책꽂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개 수직, 수평의 판자로 나누어진 형태에 직각을 이루는 선반과 사각형 속에 배열된 형태인데, 북월은 이러한 관습에서 완전히 비껴간 책꽂이이다. 모든 것이 개인의 상상과 기호에 따라 사용자가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 무궁무진한 형태로 변신할 수 있다. 처음에는 다양한 금속 모델로 제작되어 높은 가격으로 대중화되지 못하다가 1994년 채색된 플라스틱 모델로 소개가 되면서 판매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 블롬베르크 / 에리코 폰

다이얼과 수화기, 송화기가 하나의 몸체로 이루어진 최초의 일체형 전화기. 다이얼이 바닥에 숨겨져 있는 작고 간단한 디자인으로 20세기 후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뛰어난 디자인을 인정받아 당시대를 대표하는 획기적인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전시돼 있다.

■ 지식 창고

• 웨어러블(wearable) 기기

몸에 착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된 기기를 웨어러블 기기라고 한다. 걸어다니며 음악을 듣는 휴대용 MP3나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는 기기에서 나아가 안경, 팔찌, 시계와 같은 액세서리나 티셔츠, 신발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몸에 착용하여 건강 관리를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어 받은 스마트 워치로 옮겨가 시간을 알려주는 기존의 시계 기능에 두 손을 자유롭게 하면서 휴대 전화의 기능을 한다. 또한 안경 형태로 된 웨어러블 기기는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공간에 가상 현실을 만들어 내어 목소리나 동작으로 상호 작용하는 형태까지 발전하였다.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은 인체의 연장선상에서 도구를 바라보는 것이며 기계를 통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작용과 사용자 경험을 반영한 디자인을 통해 생활을 바꿀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김영우)



스마트 러닝셔츠 D-셔츠(프랑스/C사/2014) 입는 순간 심박수, 운동량, 열량소모량 등을 체크하여 스마트폰이나 병원으로 전송, 개인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웨어러블 디지털 의류

• 사용자 경험 디자인(UXD, User Experience Design)

제품과 사용하는 사람의 상호 작용을 주요 요소로 반영한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제품에 대한 체험과 지각을 통한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서비스 또는 사용자와 제품 간의 정보 구조와 상호 작용 측면까지 고려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뜻한다.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활동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추측한다. 미래의 학교 디자인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프로젝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준비물	참고 자료, 필기 도구, 사진기, 컴퓨터, 채색 재료, 종이
평가 요소	창의적 상상력, 의사소통 및 토론 능력
평가 방법	프로세스 폴리오, 실기 평가, 토론법
교과 역량	창의 융합 능력, 시각적 소통 능력
성취 기준	9미10-01 / 9미10-02 / 9미10-04

프로젝트 활동의 유의 사항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책, 영화, 만화, 기사문 등 기존의 매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미래 모습을 참고하여 디자인을 상상해 보도록 한다.
- 미래 사회의 디자인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존 자료 이외에도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간다.

프로젝트 활동의 과정

1. 미래의 학교 디자인을 상상해 보자.

- 문제 인식: 미래 시대의 사회, 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디자인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2.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기

-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며 미래 사회와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 교사는 영화, 만화, 책, 기사문 등 기존의 매체에서 추측한 미래 시대의 변화 모습을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미래 디자인의 특징>

- 우주나 지하, 바닷속까지 생활환경과 공간의 확장
- 다양한 로봇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에 사용됨.
- 실제 공간에 홀로그램 등의 영상으로 정보를 찾거나 소통에 이용함.
- 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맞추어 스스로 변신하는 생활용품이 증가함.
- 많은 기계나 도구들이 자동화되어 복잡하게 조작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이 편리함.
- 과학 기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아 디자인 전 분야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

3. 자료 수집과 정리

-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에 대한 토론 내용 및 수집한 자료를 정리한다.
- 학교에서 미래의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한다. 학교 건물, 교실 풍경, 교복, 교과서, 칠판, 책상, 의자, 학용품, 수업 시간, 등·하교 모습, 점심시간 등 학교생활 속에서 달라질 모습을 상상하여 기록한다.

4.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 자신이 상상한 미래의 디자인을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한다.
- 상상한 디자인을 입체로 제작하여 심화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프로젝트 활동

미래의 학교를 디자인해 보자

사회, 문화, 환경, 과학 기술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미래 시대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학교 모습을 상상하여 디자인해 보자.

[프로젝트 활동 목표]

-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의 변화를 추측한다.
- 미래의 학교 디자인을 상상하고 표현한다.
- 프로젝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프로젝트 활동, 이렇게 해요] 준비물: 필기 도구, 사진, 컴퓨터, 채색 재료, 종이

- 1 미래 학교 디자인 상상하기
- 2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기
- 3 자료 수집과 정리
- 4 아이디어 스케치 및 렌더링
- 5 활동 정리와 평가



향상으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



스마트 운동장에서 계속 시간



열대야를 타고 우주로 가는 스포츠



재능 조절 센서가 달린 교복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디자인을 표현하였는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전자 교과서

프로젝트 활동 평가하기

-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디자인을 표현하였는가?
- 프로젝트 활동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자유학년(학생 작품) 미래의 교복(종이, 유성펜, 색연필/26×20cm/2016년 작)

5. 활동 정리와 평가

- 미래 시대의 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학교 디자인의 변화를 추측하였는가?
- 프로젝트 활동에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는가?

■ 지식 참고

• 만화가가 생각한 미래 시대의 모습



이정문(한국/1944~)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1965년 작) - 1965년 당시 만화가가 상상했던 2000년대의 모습 중 우리 일상에서 현실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웹진(2016)

• 미술 공예 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 1850~1914

19세기 산업 혁명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 균일한 품질과 저렴한 상품이 등장하였지만 디자인의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 미술 공예 운동은 이러한 산업화에 저항하며 전통적인 수공예를 부활시켜 좋은 디자인을 통한 사회변혁과 삶을 개선을 주장하였다. 실천 방식에서는 근대화 역행하는 모순이 있었으나 이후 장식 미술의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더 알아보기 디자인의 역사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개발, 사물에 필적한 사고방식과 문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의 흐름과 주요 디자인 운동을 살펴보자.

<p>1 미술 공예 운동(Art and Crafts Movement) 1850~1914 기계 생산에 반대하며 수공예 부활을 주장한 최초의 디자인 운동</p>  <p>모리스(Morris, William) 영국/1834~1896 넷 살림의 찬양 벽지(1895년 작)</p>	<p>2 아르누보(Art Nouveau) 1890~1910 자연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장식 중심의 양식</p>  <p>가티에르(Garnier, Hector) 프랑스/1867~1942 파리 아베네 맥(1900년 작)</p>
<p>3 데스틸(De Stijl) 1917~1931 자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간결하고 논리적인 양식</p>  <p>진트벨트(Zwieloff, Gerrit Thomas) 네덜란드 /1888~1964 / 슈뢰더 하우스/1923~1924년 작</p>	<p>4 바우하우스(Bauhaus) 1919~1933 대량 생산에 적합한 예술인 양성과 건축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을 통합한 디자인 학교</p>  <p>그로피우스(Gropius, Walter) 독일/미국/1868~1959 / 바우하우스 독일/1925년 작</p>
<p>5 오르가닉 디자인(Organic Design) 1930~1960 부드러운 곡선과 유기적 형태의 디자인</p>  <p>엘리스(Eames, Charles & Ray) 미국/1907~1978, 1912~1988 / 라세즈 의자/1948년 작</p>	<p>6 팝 아트(Pop Art) 1958~1972 친근하고 일상적인 이미지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추구</p>  <p>폴라코프의 송원스(폴코프의 송원스)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 앨범 커버</p>
<p>7 미니멀리즘(Minimalism) 1967~1978 극도의 간결함으로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한 양식</p>  <p>램스(Rams, Dieter) 독일/1915~1990 / Phonosfer 5K4 (디자인 재료 580X240X290mm) 1956년 작</p>	<p>8 하이테크(Hightech) 1972~1985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한 디자인</p>  <p>로저스(Rogers, Richard) 영국/미국/1917~1987 / 16번즈 피어스(Piano, Piano) 어빌리티/1977~1985년 작</p>
<p>9 20세기 후반: 다양한 양식의 발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추구</p>	

• 아르누보(Art Nouveau) 1890~1910

미술 공예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기계 생산품의 예술성 저하에 반발하며 등장하였다. 산업화 시대에 사라진 '자연'을 모티브로 잎사귀, 구불구불 선, 휘어지는 곡선 등을 사용하였으며, 철, 유리 등 새로운 산업재료 소재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대량 생산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 데스틸(De stijl) 1917~1931

기하학적 추상 미술인 신조형주의와 같은 흐름의 디자인 운동으로 자연에서 벗어나 순수한 조형을 추구하며 간결하고 인공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 수직 수평적인 화면, 삼원색, 미니멀한 표면 장식으로 그래픽과 실내 장식, 건축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시각 언어로 통합하여 모더니즘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바우하우스와 모더니즘(Bauhaus&Modernism) 1919~

건축가 그로피우스(Gropius, Walter)에 의해 독일에 설립된 종합 조형 학교이다. 산업 사회에서 개발된 새로운 재료와 신기술을 적극 사용하며, 대량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발과 예술가 양성을 꾀하였다. 기계 미학에 의한 바우하우스 스타일은 모더니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현대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 기능주의와 국제 양식(Functionism&International Style)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며 장식의 최소화, 오로지 기능만을 위한 디자인을 생산하였다. 기능주의 디자인은 국제주의 건축 양식으로 나타나 철, 유리, 콘크리트를 사용한 직육면체의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근대 디자인의 정신에서 출발하였다.

• 오르가닉 디자인(Organic desing) 1930~1960

주변 환경과 건물과의 관련성을 강조한 유기적 건축에 뿌리를 두며,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윤곽선과 자연 소재, 성형이 쉬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였다. 이는 신소재의 개발, 제조 기술과 컴퓨터 설계 기술의 진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팝 아트(Pop art) 1958~1972

2차 세계 대전 후 자본주의의 팽창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와 대중문화에 영향을 받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양식이다. 수프 캔이나 컷만화 같이 일상생활 속 사물의 이미지를 선호하며, 모더니즘의 가치를 거부한 재미, 변화, 다양성, 일회성 등을 표현하였다. 선명한 색상과 대담한 형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였다.

• 미니멀리즘(Minimalism) 1967~1978

미니멀리즘은 2차 대전을 전후하여 나타난 조각품에 주로 쓰인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는 패션, 디자인, 건축 등에 널리 사용한다. 예술적인 기교를 최소화하고 사물의 본질만 남기며 나머지는 제거하자는 미니멀리즘의 특징은 극도의 간결성, 형식적인 순수성, 빛의 사용이다. 건축에서는 빈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단순한 형식을 보여주었으며, 패션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어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능한 제거하였다.

• 하이테크(High-tech) 1972~1985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1970년대 하이테크 건축에서 출발하였으며, 산업 재료와 가공 기계를 차용하여 첨단 기술력의 의존도가 높은 디자인을 일컫는다. 재료는 산업 소재와 첨단 소재를 사용하며 미래적이고 복잡한 이미지를 지닌다.

• 20세기 후반의 디자인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디자인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나 동시에 산업과 기술 발전으로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소수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1960년대 이후부터 증가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녹색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중요해지고 있다.



감상의 즐거움

- 18. 한국 미술의 여정
- 19. 동양 미술의 자취
- 20. 서양 미술의 모험



단원 개관

이 대단원에서는 미술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미술 문화에 대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과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감상하고, 해석하며, 비평하면서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깨닫는다. 더불어 확장된 미술의 영역과 다양한 미술의 형태를 이해하면서 다양한 미술 문화를 체험토록 한다. 한국의 미술, 동양의 미술과 서양의 미술을 살펴보면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의 특징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원 목표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술 용어와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단원 교수·학습 계획

소단원명	차시	학습 내용	교과서 쪽
18. 한국 미술의 여정	4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 과정 이해하기 • 우리나라 미술의 주요 유적, 유물,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맥락 설명하기 •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형식, 내용, 가치 해석하기	76~83
19. 동양 미술의 자취	2	•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동양 미술의 흐름과 변천 과정 이해하기 • 각 지역 미술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맥락 설명하기 •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형식, 내용, 가치 해석하기	84~87
20. 서양 미술의 모험	4	• 서양 미술의 흐름과 변천 과정 이해하기 • 주요 양식 및 사조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맥락 설명하기 •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형식, 내용, 가치 해석하기	88~97
*미술사 연대표		• 동서양과 한국 미술사 연대표	98~99

18 한국 미술의 여정

교과서 pp. 76~83

단원 설정 이유	한국 미술을 살펴 보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그 특징을 탐구할 수 있기 위해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 한국 미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 미술 문화의 국제성과 독창성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4
평가 요소	우리나라 미술의 변천과 특징에 대한 이해 능력, 미술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미술 용어와 지식의 활용 및 소통 능력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연구 보고서법, 서술형 및 논술형 검사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3-01 / 9미03-02 / 9미03-03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조선 시대에 그려진 산수화와 동일한 장소를 찍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여 수백년 전 한반도의 모습과 선조들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발견하도록 한다. 우리의 산천과 진솔한 생활상을 담은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를 소개한다.

전개

-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흐름과 시대별 특징을 이해하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 [감상 포인트]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유물과 작품들의 양식적 특징과 시대적 배경 및 맥락을 설명한다.
- 한국 고유의 미의식을 파악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의 단독 감상과 비평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미술 문화와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정리

- 시대별 주요 작품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리나라 미술품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발표해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 우리나라 미술 작품 속에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음을 이해하고,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시대별 주요 작품을 보며 미술 문화의 특징을 시대적 맥락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 선사 시대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예시 작품으로 준비하여 미술의 변천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8 한국 미술의 여정

학습 목표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미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우리 미술 문화의 국제성과 독창성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16

생각 열기

200여 년 전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선 시대 중반까지도 우리의 산수화는 중국의 이상적인 산수화와 다를 바가 없었으나, 조선 후기 경제 정선이 우리나라의 산세에 맞는 새로운 준비를 개발하여 우리 고유의 산수화를 발전시켰다. 정선은 우리의 산천을 직접 여행하며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면서 거기에 맞는 '결계'를 만들어 냈다. 정선의 주위 깊은 관찰과 예술적인 기량이 우리의 자연과 만나 탄생한 진경 산수화는 민족의식이 담긴 한국적인 화풍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술 작품 속에는 그 시대의 사상이나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습과 삶의 단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선조들의 미의식과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미술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전통의 향기를 느껴 보자.




정선(조선/1676~1759) **황학산(학산)에 서서 바라본 정동봉의 경관** 그린 진경 산수화이다. 정동봉은 병인양요 때 외국인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으로 오늘날에는 절두산 순교 성지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황학대교가 있는 한강의 강변에서 나뭇잎을 뜯어본 한 신부가 한가로운 낙산대를 드러온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한 우리의 조상은 자연스러운 미의식을 바탕으로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전통 미술을 발전시켰다. 아시아 문화의 교류에 이바지하며 독창적인 미술을 꽃피운 한국 미술의 변천과 흐름을 살펴보자.

76

감상 포인트 및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생각 열기: 정선의 산수화와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며 현대화 되어 달라진 부분, 예전과 다름없이 전해오는 부분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 정선 / 양화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 외국인 묘지 부근 절두산 일대의 옛 모습이다. 지금은 절두산(切頭山)이라 부르지만 조선 시대에는 강가에 절벽을 이루며 솟구쳐 나온 산봉우리가 누에머리나 용머리 같다고 하여 잠두봉 또는 용두봉이라 불렀다. 절두는 머리를 자른다는 뜻으로 고종 3년(1866) 병인양요 때 외국인 신부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한 곳이어서 오늘날에는 이 일대가 절두산 순교 성지로 지정되어 있다.

감상 포인트: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흥미를 갖도록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스토리텔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김홍도 / 빨래터

조선 후기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과 일상생활의 여러 정경을 담은 김홍도의 풍속화이다. 빨래하는 여인들의 생생한 모습과 당시의 옷차림 및 풍속, 아낙네들을 몰래 훔쳐 보는 양반 등을 간결한 선과 여백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선사 시대 | 염원을 담은 미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이어지는 선사 시대에 우리의 선조는 다양한 도구와 유물 및 유적을 남겼다. 구석기 시대의 뱀살기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는 실용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담은 도구들이다. 각종 동물이 새겨진 신석기 시대 말부터 청동기 시대에 걸쳐 제작된 암각화는 중요한 포획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방울이나 전무늬 청동거울 등은 뛰어난 청동 제작 기술을 보여 준다.



쌍두령(청동기) 길이 약 15~18cm 기원전 3~2세기(국보 제46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10m, 부분신석기 말~청동기 초기) 기원전 2500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서면들의 수혈과 이로 생황이 단순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된 귀중한 선사 시대 문화유산이다.

삼국 시대의 미술 | 고대 왕국의 개성 넘치는 미술 문화

기원 원년을 전후하여 고대 왕국을 창성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삼국 시대에 우리 민족은 조화로움 미의식과 순수한 자연미를 드러내는 한편, 4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불교 미술을 발전시켰다.

● **고구려(기원전 37~기원후 668)**

북방의 넓은 영토를 개척한 고구려는 역동적인 생동감과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는 미술을 남겼다. 안악 3호분, 무용총, 강서대묘와 같은 옛 무덤에는 무덤 주인인 초상화뿐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수렵 장면이 생생한 채색로 그려져 있다.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는 강인하면서도 정해진 형식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금동 연가칠년명 여래입상(높이 16.2cm)539년(국보 제715호) 금제 원대에 왕음이 있어 조성 연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금동불상이다. 좌우로 펼쳐진 팔자에서 고구려 특유의 강인함과 활달함이 느껴지는 한편 기품 있는 얼굴에 위엄 있는 미소를 띠고 있어 내러적인 형상을 연출하고 있다.



안악 3호분 풍속도(357년경)고분 벽화 황해도 안악군 소재,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고분 벽화로 부리와 고기 창고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무용총 수렵도(5세기)고분 벽화 중국 지린성 소재 생동감이 넘치는 역동적인 구성은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아낸 고구려의 독자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울로 제관의 지물이며 오늘날 무속에서 요령이라고 부르는 무구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 방울은 모두 쌍으로 출토되었는데, 쌍방울(위), 가지방울(아래)과 팔모방울이 대부분이다. 방울은 실제로 손에 쥐고 흔들기 알맞은 크기이며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무덤 유적에서는 청동거울, 세형동검 등과 함께 출토되기도 했다.

삼국 시대의 미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및 가야의 독특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작품을 통해 확인한다.

감상 포인트

- 1) 불교의 전래와 불교 미술의 등장: 중국으로부터 삼국에 전래된 불교가 중앙 집중적인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한다.
- 2) 고구려, 백제, 신라의 미술을 비교 감상하며 서로 다른 미의식과 조형성을 찾아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삼국 각각의 고유한 미의식과 조형적 특징을 찾아보도록 지도한다.

고구려의 역동적인 미술

● **무용총 수렵도**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사냥하는 모습은 중국에서 정형화된 도상이지만 이 고구려 벽화는 이를 그대로 옮겨 그리지 않고 생동감이 넘치는 독창적인 회화로 재구성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뒤를 돌아보며 사슴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모습은 배사법이라 불리는 사냥술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로 돌아 활을 당기는 것이다. 말의 움직임과 사냥꾼의 활이 향하는 진행 방향이 달라 전체 화면에 역동감을 불어넣는다. 인물과 동물의 묘사도 정확하며 배경으로 그린 산자락에도 울동감이 넘친다.

● **안악 3호분 풍속도**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분으로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출발로 볼 수 있다. 무덤 내에서 발견된 70자의 목서명을 통해 연의 장수이자 고구려로 귀화한 동수의 묘라 알려졌으나 고국원왕과 미천왕의 묘라 주장하는 주장도 있다. 부엌, 우물가, 외양간 등의 장면들은 아주 소박한 필치로 표현하여 풍속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안악 3호분 묘주의 초상/357년경

● **금동 연가칠년명 여래입상**

경남 의령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성 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고구려 불상이다. 삼국 시대의 불상은

선사 시대의 미술: 삶의 풍요로움과 자손의 다산을 염원하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감상한다.

감상 포인트

- 1) 반구대 암각화의 재료 사용과 표현 방식에 주목하여 동물들의 생생한 모습, 환조와 다른 부조 형식, 선새김(선각)과 면새김(면각)같은 새김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 쌍두령은 종교적인 무속 의식에서 사용된 무구로 추정된다. 종교적인 의식은 왜 출현했는지 질문하고, 종교와 정치의 출현에 기반을 둔 계급사회 및 국가의 형성을 설명한다.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반구대 암각화는 높이 약 4m, 폭 10m의 암벽에 고래, 사슴, 멧돼지 등 총 231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 암각화에서 동물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간은 동작을 설명하는 정도로만 비취지는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냥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울산만은 예로부터 고래들이 회유하는 곳으로 포경 산업이 발달하였는데 암각화에 나오는 작살 맞은 고래나 여러 사람을 태운 배와 그물 등은 당시의 고래 사냥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여 진다. 조각의 기법은 면새김과 선새김 두 가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표현 효과를 주고 있다.

● **쌍두령**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 하나인 청동 방

대체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는데, 긴 얼굴과 옷자락이 날카롭게 뻗어 있는 조각 기법 등에서 중국 북조의 북위 불상 양식이 나타나 있다.

백제의 온화하고 섬세한 미술

● 서산 마애 삼존불상

반가사유상과 보주를 들고 있는 보살입상을 좌우 협시로 한 독특한 삼존불로, 백제 조각의 완숙미를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다. 완벽하고 정교한 조각 기법에서 백제 특유의 조형감을 보여준다. 특히 눈을 크게 뜨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본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잘 알려져 있다.

● 산수무늬 벽돌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작품이다. 벽돌에 산과 냇물을 표현하였는데 앞으로 시냇물이 흐르고 뒤로는 기암괴석과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산들이 첩첩이 자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후경이 전경 위에 얹혀있는 듯한 백제 특유의 원근법이 잘 나타나 있다.

●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의 독특한 정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 향로는 다른 향로에 비해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크고 기법이 완벽하며 대상의 묘사가 정확하고 상징적 내용이 풍부하다. 몸체와 뚜껑은 분리되어 있으며 뚜껑 곳곳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향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신선이 사는 환상적인 산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 향로는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중국의 음양설과 불교의 연화화생관,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복합된 백제만의 독창적인 금속 공예품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의 화려하고 정교한 미술

● 기마 인물형 주자 토기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한 쌍의 기마 인물형 주자 토기로 머리에 깃털을 꽂은 주자는 화랑 상으로 추정되며 머리에 상투를 튼 낭도 상으로 추정된다. 주구의 높이가 낮아 실용성은 떨어지지만 말과 인물의 정확하고 대담한 표현은 조각 작품처럼 뛰어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 황남대총 금관

현재 확인된 신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인 경주 황남대총의 북부에서 발견되었다. 신라 금관의 전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나뭇가지 모양을 장식한 금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고개를 약간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보살 반가상으로 백제 또는 신라의 불상으로 추정되었으나 근래에는 신라 불상설이 유력하다. 신체의 둥근 곡선이 단순하면서도 입체적인 조형감을 보여주며, 손가락과 발가락의 미묘한 움직임으로 생동감이 느껴진다. 양식상 일본 고류지 목조 반가사유

◆ 백제(기원전 18~기원후 660)

중국 남조와 교류하며 고구려 미술을 수용한 백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서산의 마애 삼존불상은 백제 특유의 부드러운 조형미를 담고 있으며, 금동 대향로는 탁월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서산 마애 삼존불상(높이 280cm/7세기(국보 제84호) 충남 서산 소재 인자하게 웃는 본존불은 ‘백제의 미소’로 알려져 있다.



산수무늬 벽돌(높이 29.7cm/6~7세기(보물 제343호) 국립 부여박물관. 균형 잡힌 구도와 유인물이 돋보이는 바다 벽돌로 초기 산수화의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백제 금동 대향로(높이 64cm/6~7세기(국보 제287호) 국립부여박물관. 향로의 몸체는 불교적인 연꽃으로 되어 있고 뚜껑은 신선이 사는 도교의 산수(山水)로 조형되어 있어 불교와 도교의 융합을 보여 준다. 신선이 사는 산수(山水)를 비롯한 다양한 야경을 연주하는 다섯 명의 학사가 묘사되어 있다.

◆ 신라(기원전 57~기원후 654)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외래문화의 유입이 늦었던 신라는 소박한 토우와 토기, 화려한 금속 공예와 정교한 불상 조각 등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미술을 발전시켰다. 신라를 비롯한 삼국 시대의 미술은 이웃 나라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마 인물형 주자 토기(높이 26.8cm, 23.5cm/5~6세기(국보 제91호) 경주 금령총에서 출토된 한 쌍의 기마 인물형 토기로 각각 신라의 화랑(상 위)과 낭도(상 좌)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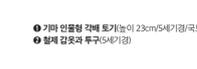
경주 경덕궁 금동반가사유상(높이 93.5cm/7세기(국보 제83호))



분황사 오천 석탑(높이 930cm/534년(국보 제30호) 경북 경주에 현재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돌을 벽돌로 양으로 깎아서 쌓아올린 조적석 오천 석탑이다.

◆ 가야(42~562)

제철 기술이 발달했던 가이는 수준 높은 철기 문화와 다양한 상형 토기를 남겼다.



● 가야 인물형 각베 토기(높이 23cm/5세기(국보 제275호))

● 칠채갈옷터 두구(5세기경)

78

상과 매우 유사하여 삼국의 불상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경주 경덕궁 금동반가사유상(신라/7세기/국보83호)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일본/아스카 시대/7세기/신국보 1호)

통일 신라의 미술: 불교 미술의 최고 전성기였던 통일 신라의 미술 문화가 지닌 국제성과 독창성을 이해한다.

● 불국사 삼층석탑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요소인 비례, 균형, 조화가 모두 들어 있는 통일 신라의 삼층 석탑으로 상층 기단의 길이와 탑 몸체의 높이는 황금 비례를 이룬다. 안정감이 넘치는 감은사지 삼층 석탑에서 이중 기단에 삼층 탑신이라는 삼층탑의 전형 양식이 탄생한 이래, 불국사의 삼층 석탑에서 안정감과 상승감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비율이 완성되어 불교 석조 미술의 절정을 보여 준다.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12세기 전반/높이 26.3cm/국보 60호) 국립중앙박물관



청자 상감모란문 표주박형 주전자(12세기 후반/높이 34.3cm/국보 116호) 국립중앙박물관

감상 포인트: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 1) 순철자와 상감 청자 비교 감상: 깊고도 신비로운 비색이 돋보이는 순철자와 정교한 문양이 상감된 상감 청자를 비교 감상한다.
- 2) 조형적인 아름다움 감상: 사자의 입에서 향이 뿜어지도록 만들어진 사자 향로와 시원스럽고 유연한 곡선이 돋보이는 표주박형 주전자의 조형미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수월관음도

수월관음은 물가에 앉아 물속의 달을 쳐다보는 보살로, 주로 기암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과 연못의 바위에 작은 선재동자의 모습이 함께 그려진다. 정교하고 섬세한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수월관음도 세부. 그림의 왼쪽 구석에 그려진 선재동자.

■ 지식 창고

•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경/국보 18호) - 부석사의 본전인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불전으로 1376년에 재건되었다. 정면 5칸, 측면 3칸에 팔각지붕의 주심포 형식으로 기둥의 배흘림과 귀솟음, 지붕의 조형 등 목조 건축이 가지는 전통 의장 기법을 모두 내재하고 있어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진 건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 시대의 미술 | 귀족적인 미술 문화

물류를 장려한 고려 시대에는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려하고 귀족적인 미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0세기에서 12세기 중반에 이르는 전기에는 의욕과 기백이 넘치는 불교 미술과 유교의 영향을 받은 세련된 귀족 문화가 발전하였다. 12세기에 절정에 이른 고려의 청자는 은은한 비색 청자와 섬세한 상감 청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 예술을 선보였다. 한편 무신의 난 이후의 후기에는 불교 회화와 사찰 건축이 융성하였다. 특히 정교하고 섬세한 묘사력이 돋보이는 고려 불화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청자 오리형 연덕 (높이 8cm/12세기 전반/국보 제74호) 은은한 비색 목발을 지닌 비색 청자의 절정기에 제작된 것으로 탈락 있는 국산의 가슴부위 횡단 직선의 부리가 아름다운 완연한 조형미를 보여 준다.



황룡사지 석조 보살 좌상(높이 92.4cm, 10세기/국보 제34호)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65.5x101.5cm/1323년 작)

고달사지 월광대사 해진탑(높이 3.4m/977년경 직구보 제4호)경기 어주군 상곡리.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불각당 형태의 승탑으로, 기단부에 세겨진 역동적인 용과 거북 조각에서 고려 왕조의 힘이 느껴진다.

더 알아보기 |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지혜

우리의 선조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건축 고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전통 목조 건축을 발전시켰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산수 풍류가 성행하면서 신지 기법이 많이 세워졌다. 그 중 부석사 무량수전은 간결하고 단아한 주심포 양식에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배흘림기둥을 사용하여 고려 시대 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크면서도 유려하고 경쾌한 곡선미가 돋보인다.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 경/국보 제18호) 광복 양주시 부석면 소재 기암 위에는 공로를 베풀어 단아한 주심포의 건물로 배흘림기둥과 팔각 지붕이 편안한 안정감을 준다.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 지붕

조선 시대의 미술: 성리학에 기반을 둔 신진 사대부의 실용적이면서도 순수한 미술 문화를 감상하고 이해한다.

조선 전반기: 조선 초기~중기(1392~1700)

● 안건 /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서 박팽년과 함께 도원을 거닐었던 내용을 안건에게 그리게 하여 3일 만에 완성한 걸작이다. 이 그림은 안건뿐 아니라 명필가였던 안평대군의 서예, 또한 신숙주, 정인지, 김종서, 박팽년, 서거정, 성삼문 등의 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산수를 배경으로 안개에 싸인 숲 너머에 동양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안건은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 화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정4품 벼슬을 지냈으며, 북송의 광희 화풍을 연구하여 안건 화풍을 완성하였다.



몽유도원도 (비단에 수묵 담채/38.7x106.5cm/1447년 작)

● 청화 백자 속죽문 향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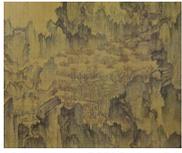
볼륨감 있는 형태와 강한 발색의 청화 문양이 돋보이는

조선 시대의 미술 | 선비 정신이 깃든 미술

개국 이래 엄격한 승유억불 정책을 시행한 조선은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단아하면서도 실용적인 문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조선은 국초부터 도화원을 설치하여 왕실 회화를 총괄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회화와 사예가 가장 수준 높게 발전하였으며, 그 양상도 매우 다양하였다. 분청사기와 백자로 대표되는 조선의 도자는 순수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경복궁, 창덕궁, 송대문, 종묘, 수원 화성 등의 건축물은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건축 기술을 보여 준다.

● **조선 초기(1392~1500)**

왕실을 중심으로 한 화원 화가와 사대부 문인 화가들이 송, 원, 명의 화풍을 수용하여 독자적인 회화 양식을 발전시켰다. 소박한 분청사기, 청아한 순백자, 화려한 청화 백자 등 조선의 도자 기술이 완성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도자를 생산하였다.



이명옥(조선 17~18세기) **홍몽도원도**(비단에 수묵 담채 38.7x106.5cm, 부분 1447년)



정화 **백자 송죽문 향아리**(높이 48.7cm/1489년)국보 제176호

● **조선 중기(약 1550~1700)**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지만 사대부를 중심으로 수묵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어부, 태극, 관복 등 은둔 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제들이 자주 그려졌다.



이명옥(조선 17~18세기) **어초문답도**(종이에 수묵 담채 94.2cm/1747년 후반)



김명국(조선 1600~17세기) **달마도**(종이에 수묵 83x57cm/1643년)

● **조선 후기(약 1700~1850)**

실학사상과 새로운 문화의 영향으로 민족적인 자주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예술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다. 진경 산수화와 풍속화가 등장하고, 서민들의 민화도 유행하였다. 추사체를 장인한 김정희는 남종화를 유행시켜 조선 말기의 문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홍도(조선 1745~1806?) **씨름**(종이에 수묵 담채 28x24cm/1847기 후반/보물 제527호)



수원 화성 **화서문**(1796년/보물 제403호) 장안영이 설계한 화성 성곽은 조선 후기의 과학 기술과 건축술이 집약되어 있다.



● **조희룡**(조선 1789~1866) **매화**(종이에 수묵 담채 106x45cm/1947기 초)

● **홍세섭**(조선 1832~1884) **유압도**(비단에 수묵 195x138cm/1947기 후반 초)

● **조선 말기(약 1850~1897)**

조선 말기는 근대 화단으로 연결되는 전환기로, 전통적인 남종 문인화풍과 개성이 강한 새로운 화풍이 공존하였다. 조희룡, 허연 등은 김정희의 문인화 전통을 이어 갔고, 김수철, 홍세섭 등은 새롭게 이색적인 화풍을 개척하였다. 오연 장승업은 산수, 인물, 화조, 영모 등 모든 영역에 뛰어나 조선 말기 화단의 거장으로 명성을 떨쳤다.

조선 후반기: 조선 후기~말기(1700~1897)

● **김홍도 / 씨름**

영·정조의 문예 부흥기부터 순조 연간 초기인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에 활동한 김홍도는 어릴 적부터 강세황의 그림 지도를 받으며 성장해 정조 때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되었다. 그의 풍속화들이 대부분 들어 있는 《속화첩》 중 하나인 씨름도로,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 있는 표정과 동작이 유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조희룡 / 매화서옥도**

조희룡은 조선 시대 후기에 문화 예술계의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여 말기에는 중심 세력이 된 중서 계층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매화는 조희룡이 가장 아끼고 즐겨 그리던 소재인데 이 그림에서는 함박눈이 내리는 깊은 산 속에 어둠이 깔리고, 은둔해서 살고 있는 선비가 책상에 호젓이 앉아 병 속의 매화 한 가지를 감상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 **홍세섭 / 유압도**

조선 말기 화단의 이색적인 화풍으로 주목받은 홍세섭의 대표작이다. 물살을 가르는 오리를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과 필선을 배제하고 수목의 농담 변화만으로 표현한 기법에서 과감한 개성이 느껴진다.

백자로 조선 왕실에서 송광사에 희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상 포인트: 조선 도자를 대표하는 분청사기와 백자를 비교 감상한다. 분청사기의 소박함, 순백자의 깨끗함, 청화 백자의 화려함을 감상하고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분청사기



순백자



청화백자

● **이명옥 / 어초문답도**

이명옥의 유일한 현존작으로 조선 시대 고사 인물화의 최고 걸작이다. 어부와 나무꾼이 만나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여기서 어부와 나무꾼은 생업이 어부와 나무꾼이 아니라 세속의 명리를 떠나 은둔하며 살아가는 선비를 뜻한다.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산을 좋아하는 어진 사람의 만남을 뜻하는 이 그림은 동양적 은일 사상의 이상적인 결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근대와 현대의 미술: 대한 제국기와 일제 강점기의 근대 미술의 특징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 미술의 변화를 감상하고 이해한다.

근대 미술(1897~1945)

● **이상범 / 초동**

1920년대에 등단하여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현대까지 활동한 이상범은 허구와 관념 예술에서 탈피하여 삶과 현실의 실체를 보여주자 하였다. 초동은 전통적인 서화 개념에서 벗어나 근대적 회화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양화 작품이다. 직사각형 화면과 제발이 사라진 점, 일상의 소박한 자연 경치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점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감상 포인트: 근대기의 새로운 여인상

• 나혜석의 《자화상》과 김기창의 《정청》 비교 감상

- 1) 한복 차림에 고무신을 신은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걸어가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모습과 현대적인 의상에 짧은 머리를 한 모던 여성의 모습이 공존했던 근대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김기창이 21살 되던 해인 1934년 제13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작품이다. 김기창의 첫사랑이었다고 하는 이소제라는 여인과 김기창의 여동생 기옥이 등나무로 만든 소파에 앉아 현대식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조용히 듣고 있는(정청, 靜聽)' 모습을 그린 것이다. 훗날 이 작품이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상했을 때 폐병을 앓고 있던 이소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한다.

● 오지호 / 남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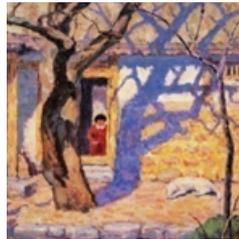
한국의 풍취를 우리만의 빛과 색채로 표현해 낸 오지호는 한국의 자연을 바탕으로 유화 수용과 인상파적 표현 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유화의 이론적 틀을 완성하였다. <남향집>은 이러한 오지호의 토착화된 인상주의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나무와 돌 축대의 그림자 부분이 청색과 보라색으로 처리된 것에서 그 인상파 회화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감상 포인트: 인상파 회화의 그림자 빛깔

- 모네의 인상주의 회화와 비교 감상
 - 그림자를 검은색 대신 푸른색이나 보라색으로 처리한 모네의 그림과 유사점을 찾아본다.



모네(Monet, Claude/프랑스/1840~1926) 건조 더미 (캔버스에 유채/60x100cm/1891년 작)



오지호(한국/1905~1982) 남향집(캔버스에 유채/80x 65cm /1939년 작)

현대 미술(1945~현재)

● 이중섭 / 아이들

피난 시절 회화 재료가 부족했던 상황 속에서, 이중섭은 담뱃갑 속 은박지에 그림을 새긴 은지화를 제작했다. 은지화 중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이중섭의 아들(두 아들이 있었음) 이라고 볼 수 있는 소년들인데, 그가 가족과 헤어져 언제나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담뱃갑 속의 은지가 재료였기 때문에 크기가 매우 작은 작품이지만 독특한 색깔과 질감으로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 박수근 / 세 여인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박수근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상과 장터의 사람들을 가난과 고통이 아닌 애정 어린 눈길로 화폭에 담아냈다. <세 여인> 역시 박수근 특유의 소박한 인물과 한국적인 풍경을 두터운 질감과 원근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감상 포인트: 재료의 본질과 추상 형식

김종영의 다른 조각 작품을 함께 감상하며 <무제>와 같은 추상 조각의 느낌과 특성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김종영 / 작품 79-15

깎지 않고 재료와 형태의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불각' 사상을 담은 대표작이다. 한국의 추상 조각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김종영은 돌, 나무, 금속을 재료로 하여 유기적인 생명감과 내면적인 정신성을 담아내는 조각 작업을 선보였다.

근대 미술 | 서양화의 도입과 근대 회화의 시작

대한 제국기(1897~1910)와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우리의 근대 미술은 전통을 이어가는 한편 서구의 다양한 미술을 수용하며 근대 회단의 기틀을 다졌다. 최초의 서양화가인 고희동은 비롯하여 구본웅, 나혜석, 오지호 등은 개성 있는 화풍을 발전시켰고,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 등은 전통 화법의 변화를 모색하여 근대적인 수묵 산수화를 전개하였다.



이상범(한국/1897~1972) 충동도(종이에 수묵 담채/75.3x18.5cm/1920년) 원종 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채문이나 발묘에 얽고 일상의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전통적인 서화 개념에서 벗어난 근대 회화의 면모를 보여 준다.



나혜석(한국/1896~1948) 세여성(캔버스에 유채/60x 48cm/제1차 연도 미화)



오지호(한국/1905~1982) 남향집(캔버스에 유채/80.5x65cm/1939년 작)



강장(1913~2001) 세여성(미얀마 채색/15.9x13.4.5cm/1934년 작)



김중영(한국/1915~1982) 세여성(동아를 연어한 나무놀이/128cm/1940년 작)

현대 미술 | 세계와 함께, 세계를 이끌며

광복 후 한국의 미술계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하면서 우리 고유의 정서를 표현한 한국적인 현대 미술을 발전시켰다.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등이 다진 현대 회화의 기반 위에 1960~70년대에는 비정형의 추상 회화와 한국적인 단색화가 발전하였다. 전통적인 한국화 또한 전통의 기반 위에 새로운 형식 실험을 시도하였고, 조각 역시 추상 조각이나 용접 조각 등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이중섭(한국/1916~1956) 아이들(은지화/9x5cm/1950년 작) 6.25 전쟁 당시 부산 피난 시절 회화 재료가 없어 담뱃갑의 은지에 불필요하게 그려진 것으로 해어진 가운뎃대 그림이 담겨 있다.



박수근(한국/1914~1965) 세 여인(캔버스에 유채/16.5x 33.5cm/1960년 작)



김중영(한국/1915~1982) 작품 79-15(돌/48x31x14cm/1979년 작) 동양의 불각(不刻) 사상을 바탕으로 인위성을 배제하고 재료와 형태의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추상 조각이다.



64-3, 자각상(나무/26x16cm/1964년 작) 무제(대리석/23x25x13cm/1970년대초 작)

● 서세옥 / 군무

서세옥은 정통 동양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회화 방법을 시도하였다. '인간' 시리즈 중 하나인 군무는 몇 개의 단순한 선으로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며, 함축적이고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과 묵법의 기운이 빛어내는 특유의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 오윤 / 피로

현대 관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오윤은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고 민화, 무속화, 불화, 탈춤 등 한국 전통의 민중 문화를 연구하여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해학과 민중적 신명을 날카로운 칼맛을 통해 담아낸 오윤의 목판화는 민중의 삶과 애환을 표현한 민중 미술을 대표한다.

1980년대 사회 참여적인 민중 미술에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다원성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이 확산되어 현대의 과학 기술과 뉴 미디어를 사용한 다양한 미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세옥(한국/1929~) 권우(중이에 수목/115.5x148cm/1988년 작)



오윤(한국/1946~1986) 피로(중이에 목판/24.1x34cm/1982년 작)



최우람(한국/1970~) 우나 루미노(중이 LED 등불이 500cm/2008년 작)



이동기(한국/1967~)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캔버스에 아크릴/30x90cm/2003년 작)



김수자(1957~한국) 보파리 트럭 이주자(상관 재단 비디오/9만 17초/2007년 작)

탐구 활동 1 조선 후기 문인화와 선비 정신 알아보기

이 그림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 화가 김정희의 <세한도>이다. 그림 우측 상단에 적힌 제목의 ‘寒(세한)’은 ‘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논어>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김정희는 이 그림을 언제, 어떤 이유로 그렸을까?



김정희(조선/1786~1866) 세한도(중이에 수묵/23x61.2cm/1844년 작/국보 제80호)

- ① “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② 그림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나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자.
- ③ <세한도>를 그렸을 때 완당의 개인적인 처지는 어떠했는지 찾아보고, 당시 그의 심정이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감상문을 써 보자.

▶ 점검해 보기

- 우리 미술의 혼용과 변천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
- 우리 미술 문화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는가?

83

감상 포인트: 21세기의 미술의 다양한 매체

우나 루미노,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 보파리 트럭을 비교 감상하며 21세기 미술의 다양한 재료와 매체, 자유로운 차용과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최우람 / 우나 루미노

최우람은 고고학, 생물학, 로봇 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형태의 움직이는 기계 생명체를 창조한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동·식물, 곤충들의 형태와 습성을 기반으로 설계된 그의 기계 생명체들은 기계 문명 시대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로 이름 붙여진다.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키네틱 조각이다.

● 이동기 / 국수를 먹는 아토마우스

이동기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이미지들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결합한 것으로, 추상과 구상, 물질과 정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실재와 환상 등을 뒤섞는다.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 작가가 되고 싶다. 창조하지 않는 것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이동기는 기존의 이미지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차용과 재창조의 작업을 진행한다.

● 김수자 / 보파리 트럭 이주자

김수자는 캔버스와 물감, 붓의 한계를 넘어 천과 바느질을 이용한 오브제와 설치 미술, 퍼포먼스와 비디오 작품으로 영

역을 확장해 가며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였다. 영상 속 보파리는 펼쳐졌을 때와 싸매졌을 때, 또 장소에 따라서 여러 의미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 보파리는 작가의 유년시절, 한국의 전통문화, 성년 시절의 끝없는 이주, 글로벌 시대의 이민자들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탐구 활동 1 조선 후기 문인화와 선비 정신 알아보기

| 세한도 |

김정희는 일찍이 박제가의 가르침을 받아 북학파의 거두로 성장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업적을 이루었으며 추사체라 불리는 독창적인 서체를 창안해 냈다. 그러나 노년기의 삶은 오랜 시간 유배 생활을 하여 평탄치 않았는데, <세한도>는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역관이었던 이상적이 중국에서 귀한 책을 보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려준 그림이다.

<탐구 활동의 예시>

- ① “추운 계절이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 여름에는 모든 나무의 잎이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사철나무가 푸르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다른 나무들은 추위 때문에 나뭇잎이 말라 떨어지지만, 소나무와 잣나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며 자신의 푸르름을 유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지만,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대부분 떠나 버린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알 수 있다고 한다.
- ② 그림 속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 나무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이야기해 보자.
 - 집 주변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있는데,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 ③ <세한도>를 그렸을 때 완당의 개인적인 처지는 어떠했는지 찾아보고, 당시 그의 심정이 이 그림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감상문을 써 보자.

단원	한국 미술의 여정
주제	<세한도>를 그렸을 때 완당의 처지와 심정

이 그림은 완당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 그린 그림이다. 벼슬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지만, 유배를 가니 찾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제자 이상적은 스승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책을 보내 주었다.

추운 겨울은 김정희가 유배를 가 있는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자신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제자 이상적의 변함없는 마음을 상징한다. 김정희는 자신을 잊지 않은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세한도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19

동양 미술의 자취

교과서 pp. 84~87

단원 설정 이유	동양의 미술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의 특징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2
학습 평가	동양 미술의 변천과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미술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용어와 지식의 활용 및 소통 능력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 연구 보고서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3-01 / 9미03-02 / 9미03-03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동기 유발]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각 특징이 잘 드러나는 미술 작품을 제시하고 어느 나라의 작품인지 맞혀 보는 활동을 한다.

전개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시대별 흐름과 미술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 시각 자료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양 미술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작품을 우리나라의 작품과 비교 감상한다.

정리

- 동양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미술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표해본다.
- 주요 작품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도상의 유의점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작품 감상을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미술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표현 활동과 연계하거나 시각 자료, 감상 학습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한다.
- 우리나라와 동양의 미술 작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감상의
즐거움

19

동양 미술의 자취

학습 목표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 중국, 일본, 인도를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16

생각 열기

일찍이 황하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중심으로 고대 문화의 기틀을 다진 아시아는 불교와 유교를 기반으로 서구와 다른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잦은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동양 미술의 자취를 살펴보자.

중국 미술

광대한 대륙에 다채로운 미술 문화를 꽃피운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한자와 유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인도로부터 받아들인 불교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종이와 먹을 개발하여 기록 문화뿐 아니라 수묵화와 사예 등 동양 특유의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정교한 청동기가 발전한 선사 시대와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 전한 시대(기원전 221~220)에는 대규모 진시황릉과 만리장성이 축조되었고 유교적인 주제를 담은 분묘 미술이 등장하였다. 이어 위·진 남북조 시대(220~589)에 북조는 둔황 석굴, 원강 석굴 등의 불교 미술을 발전시켰고, 남조에서는 유교를 바탕으로 회화와 사예가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당 시대(618~907)에는 궁정 회화와 청록 산수화 외에 수묵 산수화가 출현하였으며 화려한 당삼채 도자기가 제작되었다. 한편, 중국 회화의 전성기를 이룬 오패와 송대(907~1279)에는 위종 황제의 장려로 궁정 회화가 크게 부흥하였고, 이성, 발관, 광희, 미분, 미우인 등의 산수 화가가 활약하였다.



진시황릉 병마용(경도/토용 높이 약 190cm)인 양(3194년 송토)



니더를 탄 역사물(당삼채/높이 66.5cm/8세기 작품)



빙관(빙관/중국/7~1027) 계산행려도(도리단대 수묵/206.3x103.3cm/11세기 작품)



미분(미분/북송/1051~1107) 혼산서송도(공미에 수묵 단채/25x44cm/북송)

84

감상 포인트 및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중국 미술: 동양 문화권의 기반을 마련한 중국의 다채로운 미술의 흐름을 감상하고 서구와 다른 중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한다.

● 진시황릉 / 병마용

중국 최초의 중앙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세운 진의 황제 진시황은 아방궁과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한편 자신을 위한 거대한 능묘를 건립하였다.

1970년대 진시황릉의 동쪽 능도에서 발견된 병마용갱은 무덤을 지키는 병사와 말 소조상 8,000여 개가 매장되어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 '세계 제8의 불가사의'라 불린다. 흙으로 빚은 실물 크기의 병마용 모두가 제각기 다른 자세와 표정, 복장,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매우 다채롭고 지극히 사실적이다.

감상 포인트: 병마용 조각의 생생한 사실주의를 실감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개성 있는 얼굴과 자연스러운 손동작, 각기 다른 의복을 보여 주며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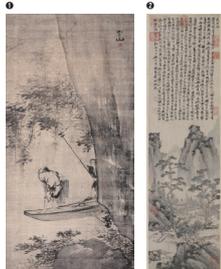
몽고족이 중국을 지배한 원(1271~1368) 제국 시기에 중국의 문인 화가들은 당국의 한을 수복 산수화와 복고주의적 화풍에 몰두했다. 특히 조맹부는 옛것을 숭상하여 학자적인 시정(詩情)이 담긴 고졸한 문인 산수화의 길을 열었으며, 그의 영향 하에 오진, 황공망, 예찬, 양몽 등 원시대가라 불리는 문인 화가들의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조맹부(趙孟頫)의 <산수화> (1291~1322) 작화추색도(종이에 수묵(묵선의 부분) 1295년 작)은 문인 산수화의 고졸한 양식과 북송의 고요한 강산 산수화 양식을 조화시켜 원사 대가의 문인 산수화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세해만 아니라 고(古)를 숭상하는 담론 및 그림으로도 명성을 떨쳤다.



예찬(倪瓚)의 <문인 산수화> (1301~1374) 용소계도(종이에 수묵/74.7x35.5cm /1372년 작)은 탁속을 상징한 빈 장자를 그린 이 그림은 고야하고 간결한 문인화의 대표작이다.



● 절벽(절벽) (1454~1538) 여부도(여부도) 수묵/130x69.2cm(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일본 교토호류사 소장. 극강한 필선을 대담한 구도를 사용한 명대 절벽의 대표작이다.

● 심주(沈周)의 <여부도> (1427~1509) 여부도(종이에 수묵/84.8x21.8cm /1492년경) 같은 명 사색에 담긴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담백하게 표현한 문인화로 오묘한 향연의 분위기를 높인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한족이 나라를 되찾은 명(1368~1644)에서는 자급성과 같은 거대한 공평이 축소되고 궁정 중심의 미술이 꽃피면서 화려한 청화 백자가 유행할 수 있었다. 과감한 필선을 사용하는 전기의 절파 화풍과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후기의 오파 화풍이 발전하여 조선 시대의 회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1644~1911) 또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예술을 적극 장려하였다. 전통 문인화풍이 유행하여 석도나 팔대산인 등이 개성 있는 수묵화를 발전시켰고 후기에는 서양에 문화를 개방하며 서양 화풍을 도입하였다. 20세기 들어 극렬한 변화를 겪은 중국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서양 문명의 충격과 영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현대 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 골대산인(大山人) (중국/1626~1705) 산간 산수화(종이에 수묵/31.7x27.5cm /694년 작)은

● 화단(花壇) (중국/1962~) 화단(화단에 유채/200x280cm/1992년 작) 입을 크게 벌리고 박진감 넘치는 화가의 모습을 반복해서 그려는 웨민첸의 그림은 복잡한 역사와 현상에 대한 혼란스런 심리를 마음과 조율으로 표현한 것이다.

● 양어장 수면 높이기 (중국/1965~) 양어장 수면 높이기(피프토너스 비디오 /1997년 작/메이징)

● 미불 / 춘산서송도

북송대 문인화를 개척한 미불은 '미점'이라고 하는 굵은 점을 가로로 눕혀서 찍듯이 그리는 '미법산수'를 새롭게 창안하였다. 미법산수는 여백을 활용하며 붓질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기품이나 품격이 있는 산수를 그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법이다. 미불의 정갈하면서도 기품 있는 산수화는 섬세한 기교에 치중하지 않으면서 서정적인 시정이 넘치는 문인 화적인 감성을 느끼게 한다.

감상 포인트: 원대의 복고주의적인 문인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전 영토가 북방 민족인 몽골족에 들어간 시기인 원대에 강남에 은거하던 한족 문인들에 의해 복고주의적인 문인화가 크게 성장하였다. 지평선이 낮은 평원 산수를 서예 기법으로 처리하여 서예와 회화의 일치를 추구하는 문인화 정신을 담고 있는 조맹부의 작품과 세속을 떠난 탁속의 경지를 쓸쓸한 분위기에 담은 예찬의 그림을 비교 감상한다.

● 조맹부 / 작화추색도

맹부가 고향인 호주(오늘의 절강성 오흥)에서 산동성 제남시 북쪽의 작산과 화산 일대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과거 남송대와 당대의 한족 문화를 그리워하는 복고주적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서예적인 기법과 청록 채색으로 문인의 이상향을 그려놓고 있다.

● 예찬 / 용소계도

예찬은 강남의 거부 가문 출신으로 문인들과 교류하며 서화를 벗하는 안일한 생활을 하였으나, 원 말기에 모든 재산을 농민에게 나누어주고 태호(太湖), 동정호(洞庭湖)에서 도롱이와 삿갓을 입고 배 한 척에 의지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의 산수화는 주로 태호 주변의 풍광을 표현하였는데, 토파와 수목이 있는 근경과 먼 산이 낮게 펼쳐진 원경 공간에 넓은 호수를 그려 황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간결하고 담백한 필묵법으로 명·청대 문인 화가의 추앙을 받았다.



감상 포인트: 북송대 화북산수와 문인화 비교 감상

1. 화북의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구름과 안개 속에서 괴량감 있게 드러난 모습을 담은 범관의 수묵 산수화와 세밀함 대신 여백의 미와 서정적인 시의를 살린 미불의 문인화풍 산수화를 비교 감상하며 느낌을 이야기한다.
2. 범관의 <계산행려도>와 미불의 <춘산서송도>를 비교 감상하며 조형적인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본다.

● 범관 / 계산행려도

범관의 그림은 중앙에 괴량감 넘치는 산을 배치하여 장대한 산수의 위용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그림으로 인해 거비파(巨碑派)산수라 불린다. 거대한 산 위에 관목들이 자라는 것이 특징이며 산의 표면에 가늘고 짧은 우점준을 촘촘하게 사용하였다. 중앙의 높은 산을 중심으로 거대한 산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장엄한 자연 속에 인물을 매우 작게 그리는 화북산수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감상 포인트: 재미있는 중국 현대 미술

<양어장 수면 높이기>와 같이 창의적인 발상과 협업이 돋보이는 중국의 현대 미술을 감상하며 미술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본다.

● 웨민첸 / 하늘

중국 현대 미술의 대표 작가이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드러낸 채 박장대소하는 특유의 인물 캐릭터를 반복해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언뜻 유머러스하게 보이는 이 웃음은 중국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야기된 개인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항과 슬픔, 분노, 체념이 뒤섞여 있어 역설적인 웃음이라 할 수 있다.

● 장 후안 / 양어장 수면 높이기

중국의 현대 미술가로 중국인으로써의 뿌리와 새로운 장소의 관계를 그려내며 행위 예술과 작품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작품은 중국 곳곳에서 베이징으로 일을 하기 위해 이주해

은 공사장 인부들, 어부, 그리고 육체 노동자들 등 사회의 바닥 계층 40여명을 모아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연못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물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작품이다.

일본 미술: 삼나라 일본이 중국, 한국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흡수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미술 문화를 형성했는지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한다.

● **교류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

현재 일본신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의 국보 83호인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과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의 초기 불상은 몸의 각 부분을 각각 여러 개의 나무로 만들어 조립한데 반해 이 상은 한 토막의 나무 전체를 조각했고, 재료 또한 일본의 노송이 아니라 신라 지역에서 많이 자라난 적송이어서 아마도 우리나라 삼국 시대의 불상이 교류지에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가쓰시카 호쿠사이 / 후지산 38경-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일본 에도시대에 활약한 목판 화가로 다색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 그림은 집채만 한 파도가 몰아치고 사공들은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으로, 채색 목판화 시리즈 《후지산 36경》 중 《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이다. 이 작품은 후에 마네와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 화가들과 반 고흐, 고갱 등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감상 포인트: 일본 목판화를 사랑한 반 고흐

일본 목판화의 단순하고 강렬한 디자인을 사랑했던 반 고흐는 히로시게의 목판화를 그대로 옮겨 그리기도 했다.



히로시게, 아타케모하시 다리의 소나기(목판화/37x25cm/1857년 작)



반 고흐, 비오는 날 다리(캔버스에 유채/73.3x53.8cm/1887년 작)

● **료안지 돌정원**

료안지는 일본 교토에 위치한 선종 사원이며, 가마쿠라 시대에 전해진 중국 산수화의 영향을 받았다. 연못이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흰 모래와 돌을 사용하는 '가레산스이(枯山水)'식 정원으로 15개의 돌이 놓여 있다. 이 돌들은 바다 위의 섬을 의미하며 우주와도 연결되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한번에 14개 밖에 볼 수 없어 오직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15개의 돌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일본 미술

일본은 삼나라의 고유한 전통의 기반 위에 동아시아 대륙의 문화를 흡수하며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다. 특히 6세기에 불교 미술이 전래된 이래 박승과의 교류를 통해 선종과 수묵화를 수용하여 문화를 완성하였고, 16세기에 유입된 서양 문화의 반작용으로 가부카나 우키요에 등 일본적인 미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가쓰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파도(1760~1849) 후지산 36경-카나가와의 거대한 파도(목판화/24.5x35.5cm/1831~1833년 작). 다채로운 색채와 뛰어난 선묘로 40여 명의 동행객을 세 명의 용왕과 함께 그려내며 괴기한 구도와 힘 있는 필선을 구사한 풍경을 개척하였다. 우키요에는 19세기 유럽에 전해져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요시토모 나라(奈良美智/일본/1959-) 잠 못 이루는 밤(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110x120cm/1997년 작) 요시토모 나라는 일본의 만화와 미국의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해 왔다.



교류지 목조 미륵반가사유상이 125cm(747경)인 스카시 시대 신라의 금동 미륵반가사유상과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삼국 시대의 불교 미술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신라교 체제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인도 미술

인적이 힌두교와 불교의 발생지이자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동서양 교류의 주요 지점이었던 인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술을 꽃피웠다. 고대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간다라 불상과 인도 고유의 마투라 불상은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2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장으로 불교와 힌두교 미술이 쇠퇴함에 따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는 무굴 제국 시대에는 궁전과 사원 등의 건축이 융성하였다.



① 산치 대탑(기원전 3세기경-기원후 12세기)
 ② 부처의 발자국(기원전 1세기경)
 ③ 부처의 발자국(높이 120cm)·2세기경(간다라 지역)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불교 조각을 대표한다.
 ④ 아난타 제 1비클 보살상(크레스코 벽화(462~500년경) 금다라)
 ⑤ 불주사 세발(높이 76cm)인제이 출라 왕조
 ⑥ 타지마할(1631~1642년 무굴 제국) 황제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타지마할은 무굴 왕조의 왕이 왕비를 추모하여 세운 무덤으로 궁궐의 정제미가 배어난 아름다운 건축의 정수이다.

탐구 활동

동양 미술 알아보기

- ①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언제 어떻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었는지 찾아보라.
- ②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부처 조각상을 조사해 보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발표해 보라.

● **요시토모 나라 / 잠 못 이루는 밤**

일본 네오 팝 세대의 대표 작가이다. 그의 작품에는 항상 순진해 보이면서도 악동 같은 표정의 어린 아이와 귀여운 동물들이 등장한다. 일견 귀엽고 순진해 보이지만, 현대인의 내면에 감춰진 두려움과 고독함, 반항심 등의 감정을 미묘하게 포착해 낸다.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 외로웠던 경험과 청소년기의 저항을 표현한 독특한 캐릭터를 창조한 것으로 일본 만화와 미국의 팝 아트의 영향을 받았다.

인도 미술: 불교의 발생지이자 동서양 문화 교류의 주요 지점이었던 인도의 미술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작품 감상을 통해 이해한다.

● **산치 대탑**

인도에 현존하는 탑 중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불탑이다. 이 탑은 인도 초기 불교 스투파의 전형이며, 특히 중인도 스투파의 형상과 구조를 대표한다. 대탑의 직경은 약 36.6미터, 높이는 16.5미터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 **부처의 발자국**

인도 안드라주 아마라바티에서 출토된 것인데, 안드라 지방은 간다라, 마투라와 더불어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4세기 초까지 인도 불교 미술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부처는 태어나 자마자 연꽃 꽃봉오리에서 걸어 내려왔다고 전해지는데 붓다가 발을 디딘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여 여러 곳에서 돌

동남아시아 미술

동남아시아는 타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의 대륙 일부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르는 섬 국가들을 지칭한다. 아시아의 동남부에 위치한 이 나라들은 일찍이 인도의 종교 문화와 중국의 한자 문화를 수용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미술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 및 불교가 융성하여 거대한 종교 건축물과 조각이 발전하였다.



앙코르 와트(12세기 초/캄보디아) 1개의 중앙 사원과 5개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사원 유적이다. 수백년 동안 캄보디아의 깊은 정글에 감추어 있던 이곳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탐험가가 처음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보로부두르 사원(9세기 후반~10세기 전반/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의 불교상은 균형잡힌 신체의 부드러움과 우아한 표현이 두드러져 인도네시아 미술의 고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앙코르 톨의 바이는 사원의 안면(13세기 전반/캄보디아) 20여 기 넘는 대형 안면들은 바이는 사원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다.

미술거리 **쉬빙의 '살아 있는 글자' - 그림과 문자의 만남**



'색을 뜻하는 글자가 책 속에서 나와 하늘로 날아오른다. 색의 형태를 문체 만들어진 상징문자 '寫'가 다시 새겨 되어 날아가는 듯한 광경이다. 중국의 현대 미술가 쉬빙(舒冰)은 이렇게 한자의 변형을 행할색 색 시각 미술로 보여 준다. 문자는 예로부터 그림과 깊은 관련을 지녀왔음을 생생한 설치 미술로 전달하고 있다. 쉬빙은 21세기의 문자 역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기호나 야이른을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그림 기호만으로 이루어진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쉬빙(중/중국/1955-) 자체(書)(2013년 작) 2003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그림 기호와 야이른 및 이모티콘 등을 모아 온 쉬빙이 그림 문자만을 사용하여 만든 책이다.

쉬빙(중/중국/1955-) 살아 있는 글자(아크릴에 채색/가변 크기/2001년 작)

- ▶ **정관해 보기**
- 동양 미술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아시아 미술과 우리 미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에 새겨진 붓다의 발자국을 볼 수 있다. 연꽃의 씨앗은 천년 후에도 싹을 틔운다고 전해져 아름다움과 영원을 상징한다. 부처를 인간의 형상으로 조각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부처의 발자국으로 그의 가르침을 표현했다.

● **부처 입상**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인도 간다라 미술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간다라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사실적인 불상이 출현한 후 수세기 동안 간다라 양식이라 불리는 불교 미술이 융성하였다. 장발의 곱슬머리, 깊은 눈과 오흘한 콧대, 물결치는 듯한 옷주름 등은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이다.

●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인도 이슬람 건축의 가장 완벽한 걸작으로 무갈 건축의 왕관이라 불린다. 세계 각지에서 가져온 채석과 반보석, 4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 실어온 백색 대리석 등으로 화려한 낙원의 이미지를 강조한 타지마할은 공사 기간 동안 매일 2만여 명의 기술자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모두 4천만 루피의 자금을 사용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설계의 측면에서는 수학적 계산의 정밀함과 기하학적 구조의 균형, 광학 효과의 변화를 강조하였고, 심미적으로는 화려하고 진귀하면서도 엄숙한 찬란함과 수정 같은 순수함과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동남아시아의 미술: 힌두교와 이슬람교 및 불교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에 소재한 앙코르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앙코르 와트는 전반적으로 인도의 영향도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건축의 형태나 석조 장식 등에서 앙코르 왕조의 독자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앙코르 왕조는 13세기 말부터 쇠망하기 시작하여 15세기경에 멸망하였고 이후 정글 속에 묻혀버렸다. 그러다 1861년 표본채집을 위해 정글에 들어간 프랑스 박물학자가 이곳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보로부두르 사원**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사원으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 미얀마의 바간과 함께 세계 3대 유적으로 꼽힌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아지는 피라미드형 구조이며 단 위에는 벽면을 따라 불교 이야기와 당시 사람들의 삶이 표현된 천 개가 넘는 조각상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탐구 활동 1 동양 미술 알아보기

① **불교의 전파에 대해 찾아보자.**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인도에서 출현한 불교는 기원후 1세기 경 중국 한나라에 전파되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를 수용하였는데, 고구려는 372년 중국 북조의 전진으로부터, 백제는 384년 중국 남조의 동진으로부터, 신라는 5세기경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한편 6세기 중엽 백제의 성왕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했다. 불교는 주로 승려들을 통해 불경과 불상이 소개되면서 널리 확산되었다.

②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 조각의 특징을 살펴보자.**

인도의 간다라 불상, 중국 당대 룬인 석굴의 비로자나 불상, 우리나라 통일신라 석굴암의 본존불상, 일본 아스카 시대 호류지 금동관음보살입상 등을 비교 감상하며 각 나라의 특징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본다.

■ **지식 참고**

• **쉬빙 / 살아 있는 글자**

중국의 설치 미술가이자 서예가인 쉬빙은 중국의 오랜 문자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살아 있는 글자'는 전통적인 활자를 살아 움직이는 그림 문자가 되도록 구성된 설치 작업으로, 문화 변동과 재구성의 가능성을 실험함으로써 문자 전통과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게 한다.

• **쉬빙 / 지서**

쉬빙이 7년여에 걸쳐 완성한 책이다. 이 책은 각국의 심볼과 기호 2,500여 개만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하나도 없는 책으로 문맹자도 읽을 수 있으며, 기호가 내포하는 의미를 독자가 스스로 추적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읽는 사람에 따라, 또 읽을 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형식의 책이다.

단원 설정 이유	서양 미술을 살펴보면서 세계의 문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의 특징을 탐구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 미술 문화의 흐름과 변천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 • 서양 미술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별, 지역별 양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4
학습 평가	서양 미술의 변천과 특성에 대한 이해 능력, 미술 작품의 맥락적 해석 능력, 미술 용어와 지식의 활용 및 소통 능력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보고서법, 연구 보고서법, 관찰법, 토론법
교과 역량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성취 기준	9미03-01 / 9미03-02 / 9미03-03 / 9미03-04

교수 · 학습 과정

도입

[생각 열기]

- [생각 열기]에 제시된 그림과 내용을 이용하여 서양 미술의 역사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입한다.

전개

- 서양 미술의 주요 흐름을 세계사의 맥락적 흐름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시대별, 지역별 양식의 특징을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작품을 소개하고 핵심 미술 용어와 다양한 배경을 설명한다.
- 서양 미술의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독 감상 및 비교 감상을 진행하고 자유롭게 토론한다.

정리

- 작품 감상 후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 본다.
- 각 시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미술사적 특징을 주요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 서술해 본다.

지도상의 유의점

- 작품을 감상할 때 지나치게 설명적이거나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대별 미술 사조의 배경과 사회 제도, 지리적 환경에 따른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준비한다.
- 20세기 이후 서양 미술은 다양한 사조가 등장하기 때문에 사조에 해당하는 설명과 특징을 요약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20

서양 미술의 모험

학습 목표

- 서양 미술 문화의 흐름과 변천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서양 미술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별, 지역별 양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미술 ① - 16

생각 열기

미술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

많은 화가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술 작품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변형시켜 왔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어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재창조'라 하는데, 미술의 역사는 바로 끊임없는 재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로의 그림도 그런 예이다. 미로가 그의 그림에서 17세기 네덜란드 풍속화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살펴보고, 무엇 때문에 그의 그림이 과거의 회화보다 한층 독창적이고 개성 있어 보이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소르그(Sorgh, Hendrik Martenszoon 네덜란드/1610~1670년) 루트 연주자미로 (대형에 유채/91.5×88.5cm/1669년)



미로(Miro, Joan 에스파냐/1893~1983년) 네덜란드 실베르벤스의 유채/91.8×73 cm/1938년 작

생각해 보기

피카소의 이 그림은 과거의 어떤 작품을 재창조한 것일까?
=> 책에서 찾아보자.



피카소(Picasso, Pablo 에스파냐/1881~1973년) 시녀들 (앤버스의 유채/194×260cm/1957년 작)

감상 포인트 및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 생각 열기를 위한 감상 포인트

1. 비교 감상: 미로의 그림과 소르그의 그림을 보여 주며 유사점을 찾아보게 하고 미로가 소르그의 그림을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이야기하도록 한다.
2. 피카소의 그림을 크게 보여 주고 교과서에 실린 어떤 그림을 변형한 것인지 찾아보게 한다.
3. 미로나 피카소의 그림이 왜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면서 재창조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헨드릭 소르그 / 루트 연주자미로 / 네덜란드 실네

17세기 네덜란드의 풍속화인 소르그의 그림을 후양 미로가 초현실주의적인 기법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변형시켜 재창조하였다. 특히 미로는 무의식적인 잠재의식과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자동 기술법(오토마티즘)을 활용하여 소르그의 인물과 동물들을 기묘한 형태로 변형시켰다. 사실적으로 그려졌던 대상의 형태와 비례를 자유롭게 변형시켜 환상적이면서도 생기와 유머가 넘친다.

● 피카소 / 시녀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1656)을 재창조한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서양의 미술은 선사, 고대,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이 발전하였다. 특히 20세기에는 추상 미술뿐만 아니라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미술이 출현하여 실험적이고 다양한 현대 미술이 융성하였다.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서양 미술의 흐름을 살펴보자.

선사 시대 | 수수께끼 속의 미술

문자가 없었던 선사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인류는 어떤 이유로 조각과 회화 및 거석 구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을까? 선사 시대의 미술은 주술이나 제의적인 목적을 지닌 것으로 추측되지만 최초의 미술이 왜 탄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스톤헨지 (경도: 높이 4.5m, 폭 29.5m) 기원전 2000년 경, 선사 시대 영도 남서부에서 선사 시대에 어떻게 거대한 돌을 운반했는지는 아직도 불가사의에 속한다. 최근에는 위가재 구조물이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일종의 천문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석회암 높이 1.1cm) 구석기 시대 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작은 크기의 조각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미술 | 고대 문명의 탄생

대표적인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으로 인해 매우 상이한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집트가 파라오의 불멸을 기원하는 피라미드와 미라 등 무덤 미술을 발전시켰다면, 현재의 중동 지역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현실적인 법전과 신전 건축이 융성하였다.



● **기자의 피라미드** (기원전 2500~2470년 경)
● **투탕카멘 왕의 장례 마스크** (이탈로 상경한 금과 보석 높이 18.5cm) 기원전 1340년경

함무라비 법전이 세계적 석판과 제1 문자(높이 213cm) (기원전 1760년경)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은 제1 문자로 법전을 세겨 인류 최초의 상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을 남겼다.

그리스와 로마의 미술 | 서양 문화의 뿌리

서양 문화의 직접적인 뿌리인 그리스 미술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고전주의의 원천이 되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로마 제국은 그리스의 미술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포에이론(청동) (높이 208cm) 기원전 460~450년경, 균형, 비례, 조화가 뛰어난 그리스 조각의 이상적인 사실주의 이후 고전주의의 범례가 되었다.

서모트라케의 니케 (대리석) (높이 244cm) 기원전 200~190년경

콜로세움 (로마) (지장 길이 188m, 폭은 폭 156m, 둘레 52m(72~80m)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황황 경기장인 콜로세움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오늘날의 스타디움 건축에도 응용되고 있다.



실제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고, 이 작은 조각상은 무슨 역할을 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본다.



라스코 동굴 벽화, 구석기 시대/기원전 15,000년경.

● **기자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으로 신과 같은 파라오의 영생을 위해 지어졌다. 피라미드 내부에 미라가 있는 작은 매장실이 있는데 무거운 석회석 돌덩어리를 견디기 위해 고도의 기술과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 **투탕카멘 왕의 장례 마스크**

투탕카멘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유일한 왕묘로 그 가치가 높다. 3,000년 만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무덤 안은 온통 황금 더미로 둘러 싸여 있었으며 황금으로 장식한 의자, 왕관, 벽면들 그리고 3개로 포개진 관 속에서 가장 안쪽에 있던 왕의 미라를 감싼 황금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황금 부장품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파라오의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선사 시대 미술과 고대 문명의 탄생: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선사 미술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미술의 차이를 감상하고 이해한다.

감상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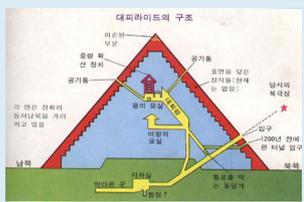
1. 선사 시대의 미술의 경이로움: 제대로 된 도구는 커녕 생존 자체도 힘들었던 구석기인들이나 신석기인들이 어떻게 것처럼 놀라운 동굴 벽화, 조각, 거석 유적을 남겼는지 여전히 수수께끼 끼임을 강조하며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고대 문명의 세계관을 담은 미술: 고대 문명은 문자의 창조, 종교와 정치 제도의 등장, 국가의 탄생 등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문명 발생지의 자연환경 및 종교와 관련된 미술 문화가 발전한다.

●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1909년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이 조각도 그중 하나이며, 생존과 번식이 중요했던 그 시기에 다산을 염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조각상의 정확한 기능은 지금도 알 수 없다. 10cm 조금 넘는 크기이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여 실제 크기보다 커보이는 느낌을 준다.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동굴 벽화도 함께 감상한다.

탐구 활동 더하기

- 피라미드의 내부는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을까?
-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람세스 2세의 미라(부분) 기원전 1235년 경)

파라오의 무덤인 피라미드의 내부에는 왕과 왕비의 묘실이 있고 미라가 썩지 않도록 환기를 위해 공기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도구를 막기 위해 함정들이 설치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미술 감상 포인트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조각된 그리스 조각을 감상하며 어떤 이유로 아름답게 보이는지, 즉 어떤 조형 원리로 인해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적에게 벼락(또는 삼지창)을 내리치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앞으로 내디딘 왼쪽 다리가 체중을 지탱하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는 신축성 있는 지구가 되어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트라포스트의 발전에 의해 조각가는 아무리 격렬한 움직임이더라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었다.

● 사모트라케의 니케

승리의 여신이라 불리는 니케의 조각상으로 헬레니즘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니케 여신이 뱃머리에 내려와 앉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 바람과 바닷물로 인해 여신의 옷자락이 몸에 밀착된 채로 휘감아 올라가고 있어 생생한 느낌을 준다.

●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가 죽은 후 시내의 인공 연못을 메워 건축된 로마 최초의 오락장이자 공적인 행사 집행 장소, 검투사들의 격투를 관람하던 경기장이다.

약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이며 둥근 형태의 3층 건물로 그리스 건축 양식과 로마의 실용적인 건축 양식이 결합된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이곳에서 80년 도에는 백여 번의 경기가 열렸고 맹수 5천 마리가 죽었다고 전해진다.

중세의 종교 미술: 종교가 미술 문화뿐 아니라 정치, 사회, 학문 전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1,000년 동안의 중세 서양 미술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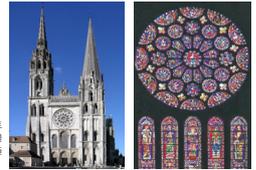
● 샤르트르 대성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장미창

유럽 대륙이 비교적 안정을 누렸던 12세기~14세기 동안 발전된 고딕미술의 대표적 예이다. 높은 아치형 천장을 받치는 산뜻한 골조와 좁고 높게 솟은 기둥, 넓어진 벽을 빼곡하게 메운 뾰족한 아치형 창, 창 안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선, 기둥과 함께 늘어진 침착하고 인자한 느낌의 인물 기둥 조각상 등에서 신앙심과 교회의 권위를 느낄 수 있다.

스테인드글라스 중 장미창이라 불리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였다. 인간이 작은 우주라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장미창은 하나의 진리로 이어지는 깨우침의 문이라 볼 수 있다.

중세의 미술 | 절대자를 향한 종교 미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5세기부터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15세기 중엽까지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서양의 미술 문화는 기독교 중심의 종교 미술이 융성하였다. 중세 미술의 황금기는 비잔틴 미술과 로마네스크 및 고딕 교회 건축에서 절정에 달한다.



샤르트르 대성당과 스테인드글라스 장미창(12세기 중반~13세기 초) 프랑스 샤르트르 고딕 건축의 벽과 사이라 불리는 샤르트르 대성당은 초기 고딕 양식의 정수를 보여 준다. 특히 영웅형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는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대한 책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르네상스 미술 | 고대의 부활과 인문주의적 문화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화가 재탄생하여 인문주의적 문화가 융성한 시기였다.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시작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은 종교적인 내용과 고대의 고전 문화를 융합하여 이상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북유럽에서는 자연 관찰을 토대로 하여 사실적인 세부 묘사가 두드러지는 회화가 주로 제작되었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의 조각(1475~1564) 아담의 창조(르네스크) 1508~1512년 작 비탄인 시스티나 예배실 율리아 남자는 창조주가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순간을 그린 장면이다. 미켈란젤로의 영동적인 구성은 인간의 감정과 신의 숭고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판 에이크(Van Eyck, Jan)의 《아담과 이브의 창조》(1435년 1390~1441) 《아담과 이브의 창조》(1435년 1434년 작) 북유럽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지극한 세부 묘사가 돋보인다. 화면 중앙에 있는 기둥에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모습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더 알아보기 | 다빈치의 노트는 무엇이 특별한가?

르네상스 거장인 다빈치는 엄청난 기록광이었다고 한다. 그는 생분, 지리, 천문학, 해부학에 관련된 그림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사색과 과학적인 설명 등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 7천 페이지 정도의 노트가 전해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1만 5천 페이지 이상을 작성했다고 한다. 1994년 미국의 빌 게이츠는 36페이지 분량의 다빈치 노트를 3,100만 달러에 340억 원에 구입하여 그 내용을 연구하게 하였다. 다빈치의 기록을 창의적인 상상력의 모고라고 여겼던 것이다.



다빈치는 화가가 변태로 뒤바뀐 글씨를 써서 그의 노트는 거기에 비해 보아야 비로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비트루비우스의 사람》(1485~1508년 작) 왕국의 성모(마리아) 유채(189.5x200cm/1495~1508년 작)

르네상스 미술: 중세가 끝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 문화와 인문주의 사상이 다시 부활한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인간의 관심이 천상과 종교로부터 다시 지상과 현세로 내려오면서 미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감상하고 각자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감상 포인트

3대 거장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인체의 아름다움과 인간 중심 사상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였는지 비교해 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 리자(1503~1506) - 스푸 리자(1503~1506) - 스푸 미켈란젤로, 다비드(1501~1504) - 해부학적인 정교함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하여 인간을 신비로운 존재로 표현하였다. 라파엘로, 세세 요한과 성모(1504) - 균형 잡힌 구도와 친근한 모습을 통해 현세적인 성모상을 표현하였다.

● 미켈란젤로 / 아담의 창조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가로 교황의 명을 받아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렸다. 성서 내용의 역순으로 노아 이야기,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낙원 추방, 아담과 이브의 창조,

바로크 미술과 로코코 미술 |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의 문화

바로크 미술은 17세기 절대 왕정 시대에 유럽 전역을 뚫어놓은 미술 사조로 강렬한 명암 대비와 생생한 묘사로 감동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식이 특징이다. 종교 개혁에 맞선 로마 교황청의 반종교 개혁의 목적으로 시작된 바로크 미술은 프랑스, 스페인 및 플랑드르로



카라바조(Caravaggio, Michelangelo)의 **아담의 창조**(1511~1513) 성 도마의 라벤나에서 유해(107x66cm/1602년 작) 독일 포츠담 성서사관

확산되어 극적이면서도 웅장한 예술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바로크 양식과는 달리 우아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미술은 18세기 프랑스와 중부 유럽의 귀족 계급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벨라스케스(Velázquez, Diego Rodríguez de Silva y Goitia)의 **필리프 4세의 가족**(1656~1661) 마드리드(켄트스에 유해)(18x276cm/1656년 작) 스페인 플라메 2세대 왕실 화가였던 벨라스케스는 마드리드에서 궁중의 사람들을 담은 이 거대한 초상화에 자신의 모습 또한 중요하게 그려 놓았다. 보는 이가 마치 실제 공간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프랑수아즈(Fragonard, Jean-Henri)의 **그네**(켄트스에 유해)(1732~1806) 프랑스 (1732~1806) 그네(켄트스에 유해)(164.2cm/1767년 작)



부세(Boucher, François)의 **마담 퐁파두르**(켄트스에 유해)(1733~1770) 마담 퐁파두르(켄트스에 유해)(72.5x175cm/1758년 작)

신교전주의 미술 | 이성적 질서와 계몽주의의 원리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신교전주의 미술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 미술에 반대하고 이성적인 질서에 대한 믿음과 계몽주의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신교전주의 미술은 프랑스 혁명의 애국적인 영웅과 도덕적인 주제를 영리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표현하였다.



● **다비드**(David, Jacques-Louis)의 **프랑스의 1789-1825** **마라의 죽음**(켄트스에 유해/165x128cm/1793년 작)
● **다비드**(David, Jacques-Louis)의 **프랑스의 1789-1825**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켄트스에 유해/330x425cm/1784년 작)



세부 프랑스 혁명의 금인주의를 대표했던 마라는 피부병으로 인해 목욕탕에서 집무를 보다가 중 앙상당했다. 다비드는 마라의 모습을 성스러운 순교자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늘과 물의 분리, 달과 해의 창조, 빛과 어둠의 창조를 표현한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를 프레스코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4년 동안이나 지속된 천장 작업 탓에 목뼈가 기울어져 버렸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한 그의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그가 표현한 근육질의 인체는 그가 조각과 해부학에도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판 에이크 /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부유한 은행가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가 성스러운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초상화이다. 플랑드르 지역의 북구 르네상스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예수의 존재와 축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촛불, 충성을 뜻하는 강아지, 거룩한 순간을 상징하는 신발을 벗은 모습 등이 매우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바로크와 로코코 미술: 17~18세기의 미술 문화가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특히 바로크 미술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극적으로 사용하여 작품의 내용을 생생하고 전달하고, 로코코 미술이 화려하고 장식적인 형식을 통해 귀족 사회의 취향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상을 통해 확인한다.

● **벨라스케스 / 시녀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초기에는 경건한 종교적 주제를 그렸으나 민중의 빈곤한 일상에도 관심이 많았다. 왕족부터 어릿광대, 난쟁이까지 구분 짓지 않고 모델로 삼아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여 인간 존재의 중요성과 본질적인 비극성까지 추구하였다. 공기의 두께에 의한 원근법이라는 혁신적인 표현 기법을 시도했던 그는 진동하는 빛의 파장과 대기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여 인상파의 출현을 예고했다고 평가받는다.

● **카라바조 / 성 도마의 의심**

성급하고 난폭한 성격이었던 그는 극단적인 해석과 충격적인 표현으로 주목받았다. 종교화를 주로 그렸지만 기적이나 성스러운 모습 보다는 일상을 배경으로 실제 사건인 것처럼 사실적으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제자들이 예수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확인하는 그림으로,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명암의 극적인 대비와 어둠과 빛의 대조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실주의적인 테네브리즘 기법은 17세기 전 유럽 화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부세 / 마담 퐁파두르**

인공적이고 화려한 느낌의 로코코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부세는 자연이 너무 침침하고 색이 짙다는 이유로 자연을 그대로 그리는 것을 거부했다. 루이 15세의 정부였던 마담 퐁파두르의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그린 작품으로, 그녀의 모든 초상화 중 가장 화사한 모습으로 꼽힌다. 이 시기는 그녀가 루이 15세의 공식 정부로 승인되고 난 후 공작부인으로 승격해 당시 여성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최고 권력에 올라섰을 때였다고 한다.

신교전주의 미술과 혁명의 정신: 절대 왕정과 귀족 사회를 무너뜨린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이 신교전주의 미술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감상을 통해 이해한다.

● **다비드 / 마라의 죽음**

다비드는 혁명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는 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그의 예술은 공화국의 선전을 위해 쓰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격렬한 감동을 주고 조국에 대한 영광과 헌신의 씨를 뿌리는'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비드의 친구이자 급진주의 측의 대표였던 마라는 피부병으로 인해 욕탕에서 집무를 보다가 반혁명 분자에게 살해당했다. 다비드는 이 사건을 마치 현장 사진처럼 생생하게 기록하여 그림으로 남겼는데, 마라의 포즈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속 예수와 흡사하게 표현하여 현대의 그리스도처럼 묘사하였다.

● **다비드 /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로마와 알바의 치열한 접전 끝에 각국에서 세 명의 대표 전사를 겨루게 하여 결판을 짓기로 하였다. 로마의 호라티우스 일가의 삼형제가 선출되어 싸움 끝에 승리하였는데, 호라티우스 가문의 딸 중 하나가 알바 가문의 한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통곡하며 전쟁에 나가는 오빠를 저주한다. 격분한

오빠는 그녀를 찢어 죽이고, 결국 로마의 엄격했던 법에 따라 친족 살인죄로 추방당한다. 이 그림은 절제된 색채와 긴박감이 느껴지는 화면 구성으로, 삼형제가 출전을 앞두고 아버지 앞에서 용감하게 싸울 것을 맹세하고 있으며 여인들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미술 비교 감상 포인트

세 미술 사조의 대표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형식적으로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형식적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세 미술 사조의 사상적인 차이점을 설명한다.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1784) - 나라를 위해 헌신을 맹세하는 영웅적인 형제들을 표현.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1818) - 송고한 자연을 마주한 방랑자의 감동을 표현. 쿠르베, 돌 깨는 사람들(1850) - 힘든 농동을 하는 사람들의 고된 삶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

정열의 낭만주의 미술: 엄격한 이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미술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상상력과 뜨거운 정열을 강조했던 낭만주의 미술의 양식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들라크루아 /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바리케이드 위에 서서 혁명과 사람들을 이끄는 자유의 이념을 여신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프랑스인 여성의 이상화된 모습이기도 하다.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들라크루아의 역동적인 구도와 강렬한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 **프리드리히 /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독일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프리드리히의 작품으로 자욱한 안개 바다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대자연에 홀로 마주 선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슬픔과 고독감뿐 아니라 인간 정신의 숭고함이 느껴지는 풍경화로 숭고미(the Sublime)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주요 작품이다.

사실주의 미술 속의 현실과 자연: 현실과 자연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농부와 노동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자 했던 사실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쿠르베 / 돌 깨는 사람들**

그 당시 유럽을 휩쓴 혁명의 영향을 받아 직접 경험하고 본 것만을 그리는 사실주의자가 된 쿠르베의 초기 작품으로,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있는 그대로 두 인부가 일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린 청년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노인에서 그 의도를 느낄 수 있다.

낭만주의 미술 | 감정의 표현과 순수의 열정

이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미술과는 달리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미술 사조는 순수한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였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싹튼 낭만주의 미술은 격정적인 주제나 경이로운 자연을 정열적인 색채와 극적인 구성으로 표현하였다.



테너(Turner, Joseph Mallord William /영국/1775-1851) 노예선(캔버스에 유채/90.8x121.9cm/1840년 작) 테너는 1907년에는 노예제를 폭우 치는 바다에 바닷길 바닷길로 노예 선상에 탄 한 사람과 격렬한 원자로 색채로 표현하였다.



들라크루아(Delacroix, Ferdinand Victor Eugène /프랑스/1798-1863)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캔버스에 유채/260x325cm/1830년 작)



프리드리히(Friedrich, Caspar David /독일/1774-1840)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캔버스에 유채/94.8x74.8cm/1818년 작)



밀레(Millet, Jean-François /프랑스/1814-1875) 아낙 줄은 여인들(캔버스에 유채/83.8x111.7cm/1857년 작) 노르망디의 시골 농가에서 태어난 젊은 시골 가부장 생활을 했던 밀레는 일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소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담하게 묘사하여 표현하였다.

사실주의 미술 | 현실과 자연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 반기를 든 사실주의 미술은 현실과 자연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고된 삶을 소박하면서도 영웅적으로 표현하였다.



쿠르베(Courbet, Jean Désiré Gustave /프랑스/1819-1877) 돌 깨는 사람들(캔버스에 유채/165x257cm/1850년 작) 2차 세계 대전 당시 파괴되었다.



도미에(Daumier, Honoré /프랑스/1808-1889) 삼등 열차(캔버스에 유채/65x90cm/1862-1864년 작)

인상주의 미술 | 자연의 빛과 순간의 아름다움

어두운 작업실에서 벗어나 튜브 물감을 들고 야외로 나선 인상주의의 화가들은 이전의 명암법과 견고한 구성을 버리고 스텝 사진처럼 순간에 포착되는 인상을 캔버스에 빠르게 그려내고자 하였다.



모네(Monet, Claude /프랑스/1840-1926) 수련(캔버스에 유채/89.9x94.1cm/1906년 작)



르누아르(Renoir, Pierre-Auguste /프랑스/1841-1919) 신상 피터의 점심(캔버스에 유채/130.2x75.6cm/1880-1881년 작)

● **도미에 / 삼등 열차**

현실의 한 장면을 소재로 삼은 그림으로, 도미에는 주로 귀족과 정치가들의 으스대는 모습을 풍자하거나 일상생활 속 소외된 군중들을 그렸다. 삼등 열차에 뻣뻣하게 들어선 인물들을 통해 노동자와 소외 계층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밀레 / 이삭 줍는 여인들**

밀레는 바르비종에 살며 평화롭고 목가적인 농촌 풍경을 즐겨 그렸다. 안정된 구성으로 '일하는 사람'을 배치한 소박한 노동의 모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깊은 교감을 보여준다.

인상주의 미술과 순간의 아름다움: 어두운 작업실에서 벗어나 자연광이 빛나는 야외에서 근대 도시의 활기 넘치는 모습을 화폭에 담았던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 **모네 / 수련**

모네는 1883년 지베르니로 이사한 후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라 칭했던 수련 시리즈를 그리게 된다. 수련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자 매일 꽃을 물로 씻었을 정도로 수련과 수련 연못을 사랑했다고 한다. 연못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 모네도 작품 사이즈를 늘려 연꽃을 표현하였고, 백내장이 생기며 시력이 점차 약해지자 그의 수련도 갈수록 흐릿해져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간마다 변화하는 수련의 반사광이다. 수면에 반사되는 하늘 덕분에 빛과 움직임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후기 인상주의 미술 | 순간을 넘어 내면의 세계로

아외의 빛과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고자 했던 인상주의 예술가들과 달리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은 내면의 감정과 영속적인 자연의 구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창조적인 정신과 새로운 형식을 강조한 이들은 이후 20세기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석고상이 있는 정물(보노와 동이에 유채/70x57.3cm/1895년 작)
 ●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귀가 잘린 자화상(캔버스에 유채/60x49cm/1889년 작)
 ● 고갱(Gauguin, Paul/프랑스/1848-1903) 아이 오아나 마리아(아에 마리아) (캔버스에 유채/81.7x117.3cm/1891년 작)



20세기의 미술 | 표현주의, 아수주의, 입체주의

20세기의 현대 미술은 색채와 형태의 해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키르히너의 표현주의와 마티스의 아수주의 미술은 강렬하고 원초적인 색으로 색채의 혁명을 일으켰고, 피카소의 입체주의 회화는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형태와 공간을 화폭에 담아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하였다.



● 키르히너(Kirchner, Ernst Ludwig/독일/1880-1935) 베를린 거리(캔버스에 유채/120.6x91cm/1931년 작)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녹색의 피아노(캔버스에 유채/40x32cm/1905년 작) ● 피카소(Picasso, Pablo/스페인/1881-1973) 기타, 악보, 유라칸(캔버스에 유채/24.4x23.4cm/1907년 작) ● 피카소(Picasso, Pablo/스페인/1881-1973) 기타, 악보, 유라칸(캔버스에 유채/48.3x36.5cm/1912년 작)

20세기의 미술 | 미래주의와 구축주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미술과 러시아의 구축주의 미술은 역동적인 3차원의 조각과 구축물을 통해 기계 문명의 힘과 속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보초니(Boccioni, Umberto/이탈리아/1882-1916) 공간에서 연속성을 보여주는 특이한 형태(동판/88x11.2x40cm/1931년 작)
 ● 타틀린(Tatlin, Vladimir Yevgraphovich/러시아/1885-1953) 대안타타리안 기념비(철 모델/나무, 철, 유리/높이 167cm/1919-1920년 작)

● 르누아르 / 선상 파티의 점심

르누아르와 친구들이 뱃놀이를 하던 센 강변의 샤투 지역에 있는 식당에 모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자유로운 붓터치와 부드러운 색감을 통해 삶을 즐기는 이들의 행복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비교 감상 포인트

자연광의 시각적 현상을 포착하려고 했던 인상주의 회화와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후기 인상주의 회화를 비교 감상하며 그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해 본다.

후기 인상주의 미술: 인간의 내면적인 감정과 자연의 영속적인 구조를 탐구했던 후기 인상주의 회화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세잔 / 석고상이 있는 정물

다시점적인 느낌이 강한 세잔의 정물화로, 공간의 구성이 모순적일 정도로 뒤틀려 있다. 정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것임에도 바닥은 그 뒤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 장의 캔버스는 큐피드상 뒤쪽 벽을 향해 지그재그로 비스듬히 튀어나와 공간을 가르고 있지만 원근감은 찾아볼 수 없다. 세잔의 회화가 피카소의 입체파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다.

● 반 고흐 / 귀가 잘린 자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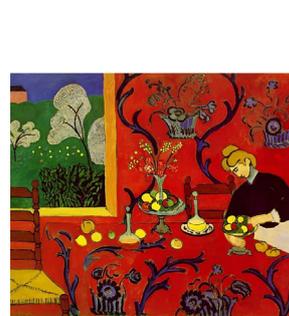
그는 생전에 40여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 이는 네덜란드 출

신의 화가인 렘브란트를 제외하면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작품 수이다. 그의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하고 있어 고통 받는 그의 영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고갱과의 다툼 끝에 자해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후에 그려진 작품이다. 매우 제한적인 색채로 고통스러운 감정을 눈에 집중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나는 성당을 그리느니 인간의 눈을 그리겠다. 성당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인간의 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표현주의, 아수주의, 입체주의: 20세기 초 유럽의 표현주의, 아수주의, 입체주의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회화 작품들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아수주의와 입체주의 미술 비교 감상 포인트

조형 요소와 관련하여 아수주의는 강렬한 색채를, 입체주의는 형태의 분석을 중시한다는 점을 비교 감상을 통해 확인하고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마티스, **붉은 방**(캔버스에 유채/180.5x221cm/1908년 작)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를 전면에 사용함.



피카소, **칸바일라의 초상**(캔버스에 유채/100.4x72.4cm/1910년 작)
 회색과 갈색 톤으로 색채를 억제하고 형태와 공간의 분석에 집중함.

● 피카소 / 아비뇰의 아가씨들

피카소가 소년 시절을 보낸 바르셀로나의 빈민가 아비뇰은 밤의 여인들이 선원을 상대하는 집들이 늘어난 곳으로 환락과 폭력으로 물든 어수선한 동네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불안한 시대 상황 속에서 유년 시절에 본 아비뇰의 여인들과 꽃다발, 과일 광주리를 통해 쾌락을 상징했다. 그러나 왼편의 여인이 손으로 받든 시체는 이 세상의 어떤 쾌락도 항상 죽음의 그림자에 위협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그림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정면성의 법칙, 흑인 조각이나 가면이 지니는 영적인 상징성, 고갱의 원시적인 소박성 등 온갖 요소가 어우러져 하나의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주의, 구축주의: 움직임과 역동성을 강조한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미술과 기계문명의 힘과 역사의 진보를 표현한 러시아의 구축주의 미술을 감상하고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보초니 / 공간에서 연속성을 보여 주는 특이한 형태

미래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다리를 불꽃같이 펄럭이며 공간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타틀린 /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를 위한 모델

유리,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산업 소재로 3차원적인 작품을 구축하고자 했던 타틀린은 거대한 기념비가 움직이도록 구상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타틀린은 이 기념비를 통해 1917년 새롭게 탄생한 소련의 역동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추상 회화: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기하학적 도형이나 유기적인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추상 회화를 감상하고 그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과 칸딘스키의 유기적 추상 비교 감상 포인트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에서 각각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를 찾아보고 이를 비교 감상하며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몬드리안, 빨강, 노랑, 파랑이 있는 구성 III (1930)

수평선, 수직선, 사각형 등 기하학적인 형태가 두드러지고 색의 삼원색과 흰색, 검은색이 사용되어 균형, 조화, 대비의 조형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음.



칸딘스키, 구성 V (1911)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유기적인 곡선과 산이나 사람 같은 형태를 변형한 듯한 형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에너지가 충만한 역동성과 생동감이 넘침.

● 몬드리안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몬드리안은 입체주의 그림을 접한 후 나무를 소재로 점차적으로 단순화 과정을 거쳐 기하학적인 조형을 이루어내는 '나무' 연작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수직선, 수평선,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한 그의 단순한 기하학적 추상화에 도달하게 된다. <회색 나무>에서는 아직 구상의 요소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추상 회화에서는 재현적인 요소를 완전히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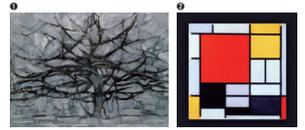
다다, 초현실주의: 포토몽타주와 레디메이드 같은 도전적인 방식을 쓰는 다다와 꿈의 세계, 무의식의 영역을 가시화하는 초현실주의 미술을 감상하고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뒤샹 / 샘

뒤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1910년대의 반예술 운동인 다다의 중심 인물이었다. 뒤샹은 작품에 대한 착상이나 선택의 과정을 완성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 '레디메이드(기성품)'이라는 새 장르를 개척하게 되었다. 당시 평론가들은 예술을 모독하였다 하여 거친 비판을 퍼부었고 결국 전시회 출품을 거절당했지만,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존의 제품을 선택하여 도구의 성격을 없애고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세기의 미술 | 추상 회화의 탄생

20세기 초 유럽에서는 대상의 외형보다는 자연의 내적인 원리나 예술가의 정신적인 세계를 순수한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추상 회화가 탄생하였다. 몬드리안의 데 스틸, 칸딘스키가 이끈 청기사 그룹,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 쿠르투의 오프르즘은 대표적인 추상 회화 사조이다.



몬드리안(Mondrian, Piet) 네덜란드 / 1872-1944 | ① 회색 나무(칸버스에 유채) / 79.7x 109cm / 1911년 작 | ②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칸버스에 유채) / 54x54cm / 1930년 작



쿠르투(Kupka, Frantisek) 체코 / 1871-1957 | ③ 눈의 환상(칸버스에 유채) / 70.3x73.7cm / 1922년 작



말레비치(Malevich, Kazimir Severinovich) 러시아 / 1878-1935 | ④ 절대주의 회화: 하늘을 나는 비행기(칸버스에 유채) / 58.4x48.3cm / 1915년 작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 러시아-프랑스 / 1866-1944 | ⑤ 구성 VII(칸버스에 유채) / 200x300cm / 1913년 작

20세기의 미술 | 다다와 초현실주의

제1차 세계 대전 중 유럽에서 출현한 다다는 기존의 문화적 전통을 강하게 비판하며 레디메이드와 같은 도전적인 미술을 시도했다. 이를 이어받은 초현실주의 미술은 무의식의 세계를 원시적으로 표현하거나 낯설고 기이한 오브제를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질문을 제기하였다.



① 회화(Hoch, Hannah) 독일 / 1889-1978 | 부엌 길르 치른 플라워(종이) / 14x90cm / 1919-1920년 작
② 뒤샹(Duchamp, Marcel) 미국 / 1887-1968 | 생레디메이드(6.3x48x35cm) / 1917년 만든 1964년 재제작



달리(Dali, Salvador) 에스파냐-미국 / 1904-1989 | 해변의 얼굴과 과일 접시의 환영(캔버스에 유채) / 114.8x143.8cm / 1938년 작



미로(Miró, Joan) 에스파냐 / 1893-1983 | 어릿광대의 사육제(캔버스에 유채) / 66x93cm / 1924-1925년 작



오펜하임(Oppenheim, Meret) 스위스 / 1913-1985 | 오펜하임 모리호 원 어릿 성새도끼를 머문 컵잔과 반점 스푼(높이 7.3cm) / 1936년 작

● 달리 / 해변의 얼굴과 과일 접시의 환영

달리는 초현실주의 작가로 꿈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 상태를 모방하려 했다. 그는 서로 모순되는 현실의 단편들을 놀랍도록 잘 섞어 치밀하고 정교하게 묘사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해변에 놓여 있는 과일 접시가 동시에 여인의 얼굴로 보이는 이중 시각(double vision)을 마치 생생한 꿈처럼 세밀하게 그려놓았다.

추상 표현주의, 앵포르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추상 표현주의 미술과 앵포르멜 미술을 비교 감상하고 유연성과 비정형 등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 폴록 / 가을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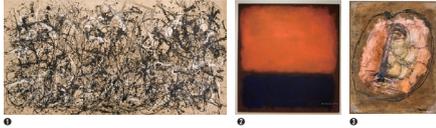
색스 폴록은 바다에 펼쳐 놓은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거나 떨어뜨리는 드립 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거대한 회화를 제작하였다. 물감을 뿌리는 폴록의 행위는 거의 춤과 흡사할 정도여서 이후 해프닝과 같은 행위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 폴록의 회화는 우연적인 동작과 즉흥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철저한 의도와 치밀한 힘의 조절이 내재되어 있어 우연성과 필연성의 완벽한 조화를 느끼게 한다.

● 포트리에 / 인질의 머리, No.1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며 <인질들> 연작을 그린 장 포트리에에는 유럽의 앵포르멜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석고 반죽을 문겨 바르고 파스텔 가루를 뿌리거나 붓으로 윤곽을 그리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작업한 전

20세기의 미술 | 추상 표현주의와 앵포르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미국의 뉴욕에서 출현한 추상 표현주의 회화는 벽화에 가까울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에 즉흥적인 붓터기나 서정적인 색면을 사용하여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이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형상이 해체된 앵포르멜 미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장 뒤뷔페, 장 포트리에 등 앵포르멜 미술가들은 비정형화된 형식과 거친 문성을 통해 진경의 파괴와 상흔을 표현하였다.



● **폴록**(Pollock, Jackson/미국/1912~1956) **가을 리듬**(캔버스에 에나멜 페인트/266.7x225.8cm/1956년 작) 뉴욕 앵포르멜주의 미술인 폴록은 혁신적인 붓터기 기법을 사용하여 혼돈과 질서가 절묘하게 결합된 새로운 추상 회화를 개척했다.
● **로스코**(Rothko, Mark/미국 - 미국/1903~1970) **No.14**(캔버스에 유채/221x268cm/1960년 작)
● **포트리에**(Fautrier, Jean/프랑스/1896~1964) **인간의 머리, No.1**(종이에 혼합재료/34.9x 27.3cm/1944년 작)

20세기의 미술 |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

1960년대를 풍미한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는 20세기 후반 대중문화와 산업 사회의 특징을 적극 수용하였다. 팝 아트가 영화배우의 사진이나 만화 이미지를 차용했다면, 미니멀 아트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벽돌 같은 산업 재료를 단순 반복하는 형식을 취했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가장 아름다운 문물**(캔버스에 스크린 프린트/96.5x50.8cm/1967년 작) 대중 스타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인간의 의로움을 인공적인 색채의 실크 스크린으로 표현하였다.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Roy/미국/1923~1997) **행**(캔버스에 아크릴과 유채/172.7 x 406.4cm/1963년 작)
저드(Judd, Donald/미국/1928~1994) **무제**(황동, 플렉시 글라스, 강철 받침대/295.9x61x68.6cm/1969년 작) 텍스 형태의 기본 요소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배치한 대표적인 미니멀 아트 작품이다.



더 알아보기 | 원주인의 미술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회화

폴록은 현대 미술에서 가장 혁신적인 화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캔버스를 바닥에 펼쳐 놓고 붉은 에나멜 페인트를 흠뿌리거나 떨어뜨리는 방식은 전통적인 아방 화회의 형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제작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바닥에 모래를 뿌려 상징적인 그림을 그리던 미국의 원주민 나바호 족의 미술이었다. 폴록은 서양 미술의 규범이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미국 원주민의 미술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역선 페인팅을 제작하는 잭슨 폴록, 1950년 한스 나우스의 사진

쟁의 참혹한 아픔을 비정형적인 추상으로 표현하였다.

팝 아트, 미니멀 아트: 대중문화와 산업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1960년대의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를 비교 감상하며 각각의 조형적인 특징을 이해한다.

팝 아트와 미니멀 아트의 비교 감상 포인트

대중문화의 스타 얼굴 등 대상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워홀의 그림은 기하학적인 금속 박스를 배치한 저드의 조각과 매우 달라 보인다. 하지만 실크 스크린이라는 복제 방식을 통해 회화를 대량으로 반복해서 찍어내는 워홀의 그림은 금속 박스를 기계적으로 반복 배치한 저드의 작품과 유사성을 지닌다. 두 작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워홀, 마를린 이면화(캔버스에 실크 스크린/205.4x289.5cm/1962년 작)
저드, 무제(스테인리스 스틸, 플렉시 글라스/86.4x86.4x86.4cm 유닛 6개/1968년 작)

● 워홀 / 마를린 몬로

“당신이 팝 아트를 보는 순간 미국을 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예술을 ‘세상의 거울’이라고 칭했던 워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대량 생산하였다. 마를린 먼로가 의문사

한 후에는 즉각적으로 그녀를 작품에 등장시켰고, 스타뿐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나 지명 수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 저드 / 무제

저드는 기계로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 유리, 합판 상자 등을 이용하여 벽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치하는 미니멀 작품을 제작하였다.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화가의 감정, 개성, 알아볼 수 있는 형상들을 일체 제거하고 상업적으로 생산된 재료들을 이용하여 제작한 후 대부분 좌대 없이 바닥에 바로 놓거나 야외에 설치하였다. 그들은 관객이 실제 공간에 좌대나 액자 없이 놓인 미니멀 작품을 물리적인 대상처럼 체험할 것을 강조한다.

20세기의 미술: 완성작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개념, 과정과 행위, 자연으로의 확장 등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추구하는 개념 미술, 행위 미술, 대지 미술을 감상하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개념 미술, 행위 미술 감상 포인트

개념 미술과 행위 미술을 감상하면서 개념이나 행위만으로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토론하고 각 모둠의 의견을 발표해 본다.

● 홀저 / 경구

페미니즘 미술의 대표 작가인 홀저는 짧은 격언 형태의 문구들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이 문구들을 도시 곳곳의 빌보드나 축구 경기장의 광고판을 이용해 대중적인 공공장소에 제시한다. 최근에는 미술관 벽면과 바닥, 천정 등 전체 공간을 활용하여 LED 전광판에 의미심장한 문구나 공적인 문서의 내용을 띄우는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쿠르거 / 무제(당신의 육체는 전전터다)

미국의 제 1세대 페미니즘 미술가인 그녀의 이 작품은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절반은 양화, 절반은 음화로 표현된 얼굴 배경에 흑색과 적색을 극적으로 대비시켰다. 힘이 넘치는 이 작품은 정치 선전화로 쓰이며 널리 알려졌는데, 이 작품의 의도는 그녀가 1989년 낙태 권리 회복 시위를 위한 선전화로 쓰려고 다시 꾸미면서 명백해졌다. 하지만 하나의 얼굴에 대립되는 두 개의 명암 구도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작품은 남성/여성, 미술/사진, 자아/타아, 모던/포스트모던 등 갖가지 의미들을 떠오르게 한다.

● 드마리아 / 번개 치는 들판

미국의 대지 미술 작가인 드마리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길이 1.6km, 폭 1km의 뉴멕시코의 광활한 들판에 높이 7m의 스테인리스 스틸 봉 400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 대지 미술 작품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스테인리

탐구 활동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 제작하기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미술가의 미술 작품을 탐색하여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자. 완성된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에 다 같이 감상한 후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이야기해 보자.

모둠 탐구 활동 과정

- 1 EBS 지식 채널 e의 미술사 동영상 감상 후 토의를 통한 주제 선정
- 2 스마트기기 도서관 등을 이용한 자료 탐색
- 3 자료 정리 및 스토리 보드 구성
- 4 편집 및 효과 삽입
- 5 완성
- 6 감상 후 의견 나누기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 보는 사람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정리한 계획표를 말한다. 스토리보드에는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에 맞게 주요 장면에 들어갈 화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화면에 적합한 자막과 해설을 작성한다.

모듬명	이중섭과 박수근의 작품 세계			순서	4페이지
장면 번호	화면	자막	해설	시간	
01-3		(시청과 여인) (여기보는 소녀)	서민의 일상물 마스 한 반달로 그려낸 박수근 고난했던 삶의 표정 을 여자들의 서로 화강암 절간에 굽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3초	
01-4		(영아 있는 여인)	인간 끝면의 소박 한 모습을 광범위 이 보여 준다.	2초	

동영상 제작 과정



① 미술사 주제 선정



② 인터넷과 책을 통한 자료 수집

③ 스토리보드 만들기

④ 자료 편집 및 효과 삽입

⑤ 최종 검토 및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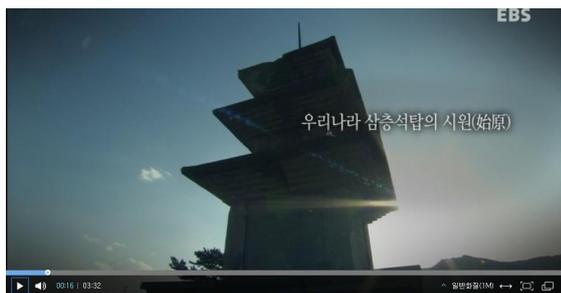
탐구 활동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 제작하기

모듬 별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 사조 등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3분 정도 길이의 '미술사 지식 나눔 동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해 본다.

| 탐구 활동 과정 |

- 1 EBS 지식채널 e에 소개된 다양한 미술사 동영상 감상한 후 각 모듬 별로 이제까지 배운 한국, 동양, 서양 미술사 중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한다.
- 2 자료 탐색은 도서관의 도서 자료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 제공된 정보 및 이미지를 선택하여 내용에 맞게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3 스토리보드 구성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캡션을 삽입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인지, 직접 목소리로 캡션 내용을 읽어 음성을 삽입할 것인지, 또 어떤 효과음악을 넣어 영상의 효과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시간대별로 기록함으로써 편집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도한다.
- 4 동영상 완성 후에는 함께 감상하며 미술사 지식 나눔을 통해 배운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 학습 자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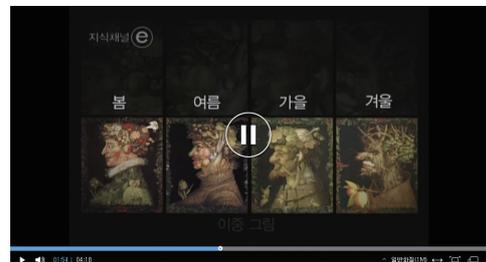
문화유산 시리즈 - 검은사 삼층 석탑



문화유산 시리즈 - 비례, 균형, 조화의 불국사



문화유산 시리즈 - 민화에는 조형의 해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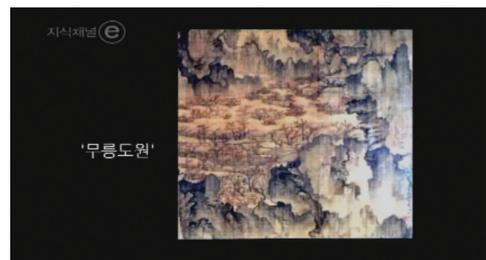
지식채널 e Life - 이중 그림



지식채널 e Life - 프리다



지식채널 e Life - 빨간 수목화



지식채널 e Life - 가운데 그림

*참고 사이트: <http://www.ebs.co.kr>

■ 지식 창고

영상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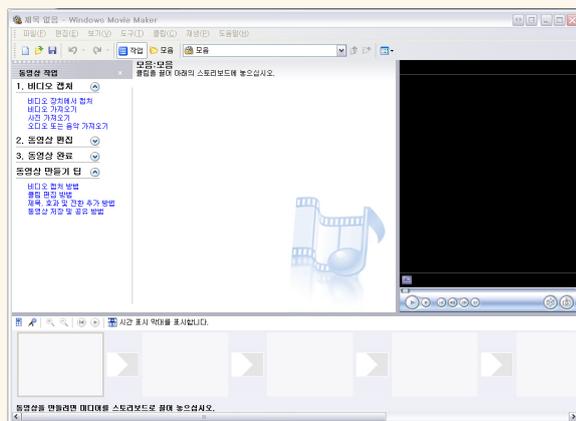
- ① 기획 - 기획안 작성, 제작 협의 등 사전 제작 준비
- ② 대본 - 시나리오 작성, 콘티, 내레이션, 스태프 및 출연진 결정
- ③ 촬영 - 연출 및 촬영
- ④ 편집 - 컷 편집, CG 작업, 특수 효과, 음향 편집, 녹음 더빙 작업 등
- ⑤ 완성 - 수정 및 완성

영상 편집의 종류

- ① 결합(Combine)- 편집 시 적절한 순서에 따라 장면별로 짜 맞춰 프로그램의 부분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② 손질(Trim)- 영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잘라내어 말끔히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정(Correct)- 잘못 촬영한 부분이나 수정해야 할 곳을 원하는 장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잘라내는 것이 아닌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 ④ 구성(Build)- 이미 촬영이 완료된 수많은 화면들을 이용하여 다시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 작업은 촬영된 장면들을 세심하게 프리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종류

① 윈도 무비 메이커(Windows Movie M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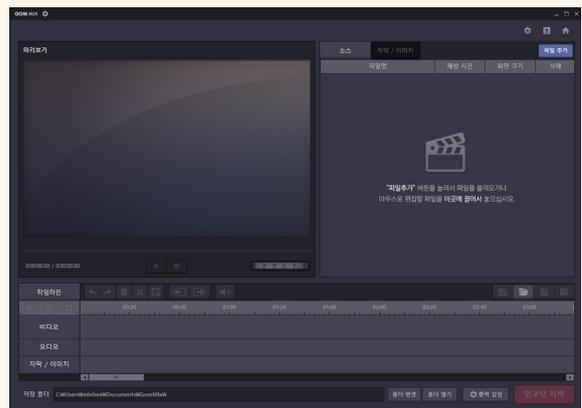
비디오카메라나 DV캠 등의 비디오 영상을 쉽게 편집,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뵈믹스(Vapmix)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동영상 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③ 고크믹스(GOM Mix)



간편하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상 자르기, 배경 음악 추가, 자막 삽입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④ 밴디컷(Bandicut)



인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아 화질의 손상 없이 동영상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

⑤ 샤나인코더(ShanaEncoder)



별도의 코덱이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동영상, 오디오 인코딩이 가능한 프로그램